
2021

목포지역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들어가며

청소년노동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에 대두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시민 사회 및 노동조합·노동운동단체, 인권운동단체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IMF이후 한국사회의 고용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의 아르바
이트는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나 노동인
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지원을 하는 기관은 미비했다.

한편으로는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이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빙자한 노동착취라
는 인식이 강해졌으며, 현장실습으로 인한 학생들의 죽음이 이를 증명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활동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국적으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시
민·사회 단체·노동운동단체·교육운동단체·인권운동단체 등의 활동으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다.

2016년 이후부터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이 시작되어 현재 광역과 기초지방
자치단체 75곳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목포는 2016년 8월에 목포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광역과 기
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단체 중 매우 선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례에 의해 2018년과 2021년 목포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고 청소년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되었다.

이번에 진행한 목포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의해 자발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시기에 해당하며, 아르바이트
경험 가능성과 교육의 정도, 참여자의 밀집도, 조사에 대한 집중도를 생각하여
목포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목포지역의 15세~24세의 인원은 약 2만6천명(2019년 목포시 홈페이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연령대 청소년 중 누구라도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가능하다.

목포지역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의 역할
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디 이 보고서가 청소년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센터장 양현주

Contents

I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2
2. 응답자 현황 6

II

조사 결과

1. 일반 현황 10
2. 노동(일) 인식 및 평가 24
3. 노동인권 교육 60
4. 아르바이트 인식 78
5. 현장실습과 진로 91
6. 아르바이트 실태 98

III

요약 및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144
2. 제언 153

IV

부록

설문지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 조례

〈표 목차〉

<표 I-1> 조사 항목 및 내용	3
<표 I-2> 조사 개요	4
<표 I-3> 성별 분포	6
<표 I-4> 고등학교 유형별 분포	7
<표 I-5> 성별에 따른 고교 유형	8
<표 II-1> 가구 구성원	10
<표 II-2> 보호주체	12
<표 II-3> 경제활동 인원	14
<표 II-4> 월수입 인지	16
<표 II-5> 코로나 19 영향	18
<표 II-6> 월 생활비	20
<표 II-7> 졸업 이후 목표 거주 계획	22
<표 II-8> 노동하면 떠오르는 생각	24
<표 II-9> 노동하는 이유	26
<표 II-10> 고민거리	28
<표 II-11> 노동관련 인식 (1)	30
<표 II-12> 노동관련 인식 (2)	31
<표 II-13> 노동자 권리 보장	32
<표 II-14> 노동자 보호보다 기업 보호 우선	34
<표 II-15>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36
<표 II-16>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38
<표 II-17>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차별	40
<표 II-18>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42
<표 II-19>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44
<표 II-20> 학벌 차별	46
<표 II-21> 노동조합 결성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48
<표 II-22> 플랫폼 노동자 권리 인정 및 보장	50
<표 II-23> 파업불편 감수	52
<표 II-24>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미지급은 부당	54
<표 II-25> 근로자와 노동자의 단어 인식	56
<표 II-26> 근로자와 노동자 중 올바른 단어	58
<표 II-27> 노동인권 교육 수강	60
<표 II-28> 동노동인권 교육 수강 기관(복수응답)	62
<표 II-29> 노동인권 교육 형태(복수응답)	64
<표 II-30> 노동인권 관련 항목 및 내용(복수응답)	66
<표 II-31>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	68
<표 II-32>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	70

<표 II-33> 선호하는 노동인권 교육 시작 시기	72
<표 II-34> 청소년노동인권 인지	74
<표 II-35> 노동인권 교육의 도움	76
<표 II-36>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	78
<표 II-37>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	80
<표 II-38> 사회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82
<표 II-39> 졸업 후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 필요성	84
<표 II-40> 구직 전망	86
<표 II-41>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항	88
<표 II-42> 적당한 일자리 조건(서술형)	90
<표 II-43> 취득자격증 및 취득예정 자격증 수(특성화고)	91
<표 II-44> 현장실습 필요성(특성화고)	92
<표 II-45> 원하는 현장실습 교육형태(특성화고)	94
<표 II-46> 진로관련 계획(특성화고)	96
<표 II-47>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98
<표 II-48> 아르바이트 경험 기간	100
<표 II-49> 아르바이트 시급 수령(2018년)	102
<표 II-50> 아르바이트 시급 수령(2019년)	102
<표 II-51> 아르바이트 시급 수령(2020년)	103
<표 II-52> 아르바이트 시급 수령(2021년)	103
<표 II-53> 아르바이트 요일 분포	104
<표 II-54>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	106
<표 II-55>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108
<표 II-56> 아르바이트 구직 방법(복수응답)	110
<표 II-57> 사업장 규모	112
<표 II-58>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직종) 복수응답	113
<표 II-59>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	114
<표 II-60>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물적피해시 보상 동의나 계약	120
<표 II-61> 아르바이트하는 이유	122
<표 II-62> 부당대우 경험 비율	124
<표 II-63> 인권침해 경험	126
<표 II-64> 노동인권 침해 시 대응	128
<표 II-65> 인권침해나 부당대우 대처	130
<표 II-66> 아르바이트 하면서 겪는 어려움	132
<표 II-67> 아르바이트 구직 시 고려사항	134
<표 II-68> 코로나로 인한 실직	136
<표 II-69> 코로나로 인한 구직 어려움	137
<표 II-70> 아르바이트하면서 느꼈던 가장 필요한 사항	139
<표 II-71>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노동인권 상담기관	140

〈그림 목차〉

<그림 I-1> 성별 분포	6
<그림 I-2> 고교 유형 분포	7
<그림 I-3> 성별에 따른 고교 유형	8
<그림 II-1> 가구 구성원(전체)	11
<그림 II-2> 가구 구성원(성별)	11
<그림 II-3> 가구 구성원(고교유형별)	11
<그림 II-4> 보호자 주체 및 보호자 유형(전체)	13
<그림 II-5> 보호자 주체 및 보호자 유형(성별)	13
<그림 II-6> 보호자 주체 및 보호자 유형(고교유형별)	13
<그림 II-7> 경제활동 인원(전체)	15
<그림 II-8> 경제활동 인원(성별)	15
<그림 II-9> 경제활동 인원(고교유형별)	15
<그림 II-10> 월수입 인지(전체)	17
<그림 II-11> 월수입 인지(성별)	17
<그림 II-12> 월수입 인지(고교유형별)	17
<그림 II-13> 코로나 19 영향(전체)	19
<그림 II-14> 코로나 19 영향(성별)	19
<그림 II-15> 코로나 19 영향(고교유형별)	19
<그림 II-16> 월 생활비(전체)	21
<그림 II-17> 월 생활비(성별)	21
<그림 II-18> 월 생활비(고교유형별)	21
<그림 II-19> 목포 거주 계획 및 거주 의향이 없는 이유(전체)	23
<그림 II-20> 목포 거주 계획 및 거주 의향이 없는 이유(성별)	23
<그림 II-21> 목포 거주 계획 및 거주 의향이 없는 이유(고교유형별)	23
<그림 II-22> 노동하면 떠오르는 생각	25
<그림 II-23> 노동하는 이유(1+2+3순위)	27
<그림 II-24> 고민거리(1+2순위)	29
<그림 II-25> 노동관련 인식 개관(5점 척도)	31
<그림 II-26> 노동자 권리 보장(전체)	33
<그림 II-27> 노동자 권리 보장(성별, 고교유형별)	33
<그림 II-28> 노동자 보호보다 기업 보호 우선(전체)	35
<그림 II-29> 노동자 보호보다 기업 보호 우선(성별, 고교유형별)	35
<그림 II-30>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전체)	37
<그림 II-31>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성별, 고교유형별)	37
<그림 II-32>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전체)	39
<그림 II-33>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성별, 고교유형별)	39
<그림 II-34>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차별(전체)	41

<그림 II-35>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차별(성별, 고교유형별)	41
<그림 II-36>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전체)	43
<그림 II-37>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성별, 고교유형별)	43
<그림 II-38>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전체)	45
<그림 II-39>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성별, 고교유형별)	45
<그림 II-40> 학벌 차별(전체)	47
<그림 II-41> 학벌 차별(성별, 고교유형별)	47
<그림 II-42> 노동조합 결성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전체)	49
<그림 II-43> 노동조합 결성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성별, 고교유형별)	49
<그림 II-44> 플랫폼 노동자 권리 인정 및 보장(전체)	51
<그림 II-45> 플랫폼 노동자 권리 인정 및 보장(성별, 고교유형별)	51
<그림 II-46> 파업불편 감수(전체)	53
<그림 II-47> 파업불편 감수(성별, 고교유형별)	53
<그림 II-48>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미지급은 부당(전체)	55
<그림 II-49>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미지급은 부당(성별, 고교유형별)	55
<그림 II-50> 근로자와 노동자의 단어 인식(전체)	56
<그림 II-51> 근로자와 노동자의 단어 인식(성별)	57
<그림 II-52> 근로자와 노동자의 단어 인식(고교유형별)	57
<그림 II-53> 근로자와 노동자 중 올바른 단어(전체)	58
<그림 II-54> 근로자와 노동자 중 올바른 단어(성별)	59
<그림 II-55> 근로자와 노동자 중 올바른 단어(고교유형별)	59
<그림 II-56> 노동인권 교육 수강(전체)	60
<그림 II-57> 노동인권 교육 수강(성별)	61
<그림 II-58> 노동인권 교육 수강(고교유형별)	61
<그림 II-59> 노동인권 교육 수강 기관(전체)	62
<그림 II-60> 노동인권 교육 수강 기관(성별)	63
<그림 II-61> 노동인권 교육 수강 기관(고교유형별)	63
<그림 II-62> 노동인권 교육 형태(전체)	64
<그림 II-63> 노동인권 교육 형태(전체)	65
<그림 II-64> 노동인권 교육 형태(고교유형별)	65
<그림 II-65> 노동인권 관련 항목 및 내용	67
<그림 II-66>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전체)	68
<그림 II-67>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성별)	69
<그림 II-68>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고교유형별)	69
<그림 II-69>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1+2순위)	71
<그림 II-70> 선호하는 노동인권 교육 시작 시기	72
<그림 II-71> 선호하는 노동인권 교육 시작 시기(성별)	73
<그림 II-72> 선호하는 노동인권 교육 시작 시기(고교유형별)	73
<그림 II-73> 청소년 노동인권 인지도(전체)	74

<그림 Ⅱ-74> 청소년 노동인권 인지도(성별)	75
<그림 Ⅱ-75> 청소년 노동인권 인지도(고교유형별)	75
<그림 Ⅱ-76> 노동인권 교육의 도움(전체)	77
<그림 Ⅱ-77> 노동인권 교육의 도움(성별, 고교유형별)	77
<그림 Ⅱ-78>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전체)	78
<그림 Ⅱ-79>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전체)	80
<그림 Ⅱ-80> 사회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전체)	83
<그림 Ⅱ-81> 졸업 후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 필요성(전체)	84
<그림 Ⅱ-82> 졸업 후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 필요성(성별)	85
<그림 Ⅱ-83> 졸업 후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 필요성(고교유형별)	85
<그림 Ⅱ-84> 구직 전망(전체)	86
<그림 Ⅱ-85> 구직 전망(성별)	87
<그림 Ⅱ-86> 구직 전망(고교유형별)	87
<그림 Ⅱ-87>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항(전체)	88
<그림 Ⅱ-88> 평균 자격증 수	91
<그림 Ⅱ-89> 현장실습 필요성(전체)	92
<그림 Ⅱ-90> 현장실습 필요성(성별)	93
<그림 Ⅱ-91> 원하는 현장실습 교육형태	94
<그림 Ⅱ-92> 원하는 현장실습 교육형태(성별)	95
<그림 Ⅱ-93> 진로관련 계획(전체)	96
<그림 Ⅱ-94> 진로관련 계획(성별)	97
<그림 Ⅱ-95>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전체)	98
<그림 Ⅱ-96>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성별)	99
<그림 Ⅱ-97>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고교유형별)	99
<그림 Ⅱ-98> 아르바이트 경험 기간(연도별)	100
<그림 Ⅱ-99> 아르바이트 경험 기간(월별)	101
<그림 Ⅱ-100> 아르바이트 요일 분포	104
<그림 Ⅱ-101> 아르바이트 요일 분포(성별)	105
<그림 Ⅱ-102> 아르바이트 요일 분포(고교유형별)	105
<그림 Ⅱ-103>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전체)	106
<그림 Ⅱ-104>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성별)	107
<그림 Ⅱ-105>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고교유형별)	107
<그림 Ⅱ-106>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전체)	108
<그림 Ⅱ-107>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성별)	109
<그림 Ⅱ-108>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고교유형별)	109
<그림 Ⅱ-109> 아르바이트 구직 방법	111
<그림 Ⅱ-110>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평균)	112
<그림 Ⅱ-111>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직종) (전체)	114
<그림 Ⅱ-112>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직종) (남)	115

<그림 Ⅱ-113>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직종) (여)	115
<그림 Ⅱ-114>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직종) (인문계)	116
<그림 Ⅱ-115>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직종) (특성화)	116
<그림 Ⅱ-116>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전체)	118
<그림 Ⅱ-117>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성별)	119
<그림 Ⅱ-118>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고교유형별)	119
<그림 Ⅱ-119>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물적피해시 보상 동의나 계약(전체)	120
<그림 Ⅱ-120>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물적피해시 보상 동의나 계약(성별)	121
<그림 Ⅱ-121>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물적피해시 보상 동의나 계약(고교유형)	121
<그림 Ⅱ-122> 아르바이트하는 이유(전체)	122
<그림 Ⅱ-123> 아르바이트하는 이유(성별)	123
<그림 Ⅱ-124> 아르바이트하는 이유(고교유형별)	123
<그림 Ⅱ-125> 부당대우 경험 비율(전체)	125
<그림 Ⅱ-126> 인권침해 경험비율	126
<그림 Ⅱ-127> 인권침해 시 대응(전체)	128
<그림 Ⅱ-128> 인권침해나 부당대우 대처	130
<그림 Ⅱ-129> 아르바이트 하면서 겪는 어려움(1순위+2순위+3순위)	133
<그림 Ⅱ-130> 아르바이트 구직 시 고려사항(전체)	134
<그림 Ⅱ-131> 코로나로 인한 실직 비율	136
<그림 Ⅱ-132> 코로나로 인한 구직 어려움	137
<그림 Ⅱ-133> 코로나로 인해 구직이 어려운 비율(매우 힘들다+좀 힘들다)	138
<그림 Ⅱ-134>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노동인권 상담기관	140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응답자 현황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단시간 노동(아르바이트)을 하고 있으나 소위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노동에 대해 사회적 존중과 노동인권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노동차별과 노동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청소년들의 일, 노동과 관련한 일반적 인식과 청소년 노동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리 보호, 권익향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목포지역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의 인식 개선, 노동인권 존중으로 문화 변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나. 조사 대상 및 내용

- 조사 대상은 목포지역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임
-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
 - 노동(일)에 대한 질문
 -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질문
 - 아르바이트 인식에 대한 질문
 - 현장실습과 진로에 대한 질문(해당자에 한함)
 -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표 I-1】 조사 항목 및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기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고등학교 유형(인문계, 특성화) · 거주지(시/군, 동/면)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구성원, 보호자 형태 · 경제활동 인원, 가구의 월 수입 인지 · 코로나 19의 가정경제 영향, 월평균 생활비 · 고교 졸업 후 목표 거주계획, (목표 거주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
노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하면 떠오르는 생각, 사람들이 노동하는 이유 · 자신의 미래와 관련한 고민거리 · 노동(노동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노동인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인권 교육 수강 여부, 수강 기관, 수강 방식 및 형태 · 노동인권 교육 관련 항목 ·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 필요한 이유 · 선호하는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시기 ·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지 ·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수강 또는 수강하게 될 경우 실제 효과
아르바이트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 및 생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 고교 졸업 후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의 필요 · 고교 졸업 후 희망하는 일자리 구직 전망 · 사회가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 · 본인이 생각하는 일자리 조건(서술형)
현장실습과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취득한 자격증, 취득 예정 자격증 수 · 현장실습 교육의 필요성, 희망하는 교육형태 · 진로관련 내년 계획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요일, 주당 노동시간 및 시급 수령 · 아르바이트 횟수, 구직 방법, 사업장 규모, 아르바이트 종목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물적피해 보상 합의나 계약 여부 ·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 부당대우, 인권침해 경험 여부 및 대응방법 · 아르바이트 시 겪는 어려움, 아르바이트 구직 시 고려 사항 · 코로나 19로 인한 아르바이트 구직의 어려움, 해직 경험 · 아르바이트하면서 느끼는 필요 사항(서술형) ·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노동인권 지원 기관

【표 I-2】 조사 개요

 조사명	- 2021년 목포지역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조사 목적	-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파악하여,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 목포지역 고등학교 3학년 - 유효표본 962명(인문계 500명, 특성화 463명)
 표집 방법	- 할당 추출(quota sampling)
 조사 일시	- 2021년 5월 3일 ~ 6월 10일(39일간)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대면 조사
 통계 분석	-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교차, 평균 분석 실시

- 조사 문항은 선행연구 분석과 면접 조사(interview)를 거쳐 구성하고, 수정·보완함
- 조사는 2021년 5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유효표본은 전체 962명이며, 특성화고 463명, 인문계고 500명임
-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마이닝(mining)과 코딩,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함
- 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 analysis), 평균 분석(average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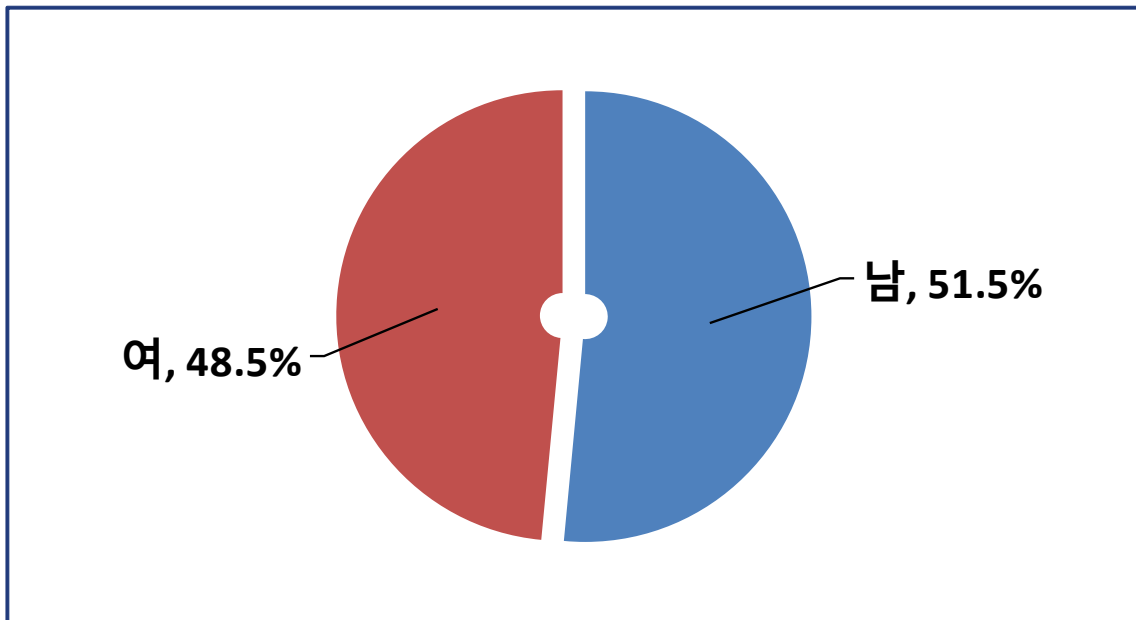
- 교차, 평균분석은 성별(남/여), 고교 유형(특성화, 인문계)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5점 평균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형태로 척도화하여 계산함
- 2개 이상을 선택하는 복수응답(multiple response) 항목은 범주의 사례 수를 전체 사례 수에 근거하여 백분율로 산출로 함. 케이스 퍼센트 기준으로, 전체 구성비가 100%를 초과함
- 순위를 선택하는 문항은 응답한 결과치에 대해 3순위까지 묻는 질문은 1순위 300%, 2순위 200%, 3순위 100%, 2순위까지 묻는 질문은 1순위 200%, 2순위 100%를 가중하여 집계함
- 통계표 및 도표에 사용된 기호 ‘-’ 는 해당 숫자 없음, ‘0’ 은 단위 미만을 뜻하며, 통계표 및 도표 내의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응답자 현황

가. 성별 분포

【표 I-3】 성별 분포

	사례 수(명)	비율(%)	유효(%)
남	490	50.9	51.5
여	461	47.9	48.5
무응답	12	1.2	-
전체	963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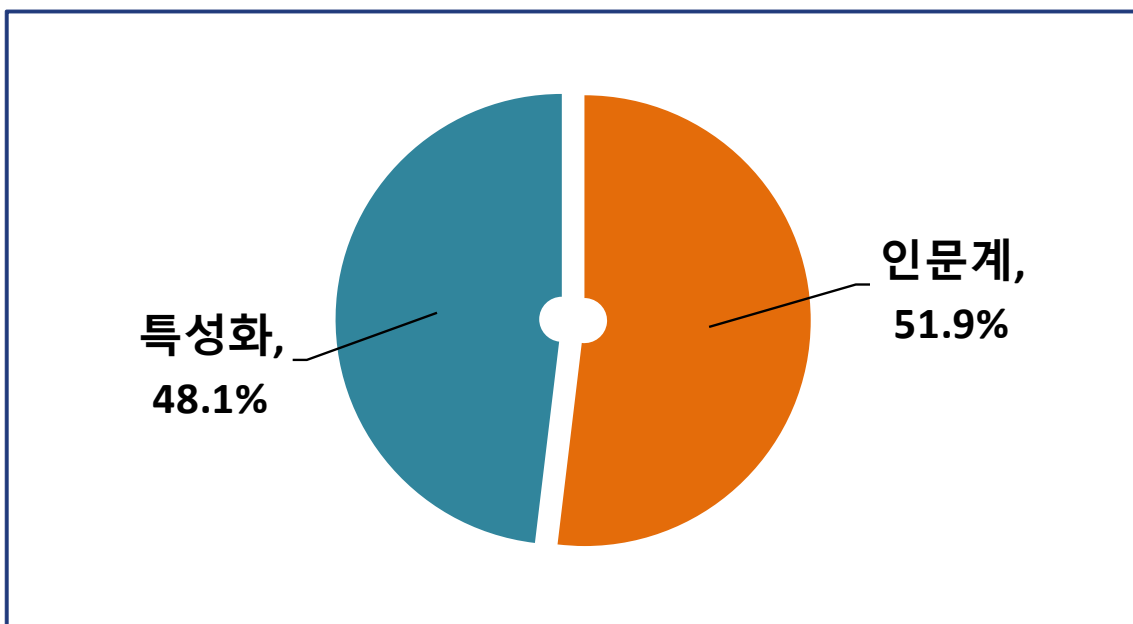
<그림 I-1> 성별 분포

- 전체 응답자 963명 가운데 남학생은 490명(50.9%), 여학생은 461명(47.9%), 무응답은 12명(1.2%)으로 나타남
- 무응답자를 제외하면, 남학생이 51.5%로 여학생(48.5%)보다 3%포인트 많은 것으로 조사됨

나. 고등학교 유형별 분포

【표 I-4】 고등학교 유형별 분포

	사례 수(명)	비율(%)
특성화	463	48.1
인문계	500	51.9
전체	9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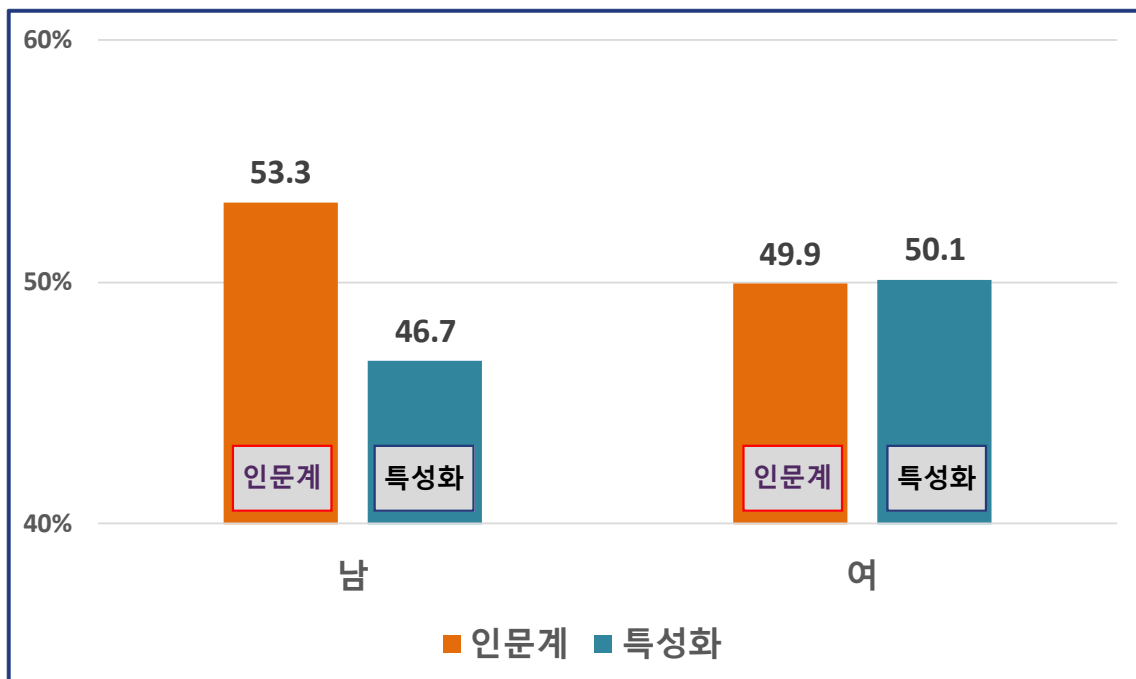
<그림 I-2> 고교 유형 분포

-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문계고 응답자는 500명(51.9%)임. 직업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응답자는 463명(48.1%)으로 파악됨

다. 성별과 고등학교 유형별 분포

【표 I-5】 성별에 따른 고교 유형

		인문계	특성화	전체
남	사례 수(명)	261	229	490
	비중(%)	53.3	46.7	100.0
여	사례 수(명)	230	231	461
	비중(%)	49.9	50.1	100.0
전체	사례 수(명)	491	460	951
	비중(%)	51.6	48.4	100.0



<그림 I-3> 성별에 따른 고교 유형

- 성별에 따른 응답자의 고등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인문계고 261명(53.3%), 특성화고 229명(46.7%)이며, 여학생은 인문계고 230명(49.9%), 특성화고 231명(50.1%)으로 나타남

제2장

조사결과

- 제1절 일반 현황
 - 제2절 노동(일) 인식 및 평가
 - 제3절 노동인권 교육
 - 제4절 아르바이트 인식
 - 제5절 현장실습과 진로
 - 제6절 아르바이트 실태
-



제2장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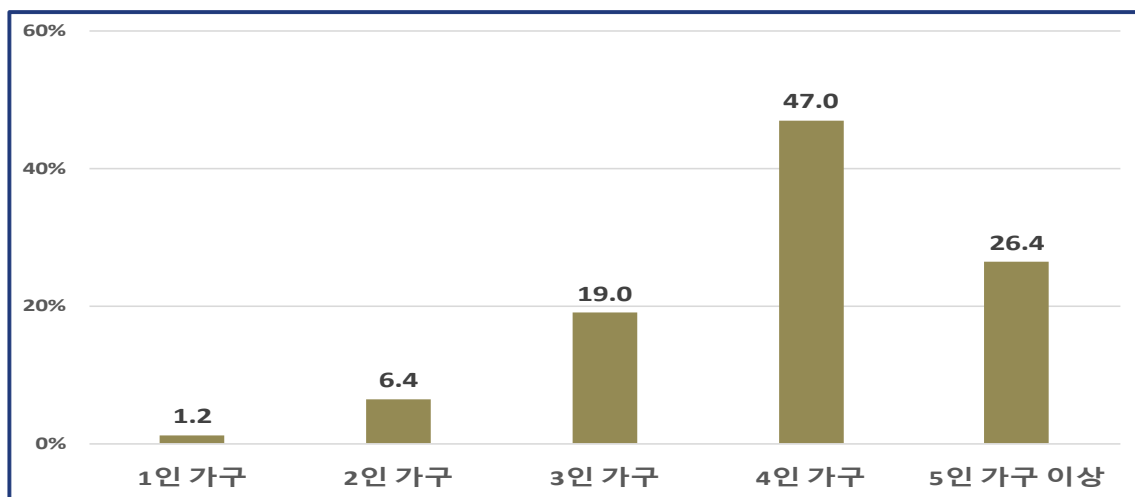
1 일반 현황

❖ 같이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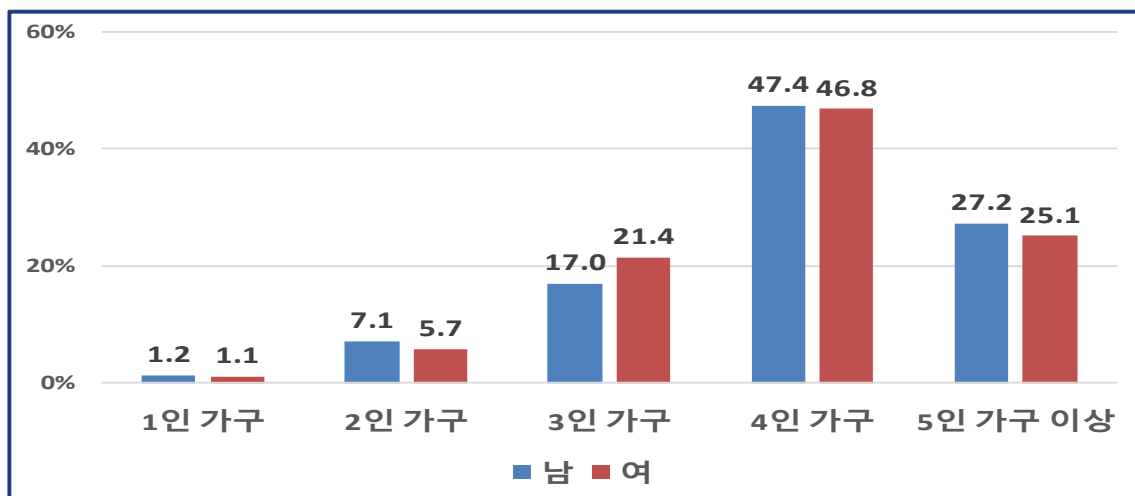
【표 Ⅱ-1】 가구 구성원

(단위: 명,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전체(n=952)		1.2	6.4	19.0	47.0	24.9	0.8	0.2	0.5
성별	남(481)	1.2	7.1	17.0	47.4	26.4	0.4	0.2	0.2
	여(459)	1.1	5.7	21.4	46.8	22.7	1.3	0.2	0.9
고교 유형	인문계(498)	0.2	4.0	15.9	54.2	24.7	0.0	0.0	1.0
	특성화(952)	2.2	9.0	22.5	39.0	25.1	1.8	0.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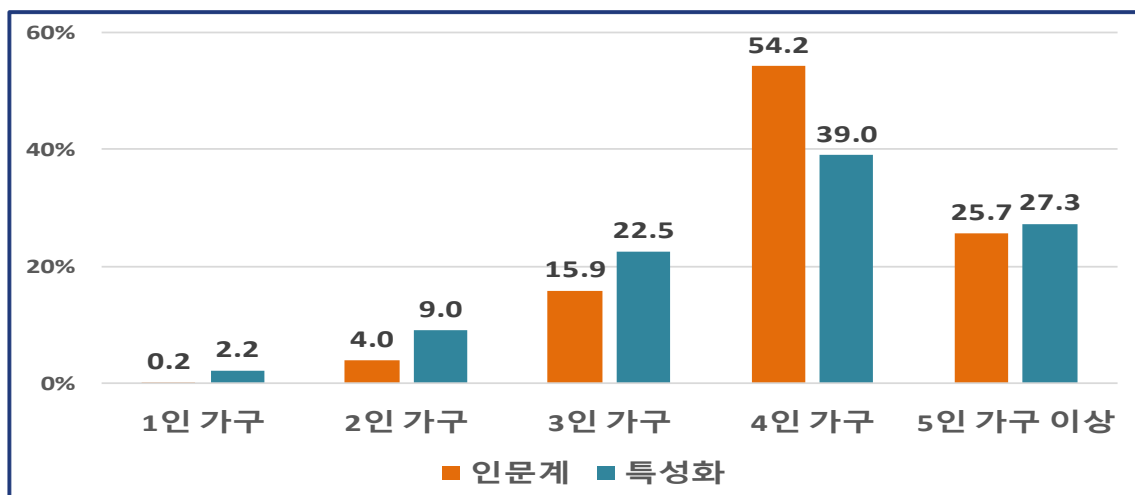
- 응답자 일반 현황과 관련하여, 같이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몇 명인지 질문한 결과, 4인 가구가 47.0%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5인 가구(24.9%), 3인 가구(19.0%), 2인 가구(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함께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 관련 남학생은 4인 가구(47.4%), 5인 가구(26.4%), 3인 가구(17.0%), 2인 가구(6.4%) 등의 순으로, 여학생은 4인 가구(46.8%), 5인 가구(22.7%), 3인 가구(21.4%), 2인 가구(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인문계고 4인 가구(54.2%), 5인 가구(24.7%), 3인 가구(15.9%), 2인 가구(4.0%) 등의 순으로, 특성화고는 4인 가구(39.0%), 5인 가구(25.1%), 3인 가구(22.5%), 2인 가구(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인 가구(혼자 생활함)나 2인 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특성화고가 높게 나타남



<그림 Ⅱ-1> 가구 구성원(전체)



<그림 Ⅱ-2> 가구 구성원(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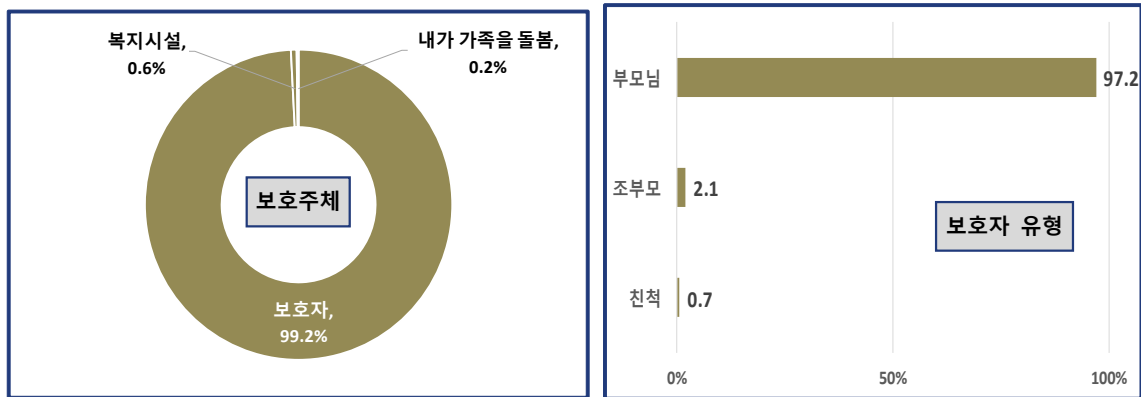
<그림 Ⅱ-3> 가구 구성원(고교유형별)

❖ 가구(나를 포함하여)를 돌보는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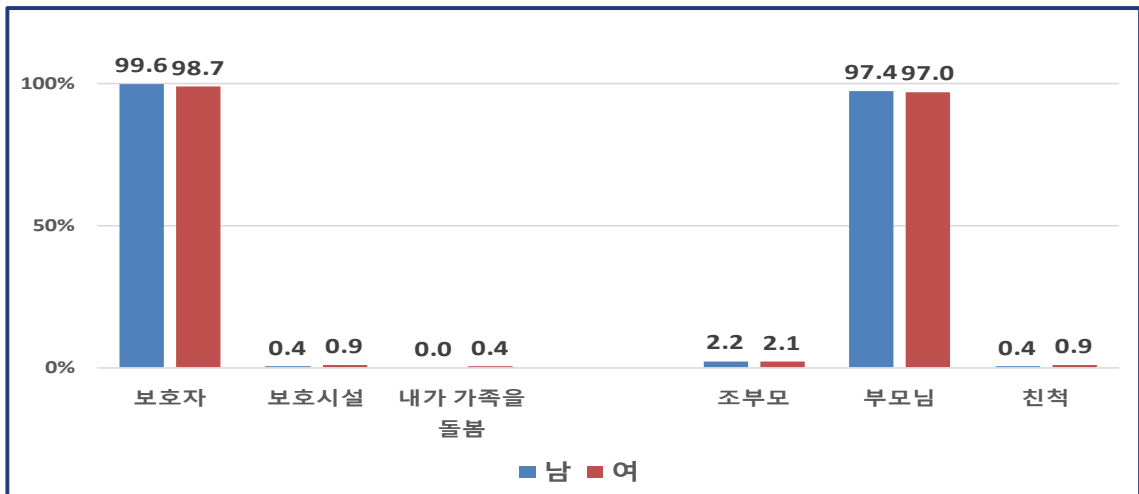
【표 Ⅱ-2】 보호주체

(단위: 명, %)		보호자	복지 시설	내가 가족을 돌봄	보호자		
					조부모	부모님	친척
전체(n=947)		99.2	0.6	0.2	2.1	97.2	0.7
성별	남(481)	99.6	0.4	0.0	2.2	97.4	0.4
	여(454)	98.7	0.9	0.4	2.1	97.0	0.9
고교 유형	인문계(498)	99.6	0.0	0.4	0.6	98.7	0.6
	특성화(449)	98.7	1.3	0.0	3.8	95.4	0.7

- 가구(나를 포함하여)를 돌보는 보호 주체를 살펴본 결과, 보호자가 9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지시설(0.6%), 내가 가족을 돌봄(0.2%) 순으로 나타남
- 보호자가 보호 주체인 경우는 남학생 99.6%, 여학생 98.7%, 인문계고 99.6%, 특성화고 98.7%임
- 보호 주체가 보호자라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호자를 살펴본 결과, 부모님이 9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부모(2.1%), 친척(0.7%) 등임
- 남학생의 보호자는 부모님(97.4%), 조부모(2.2%), 친척(0.4%) 순으로, 여학생도 부모님(97.0%), 조부모(2.1%), 친척(0.9%) 순으로 파악됨
- 특성화고는 부모님(95.4%), 조부모(3.8%), 친척(0.7%) 순으로, 인문계고 응답자의 보호자는 부모님(98.7%), 조부모와 친척(각 0.6%) 순으로 나타남
- 특성화고 학생의 보호자 가운데 조부모 비중이 인문계고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Ⅱ-4> 보호자 주체 및 보호자 유형(전체)



<그림 Ⅱ-5> 보호자 주체 및 보호자 유형(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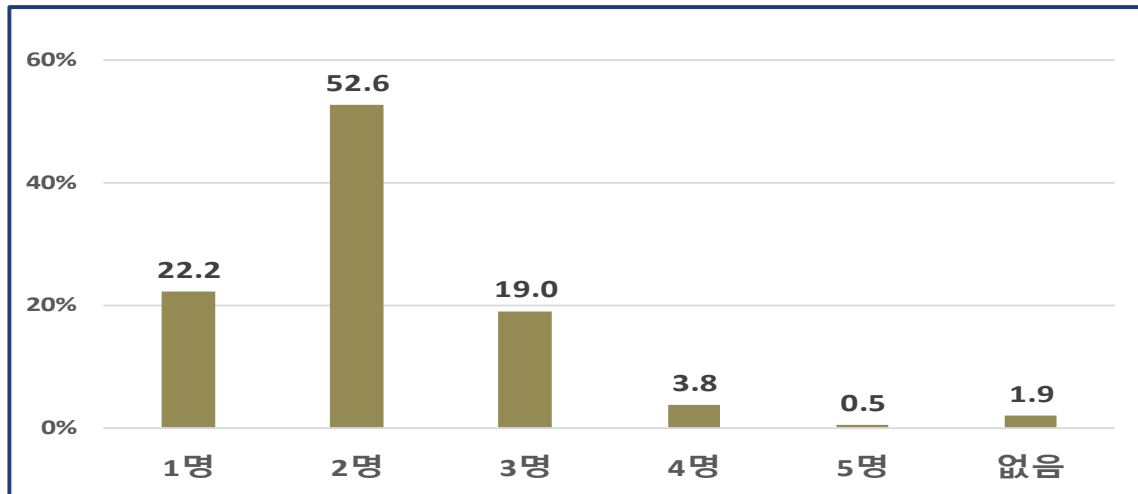
<그림 Ⅱ-6> 보호자 주체 및 보호자 유형(고교유형별)

◆ 가족 구성원 중 [본인 제외] 경제활동 사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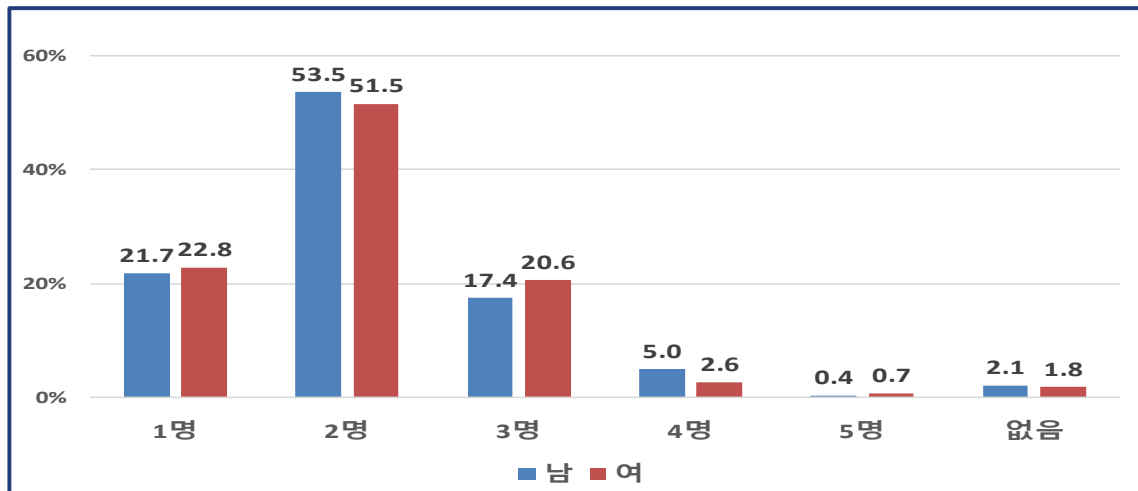
【표 Ⅱ-3】 경제활동 인원

(단위: 명, %)		1명	2명	3명	4명	5명	없음
전체(n=952)		22.2	52.6	19.0	3.8	0.5	1.9
성별	남(484)	21.7	53.5	17.4	5.0	0.4	2.1
	여(456)	22.8	51.5	20.6	2.6	0.7	1.8
고교 유형	인문계(496)	17.1	60.7	16.7	3.6	0.2	1.6
	특성화(456)	27.6	43.9	21.5	3.9	0.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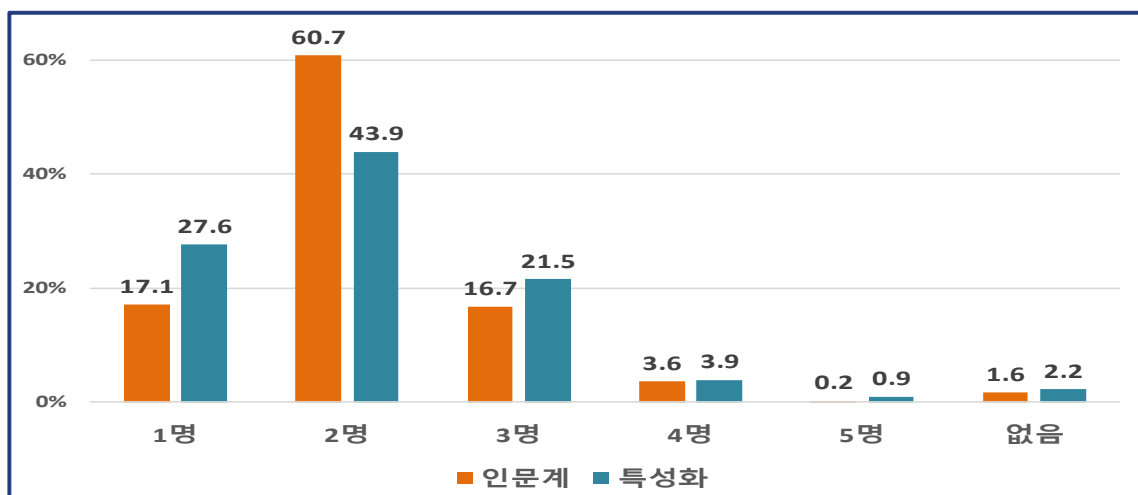
- 가족 구성원 중 응답자 본인을 제외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살펴 보면, 경제활동 인원 2명이 52.6%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1명(22.2%), 3명(19.0%), 4명(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1.9%로 파악됨
- 경제활동 인원을 성별 차원에서 살펴보면, 남학생은 2명(53.5%), 1명(21.7%), 3명(17.4%) 등의 순으로, 여학생은 2명(51.5%), 1명(22.8%), 3명(20.6%) 등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특성화고 학생은 2명(43.9%), 1명(27.6%), 3명(21.5%) 등의 순으로 분포함
- 인문계고 학생은 경제활동 인원 2명(60.7%), 1명(17.1%), 3명(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본인 제외하고, 가족 구성원 가운데 1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은 특성화고 학생 집단이 27.6%로 인문계고(1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Ⅱ-7> 경제활동 인원(전체)



<그림 Ⅱ-8> 경제활동 인원(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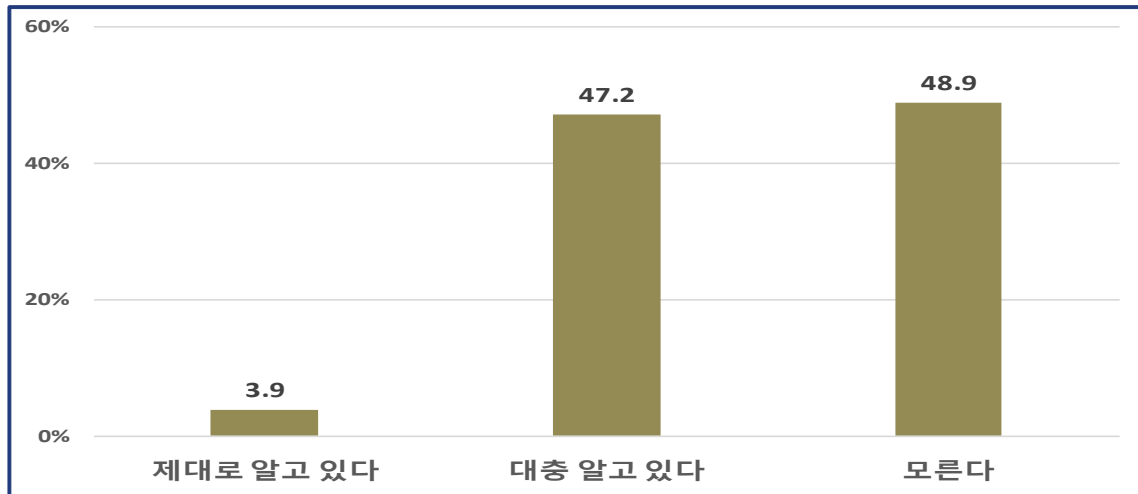
<그림 Ⅱ-9> 경제활동 인원(고교유형별)

❖ 가족 구성원 중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월수입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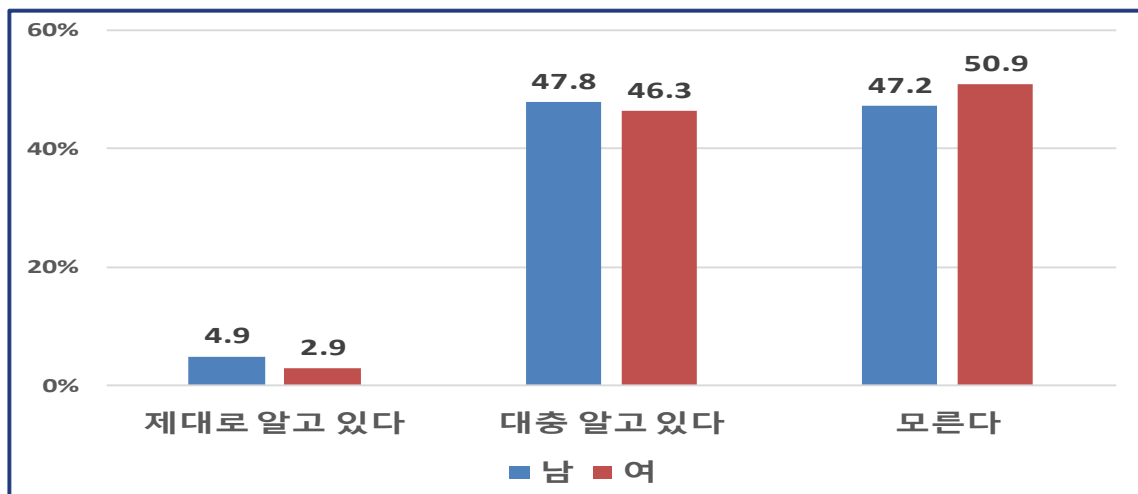
【표 Ⅱ-4】 월수입 인지

(단위: 명, %)		제대로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n=955)		3.9	47.2	48.9
성별	남(487)	4.9	47.8	47.2
	여(456)	2.9	46.3	50.9
고교 유형	인문계(496)	4.2	52.6	43.1
	특성화(459)	3.5	41.4	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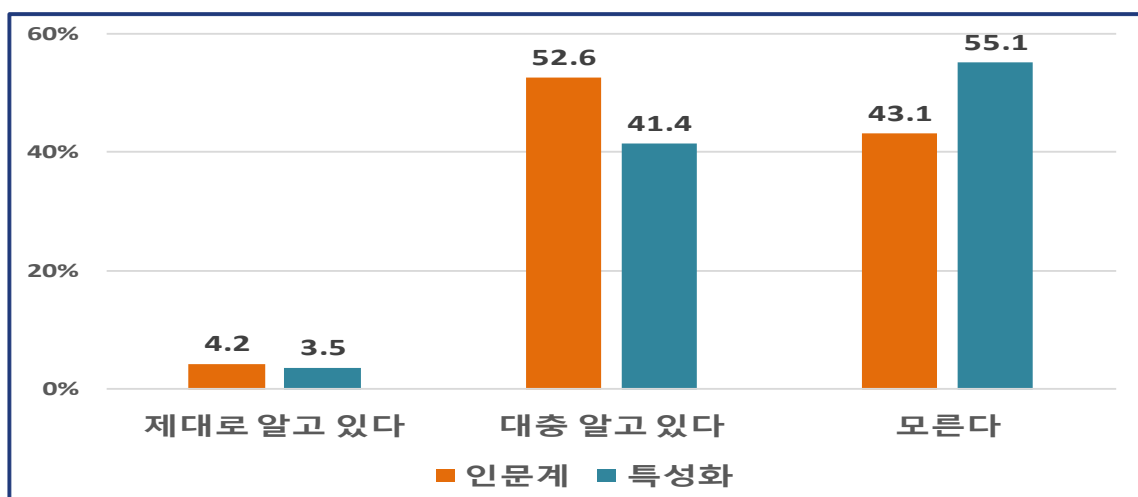
- 가구 구성원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월수입(모든 수입을 합한 금액)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 3.9%, ‘대충 알고 있다’ 47.2%, ‘모른다’ 48.9%로 나타남
- 가구 내 가족 구성원의 월수입을 ‘제대로 알고 있다’ 는 비율은 5% 미만으로 파악되었고, ‘모른다’ 는 응답은 거의 절반에 가깝게 나타남
- 월수입 인지와 관련, 남학생은 ‘대충 알고 있다’ (47.8%), ‘모른다’ (47.2%), ‘제대로 알고 있다’ (4.9%) 등의 순으로, 여학생은 ‘대충 알고 있다’ (46.3%), ‘모른다’ (50.9%), ‘제대로 알고 있다’ (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성화고 학생은 ‘대충 알고 있다’ (41.4%), ‘모른다’ (55.1%), ‘제대로 알고 있다’ (3.5%) 등의 순으로, 인문계고 학생은 ‘대충 알고 있다’ (52.6%), ‘모른다’ (43.1%), ‘제대로 알고 있다’ (4.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Ⅱ-10> 월수입 인지(전체)



<그림 Ⅱ-11> 월수입 인지(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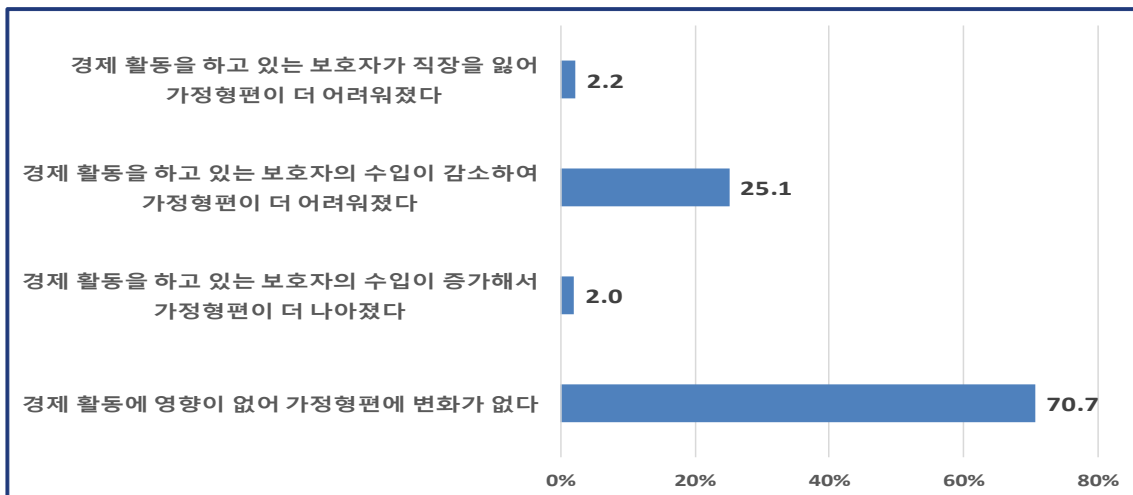
<그림 Ⅱ-12> 월수입 인지(고교유형별)

❖ 코로나 19가 가정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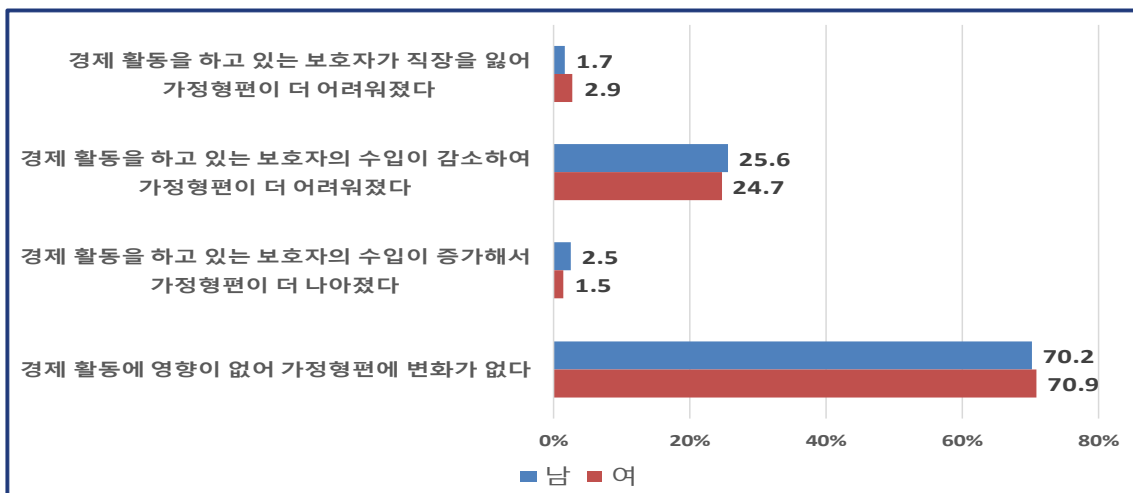
【표 Ⅱ-5】 코로나 19 영향

(단위: 명, %)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가 직장을 잃어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의 수입이 감소하여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의 수입이 증가해서 가정형편이 더 나아졌다	경제 활동에 영향이 없어 가정형편에 변화가 없다
전체(n=946)		2.2	25.1	2.0	70.7
성별	남(480)	1.7	25.6	2.5	70.2
	여(454)	2.9	24.7	1.5	70.9
고교 유형	인문계(490)	1.2	21.2	1.8	75.7
	특성화(456)	3.3	29.2	2.2	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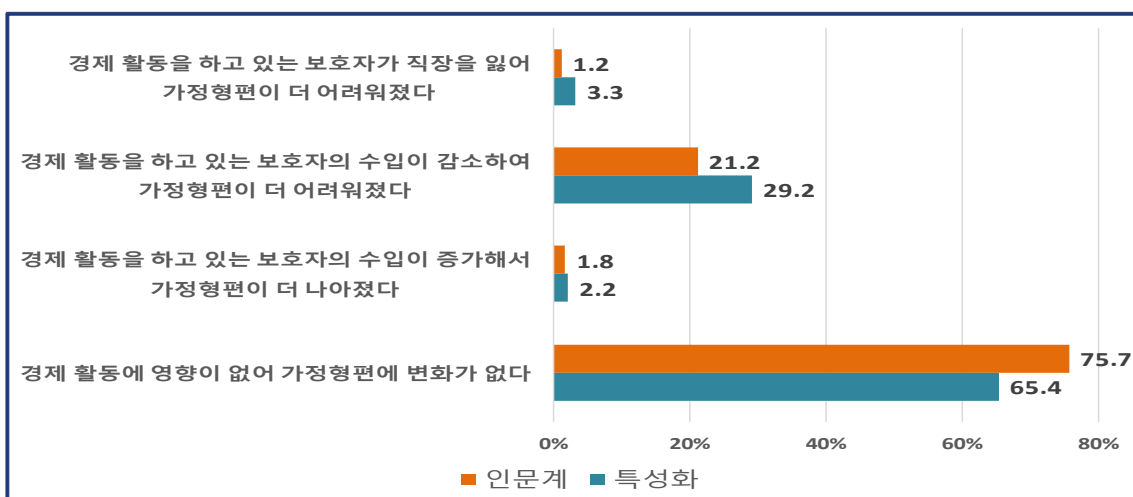
- 10명 중 3명(29.3%)은 코로나 19가 가정의 경제생활에 미쳤다고 응답함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가 직장을 잃어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율은 2.2%,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의 수입이 감소하여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는 25.1%로 나타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비중은 27.3%로 파악됨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의 수입이 증가해서 가정형편이 더 나아졌다’는 의견은 2.0%이며, ‘경제활동에 영향이 없어 가정형편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70.7%를 기록함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의 수입이 감소하여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가 직장을 잃어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등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남학생이 27.3%, 여학생 27.6%, 인문계고 22.4%, 특성화고 32.5%로 나타남
- 코로나 19로 인한 부정적 영향 비율은 상대적으로 특성화고 학생 응답자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Ⅱ-13> 코로나 19 영향(전체)



<그림 Ⅱ-14> 코로나 19 영향(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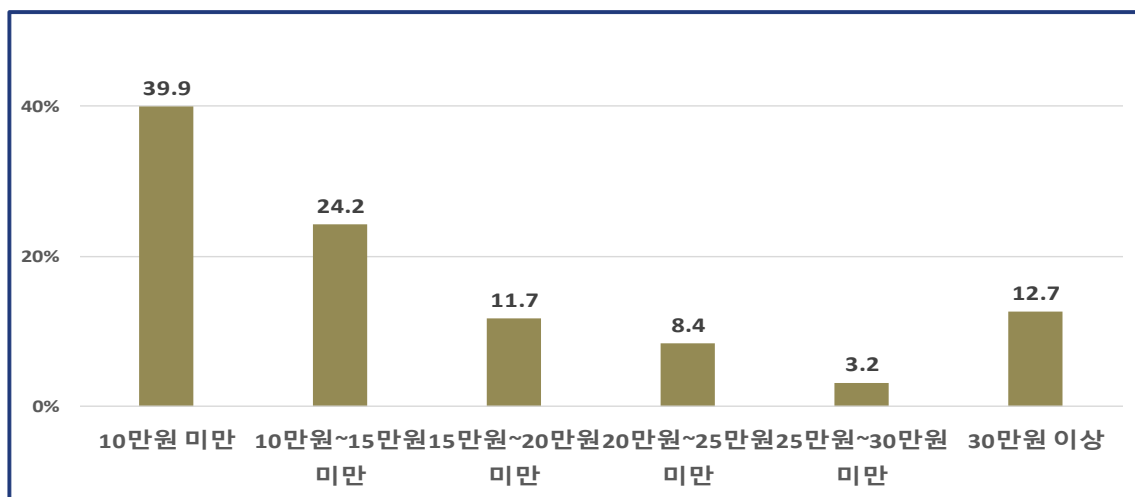
<그림 Ⅱ-15> 코로나 19 영향(고교유형별)

◆ 본인이 사용하는 월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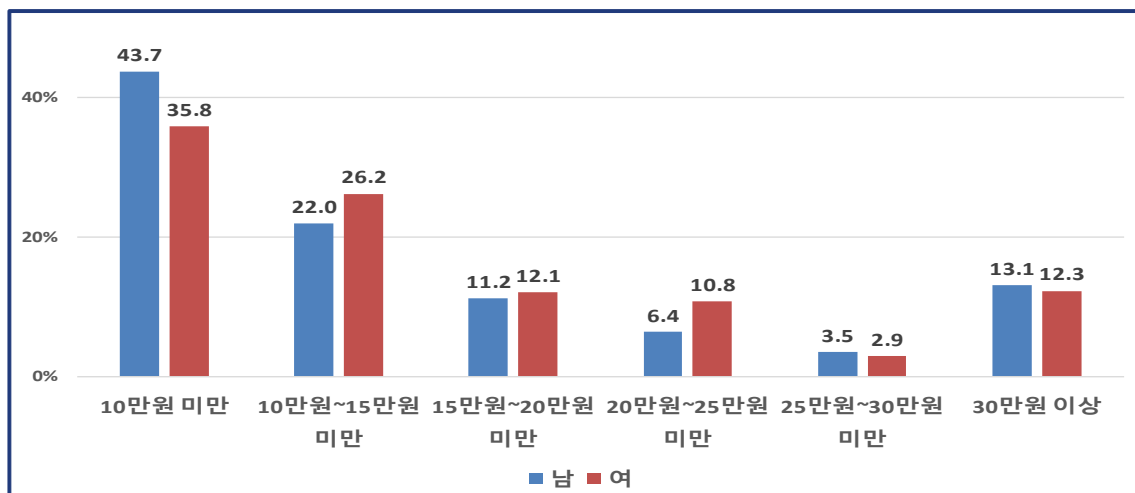
【표 Ⅱ-6】 월 생활비

(단위: 명, %)		10만원 미만	10만원~15만원 미만	15만원~20만원 미만	20만원~25만원 미만	25만원~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체(n=948)		39.9	24.2	11.7	8.4	3.2	12.7
성별	남(481)	43.7	22.0	11.2	6.4	3.5	13.1
	여(455)	35.8	26.2	12.1	10.8	2.9	12.3
고교 유형	인문계(490)	45.1	23.7	10.4	6.3	4.1	10.4
	특성화(458)	34.3	24.7	13.1	10.7	2.2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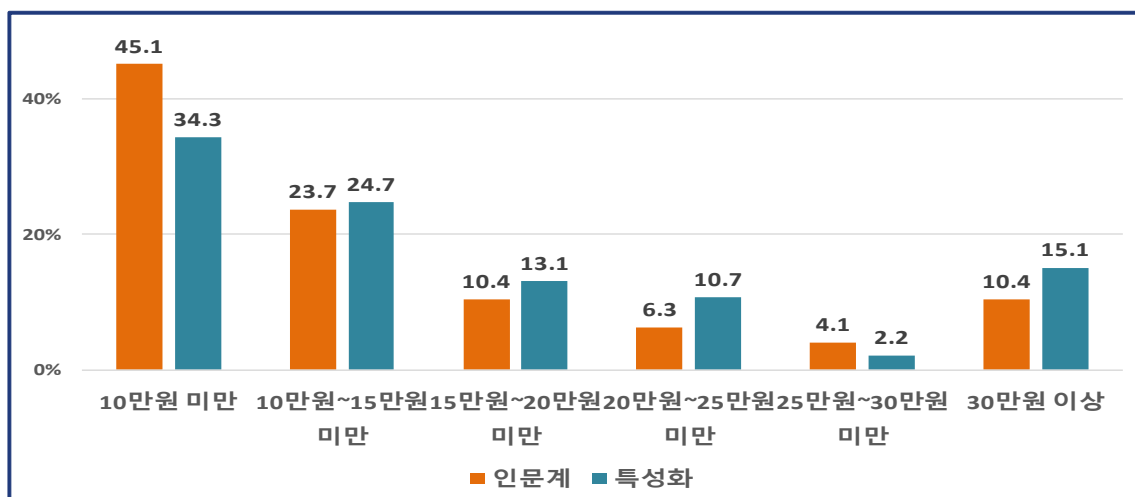
- 본인이 사용하는 월 생활비(저축, 학교 교재비, 교통비 등은 제외하고 문화생활, 친목 등의 지출)를 살펴보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10만원 미만’ (39.9%)인 것으로 파악됨
- 전체로 보면 월생활비 ‘10만원~15만원 미만’ (24.2%), ‘30만원 이상’ (12.7%), ‘15만원~20만원 미만’ (11.7%), ‘20만원~25만원 미만’ (8.4%), ‘25만원~30만원 미만’ (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학생은 ‘10만원 미만’ (43.7%), ‘10만원~15만원 미만’ (22.0%), ‘30만원 이상’ (13.1%), ‘15만원~20만원 미만’ (11.2%) 등의 순으로 월평균 생활비 분포를 보임
- 여학생은 ‘10만원 미만’ (35.8%), ‘10만원~15만원 미만’ (26.2%), ‘30만원 이상’ (12.3%), ‘15만원~20만원 미만’ (12.1%) 등의 순임
- 특성화고 학생은 ‘10만원 미만’ (34.3%), ‘10만원~15만원 미만’ (24.7%), ‘30만원 이상’ (15.1%), ‘15만원~20만원 미만’ (13.1%) 등의 순임
- 인문계고 학생은 ‘10만원 미만’ (45.1%), ‘10만원~15만원 미만’ (23.7%), ‘15만원~2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각 10.4%) 등의 순임



<그림 Ⅱ-16> 월 생활비(전체)



<그림 Ⅱ-17> 월 생활비(성별)



<그림 Ⅱ-18> 월 생활비(고교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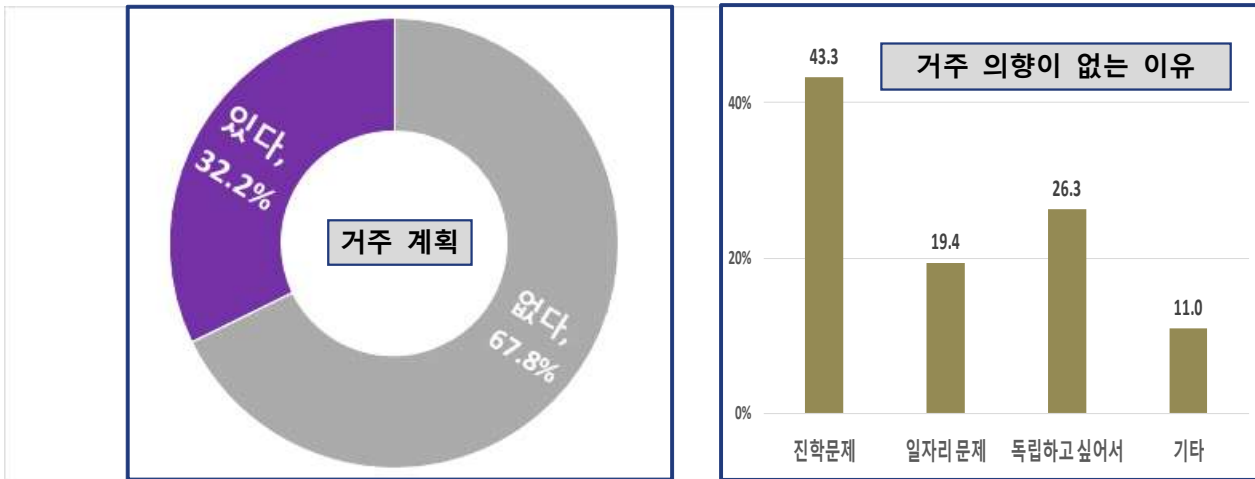
❖ 고등학교 졸업 이후 목포에서 계속 살 계획

【표 Ⅱ-7】 졸업 이후 목포 거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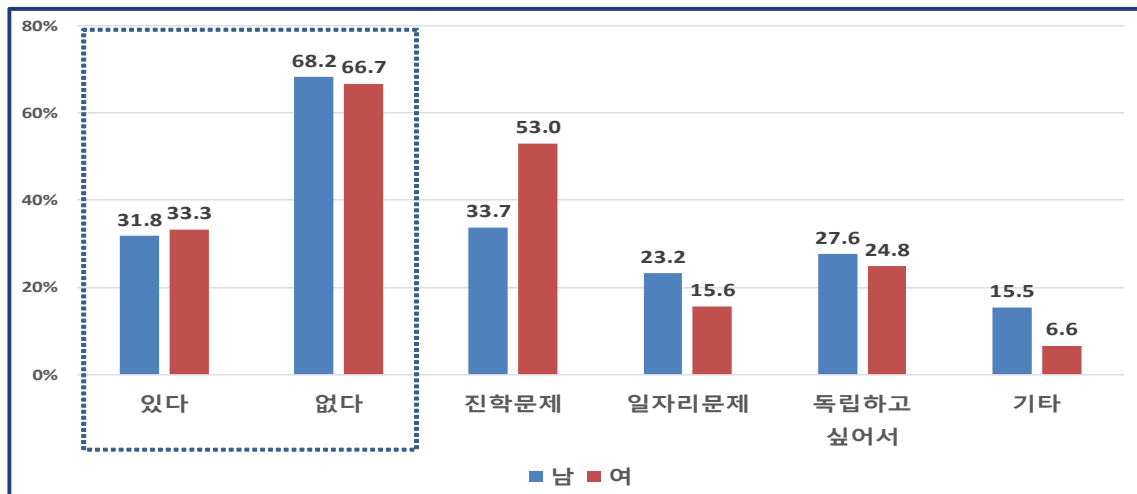
(단위: 명, %)		있다	없다	목포 거주 의향이 없는 이유			
				진학 문제	일자리 문제	독립하고 싶어서	기타
전체(n=956)		32.2	67.8	43.3	19.4	26.3	11.0
성별	남(487)	31.8	68.2	33.7	23.2	27.6	15.5
	여(457)	33.3	66.7	53.0	15.6	24.8	6.6
고교 유형	인문계(499)	25.7	74.3	58.8	5.8	25.8	9.6
	특성화(457)	39.4	60.6	22.5	37.6	26.9	12.9

주: 목포 거주 의향이 없는 이유는 졸업 이후 목포 거주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648명)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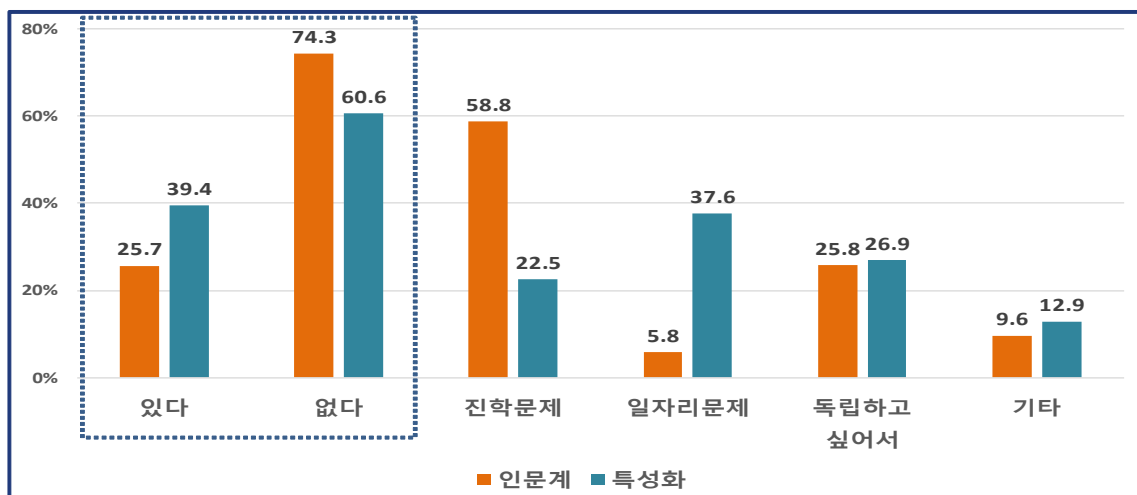
- 고등학교 졸업 이후 목포에서 계속 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명 중 3명(32.3%)은 ‘있다’라는 의견을 표시함
- 졸업 이후 목포 거주 계획이 있는 비율은 여학생(33.3%)이 남학생(31.8%)보다 높게 나타나고 특성화고 학생(39.4%)이 인문계고 학생(25.7%)에 비해 13.7%포인트 높아, 상대적으로 차이가 두드러짐
- 졸업 이후 목포 거주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진학문제’가 4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독립하고 싶어서’(26.3%), ‘일자리 문제’(19.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남학생의 경우 ‘진학문제’(33.7%), ‘독립하고 싶어서’(27.6%), ‘일자리 문제’(2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학생의 경우 ‘진학문제’(53.0%), ‘독립하고 싶어서’(24.8%), ‘일자리 문제’(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목포 거주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특성화고 학생은 ‘일자리 문제’(37.6%)가, 인문계고 학생은 ‘진학문제’(58.8%), 인 것으로 파악되어 그 차이가 두드러짐



<그림 Ⅱ-19> 목포 거주 계획 및 거주여향이 없는 이유(전체)



<그림 Ⅱ-20> 목포 거주 계획 및 거주여향이 없는 이유(성별)



<그림 Ⅱ-21> 목포 거주 계획 및 거주여향이 없는 이유(고교유형별)

2 노동(일) 인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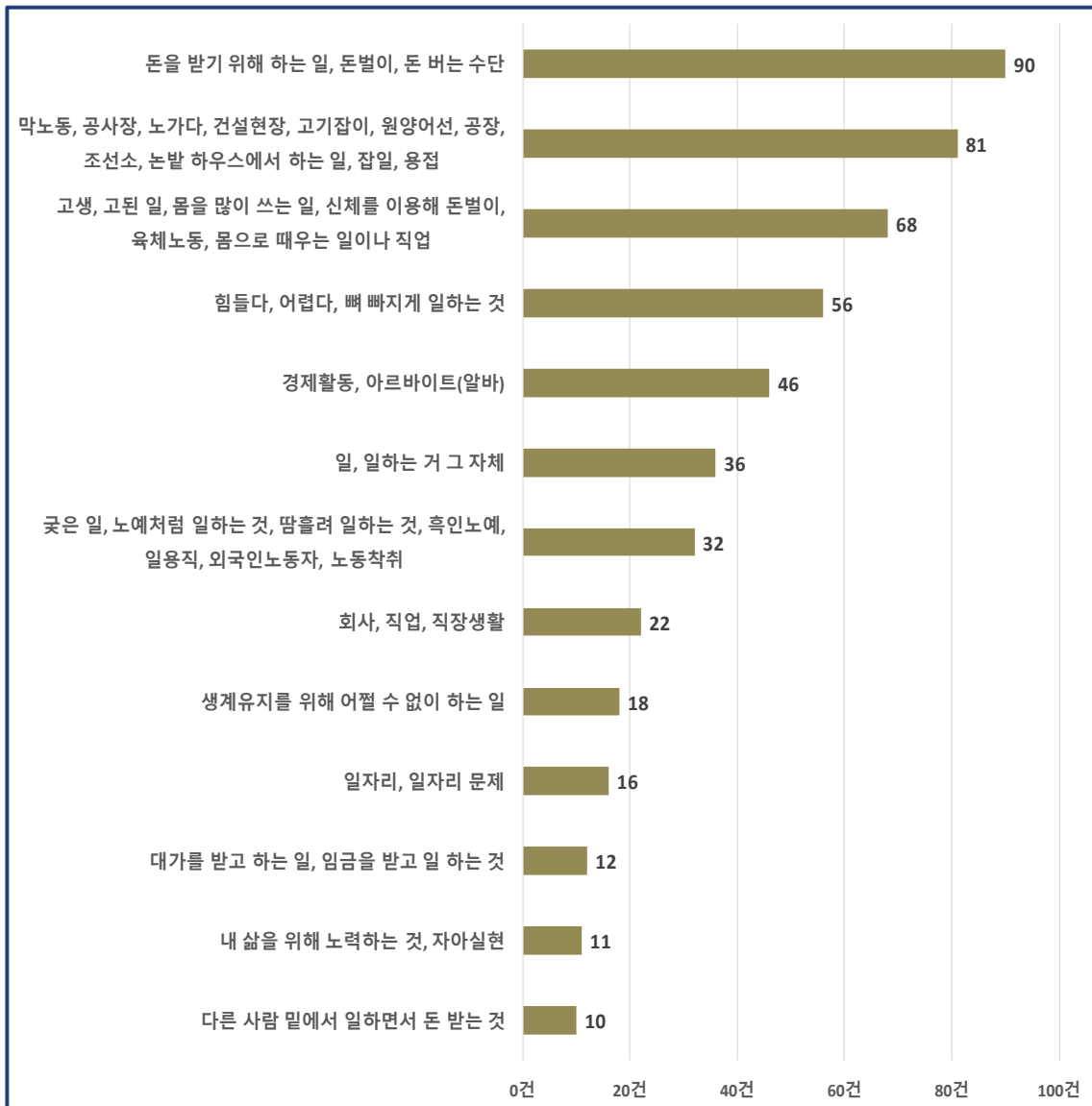
◆ 노동(일)에 대한 떠오르는 생각

【표 Ⅱ-8】 노동하면 떠오르는 생각(서술형)

표현 내용	사례 수(건)	비율(%)
돈을 받기 위해 하는 일, 돈벌이, 돈 버는 수단	90	18.1
막노동, 공사장, 노가다, 건설현장, 고기잡이, 원양어선, 공장, 조선소, 논밭 하우스에서 하는 일, 잡일, 용접	81	16.3
고생, 고된 일, 몸을 많이 쓰는 일, 신체를 이용해 돈벌이, 육체노동, 몸으로 때우는 일이나 직업	68	13.7
힘들다, 어렵다, 뼈 빠지게 일하는 것	56	11.2
경제활동, 아르바이트(알바)	46	9.2
일, 일하는 거 그 자체	36	7.2
긁은 일, 노예처럼 일하는 것, 땀 흘려 일하는 것, 흑인노예, 일용직,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32	6.4
회사, 직업, 직장생활	22	4.4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18	3.6
일자리, 일자리 문제	16	3.2
대가를 받고 하는 일,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	12	2.4
내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아실현	11	2.2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돈 받는 것	10	2.0
합계	498	100.0

주: 10건 이상의 의견만 표시함

- 노동하면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돈벌이, 돈 버는 수단’이라는 의견이 90건(18.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함
- 다음으로 노동하면 ‘막노동, 공사장, 노가다, 건설현장, 고기잡이, 원양어선, 공장, 조선소, 논밭 하우스에서 하는 일, 잡일, 용접’이 생각난다는 의견이 81건(16.3%)으로 파악됨
- 대부분의 학생은 ‘노동’을 주로 ‘육체노동, 단순노동, 힘든 노동’으로 인식함. 이는 노동에 대한 다양한 생각보다는 고정된 인식으로 노동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Ⅱ-22> 노동하면 떠오르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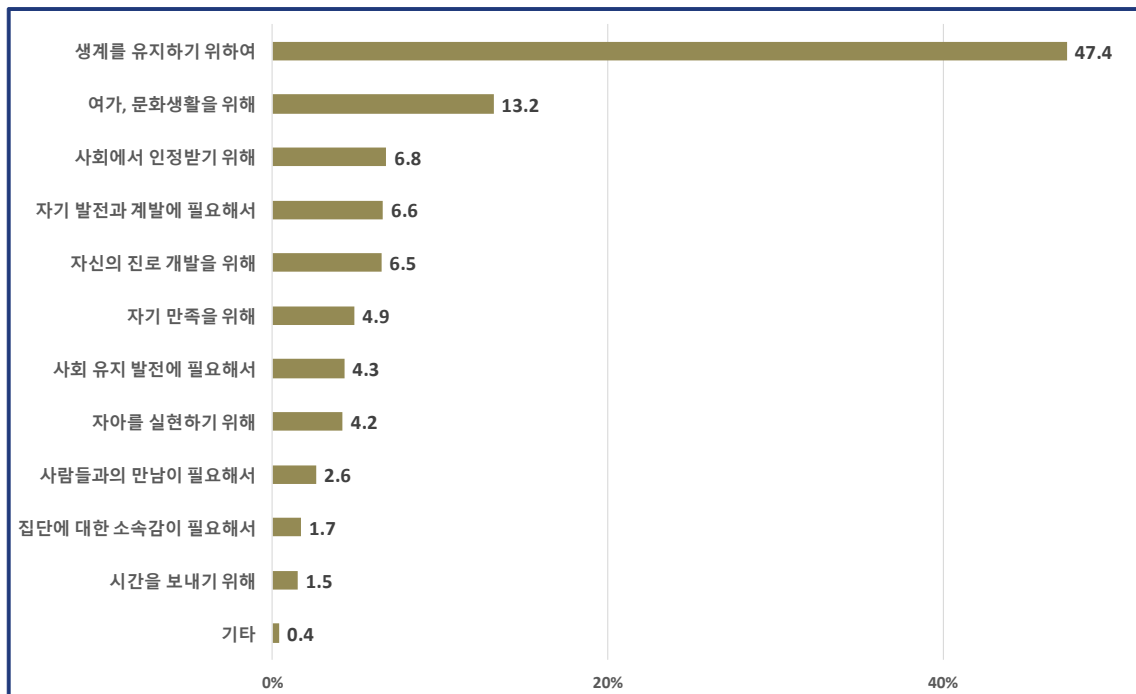
❖ 사람들이 노동, 일을 하는 이유

【표 Ⅱ-9】 노동하는 이유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남	여	인문계	특성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93.5	1.3	1.5	47.4	47.1	47.8	48.1	46.7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0.8	9.0	4.7	4.2	3.9	4.6	5.1	3.2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필요해서	0.1	3.3	3.0	1.7	1.6	1.7	1.8	1.4
여가, 문화생활을 위해	1.9	30.0	13.6	13.2	14.8	11.7	12.3	14.2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해서	0.2	5.0	5.2	2.6	2.8	2.3	2.3	3.0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0.6	14.7	9.3	6.8	7.3	6.1	6.7	6.8
자기 만족을 위해	0.9	8.5	9.4	4.9	5.0	4.8	4.6	5.1
시간을 보내기 위해	0.0	1.8	5.3	1.5	1.8	1.1	1.4	1.6
사회 유지 발전에 필요해서	0.3	7.6	9.7	4.3	3.1	5.5	4.2	4.4
자신의 진로 개발을 위해	0.8	9.7	17.0	6.5	6.1	6.8	6.4	6.6
자기 발전과 계발에 필요해서	0.6	8.7	20.3	6.6	5.8	7.3	6.7	6.5
기타	0.1	0.5	1.1	0.4	0.5	0.3	0.4	0.4

주: 전체는 1순위 300%, 2순위 200%, 3순위 100%의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한 결과임

-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1순위+2순위+3순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가 47.4%로 가장 높고 ‘여가, 문화생활을 위해’ (13.2%),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6.8%), ‘자기 발전과 계발에 필요해서’ (6.6%), ‘자신의 진로 개발을 위해’ (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학생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47.1%), ‘여가, 문화생활을 위해’ (14.8%),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7.3%), ‘자신의 진로 개발을 위해’ (6.1%), ‘자기 발전과 계발에 필요해서’ (5.8%) 등의 순임
- 여학생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47.8%), ‘여가, 문화생활을 위해’ (11.7%), ‘자기 발전과 계발에 필요해서’ (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화고 학생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46.7%), ‘여가, 문화생활을 위해’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문계고 학생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48.1%), ‘여가, 문화생활을 위해’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Ⅱ-23> 노동하는 이유(1+2+3순위)

❖ 자신이 미래와 관련한 고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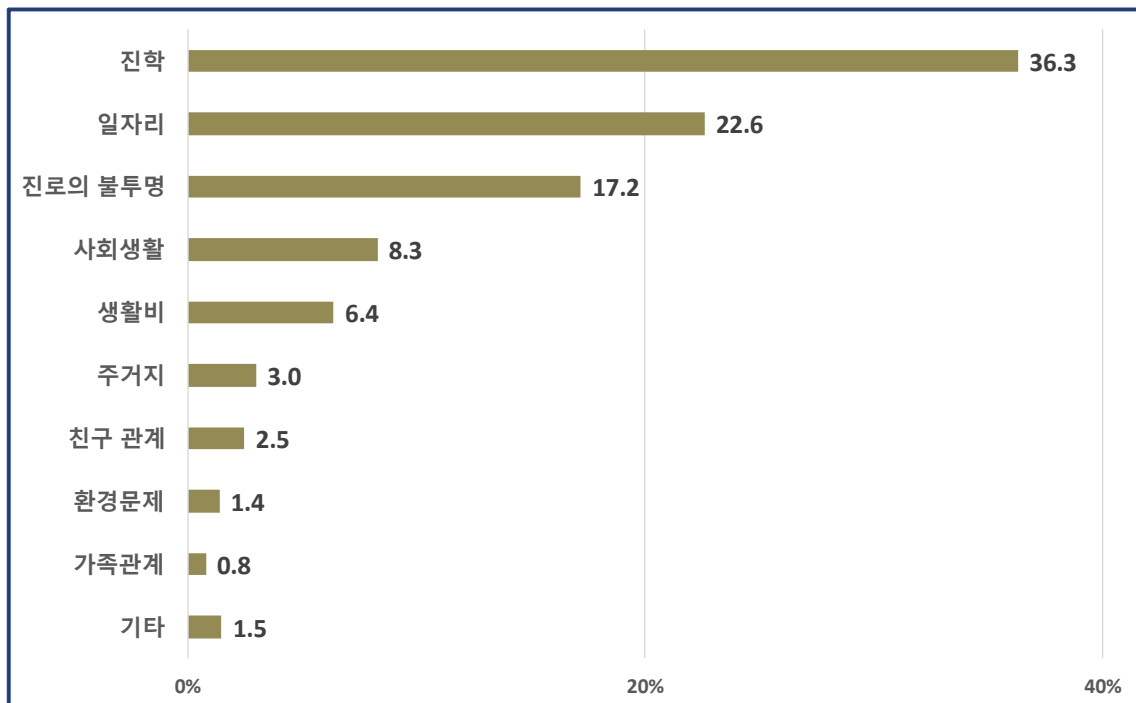
【표 Ⅱ-10】 고민거리

구 분	1순위	2순위	전체	남	여	인문계	특성화
진학	50.7	7.5	36.3	33.8	38.8	50.5	20.8
일자리	23.5	20.7	22.6	24.4	20.8	14.7	31.2
주거지	2.0	5.1	3.0	3.8	2.2	1.8	4.4
생활비	3.7	11.8	6.4	7.0	5.8	4.9	8.1
진로의 불투명	13.3	25.0	17.2	15.0	19.6	16.9	17.4
친구 관계	1.1	5.5	2.5	2.7	2.4	2.6	2.4
가족관계	0.3	1.6	0.8	0.9	0.6	0.8	0.8
사회생활	3.3	18.3	8.3	8.7	7.8	5.8	11.0
환경문제	0.8	2.5	1.4	2.1	0.5	1.0	1.8
기타	1.4	1.9	1.5	1.6	1.5	1.0	2.1

주: 전체는 1순위 300%, 2순위 200%, 3순위 100%의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한 결과임

- 고등학교 3학년 현재, 자신의 미래와 관련한 고민거리를 살펴본 결과(1순위+2순위), ‘진학’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일자리’ (22.6%), ‘진로의 불투명’ (17.2%), ‘사회생활’ (8.3%), ‘생활비’ (6.4%), ‘주거지’ (3.0%) 등의 순으로 고민거리가 높게 나타남

- 남학생의 고민거리는 ‘진학’ (33.8%), ‘일자리’ (24.4%), ‘진로의 불투명’ (15.0%), ‘사회생활’ (8.7%), ‘생활비’ (7.0%), ‘주거지’ (3.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학생 고민거리는 ‘진학’ (38.8%), ‘일자리’ (20.8%), ‘진로의 불투명’ (19.6%), ‘사회생활’ (7.8%), ‘생활비’ (5.8%), ‘친구 관계’ (2.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성화고 학생 고민거리는 ‘일자리’ (31.2%), ‘진학’ (20.8%), ‘진로의 불투명’ (17.4%), ‘사회생활’ (11.0%), ‘생활비’ (8.1%), ‘주거지’ (4.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문계고 학생의 고민거리는 ‘진학’ (50.5%), ‘진로의 불투명’ (16.9%), ‘일자리’ (14.8%), ‘사회생활’ (4.9%), ‘생활비’ (7.0%), ‘친구 관계’ (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3학년 현재, 자신의 미래와 관련한 고민거리는 인문계고 학생은 ‘진학’ (50.5%)이, 특성화고 학생은 ‘일자리’ (31.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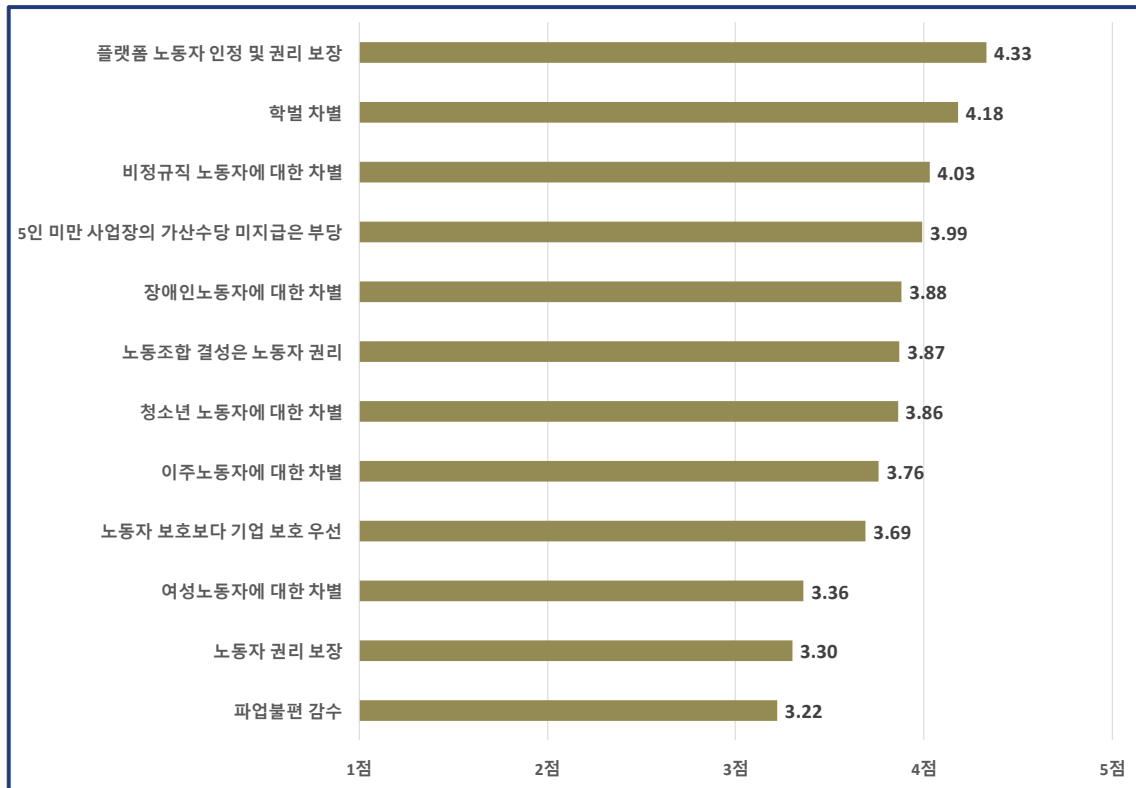
<그림 Ⅱ-24> 고민거리(1+2순위)

◆ 노동 관련에 대한 인식 [1]

【표 Ⅱ-11】 노동관련 인식 개관(1)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1.6	10.2	49.5	34.6	4.2	3.30
2)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보다 기업을 우선 보호하는 나라이다.	1.3	5.3	31.5	46.5	15.4	3.69
3) 우리나라는 정규직 노동자와 견주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0.1	1.8	20.3	50.3	27.6	4.03
4) 우리나라는 남성 노동자에 견주어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7.2	11.9	32.0	35.9	13.1	3.36
5) 우리나라는 성인 노동자에 견주어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0.5	5.0	27.0	47.6	20.0	3.86
6) 우리나라는 자국민 노동자에 견주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0.6	4.4	32.5	43.4	19.1	3.76
7) 우리나라는 비장애인에 견주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1.0	4.5	25.9	42.4	26.2	3.88
8) 우리 사회는 학벌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0.2	2.5	18.3	37.2	41.8	4.18
9)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0.6	1.9	34.9	34.7	27.9	3.87
10) 플랫폼노동(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노동 등)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0.4	0.5	14.7	34.9	49.5	4.33
11) 대중교통 기사, 학교 조리사, 마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불편을 참을 수 있다.	6.3	19.5	33.9	26.6	13.9	3.22
1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연장, 유급 휴가 등에 가산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0.4	2.6	27.6	36.1	33.3	3.99

주: 5점 평균값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



<그림 Ⅱ-25> 노동관련 인식 개관(5점 척도)

◆ 노동 관련 인식 [2]

【표 Ⅱ-12】 노동관련 인식 개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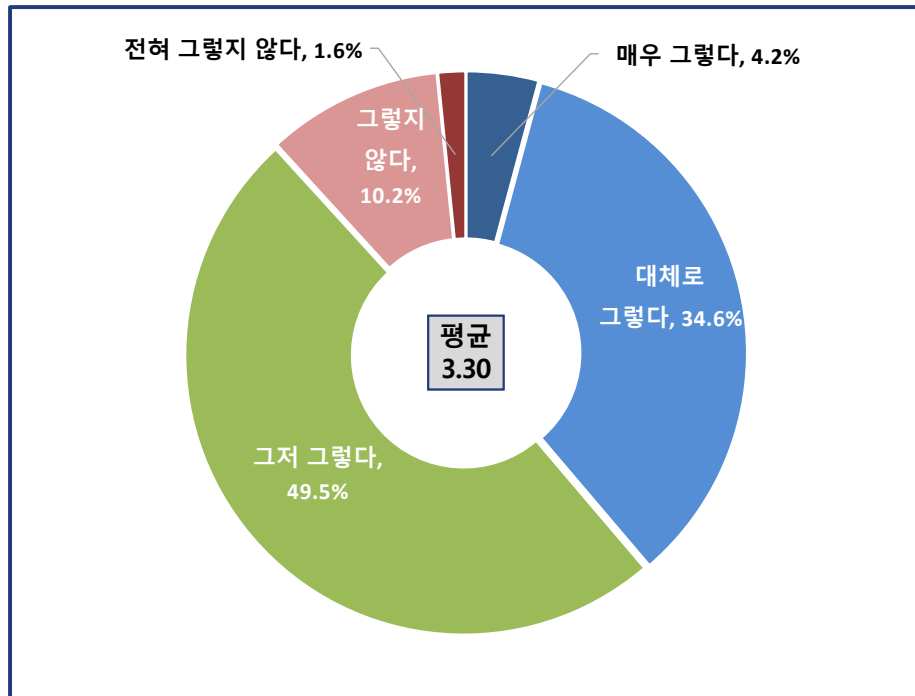
구 분(단위: %)	응 답	
13) 근로자라는 말과 노동자라는 말은 서로 의미와 뜻이 다르다고 생각한 다.	다르다	같다
	54.8	45.2
14)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자와 노동자 중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 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로자	노동자
	89.4	10.6

❖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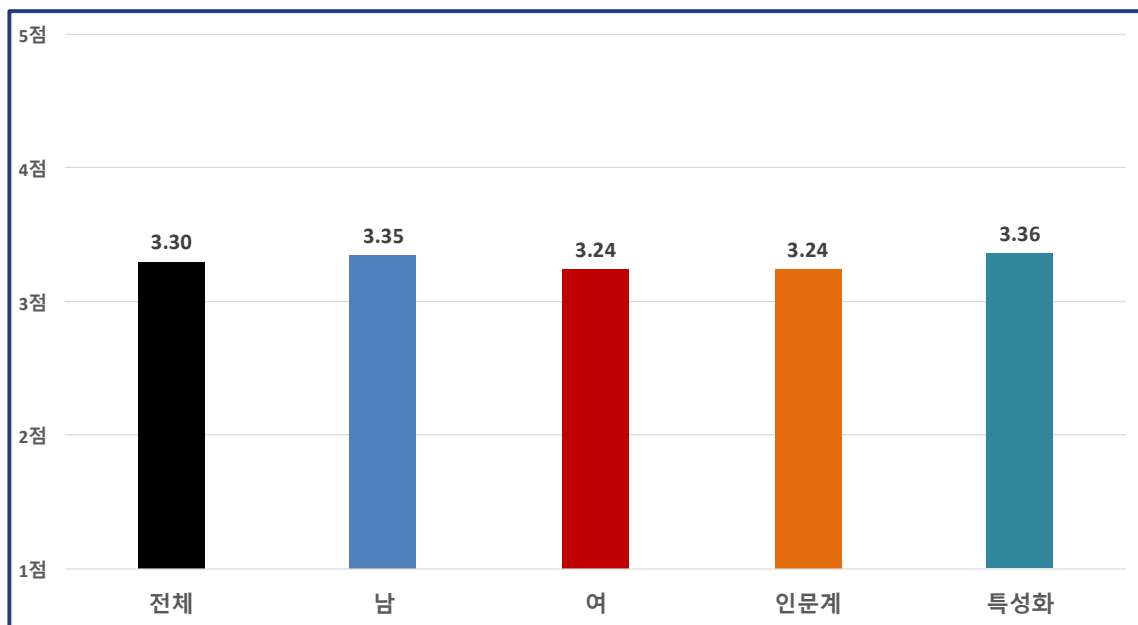
【표 Ⅱ-13】 노동자 권리 보장

(단위: 명,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n=962)		1.6	10.2	49.5	34.6	4.2	3.30	0.768
성별	남(489)	1.6	8.8	48.1	35.8	5.7	3.35	0.786
	여(461)	1.3	11.5	51.2	33.6	2.4	3.24	0.735
고교 유형	인문계(499)	1.6	12.4	50.9	30.5	4.6	3.24	0.788
	특성화(463)	1.5	7.8	47.9	39.1	3.7	3.36	0.742

-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4.2%), ‘대체로 그렇다’ (34.6%), ‘그저 그렇다’ (49.5%), ‘그렇지 않다’ (10.2%), ‘전혀 그렇지 않다’ (1.6%)로 나타나 노동자 권리 보장이 되고 있다는 비율이 38.8%를 보여 준 반면, 그저 그렇거나 권리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이 61.9%를 차지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줌
-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되고 있다는 의견(동의)은 남학생(41.5%)이 여학생(36.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 학생(42.9%)이 인문계고 학생(35.1%)보다 높게 나타남
-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성별 차원에서는 남학생(3.35점)이 여학생(3.24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 학생(3.36점)이 인문계고 학생(3.24점)보다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남학생(3.35점), 특성화고 학생(3.36점)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



<그림 Ⅱ-26> 노동자 권리 보장(전체)



<그림 Ⅱ-27> 노동자 권리 보장(성별, 고교유형별)

❖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보다 기업을 우선 보호하는 나라이다”

【표 Ⅱ-14】 노동자 보호보다 기업 보호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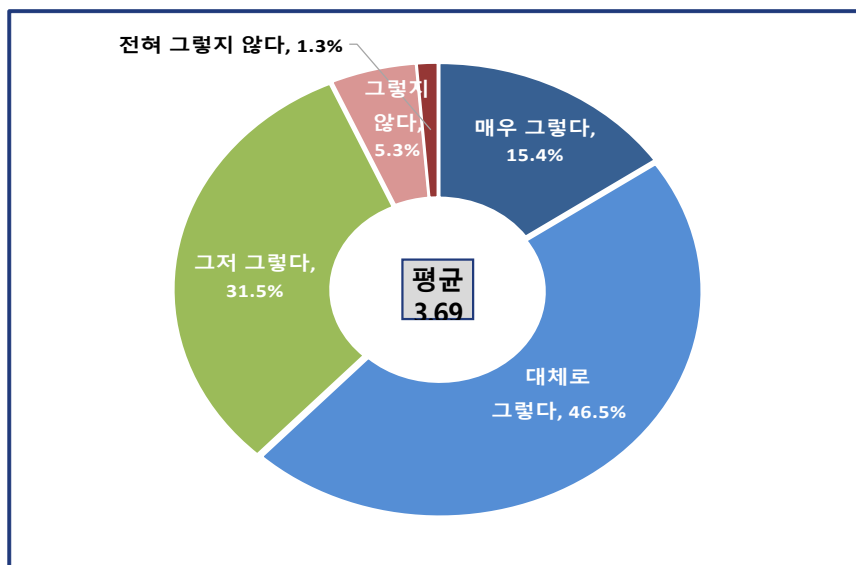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n=963)		1.3	5.3	31.5	46.5	15.4	3.69	0.841
성별	남(490)	2.2	5.3	29.8	42.2	20.4	3.73	0.920
	여(461)	0.2	5.4	33.0	51.2	10.2	3.66	0.743
고교 유형	인문계(500)	1.8	3.8	23.0	52.8	18.6	3.83	0.837
	특성화(463)	0.9	6.9	40.6	39.7	11.9	3.55	0.823

-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보다 기업을 우선 보호하는 나라이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15.4%), ‘대체로 그렇다’ (46.5%), ‘그저 그렇다’ (31.5%), ‘그렇지 않다’ (5.3%), ‘전혀 그렇지 않다’ (1.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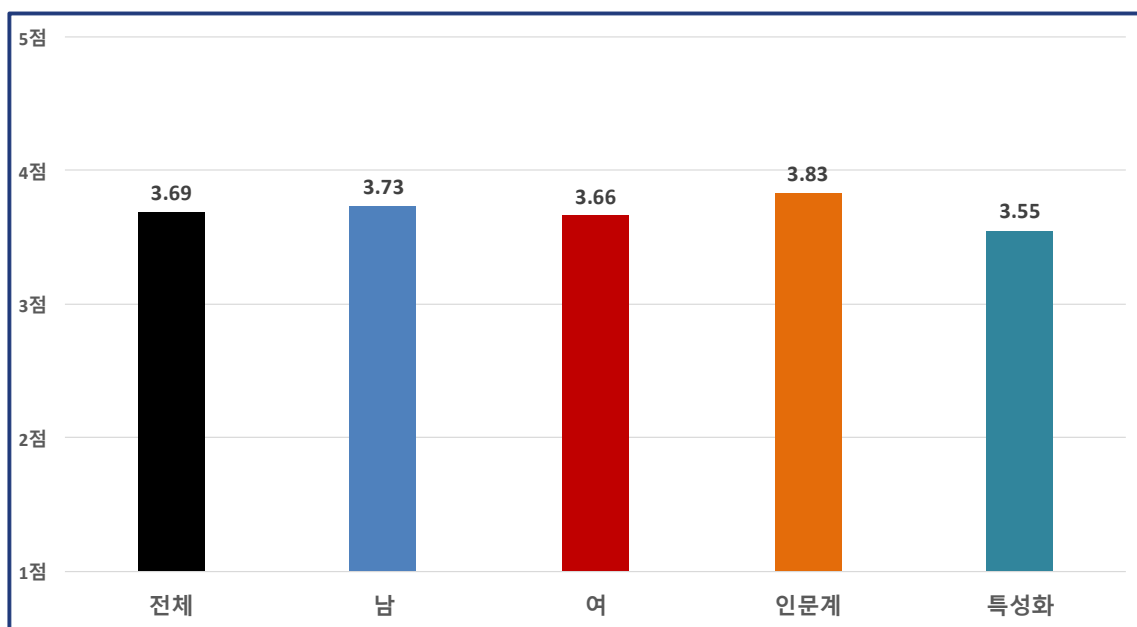
기업을 우선 보호한다는 의견(‘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이 61.9%로 기업을 우선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견(‘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6.6%보다 55.3% 포인트 높게 나타남. 또한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도 31.5%로 나타나 기업을 우선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가 노동자보다 기업을 우선 보호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남학생(62.6%)이 여학생(61.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 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71.4%)이 특성화고 학생(51.6%)보다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보다 기업을 우선 보호하는 나라이다’라는 의견의 5점 평균 값은 전체 3.69점으로 동의 의견이 보통(3점)을 상회함

- 성별 차원에서는 남학생(3.73점)이 여학생(3.66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3.83점)이 특성화고 학생(3.55점)보다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남학생(3.73점), 인문계고 학생(3.83점)이 ‘우리나라가 노동자보다 기업을 우선 보호한다’는 의견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28> 노동자 보호보다 기업 보호 우선(전체)



<그림 Ⅱ-29> 노동자 보호보다 기업 보호 우선(성별, 고교유형별)

❖ “우리나라는 정규직 노동자와 견주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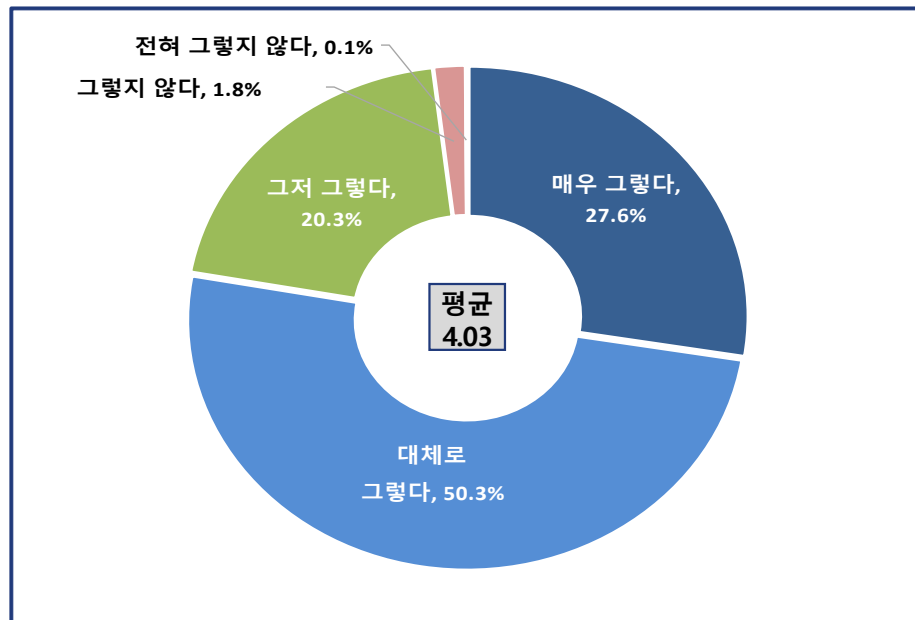
【표 Ⅱ-15】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단위: 명,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n=961)		0.1	1.8	20.3	50.3	27.6	4.03	0.747
성별	남(489)	0.2	2.7	24.1	45.8	27.2	3.97	0.799
	여(460)	0.0	0.7	16.3	55.2	27.8	4.10	0.677
고교 유형	인문계(500)	0.2	1.8	13.2	52.6	32.2	4.15	0.723
	특성화(461)	0.0	1.7	28.0	47.7	22.6	3.91	0.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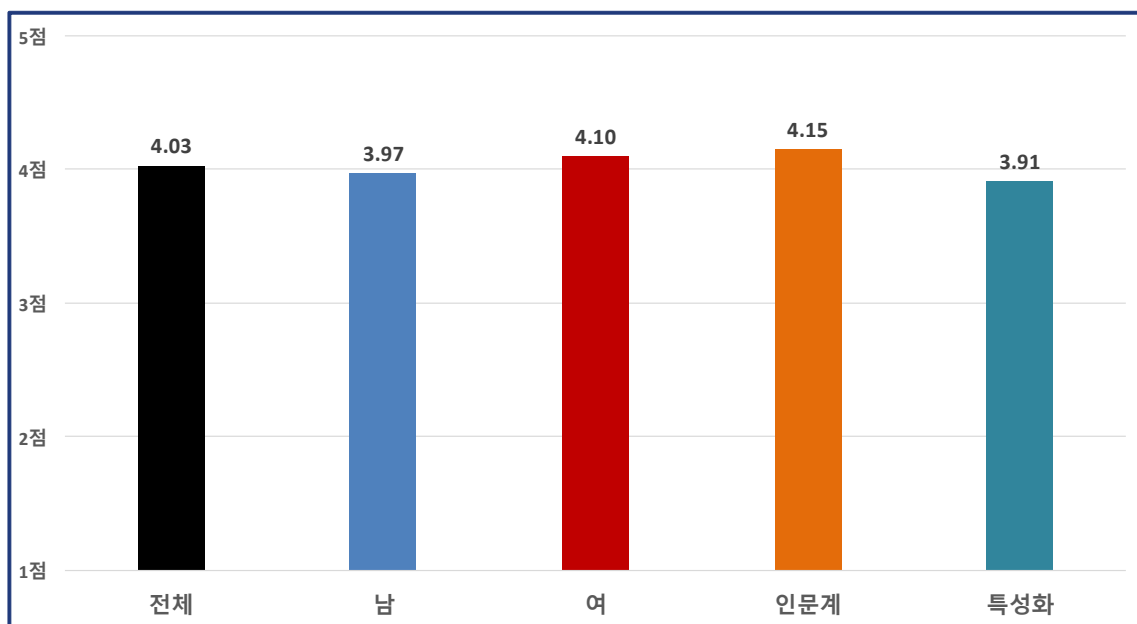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정규직 노동자와 견주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27.6%), ‘대체로 그렇다’ (50.3%), ‘그저 그렇다’ (20.3%), ‘그렇지 않다’ (1.8%), ‘전혀 그렇지 않다’ (0.1%)로 나타나, 비정규직 차별에 동의하는 의견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이 61.9%로 동의하지 않는 의견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6.6%보다 55.3%포인트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정규직 노동자와 견주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여학생(83.0%)이 남학생(73.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84.8%)이 특성화고 학생(70.3%)보다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정규직 노동자와 견주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의 5점 평균 값은 전체 4.03점으로 4점 이상의 높은 동의 의견을 보임
- 성별 차원에서는 여학생(4.10점)이 남학생(3.97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4.15점)이 특성화고 학생(3.91점)보다 높

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여학생(4.10점), 인문계고 학생(4.15점)이 ‘우리나라는 정규직 노동자와 견주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30>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전체)



<그림 Ⅱ-31>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성별, 고교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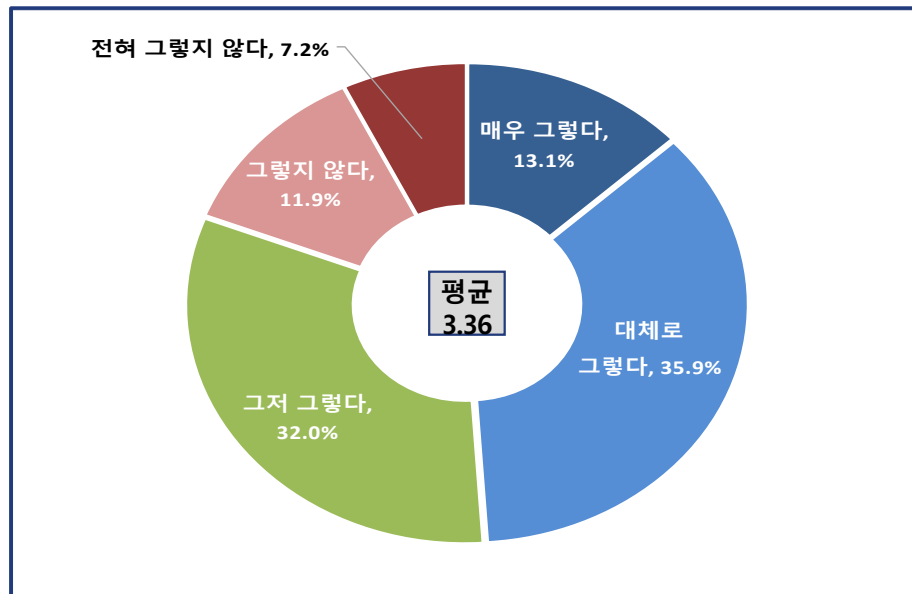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남성 노동자에 견주어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표 II-16】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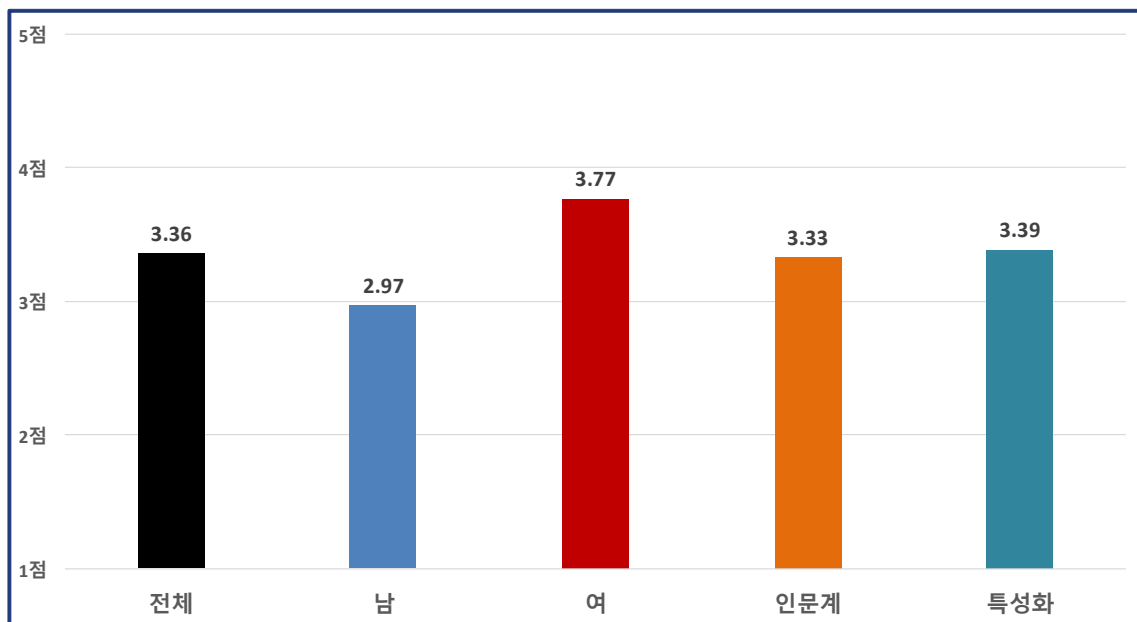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n=962)		7.2	11.9	32.0	35.9	13.1	3.36	1.077
성별	남(489)	12.3	18.2	36.6	25.8	7.2	2.97	1.104
	여(461)	1.3	5.4	27.1	46.9	19.3	3.77	0.865
고교 유형	인문계(499)	9.6	13.0	26.9	35.7	14.8	3.33	1.165
	특성화(463)	4.5	10.6	37.6	36.1	11.2	3.39	0.974

- ‘우리나라는 남성 노동자에 견주어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13.1%), ‘대체로 그렇다’ (35.9%), ‘그저 그렇다’ (32.0%), ‘그렇지 않다’ (11.9%), ‘전혀 그렇지 않다’ (7.2%)로 나타나,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동의하는 의견(‘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이 49.0%로 동의하지 않는 의견(‘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19.1%보다 29.9%포인트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남성 노동자에 견주어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여학생(66.2%)이 남학생(33.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50.5%)이 특성화고 학생(47.3%)보다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남성 노동자에 견주어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의 5점 평균 값은 전체 3.36점으로 보통(3점)이상의 동의 의견을 보임
- 성별 차원에서는 여학생(3.77점)이 남학생(2.97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 학생(3.39점)이 인문계고 학생(3.33점)보다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여학생(3.77점), 특성화고 학생(3.39점)이 ‘우리나라는 남성 노동자에 견주어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32>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전체)



<그림 Ⅱ-33>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성별, 고교유형별)

❖ “우리나라는 성인 노동자에 견주어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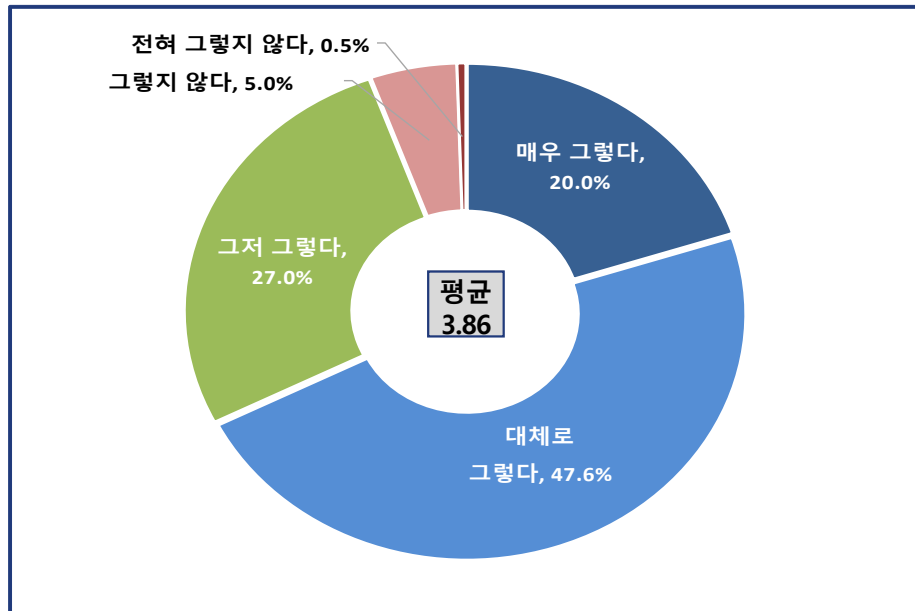
【표 Ⅱ-17】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차별

(단위: 명,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n=961)		0.5	5.0	27.0	47.6	20.0	3.86	0.807
성별	남(488)	0.6	7.2	35.0	39.5	17.6	3.66	0.870
	여(461)	0.4	2.8	18.0	56.2	22.6	3.98	0.747
고교 유형	인문계(498)	0.6	4.2	24.5	50.4	20.3	3.77	0.845
	특성화(463)	0.4	5.8	29.6	44.5	19.7	3.81	0.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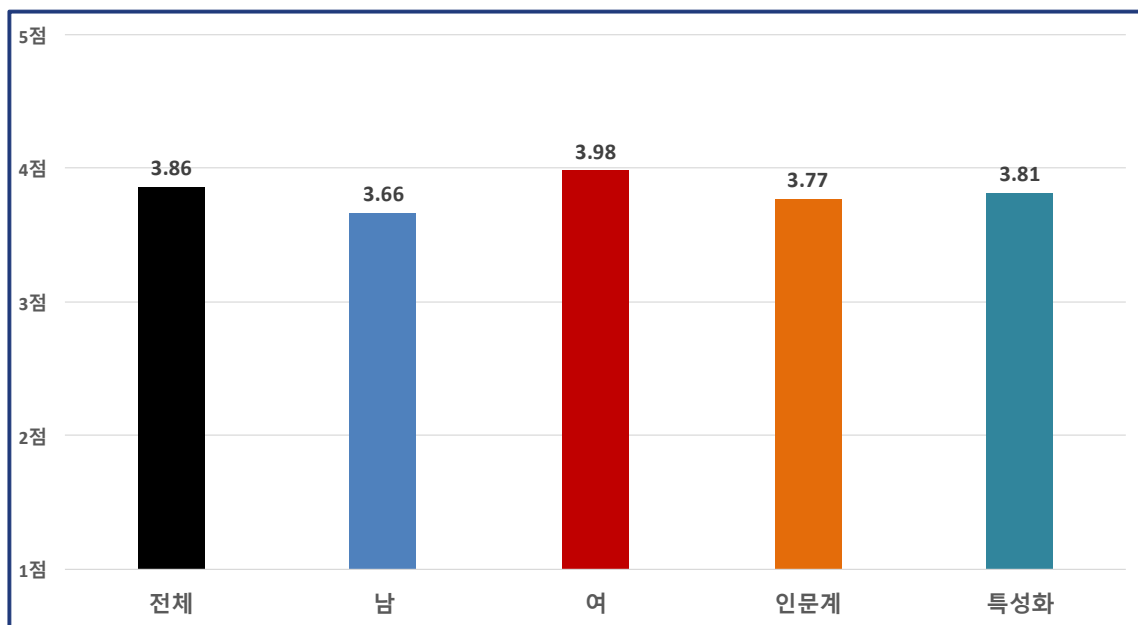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성인 노동자에 견주어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20.0%), ‘대체로 그렇다’ (47.6%), ‘그저 그렇다’ (27.0%), ‘그렇지 않다’ (5.0%), ‘전혀 그렇지 않다’ (0.5%)로 나타나,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에 동의하는 의견(‘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이 67.6%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5.5%보다 62.1% 포인트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성인 노동자에 견주어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여학생(78.8%)이 남학생(57.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70.7%)이 특성화고 학생(64.2%)보다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성인 노동자에 견주어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의 5점 평균 값은 전체 3.86점으로 보통(3점)이상의 동의 의견을 보임
- 성별 차원에서는 여학생(3.98점)이 남학생(3.66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 학생(3.81점)이 인문계고 학생(3.77점)보다 높

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여학생(3.98점), 특성화고 학생(3.81점)이 ‘우리나라는 성인 노동자에 견주어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34>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차별(전체)



<그림 Ⅱ-35>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차별(성별, 고교유형별)

❖ “우리나라는 자국민 노동자에 견주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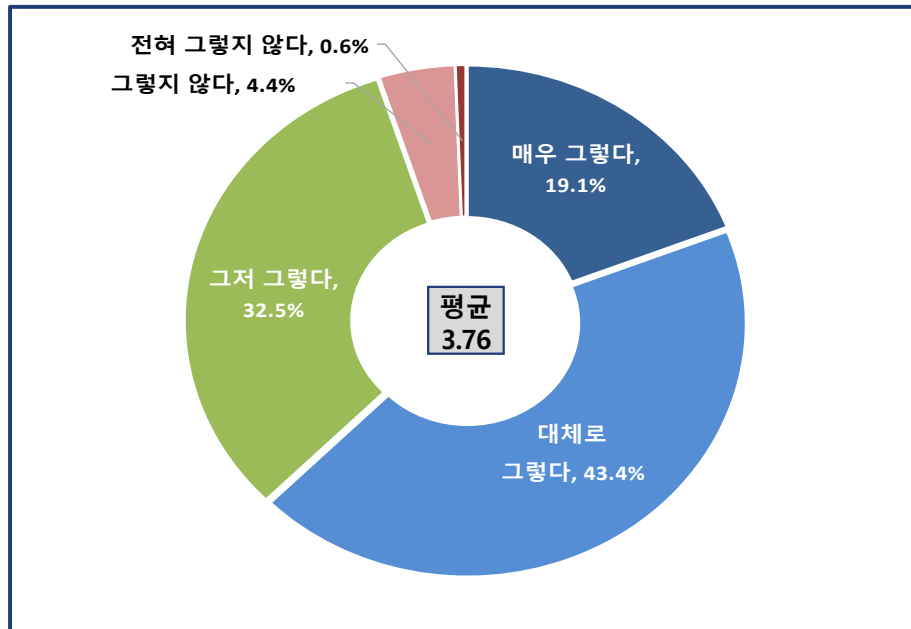
【표 Ⅱ-18】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단위: 명,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n=959)		0.6	4.4	32.5	43.4	19.1	3.76	0.831
성별	남(487)	1.0	5.7	39.4	36.8	17.0	3.63	0.867
	여(460)	0.2	3.0	25.2	50.4	21.1	3.89	0.771
고교 유형	인문계(497)	1.0	2.8	24.7	46.9	24.5	3.91	0.830
	특성화(462)	0.2	6.1	40.9	39.6	13.2	3.60	0.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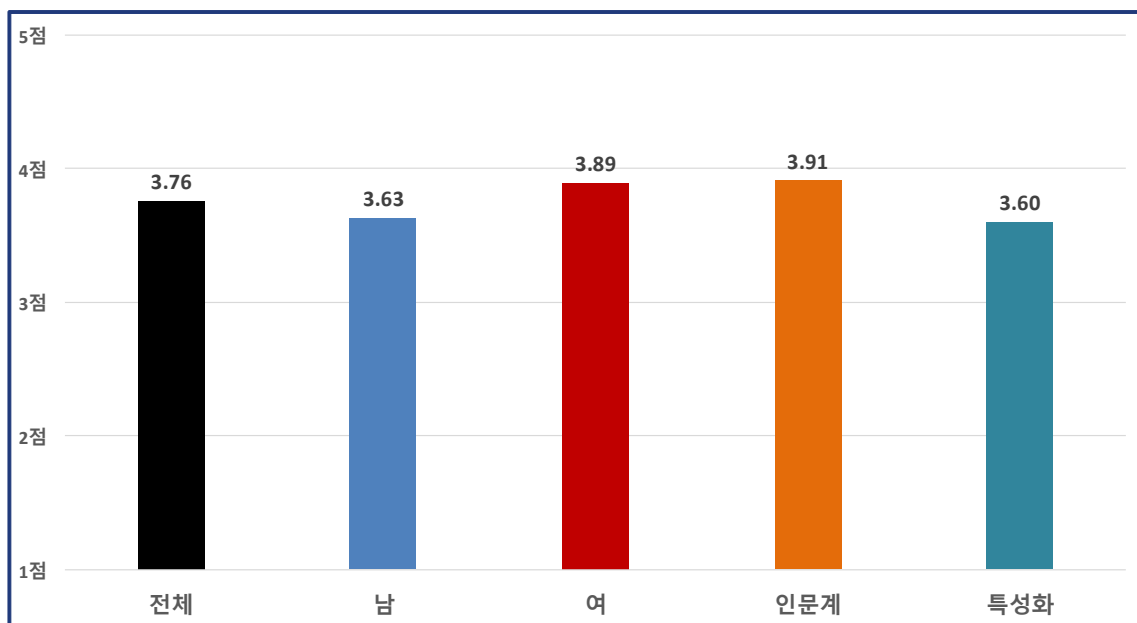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자국민 노동자에 견주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19.1%), ‘대체로 그렇다’ (43.4%), ‘그저 그렇다’ (32.5%), ‘그렇지 않다’ (4.4%), ‘전혀 그렇지 않다’ (0.6%)로 나타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의견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이 62.5%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5.0%보다 57.5포인트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자국민 노동자에 견주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여학생(71.5%)이 남학생(53.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71.4%)이 특성화고 학생(52.8%)보다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자국민 노동자에 견주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의 5점 평균 값은 전체 3.76점으로 보통(3점)이상의 동의 의견을 보임
- 성별 차원에서는 여학생(3.89점)이 남학생(3.63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3.91점)이 특성화고 학생(3.60점)보다 높

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여학생(3.89점), 인문계고 학생(3.91점)이 ‘우리나라는 자국민 노동자에 견주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36>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전체)



<그림 Ⅱ-37>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성별, 고교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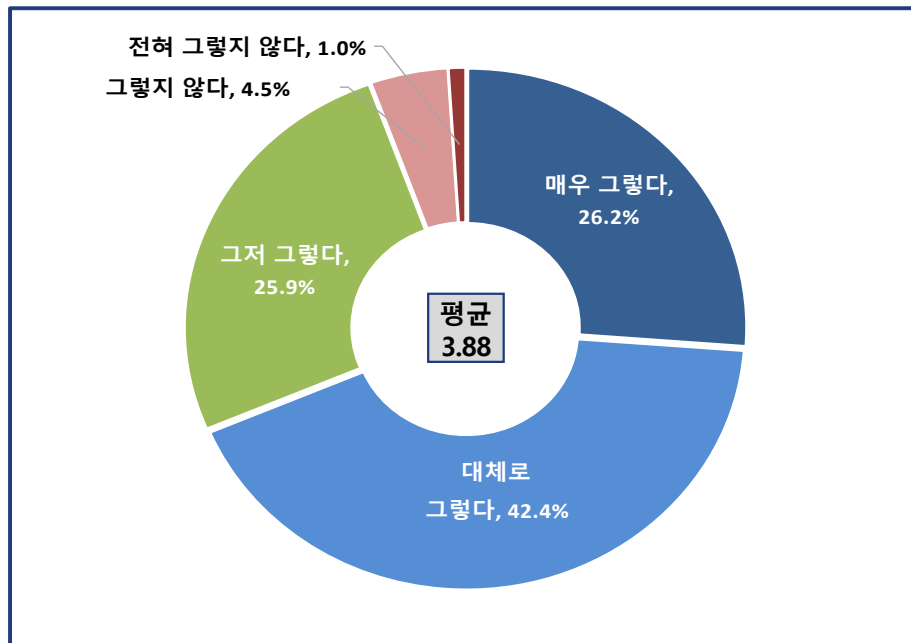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비장애인에 견주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표 Ⅱ-19】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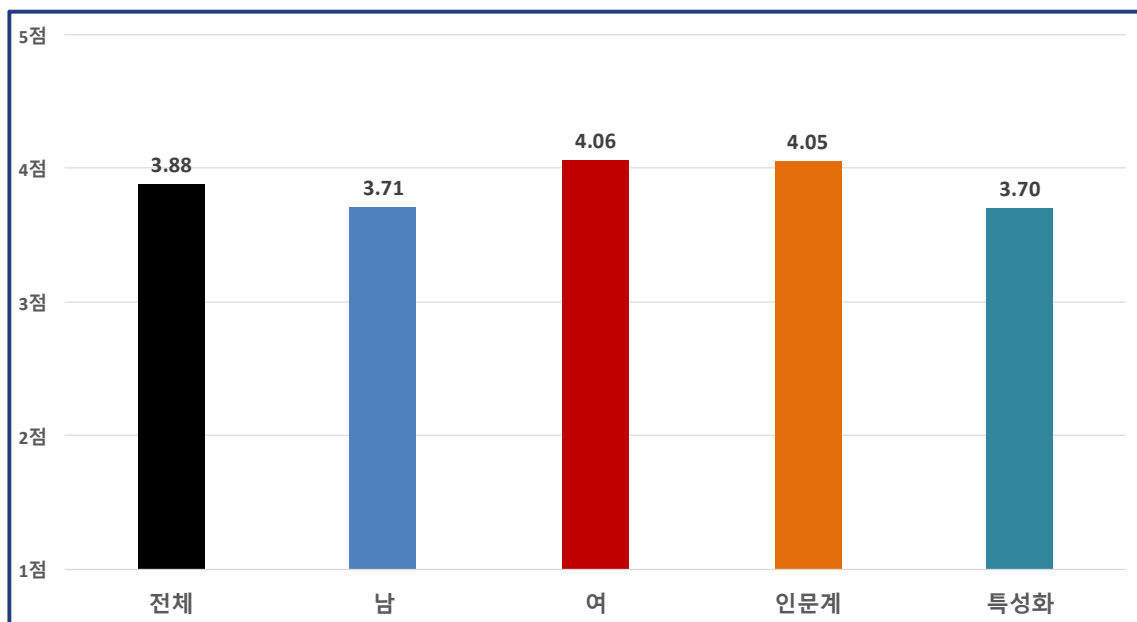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n=961)		1.0	4.5	25.9	42.4	26.2	3.88	0.884
성별	남(488)	1.8	5.1	33.4	39.1	20.5	3.71	0.911
	여(461)	0.2	3.9	17.8	45.8	32.3	4.06	0.821
고교 유형	인문계(498)	0.6	3.0	18.7	45.8	31.9	4.05	0.824
	특성화(463)	1.5	6.0	33.7	38.7	20.1	3.70	0.909

- ‘우리나라는 비장애인에 견주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26.2%), ‘대체로 그렇다’ (42.4%), ‘그저 그렇다’ (25.9%), ‘그렇지 않다’ (4.5%), ‘전혀 그렇지 않다’ (1.0%)로 나타나,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의견(‘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이 68.6%로 그렇지않다는 의견(‘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5.5%보다 63.1%포인트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비장애인에 견주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여학생(78.1%)이 남학생(59.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77.7%)이 특성화고 학생(58.8%)보다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비장애인에 견주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의 5점 평균 값은 전체 3.88점으로 보통(3점)이상의 동의 의견을 보임
- 성별 차원에서는 여학생(4.06점)이 남학생(3.71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4.05점)이 특성화고 학생(3.70점)보다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여학생(4.06점), 인문계고 학생(4.05점)이 ‘우리나라는 비장애인에 견주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38>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전체)



<그림 Ⅱ-39>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성별, 고교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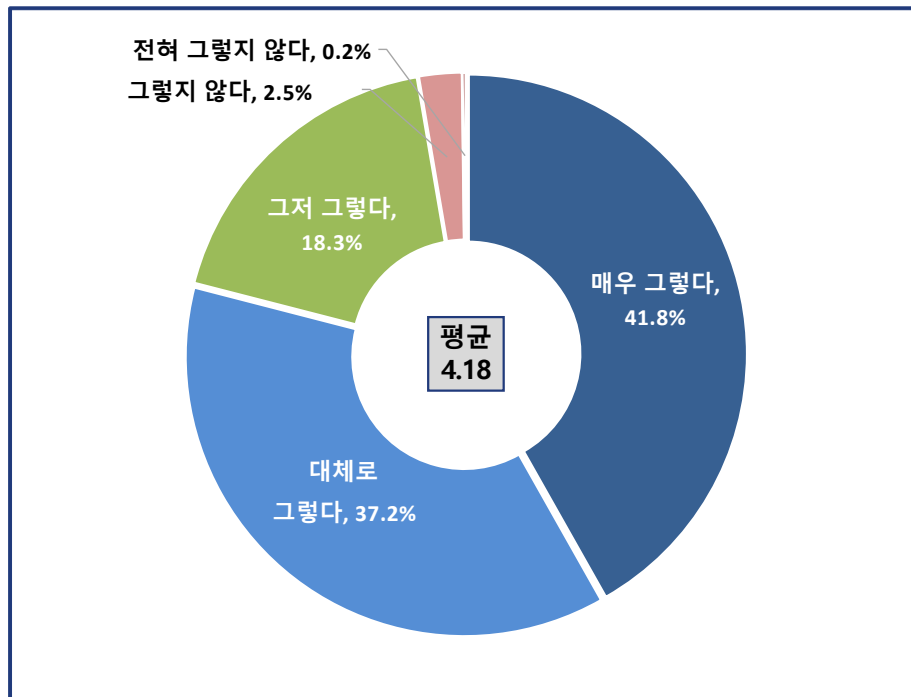
❖ “우리사회는 학벌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표 II-20】 학벌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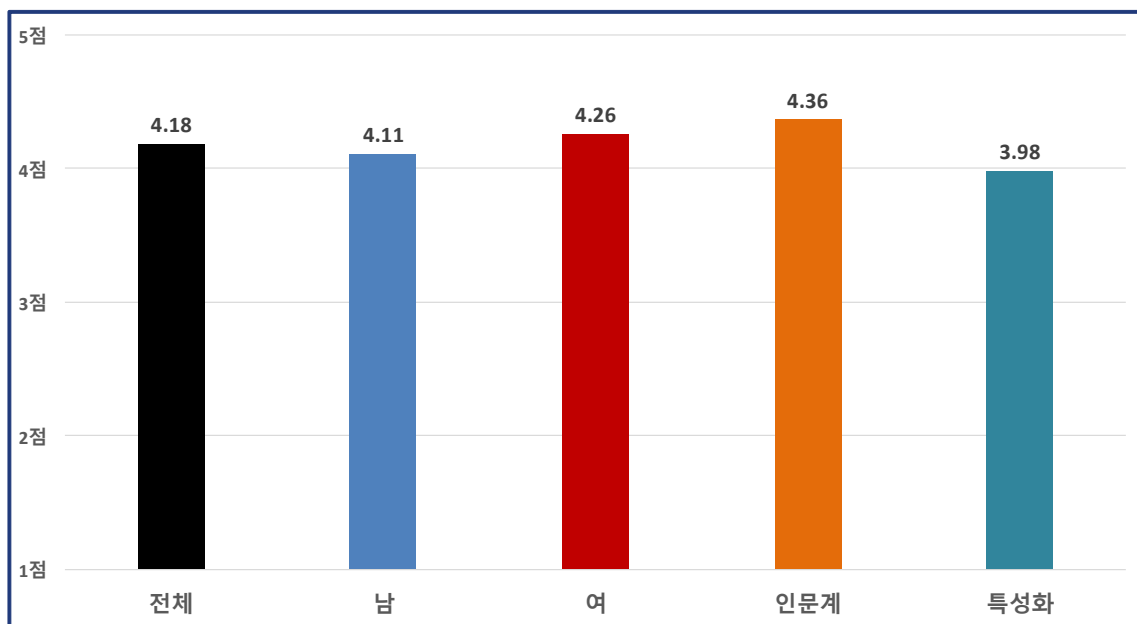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n=962)		0.2	2.5	18.3	37.2	41.8	4.18	0.830
성별	남(490)	0.2	3.5	21.4	34.5	40.4	4.11	0.874
	여(460)	0.2	1.5	14.3	40.2	43.7	4.26	0.772
고교 유형	인문계(499)	0.0	1.8	11.2	36.3	50.7	4.36	0.751
	특성화(463)	0.4	3.2	25.9	38.2	32.2	3.98	0.867

- ‘우리사회는 학벌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41.8%), ‘대체로 그렇다’ (37.2%), ‘그저 그렇다’ (18.3%), ‘그렇지 않다’ (2.5%), ‘전혀 그렇지 않다’ (0.2%)로 나타나, 학벌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의견(‘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이 79.0%로 그렇지않다는 의견(‘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2.7%보다 76.3%포인트 높게 나타남
- ‘우리사회는 학벌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여학생(83.9%)이 남학생(74.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87.0%)이 특성화고 학생(70.4%)보다 높게 나타남
- ‘우리사회는 학벌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의 5점 평균 값은 전체 4.18점으로 4점 이상의 매우 높은 동의 의견을 밝힘
- 성별 차원에서는 여학생(4.26점)이 남학생(4.11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4.36점)이 특성화고 학생(3.98점)보다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여학생(4.26점), 인문계고 학생(4.36점)이 ‘우리사회는 학벌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40> 학벌 차별(전체)



<그림 Ⅱ-41> 학벌 차별(성별, 고교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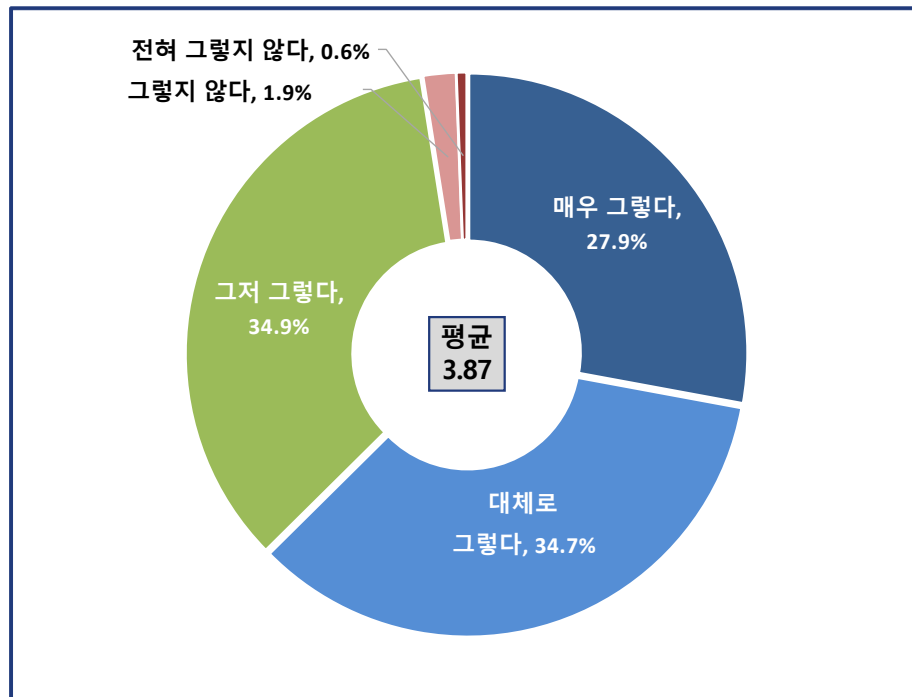
❖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표 II-21】 노동조합 결성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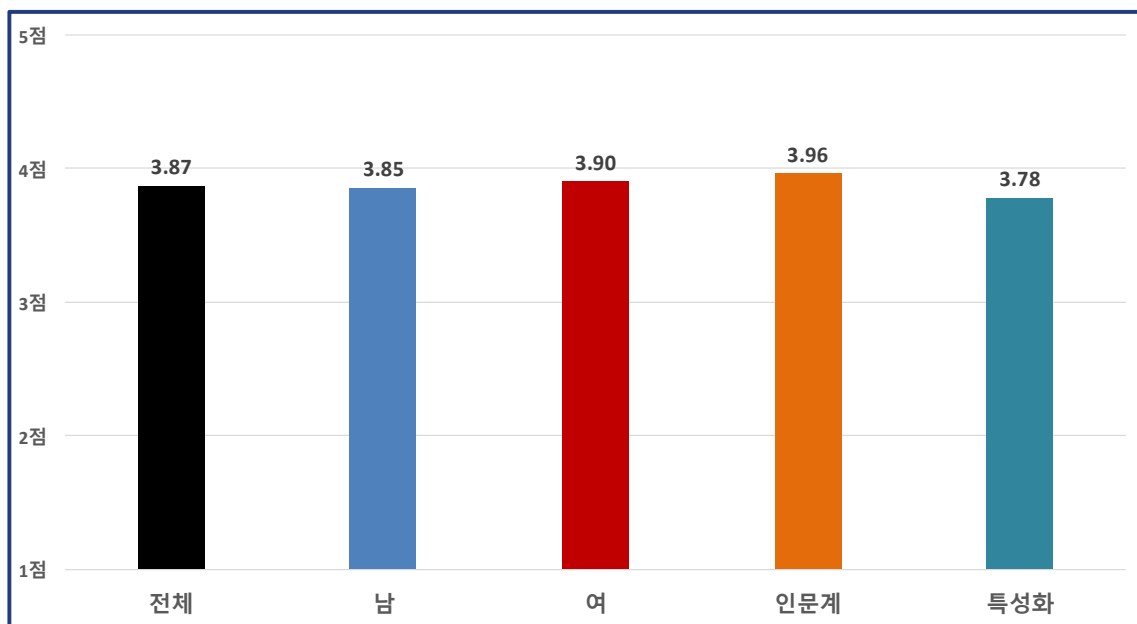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n=960)		0.6	1.9	34.9	34.7	27.9	3.87	0.863
성별	남(488)	0.6	2.5	35.9	33.2	27.9	3.85	0.878
	여(460)	0.7	1.1	33.9	36.7	27.6	3.90	0.841
고교 유형	인문계(498)	1.0	1.4	29.1	37.6	30.9	3.96	0.864
	특성화(462)	0.2	2.4	41.1	31.6	24.7	3.78	0.852

-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27.9%), ‘대체로 그렇다’ (34.7%), ‘그저 그렇다’ (34.9%), ‘그렇지 않다’ (1.9%), ‘전혀 그렇지 않다’ (0.6%)로 나타나, 노동조합 결성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이 62.6%로 그렇지않다는 의견(‘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2.5%보다 60.2%포인트 높게 나타남
-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여학생(64.3%)이 남학생(61.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68.5%)이 특성화고 학생(56.3%)보다 높게 나타남
-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의 5점 평균 값은 전체 3.87점으로 보통(3점) 이상의 동의 의견을 보임
- 성별 차원에서는 여학생(3.90점)이 남학생(3.85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3.96점)이 특성화고 학생(3.78점)보다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여학생(3.90점), 인문계고 학생(3.96점)이 ‘노동자들이 노동 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42> 노동조합 결성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전체)



<그림 Ⅱ-43> 노동조합 결성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성별, 고교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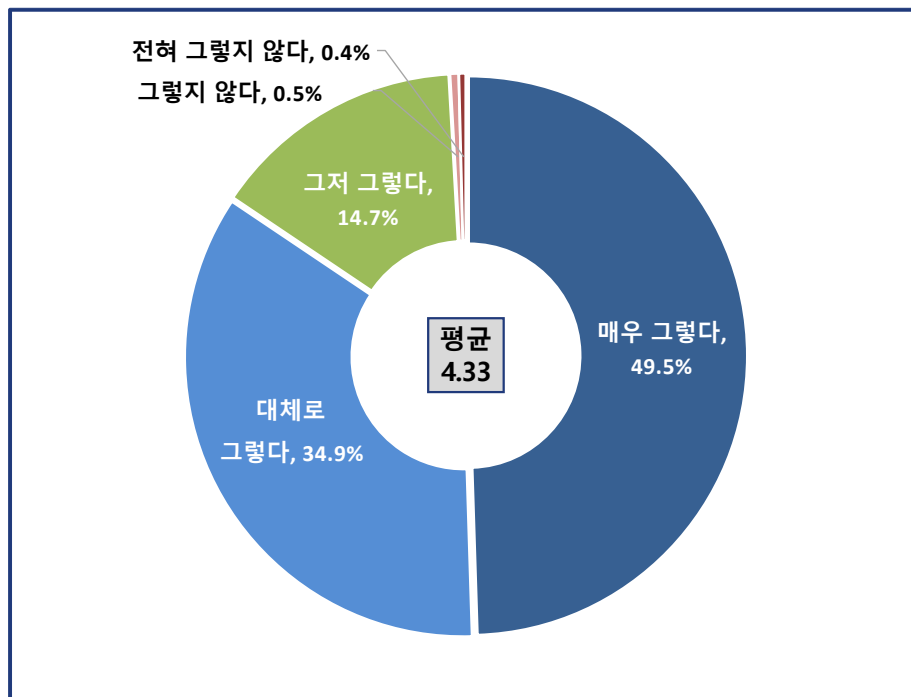
❖ “플랫폼노동(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노동 등)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표 II-22】 플랫폼 노동자 권리 인정 및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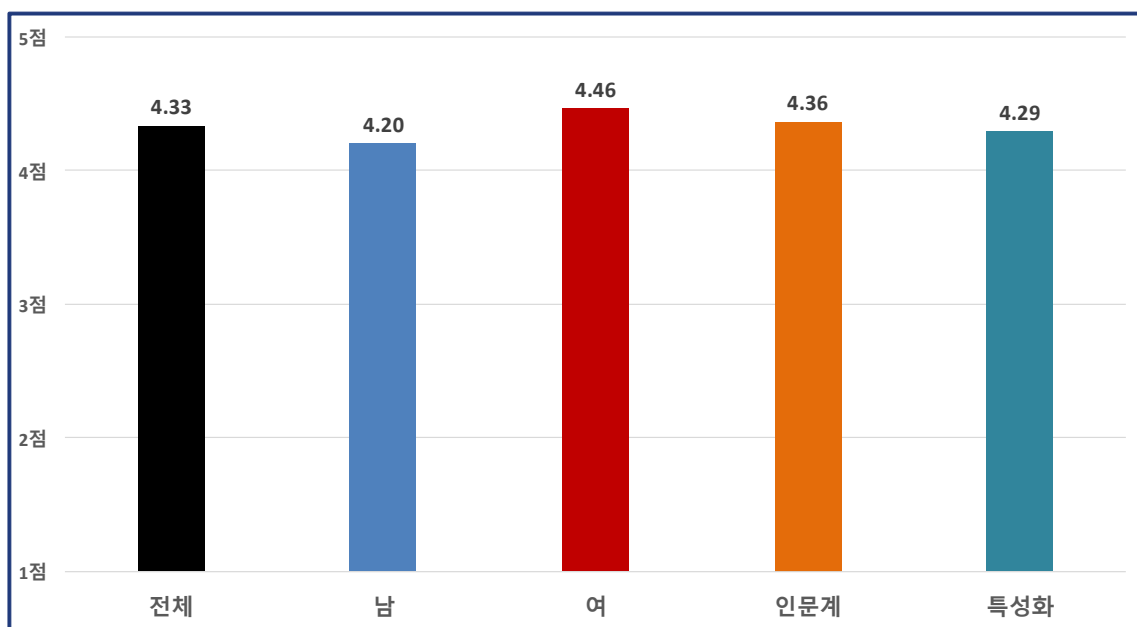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n=962)		0.4	0.5	14.7	34.9	49.5	4.33	0.771
성별	남(489)	0.6	0.6	19.2	36.8	42.7	4.20	0.812
	여(461)	0.2	0.2	9.5	33.2	56.8	4.46	0.692
고교 유형	인문계(500)	0.6	0.6	12.2	35.6	51.0	4.36	0.764
	특성화(462)	0.2	0.4	17.3	34.2	47.8	4.29	0.778

- ‘플랫폼노동(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노동 등)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49.5%), ‘대체로 그렇다’ (34.9%), ‘그저 그렇다’ (14.7%), ‘그렇지 않다’ (0.5%), ‘전혀 그렇지 않다’ (0.4%)로 나타나,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해야한다는 의견(‘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이 84.4%로 그렇지않다는 의견(‘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0.9%보다 83.5%포인트 높게 나타남
- ‘플랫폼노동(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노동 등)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여학생(90.0%)이 남학생(79.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 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86.6%)이 특성화고 학생(82.0%)보다 높게 나타남
- ‘플랫폼노동(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노동 등)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의견의 5점 평균 값은 전체 4.33점으로 4점 이상의 높은 동의 의견을 보임
- 성별 차원에서는 여학생(4.46점)이 남학생(4.20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4.36점)이 특성화고 학생(4.29점)보다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여학생(4.46점), 인문계고 학생(4.36점)이 ‘플랫폼노동(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노동 등)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44> 플랫폼 노동자 권리 인정 및 보장(전체)



<그림 Ⅱ-45> 플랫폼 노동자 권리 인정 및 보장(성별, 고교유형별)

❖ “대중교통 기사, 학교 조리사, 마트 노동자 등이 파업을 하는 경우 불편을 참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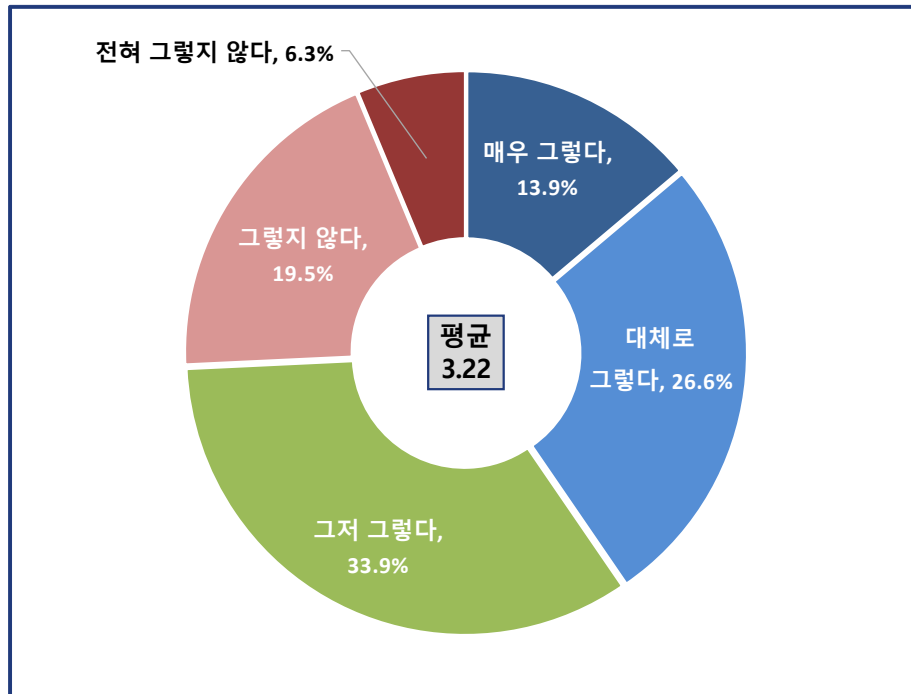
【표 II-23】 파업불편 감수

(단위: 명,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n=960)		6.3	19.5	33.9	26.6	13.9	3.22	1.103
성별	남(487)	4.9	16.8	37.2	26.5	14.6	3.29	1.064
	여(461)	7.2	22.6	30.6	26.9	12.8	3.16	1.127
고교 유형	인문계(499)	4.0	20.4	30.7	28.7	16.2	3.33	1.094
	특성화(461)	8.7	18.4	37.3	24.3	11.3	3.11	1.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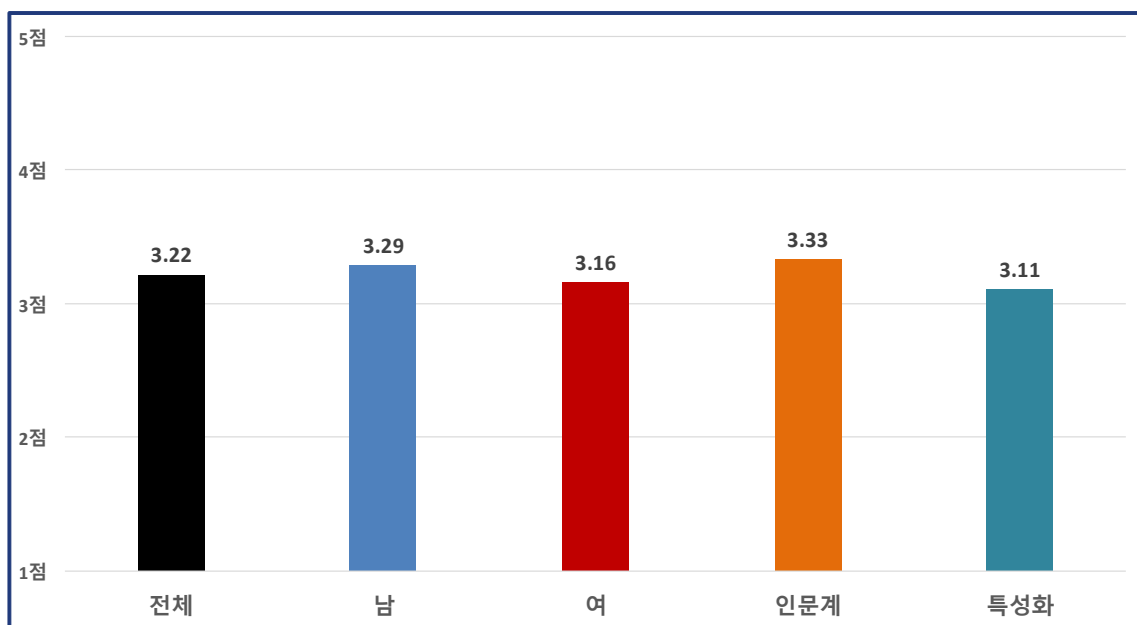
- ‘대중교통 기사, 학교 조리사, 마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불편을 참을 수 있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13.9%), ‘대체로 그렇다’ (26.6%), ‘그저 그렇다’ (33.9%), ‘그렇지 않다’ (19.5%), ‘전혀 그렇지 않다’ (6.3%)로 나타나, 우리나라 필수노동자들의 파업에 불편을 참을 수 있다가에 동의하는 의견(‘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이 40.5%로 그렇지않다는 의견(‘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25.8%보다 14.7%포인트 높게 나타남
- ‘대중교통 기사, 학교 조리사, 마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불편을 참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남학생(41.1%)이 여학생(39.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44.9%)이 특성화고 학생(35.6%)보다 높게 나타남
- ‘대중교통 기사, 학교 조리사, 마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불편을 참을 수 있다’라는 의견의 5점 평균 값은 전체 3.22점으로 보통(3점)을 조금 넘는 동의 의견을 내놓음
- 성별 차원에서는 남학생(3.29점)이 여학생(3.16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3.33점)이 특성화고 학생(3.11점)보다 높

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남학생(3.29점), 인문계고 학생(3.33점)이 ‘대중교통 기사, 학교 조리사, 마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불편을 참을 수 있다’ 라는 의견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46> 파업불편 감수(전체)



<그림 Ⅱ-47> 파업불편 감수(성별, 고교유형별)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연장, 유급 휴가 등에 가산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표 Ⅱ-24】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미지급은 부당

(단위: 명,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n=959)		0.4	2.6	27.6	36.1	33.3	3.99	0.867
성별	남(490)	0.4	3.1	32.4	33.7	30.4	3.91	0.883
	여(457)	0.4	2.2	22.3	38.5	36.5	4.09	0.843
고교 유형	인문계(499)	0.6	2.0	24.2	38.9	34.3	4.04	0.848
	특성화(460)	0.2	3.3	31.3	33.0	32.2	3.94	0.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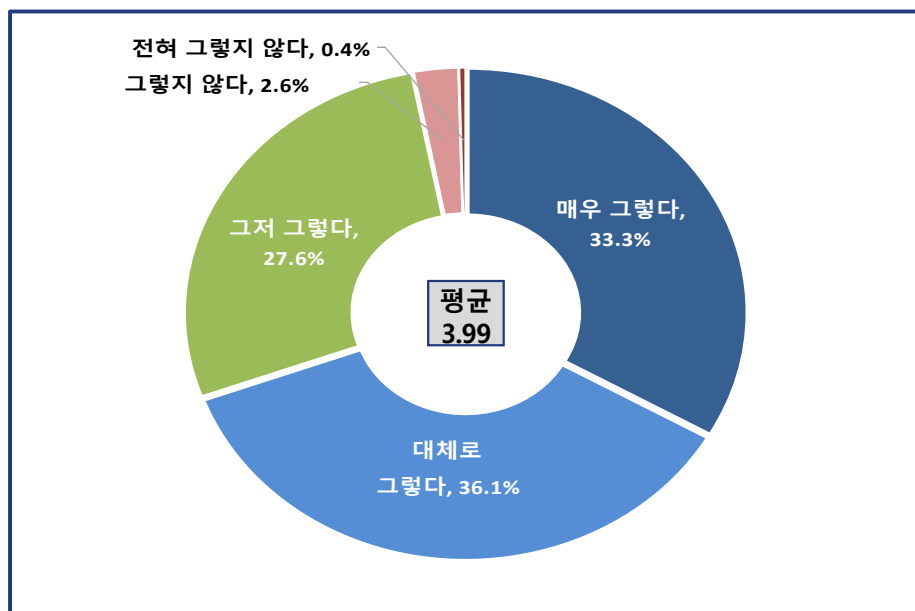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연장, 유급 휴가 등에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33.3%), ‘대체로 그렇다’ (36.1%), ‘그저 그렇다’ (27.6%), ‘그렇지 않다’ (2.6%), ‘전혀 그렇지 않다’ (0.4%)로 나타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이 69.4%로 그렇지않다는 의견(‘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3%보다 66.4%포인트 높게 나타남.

하지만 27.6%는 ‘그저 그렇다’는 의견을 보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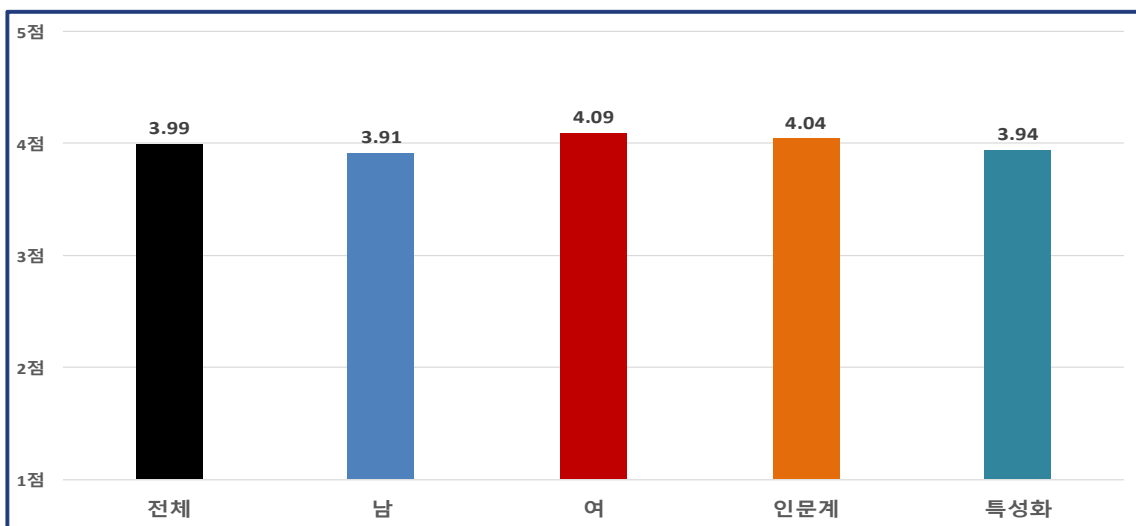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연장, 유급 휴가 등에 가산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여학생(75.0%)이 남학생(64.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73.2%)이 특성화고 학생(65.2%)보다 높게 나타남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연장, 유급 휴가 등에 가산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의 5점 평균 값은 전체

3.99점으로 거의 4점에 이르는 동의 의견을 보임

- 성별 차원에서는 여학생(4.09점)이 남학생(3.91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인문계고 학생(4.04점)이 특성화고 학생(3.94점)보다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여학생(4.09점), 인문계고 학생(4.04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연장, 유급 휴가 등에 가산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48>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미지급은 부당(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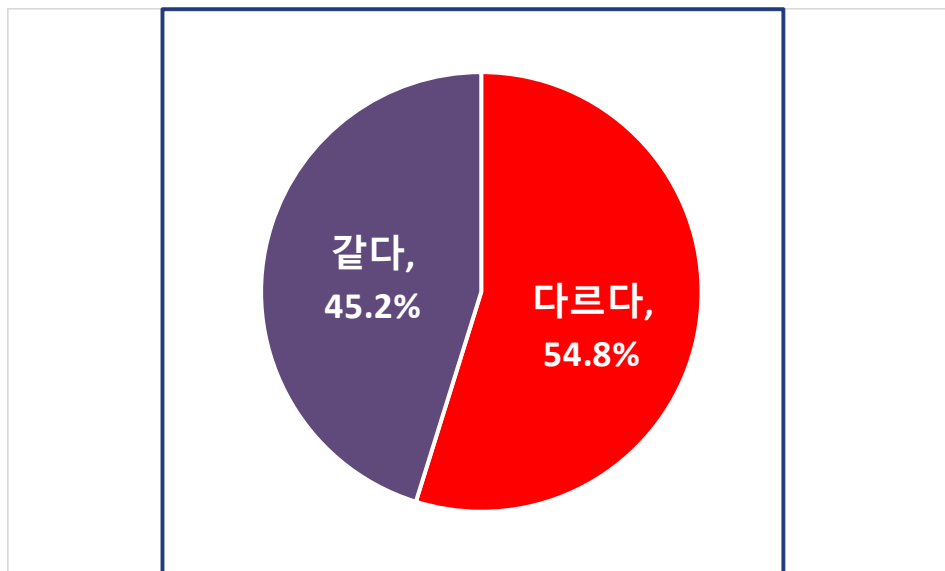


<그림 Ⅱ-49>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미지급은 부당(성별, 고교유형별)

❖ “근로자라는 말과 노동자라는 말은 서로 의미와 뜻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표 Ⅱ-25】 근로자와 노동자의 단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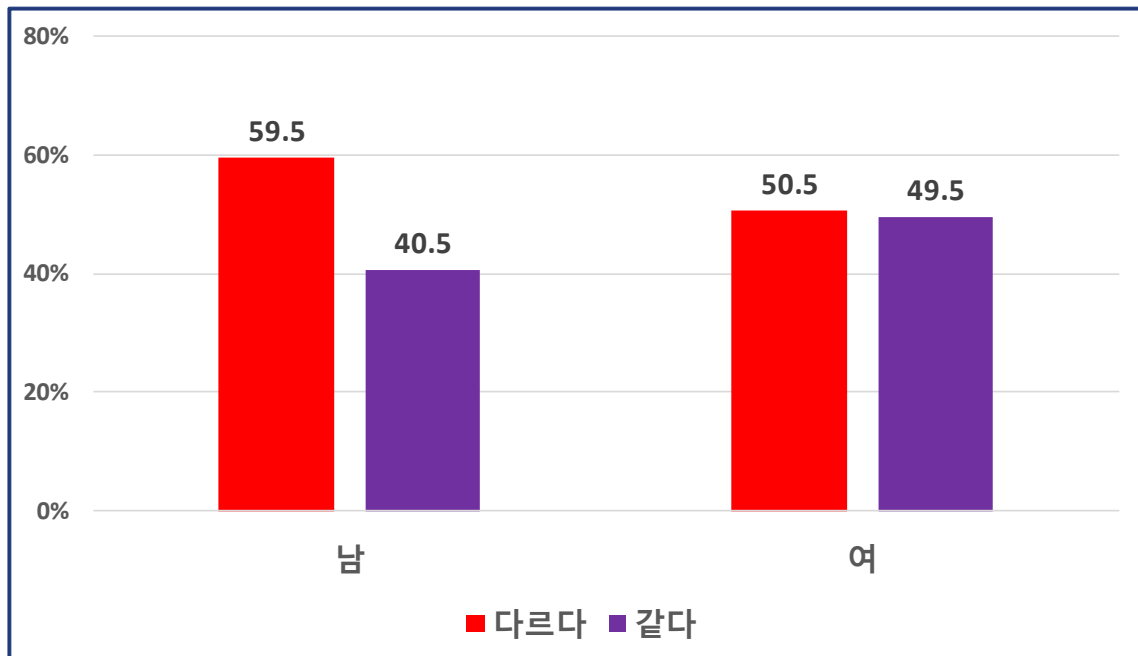
(단위: 명, %)		다르다	같다
전체(n=959)		54.8	45.2
성별	남(486)	59.5	40.5
	여(461)	50.5	49.5
고교 유형	인문계(499)	57.7	42.3
	특성화(460)	51.7	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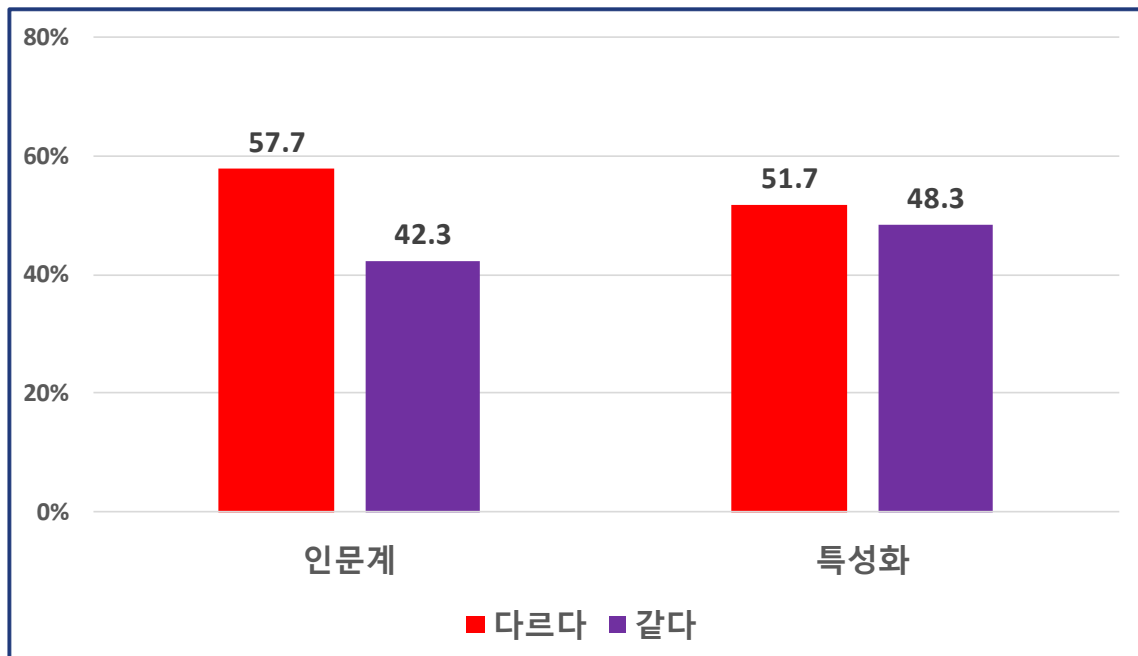
<그림 Ⅱ-50> 근로자와 노동자의 단어 인식(전체)

- ‘근로자라는 말과 노동자라는 말은 서로 의미와 뜻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에 ‘다르다’ 라고 보는 입장은 전체의 54.8%를 기록함
-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말의 의미가 같다는 의견은 45.2%로 나타남
- ‘근로자라는 말과 노동자라는 말은 서로 의미와 뜻이 다르다고 생각

한다’ 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은 여학생(50.5%)보다 남학생(59.5%)이 특성화고(51.7%)보다 인문계고(57.7%) 집단에 더 높게 나타남



<그림 Ⅱ-51> 근로자와 노동자의 단어 인식(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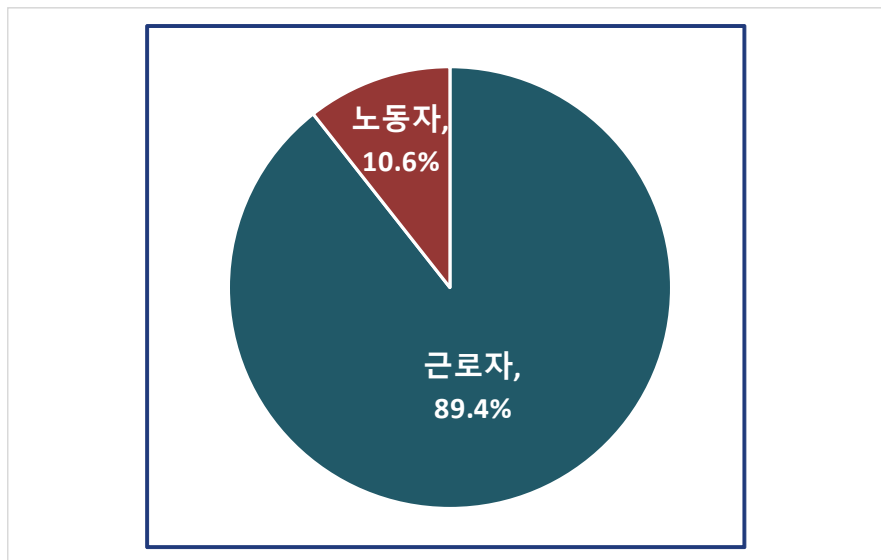


<그림 Ⅱ-52> 근로자와 노동자의 단어 인식(고교유형별)

❖ “일 하는 사람에게 근로자와 노동자 중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Ⅱ-26】 근로자와 노동자 중 옳바른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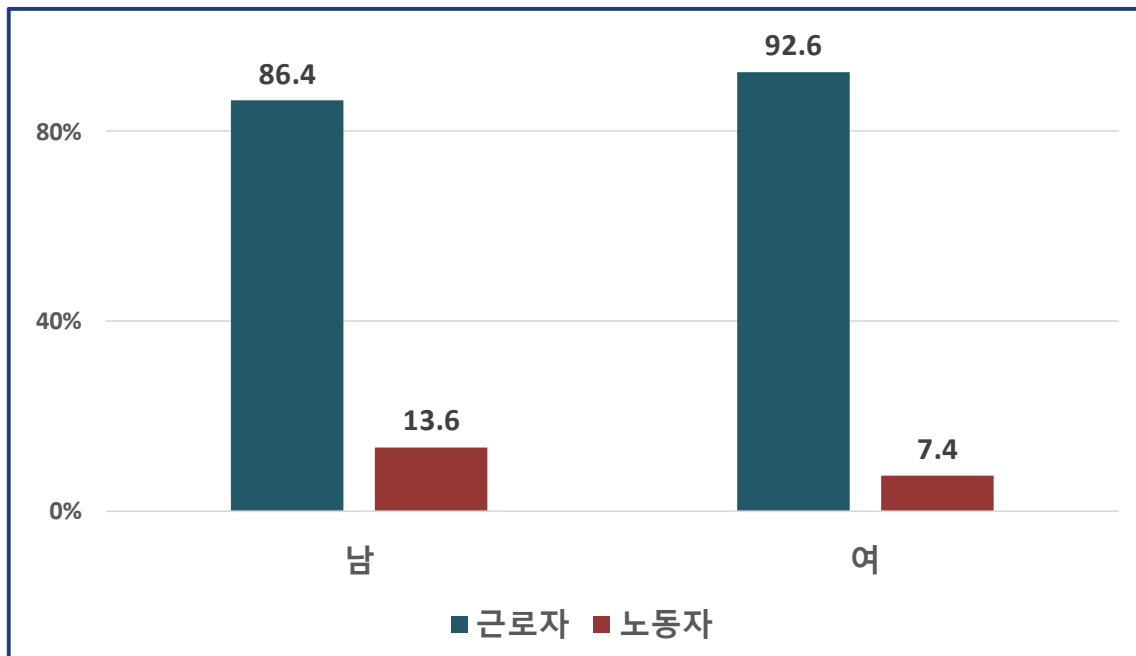
(단위: 명, %)		근로자	노동자
전체(n=959)		89.4	10.6
성별	남(419)	86.4	13.6
	여(425)	92.6	7.4
고교 유형	인문계(499)	89.5	10.5
	특성화(460)	89.3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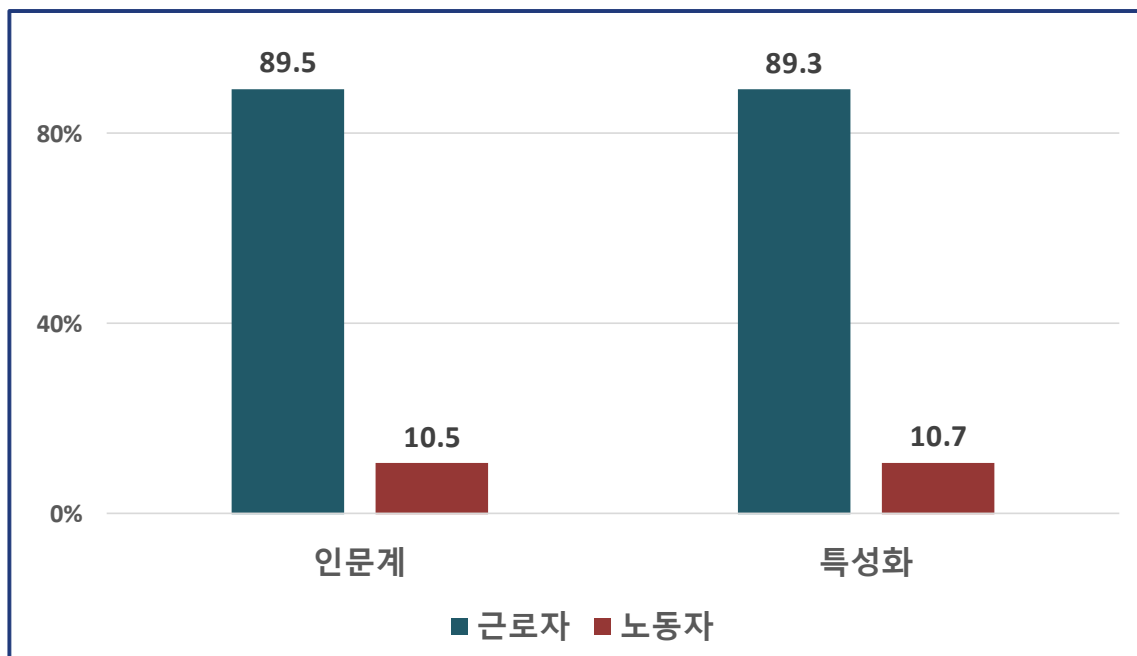
<그림 Ⅱ-53> 근로자와 노동자 중 옳바른 단어(전체)

- ‘일 하는 사람에게 근로자와 노동자 중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바르다’ 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0명 가운데 9명(89.4%)은 ‘근로자’가 옳바르다는 의견을 보임
- ‘노동자’라는 단어 사용이 옳바르다는 의견은 10.6%에 불과해, 노동자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

- ‘근로자’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바르다는 응답은 남학생(86.4%)보다 여학생(92.6%)이, 인문계고(89.5%)보다 특성화고(89.3%)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Ⅱ-54> 근로자와 노동자 중 옳바른 단어(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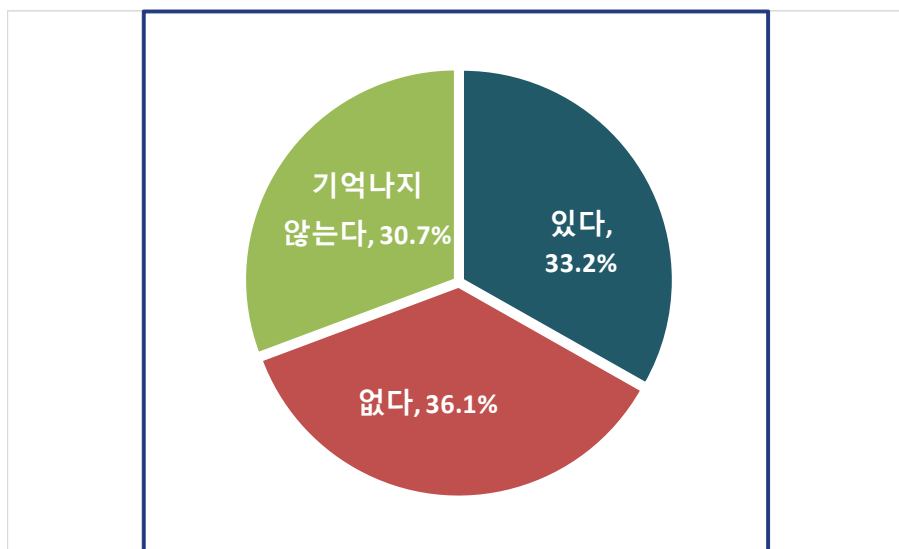
<그림 Ⅱ-55> 근로자와 노동자 중 옳바른 단어(고교유형별)

3 노동인권 교육

❖ 노동인권 교육 수강 여부

【표 Ⅱ-27】 노동인권 교육 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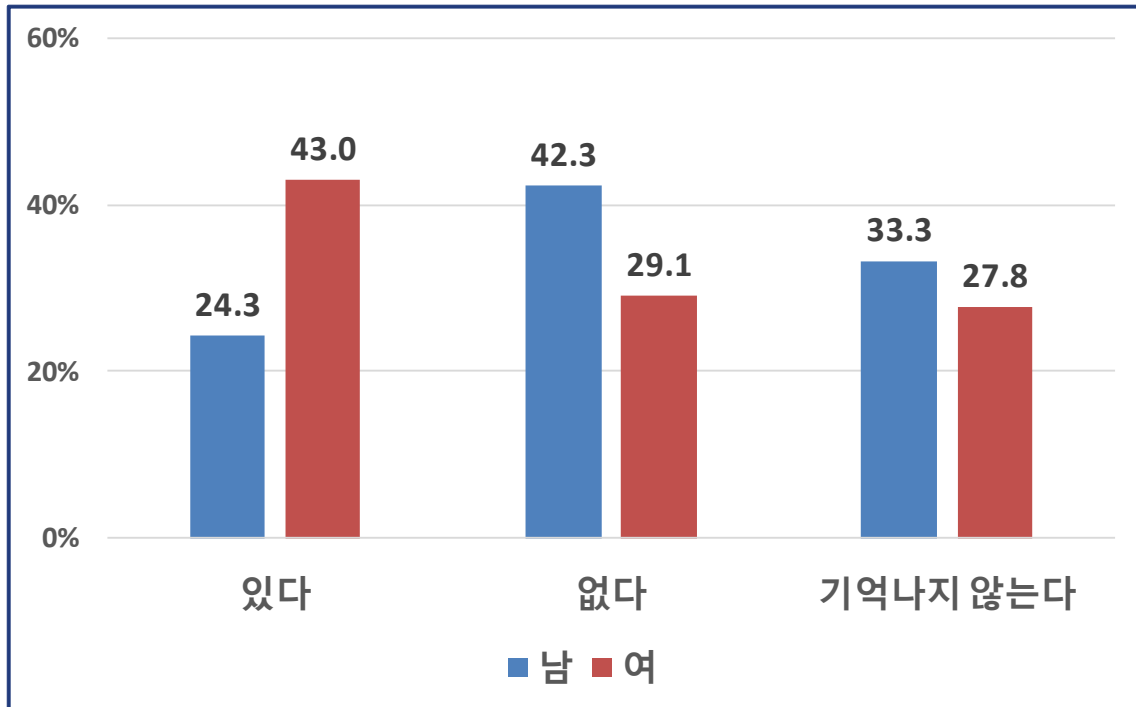
(단위: 명, %)		있다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전체(n=961)		33.2	36.1	30.7
성별	남(489)	24.3	42.3	33.3
	여(460)	43.0	29.1	27.8
고교 유형	인문계(498)	11.8	56.6	31.5
	특성화(463)	56.2	14.0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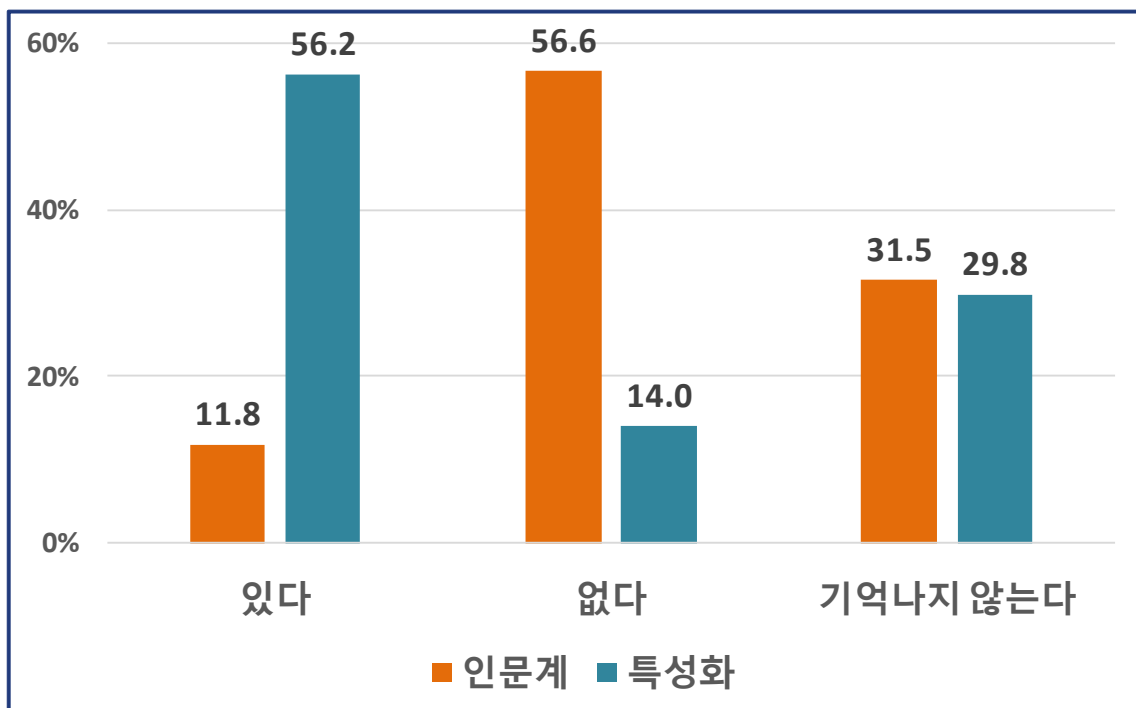
<그림 Ⅱ-56> 노동인권 교육 수강(전체)

-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3.2%로 파악됨
- 노동인권 교육 수강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7%를 기록하였으며, ‘없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36.1%로 나타남

- 노동인권 교육 수강 비율은 여학생(43.0%)이 남학생(24.3%)보다, 특성화고 학생(56.2%)이 인문계고 학생(11.8%)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Ⅱ-57> 노동인권 교육 수강(성별)



<그림 Ⅱ-58> 노동인권 교육 수강(고교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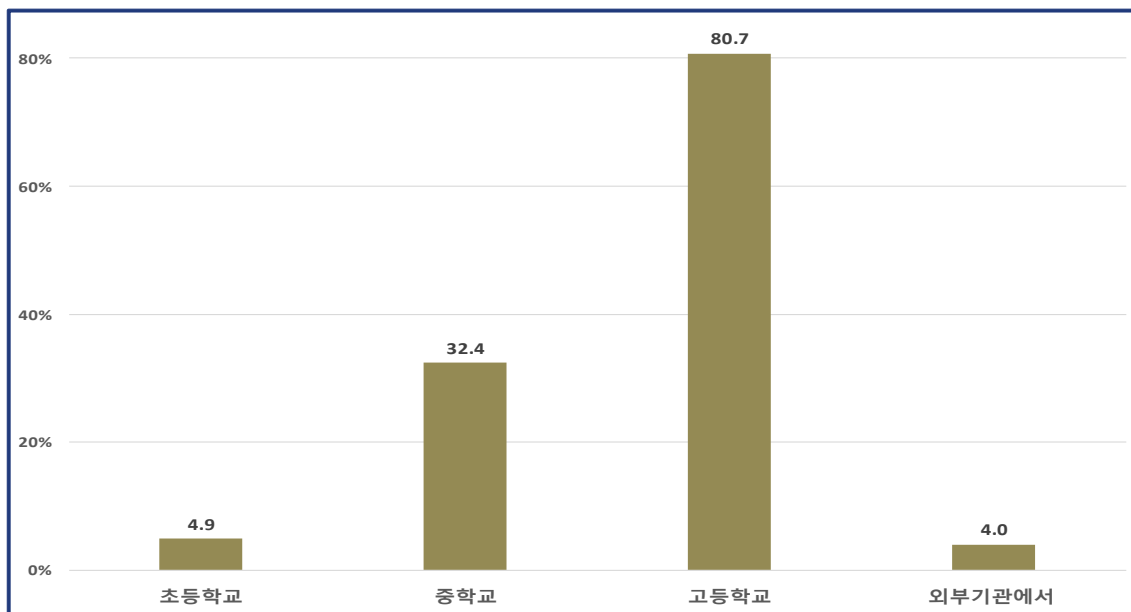
◆ 노동인권 교육 수강 기관

【표 Ⅱ-28】 노동인권 교육 수강 기관(복수응답)

구 분(단위: %)	전체	남	여	인문계	특성화
초등학교	4.9	6.3	4.0	9.2	3.8
중학교	32.4	37.0	29.3	72.3	22.5
고등학교	80.7	73.2	86.4	36.9	91.6
외부기관에서	4.0	4.7	3.0	12.3	1.9

주1: 노동인권 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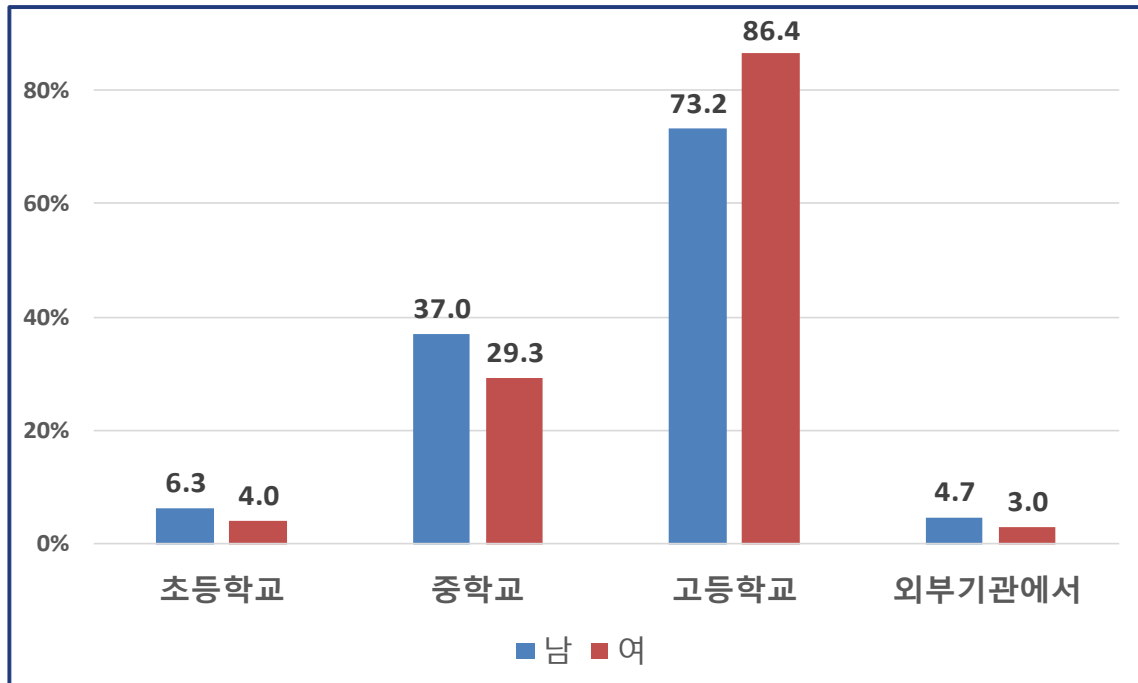
주2: 복수응답 항목으로 구성비가 100을 초과함. 각 비율(%)은 항목별 응답 수를 응답자 합계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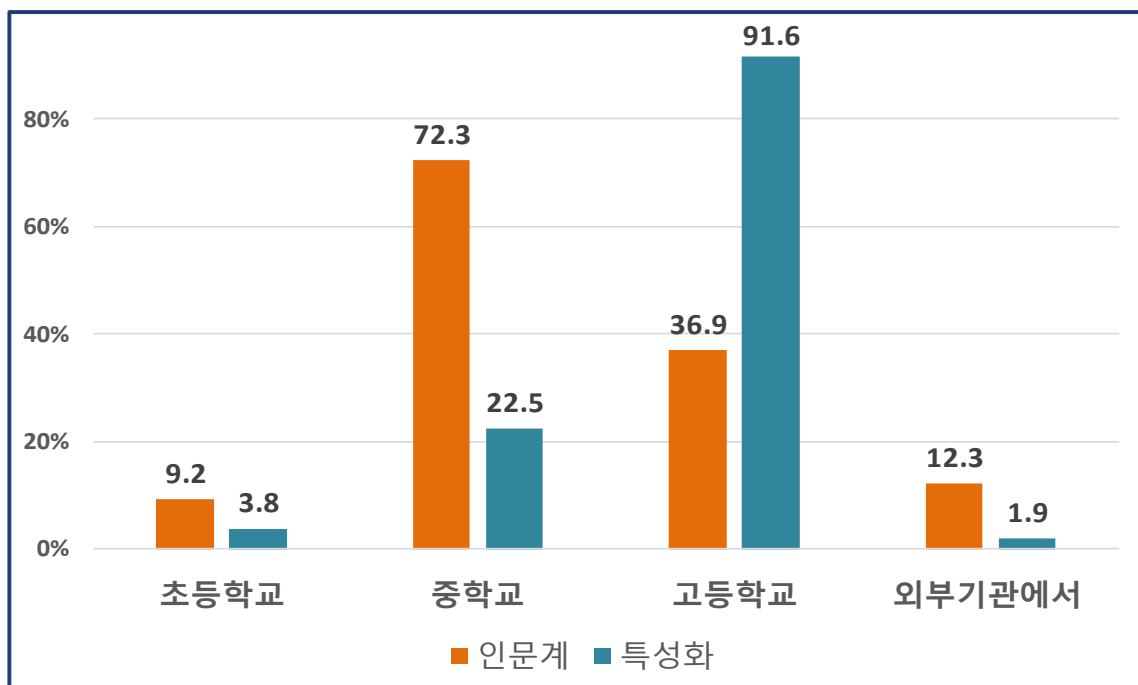
<그림 Ⅱ-59> 노동인권 교육 수강 기관(전체)

-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수강 기관을 살펴본 결과(복수응답), 고등학교가 전체의 80.7%로 대부분을 차지함
- 다음으로 중학교(32.4%), 초등학교(4.9%), 외부기관에서(4.0%) 순임

- 노동인권 교육 수강 기관과 관련 남학생(73.2%)과 여학생(86.4%) 모두 고등학교 비중이 높았으며, 반면 인문계(72.3%)는 중학교에서 수강 비율이, 특성화고(91.6%)는 고등학교에서의 수강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Ⅱ-60> 노동인권 교육 수강 기관(성별)



<그림 Ⅱ-61> 노동인권 교육 수강 기관(고교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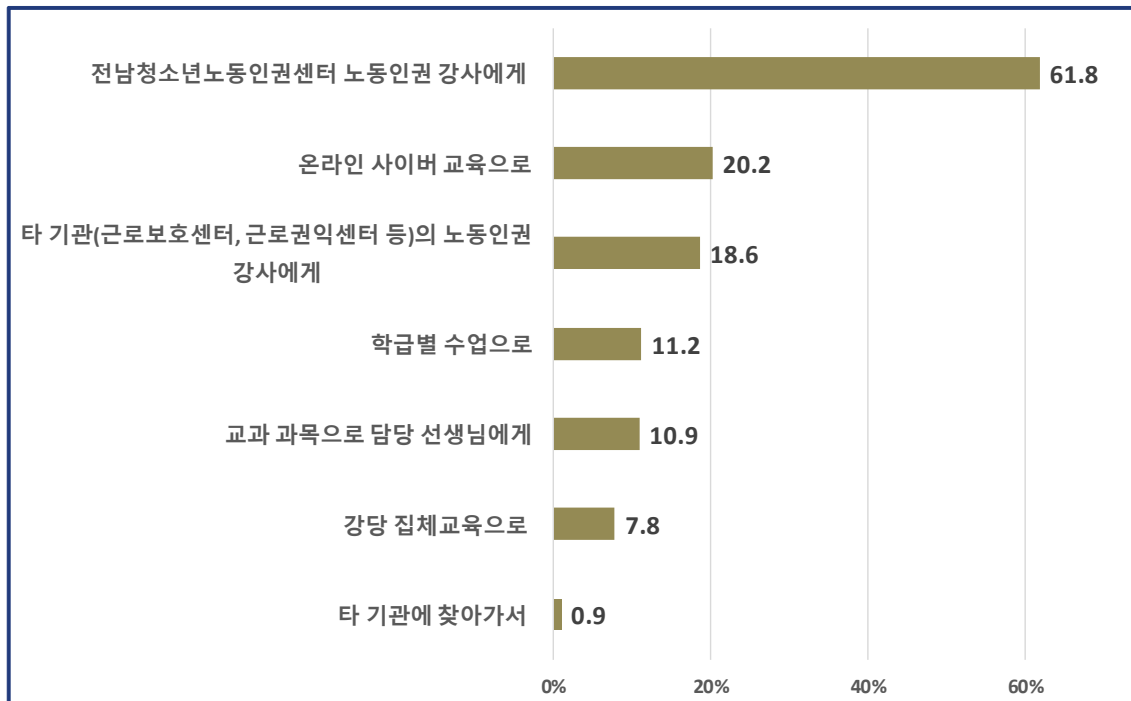
❖ 노동인권 교육의 수강 형태

【표 Ⅱ-29】 노동인권 교육 형태(복수응답)

구 분(단위: %)	전체	남	여	인문계	특성화
교과 과목으로 담당 선생님께서	10.9	11.9	10.3	30.3	5.9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노동인권 강사에게 (외부 강사)	61.8	42.1	74.7	33.3	69.1
타 기관(근로보호센터, 근로권익센터 등)의 노동인권 강사에게 (외부 강사)	18.6	22.2	16.5	25.8	16.8
온라인 사이버 교육으로	20.2	30.2	13.9	13.6	21.9
강당 집체교육으로	7.8	8.7	7.2	16.7	5.5
학급별 수업으로	11.2	8.7	12.4	13.6	10.5
타 기관에 찾아가서	0.9	1.6	0.5	4.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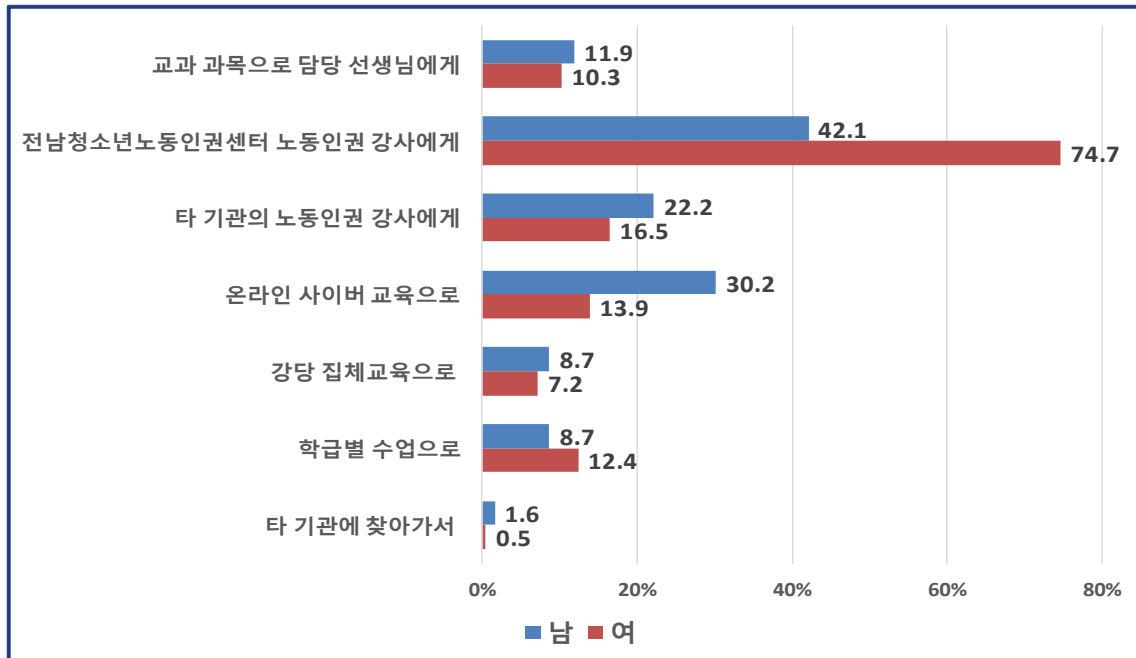
주1: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 한함

주2: 복수응답 항목으로 구성비가 100을 초과함. 각 비율(%)은 항목별 응답 수를 응답자 합계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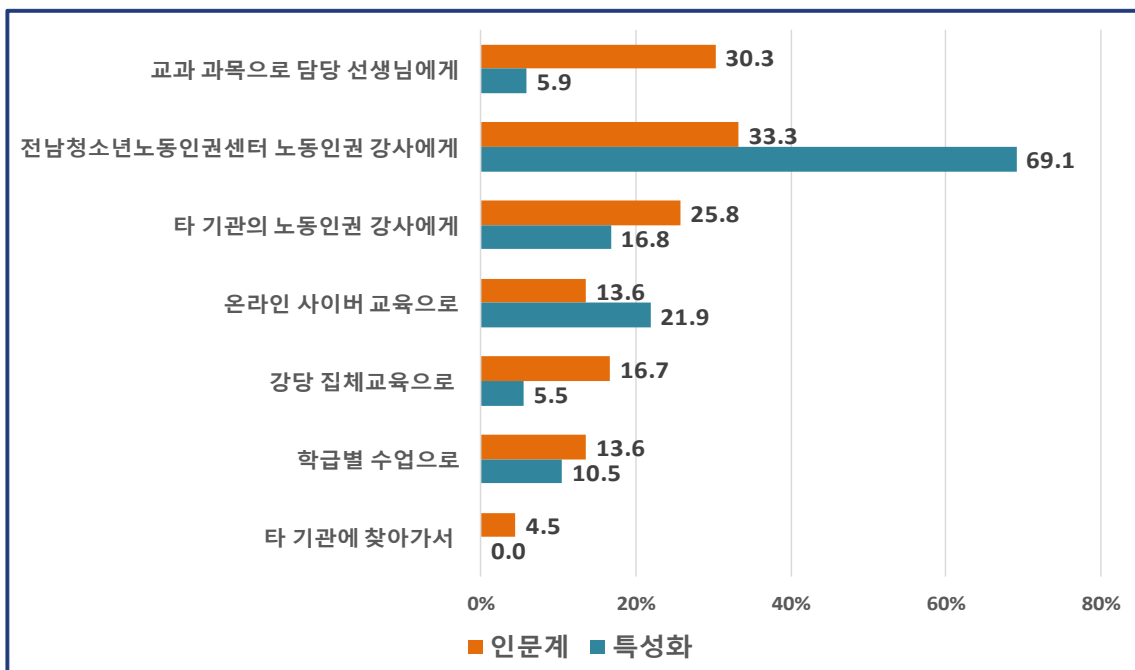


<그림 Ⅱ-62> 노동인권 교육 형태(전체)

- 노동인권 교육을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살펴본 결과(복수응답) ‘전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노동인권 강사’에게 받았다는 답변이 전체의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여학생(74.7%), 특성화고 학생(69.1%)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Ⅱ-63> 노동인권 교육 형태(전체)



<그림 Ⅱ-64> 노동인권 교육 형태(고교유형별)

❖ 노동인권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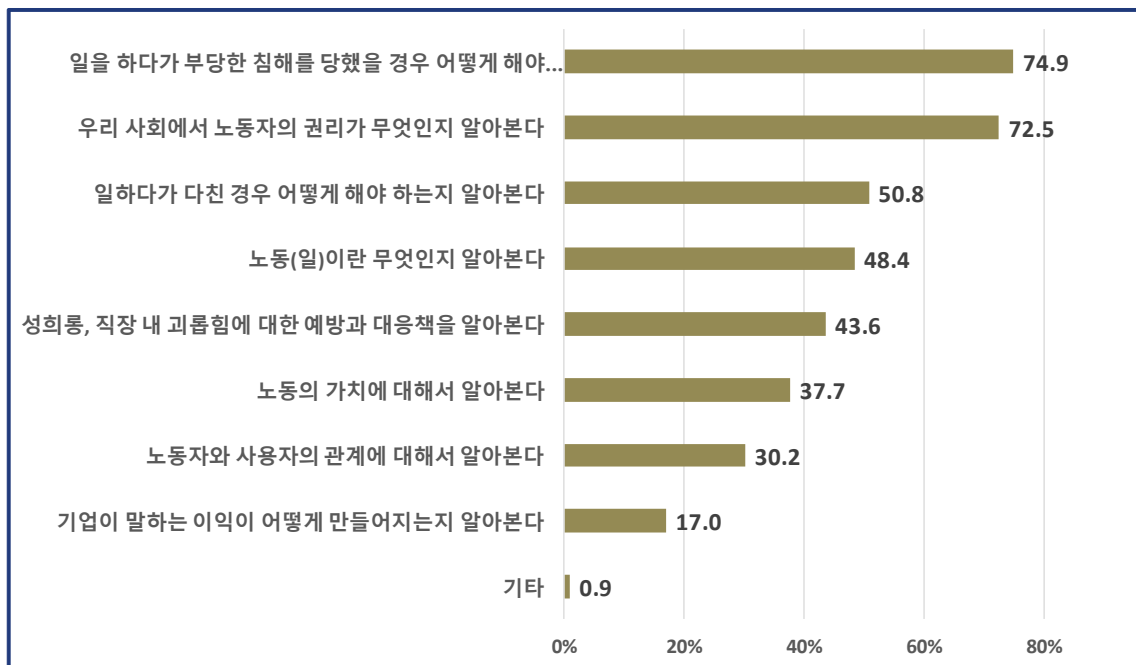
【표 II-30】 노동인권 관련 항목 및 내용(복수응답)

구 분(단위: %)	전체	남	여	인문계	특성화
노동(일)이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48.4	52.8	43.8	46.3	51.0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72.5	69.0	76.2	77.1	67.1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30.2	29.8	30.5	31.0	29.3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을 알아본다	43.6	34.2	53.4	42.9	44.4
일하다가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50.8	47.7	53.4	50.1	51.5
일을 하다가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74.9	67.4	82.2	79.0	69.9
기업이 말하는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본다	17.0	17.7	15.9	17.6	16.3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본다	37.7	38.1	37.3	39.9	34.9
기타	0.9	1.1	0.7	0.6	1.3

주: 복수응답 항목으로 구성비가 100을 초과함. 각 비율(%)은 항목별 응답 수를 응답자 합계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 것임

- 노동인권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살펴본 결과(복수응답) ‘일을 하다가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74.9%),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72.5%), ‘일하다가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50.8%), 노동(일)이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48.4%),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을 알아본다’ (4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남학생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69.0%), ‘일을 하다가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67.4%), ‘노동(일)이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5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학생은 ‘일을 하다가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82.2%),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76.2%),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을 알아본다’ 와 ‘일하다가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각 53.4%) 등의 50% 이상의 높은 응답을 기록함
- 특성화고는 ‘일을 하다가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69.9%),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67.1%), ‘일하다가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51.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문계고는 ‘일을 하다가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79.0%),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77.1%), ‘일하다가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50.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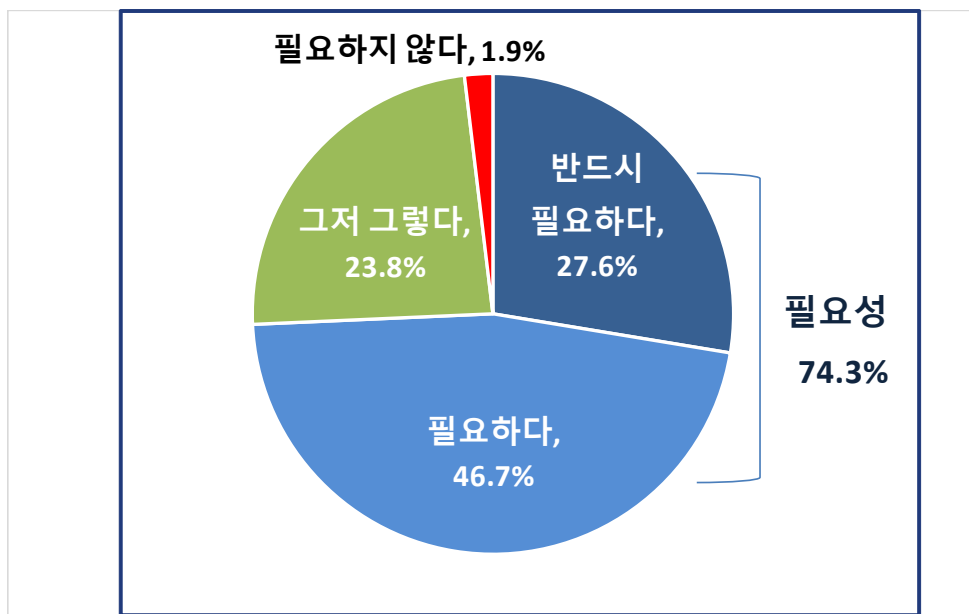
<그림 II-65> 노동인권 관련 항목 및 내용

❖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

【표 Ⅱ-31】 학교교육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

(단위: 명, %)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성
전체(n=956)		1.9	23.8	46.7	27.6	74.3
성별	남(484)	3.3	30.8	45.0	20.9	65.9
	여(460)	0.4	16.3	48.7	34.6	83.3
고교 유형	인문계(497)	3.4	23.1	51.3	22.1	73.4
	특성화(459)	0.2	24.6	41.6	33.6	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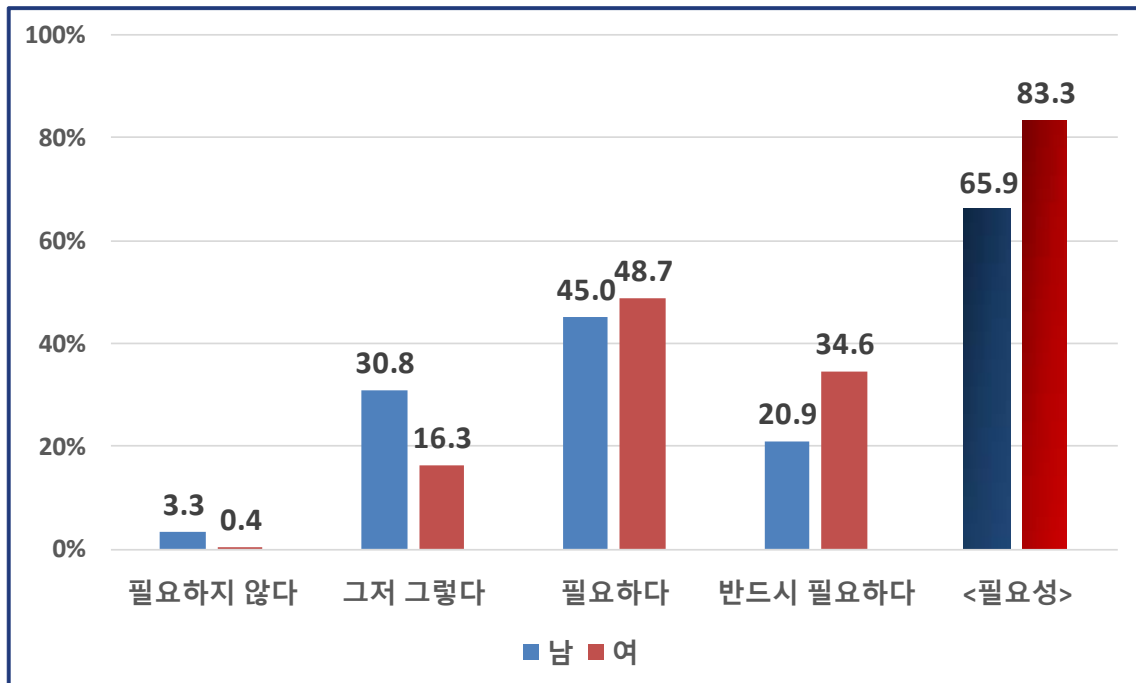
주: 필요성 비율은 '반드시 필요하다' + '필요하다'를 합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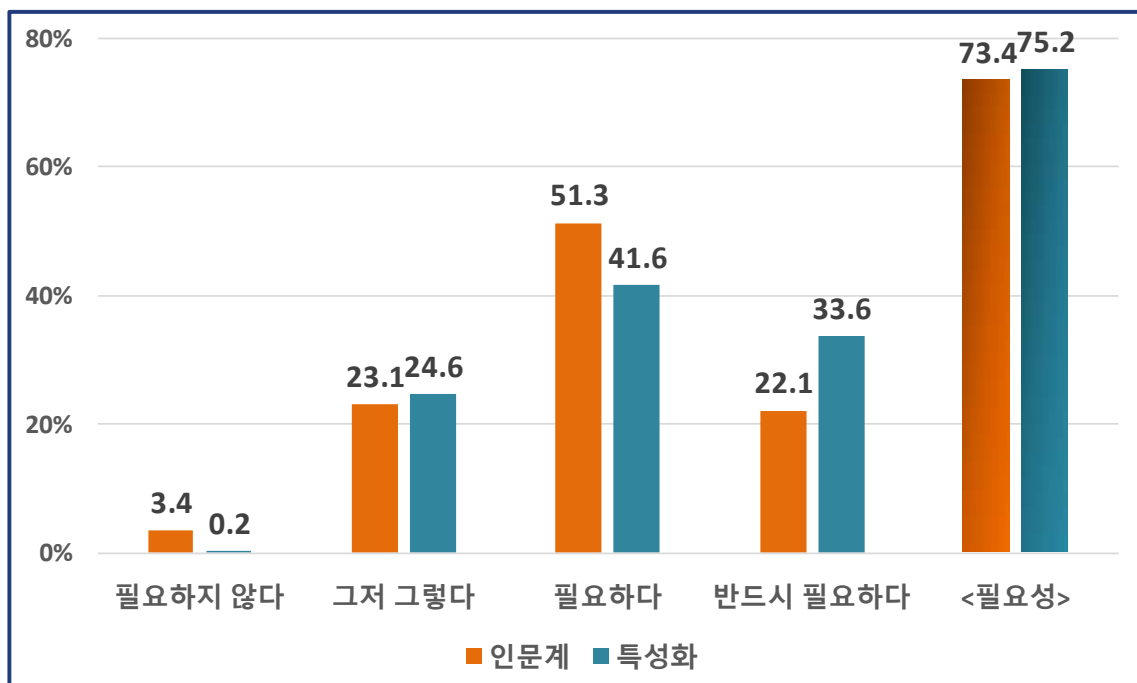
<그림 Ⅱ-66> 학교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전체)

- 학교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 27.6%, ‘필요하다’ 46.7%, ‘그저 그렇다’ 23.8%, ‘필요하지 않다’ 1.9%로 나타나, 필요하다(‘반드시 필요하다’ + ‘필요하다’)는 입장이 74.3%를 기록함

- 학교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전체 74.3%)은 여학생(83.3%)이 남학생(65.9%)보다 17.4%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 학생(75.2%)이 인문계고 학생(73.4%)보다 1.8%포인트 높게 나타남



<그림 Ⅱ-67>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성별)



<그림 Ⅱ-68>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고교유형별)

❖ 학교교육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II-32】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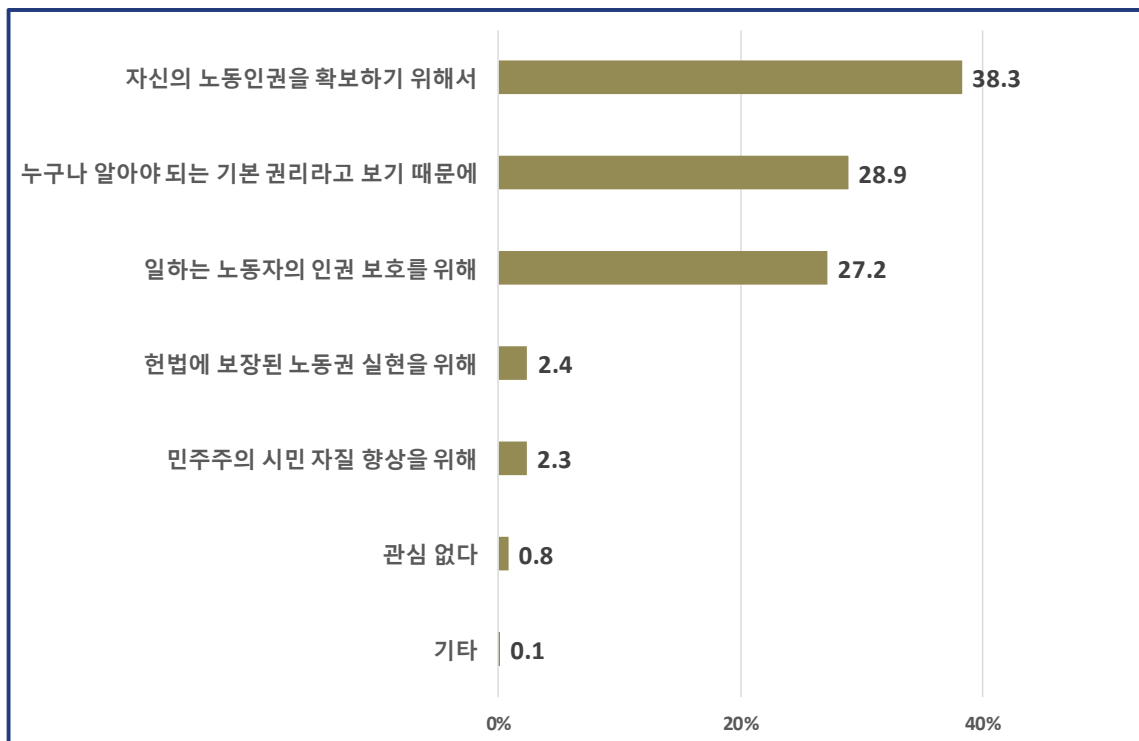
구 분	1순위	2순위	전체	남	여	인문계	특성화
자신의 노동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51.8	11.4	38.3	28.6	36.5	40.7	35.9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24.0	33.5	27.2	22.6	26.8	26.7	27.6
누구나 알아야 되는 기본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22.2	42.3	28.9	21.0	32.8	25.9	32.1
민주주의 시민 자질 향상을 위해	0.9	5.2	2.3	3.0	1.6	3.3	1.4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실현을 위해	0.3	6.6	2.4	2.9	2.3	2.8	2.0
관심 없다	0.8	0.7	0.8	0.9	0.1	0.5	1.0
기타	0.0	0.3	0.1	0.1	0.1	0.1	0.1

주1: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에 한함

주2: 전체는 1순위 200%, 2순위 100%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한 결과임

- 학교교육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1순위+2순위) ‘자신의 노동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누구나 알아야 되는 기본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28.9%),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27.2%),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실현을 위해’ (2.4%), ‘민주주의 시민 자질 향상을 위해’ (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남학생은 ‘자신의 노동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28.6%),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22.6%), ‘누구나 알아야 되는 기본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21.0%), ‘민주주의 시민 자질 향상을 위해’ (3.0%) 등의 순으로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들

- 여학생은 ‘자신의 노동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36.5%), ‘누구나 알아야 되는 기본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32.8%),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26.8%),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실현을 위해’ (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문계고 학생은 ‘자신의 노동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40.7%),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26.7%), ‘누구나 알아야 되는 기본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25.9%), ‘민주주의 시민 자질 향상을 위해’ (3.3%),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실현을 위해’ (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성화고 학생은 ‘자신의 노동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35.9%), ‘누구나 알아야 되는 기본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32.1%),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27.6%),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실현을 위해’ (2.0%), ‘민주주의 시민 자질 향상을 위해’ (1.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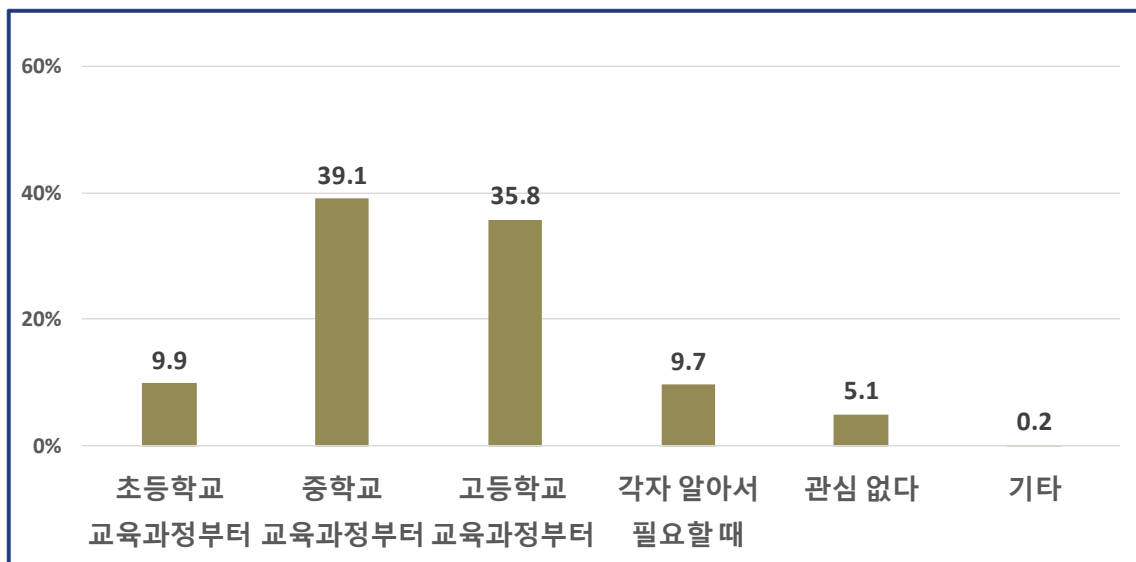


<그림 II-69>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1+2순위)

❖ 노동자의 권리,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시작 시기

【표 Ⅱ-33】 선호하는 노동인권 교육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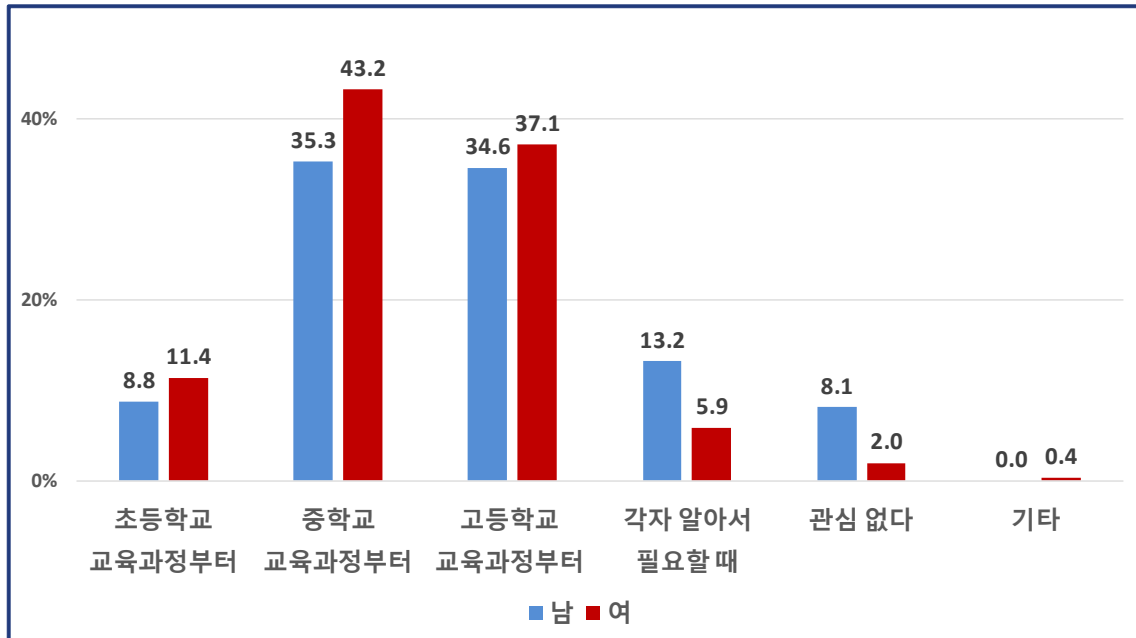
(단위: 명, %)		초등학교 교육과정 부터	중학교 교육과정 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 부터	각자 알 아서 필 요할 때	관심 없 다	기타
전체(n=935)		9.9	39.1	35.8	9.7	5.1	0.2
성별	남(468)	8.8	35.3	34.6	13.2	8.1	0.0
	여(456)	11.4	43.2	37.1	5.9	2.0	0.4
고교 유형	인문계(486)	11.1	41.8	30.7	11.3	4.9	0.2
	특성화(449)	8.7	36.3	41.4	8.0	5.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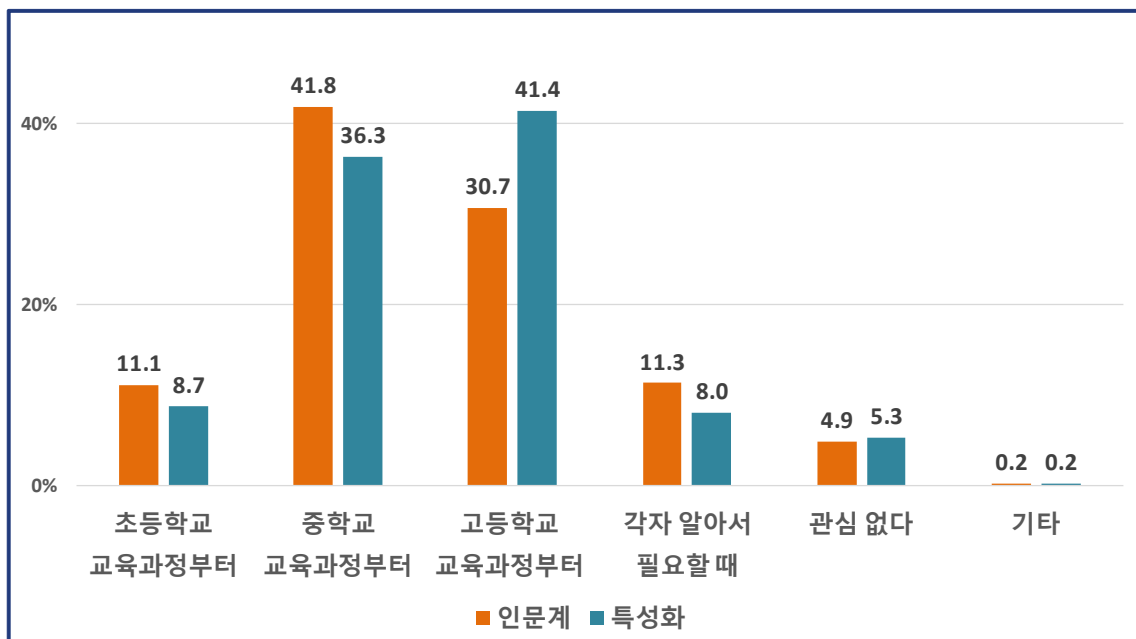
<그림 Ⅱ-70> 선호하는 노동인권 교육 시작 시기

- 노동자의 권리,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중학교 교육과정부터’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35.8%),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9.9%) 등으로 높게 나타남

- 남학생(35.3%)과 여학생(43.2%) 모두 ‘중학교 교육과정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시작하면 좋다고 가장 많이 응답함. 반면 인문계고(41.8%)는 ‘중학교 교육과정부터’, 특성화고(41.4%)는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Ⅱ-71> 선호하는 노동인권 교육 시작 시기(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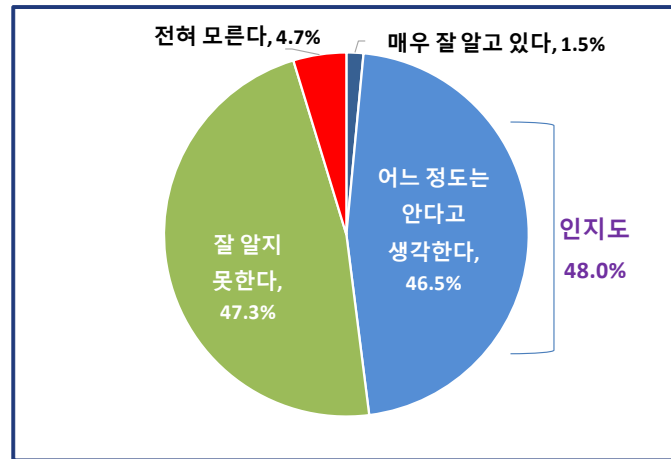
<그림 Ⅱ-72> 선호하는 노동인권 교육 시작 시기(고교유형별)

◆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인지 정도

【표 Ⅱ-34】 청소년노동인권 인지

(단위: 명, %)		전혀 모른다	잘 알지 못한다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한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인지도
전체(n=955)		4.7	47.3	46.5	1.5	48.0
성별	남(485)	6.8	48.2	43.3	1.6	44.9
	여(459)	2.2	46.8	49.7	1.3	51.0
고교 유형	인문계(498)	6.4	53.0	38.8	1.8	40.6
	특성화(457)	2.8	41.1	54.9	1.1	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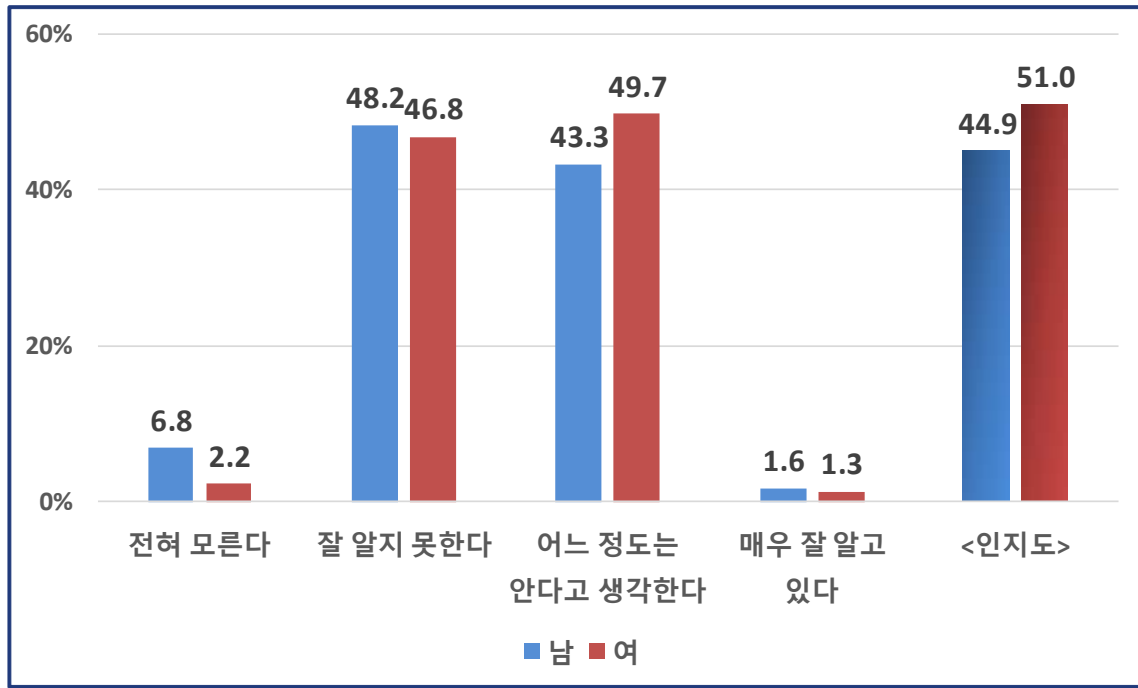
주: 인지도 비율은 '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한다'의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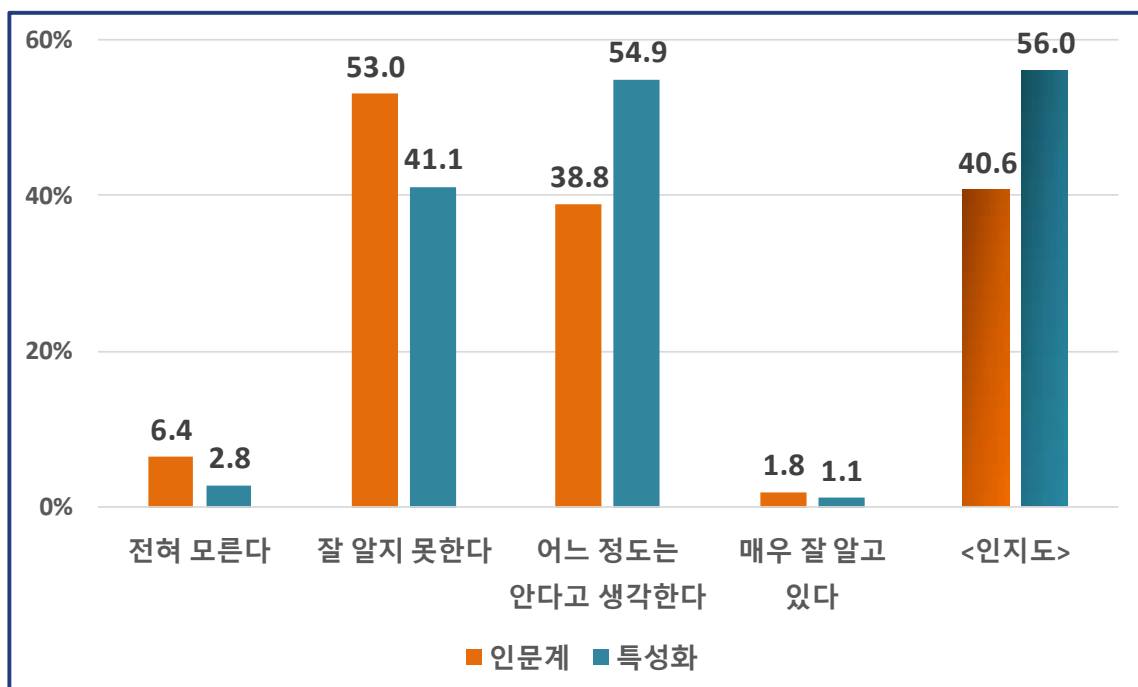
<그림 Ⅱ-73> 청소년 노동인권 인지도(전체)

-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1.5%,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6.5%, ‘잘 알지 못한다’ 47.3%, ‘전혀 모른다’ 4.7%로 나타나, 인지도(‘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48.0%를 기록해 50%를 넘지 못함
-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인지도는 여학생(51.0%)이 남학생(44.9%)보다 6.1%포인트 높게 나타남

- 고교유형별 차원에서 살펴보면,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인지도는 특성화고 학생(56.0%)이 인문계고 학생(40.6%)보다 15.4%포인트 높게 나타남



<그림 Ⅱ-74> 청소년 노동인권 인지도(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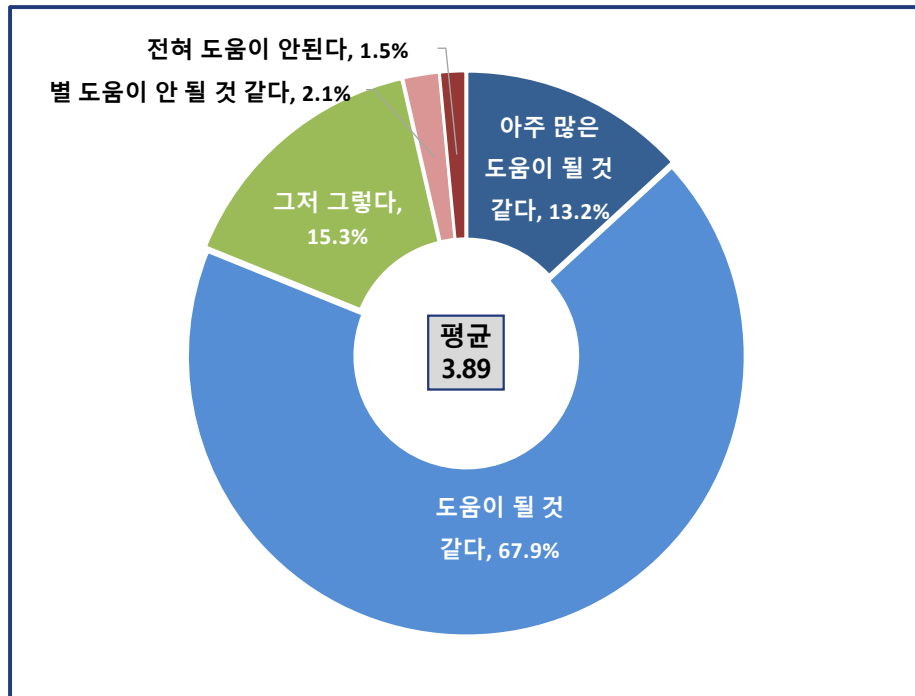
<그림 Ⅱ-75> 청소년 노동인권 인지도(고교유형별)

◆ 노동인권 교육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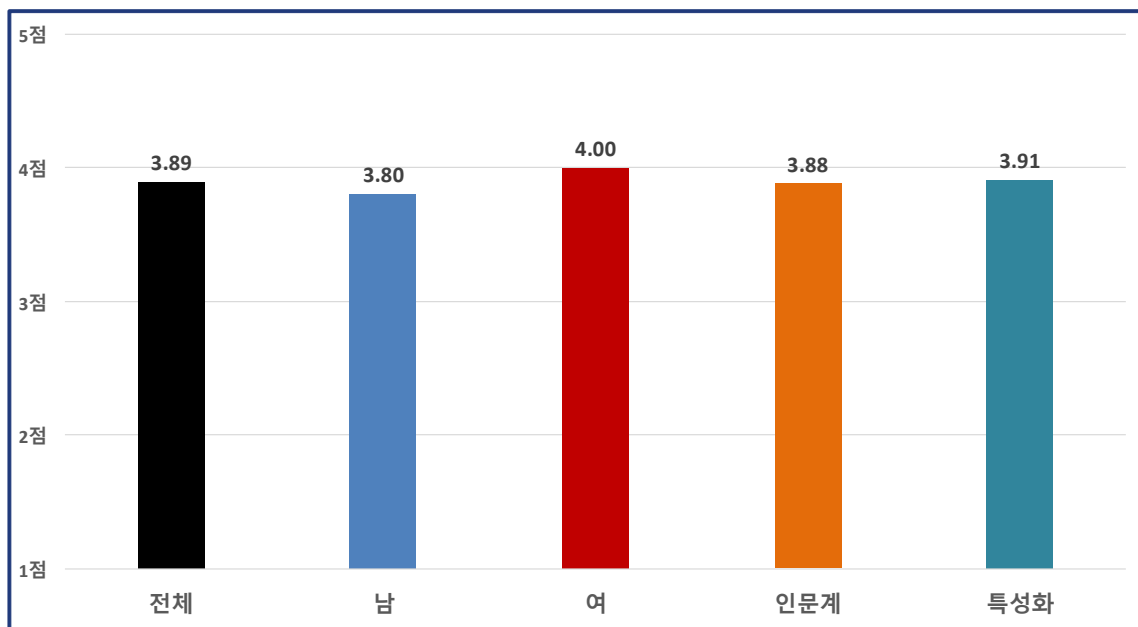
【표 II-35】 노동인권 교육의 도움

(단위: 명, %)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 도움이 안될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될 것 같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n=923)		1.5	2.1	15.3	67.9	13.2	3.89	.702
성별	남(480)	2.5	2.7	18.3	65.4	11.0	3.80	0.766
	여(432)	0.5	1.4	11.6	70.8	15.7	4.00	0.609
고교 유형	인문계(497)	1.8	1.4	15.7	69.6	11.5	3.88	0.690
	특성화(426)	1.2	2.8	14.8	66.0	15.3	3.91	0.716

-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거나 앞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받는다면 이 교육이 일을 하다가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13.2%, ‘도움이 될 것 같다’ 67.9%, ‘그저 그렇다’ 15.3%, ‘별 도움이 안될 것 같다’ 2.1%, ‘전혀 도움이 안된다’ 1.5%로 나타나, 긍정적 의견(‘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도움이 될 것 같다’)이 81.1%로 부정적 의견(‘전혀 도움이 안된다’ + ‘별 도움이 안될 것 같다’) 3.6%보다 77.5%포인트 높게 나타남
- 긍정적 의견(동의)은 여학생(86.5%)이 남학생(76.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 학생(81.3%)과 인문계고 학생(81.1%)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 노동인권 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5점 평균 값은 전체 3.89점으로 긍정평가가 4점에 가깝게 나타남
- 성별 차원에서는 여학생(4.00점)이 남학생(3.80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 학생(3.91점)이 인문계고 학생(3.88점)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Ⅱ-76> 노동인권 교육의 도움(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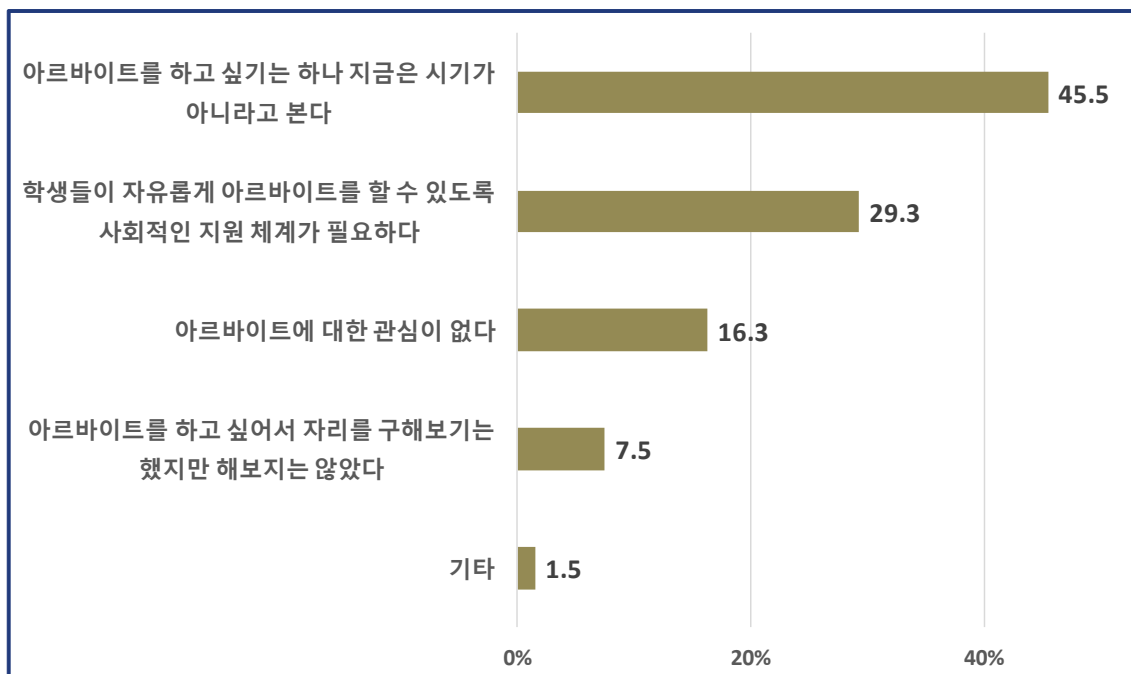
<그림 Ⅱ-77> 노동인권 교육의 도움(성별, 고교유형별)

4 아르바이트 인식

❖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

【표 Ⅱ-36】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기는 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자리를 구해보기는 했지만 해보지는 않았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기타
전체(n=947)		16.3	45.5	7.5	29.3	1.5
성별	남(479)	24.2	40.3	4.8	28.8	1.9
	여(456)	7.9	51.1	10.5	29.4	1.1
고교 유형	인문계(493)	17.2	60.6	3.2	17.4	1.4
	특성화(454)	15.2	29.1	12.1	42.1	1.5



<그림 Ⅱ-78>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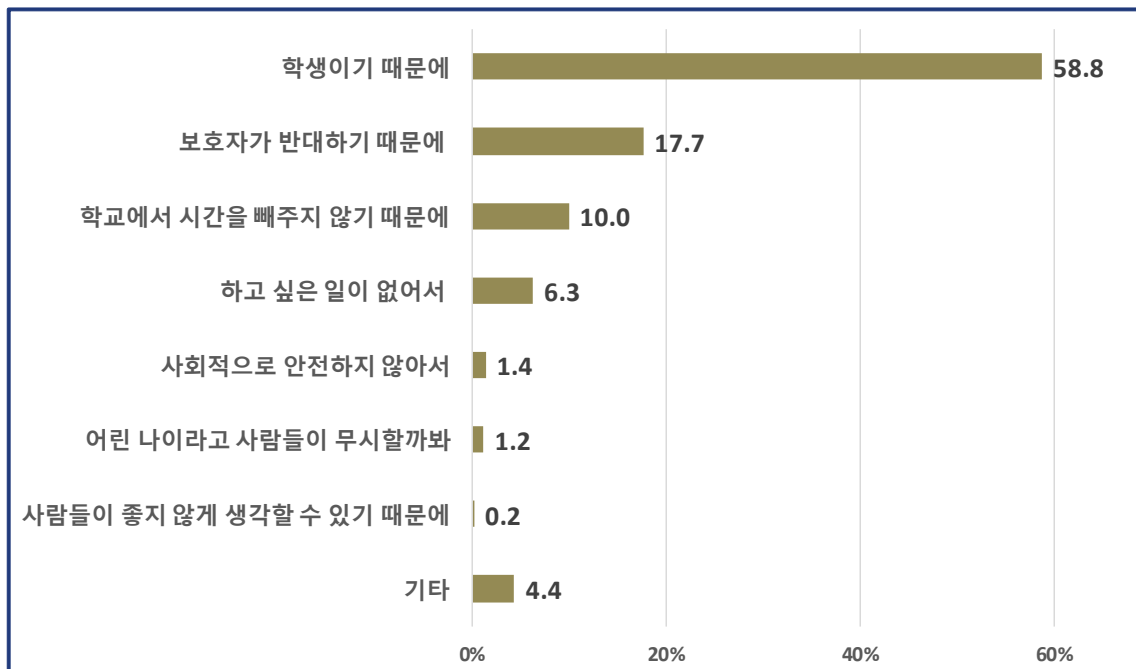
- 아르바이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기는 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29.3%),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없다’ (16.3%),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자리를 구해보기는 했지만 해보지는 않았다’ (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남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기는 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40.3%),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28.8%),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없다’ (24.2%),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자리를 구해보기는 했지만 해보지는 않았다’ (4.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기는 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51.1%),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29.4%),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자리를 구해보기는 했지만 해보지는 않았다’ (10.5%),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없다’ (7.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문계고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기는 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60.6%),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17.4%),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없다’ (17.2%),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자리를 구해보기는 했지만 해보지는 않았다’ (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성화고 학생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42.1%),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기는 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29.1%),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없다’ (15.2%),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자리를 구해보기는 했지만 해보지는 않았다’ (1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표 Ⅱ-37】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학생이 기 때문 에	보호자 가 반대 하기 때 문에	하고 싶 은 일이 없어서	사회적 으로 안 전하지 않아서	어린 나 이라고 사람들 이 무시 할까봐	사람들 이 좋지 않게 생 각할 수 있기 때 문에	학교에 서 시간 을 빼주 지 않기 때문에	기타
전체(n=430)		58.8	17.7	6.3	1.4	1.2	0.2	10.0	4.4
성별	남(192)	61.5	14.1	8.9	1.0	1.0	0.0	8.9	4.7
	여(233)	56.2	20.6	4.3	1.7	1.3	0.4	11.2	4.3
고교 유형	인문계(299)	67.6	16.1	3.3	1.0	1.0	0.3	4.7	6.0
	특성화(430)	38.9	21.4	13.0	2.3	1.5	0.0	22.1	0.8

주: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응답한 사람에 한함



<그림 Ⅱ-79>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전체)

-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학생이기 때문에’가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보호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11.7%), ‘학교에서 시간을 빼주지 않기 때문에’ (10.0%),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6.3%),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않아서’ (1.4%), ‘어린 나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1.2%) 등의 순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가 높게 나타남
-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남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61.5%), ‘보호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14.1%),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8.9%), ‘학교에서 시간을 빼주지 않기 때문’ (8.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56.2%), ‘보호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20.6%), ‘학교에서 시간을 빼주지 않기 때문에’ (11.2%),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4.3%),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않아서’ (1.7%), ‘어린 나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인문계고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67.6%), ‘보호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16.1%), ‘학교에서 시간을 빼주지 않기 때문에’ (4.7%),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3.3%),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않아서’와 ‘어린 나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각 1.0%),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0.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성화고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38.9%), ‘보호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21.4%), ‘학교에서 시간을 빼주지 않기 때문에’ (22.1%),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13.0%),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않아서’ (2.3%), ‘어린 나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1.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우리 사회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표 Ⅱ-38】 사회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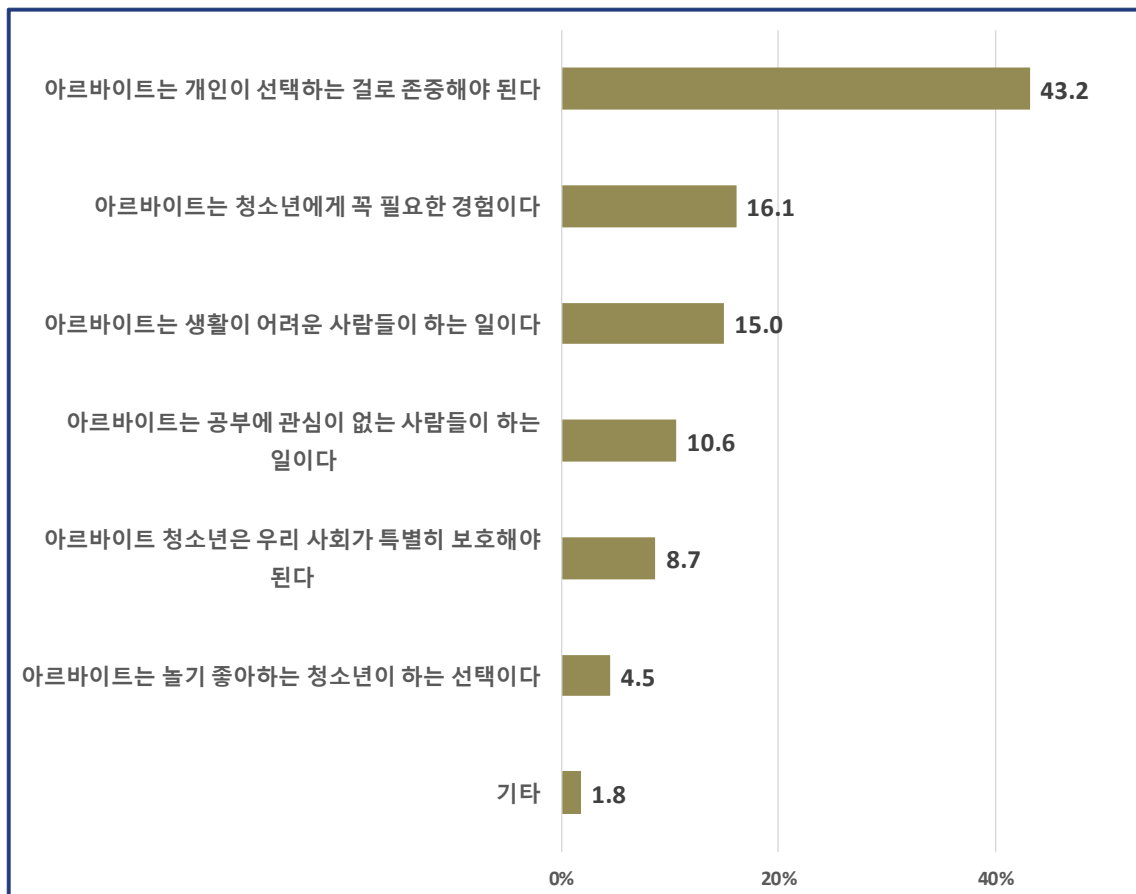
구 분	1순위	2순위	전체	남	여	인문계	특성화
아르바이트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13.6	4.5	10.6	10.5	10.5	15.0	5.6
아르바이트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16.6	11.8	15.0	14.6	15.7	16.5	13.4
아르바이트는 개인이 선택하는 걸로 존중해야 된다	57.7	14.2	43.2	43.9	42.3	40.9	45.8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	3.5	19.2	8.7	6.9	10.8	8.7	8.8
아르바이트는 놀기 좋아하는 청소년이 하는 선택이다	1.6	10.3	4.5	4.9	4.0	5.7	3.2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다	5.6	37.2	16.1	17.7	14.4	11.7	21.0
기타	1.4	2.7	1.8	1.5	2.3	1.4	2.3

주: 전체는 1순위 200%, 2순위 100%의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한 결과임

-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 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복수응답), ‘아르바이트는 개인이 선택하는 걸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다’ (16.1%), ‘아르바이트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15.0%), ‘아르바이트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10.6%),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 (8.7%), ‘아르바이트는 놀기 좋아하는 청소년이 하는 선택이다’ (4.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남학생은 ‘아르바이트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존중해야 된다’

(43.9%),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다’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여학생은 ‘아르바이트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존중해야 된다’ (42.3%), ‘아르바이트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15.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문계고 학생은 ‘아르바이트는 개인이 선택하는 걸로 존중해야 된다’ (40.9%), ‘아르바이트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특성화고 학생은 ‘아르바이트는 개인이 선택하는 걸로 존중해야 된다’ (45.8%),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다’ (21.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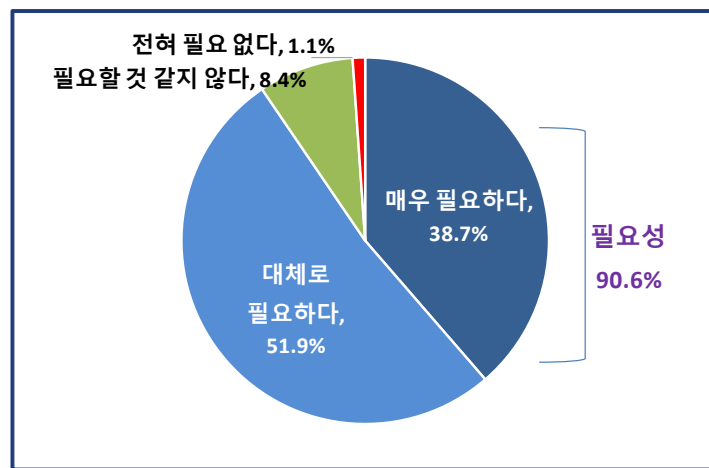
<그림 II-80> 사회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전체)

❖ 고교 졸업 후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의 필요성

【표 Ⅱ-39】 졸업 후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 필요성

(단위: 명, %)		전혀 필요 없다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성
전체(n=943)		1.1	8.4	51.9	38.7	90.6
성별	남(477)	1.3	9.6	53.9	35.2	89.1
	여(454)	0.9	6.6	50.4	42.1	92.5
고교 유형	인문계(490)	1.4	10.0	54.1	34.5	88.6
	특성화(453)	0.7	6.6	49.4	43.3	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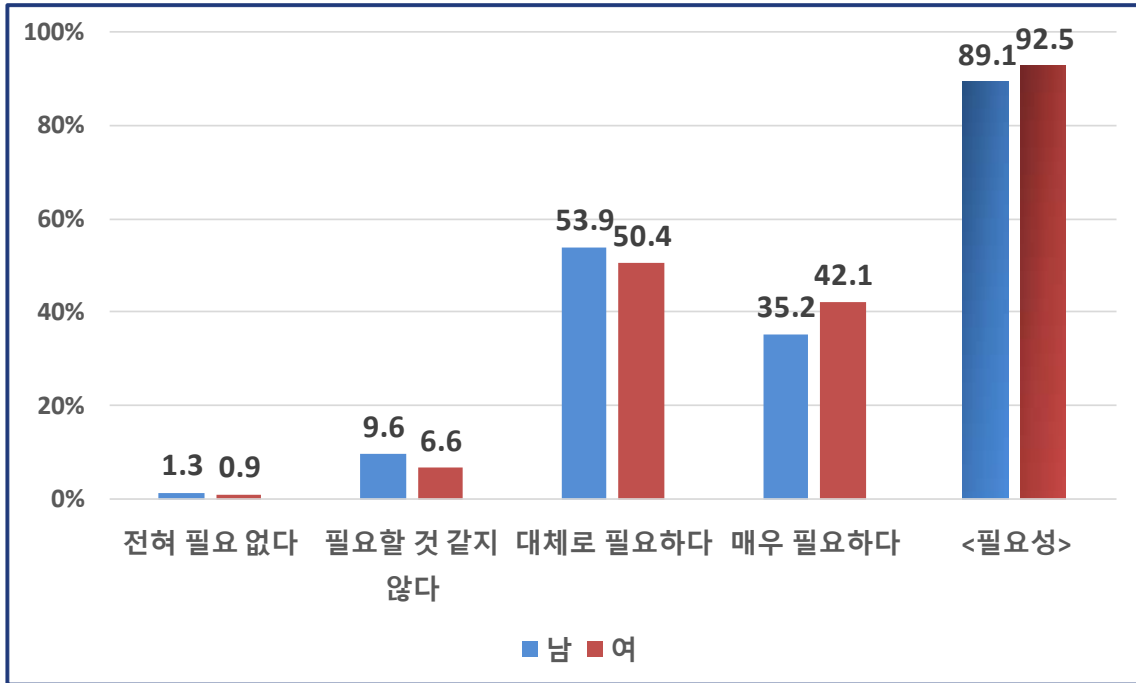
주: 필요성 비율은 '매우 필요하다' + '대체로 필요하다'의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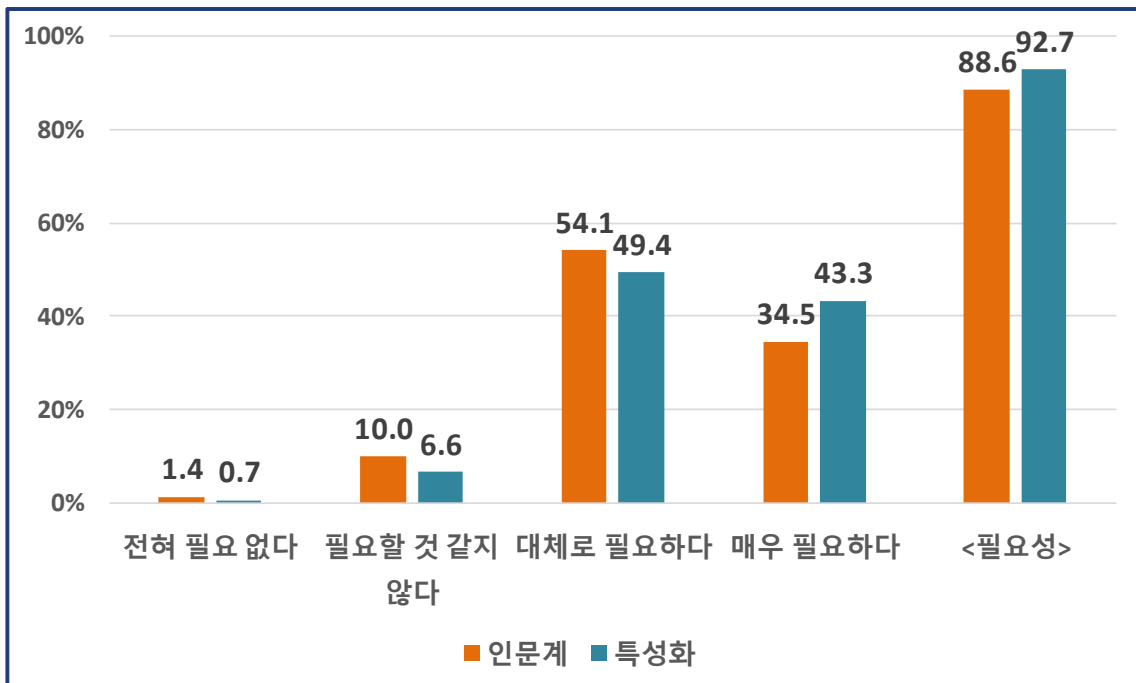
<그림 Ⅱ-81> 졸업 후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 필요성(전체)

-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 년 동안 자신에게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이 필요한지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38.7%, ‘대체로 필요하다’ 51.9%, ‘필요할 것 같지 않다’ 8.4%, ‘전혀 필요없다’ 1.1%로 나타나,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90.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일 년 동안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의 필요성(‘매우 필요하다’ + ‘대체로 필요하다’)은 여학생(92.5%)이 남학생(89.1%)보다, 특성화고 학생(92.7%)이 인문계고 학생(88.6%)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Ⅱ-82> 졸업 후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 필요성(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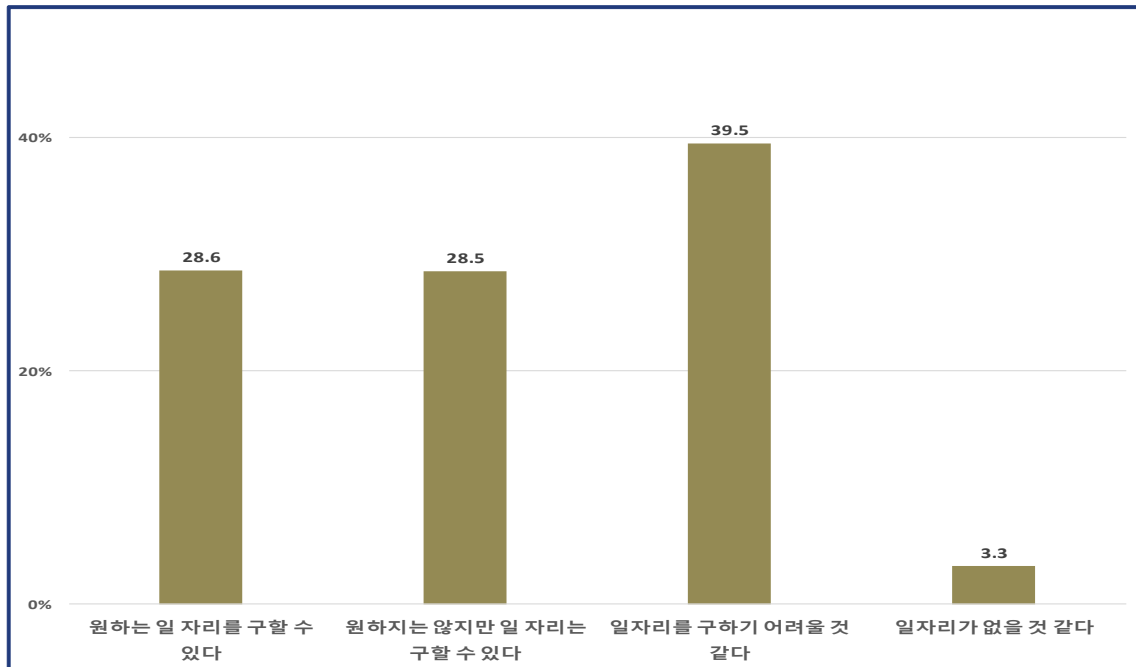


<그림 Ⅱ-83> 졸업 후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 필요성(고교유형별)

❖ 고교 졸업 후 원하는 일자리 구직 전망

【표 Ⅱ-40】 구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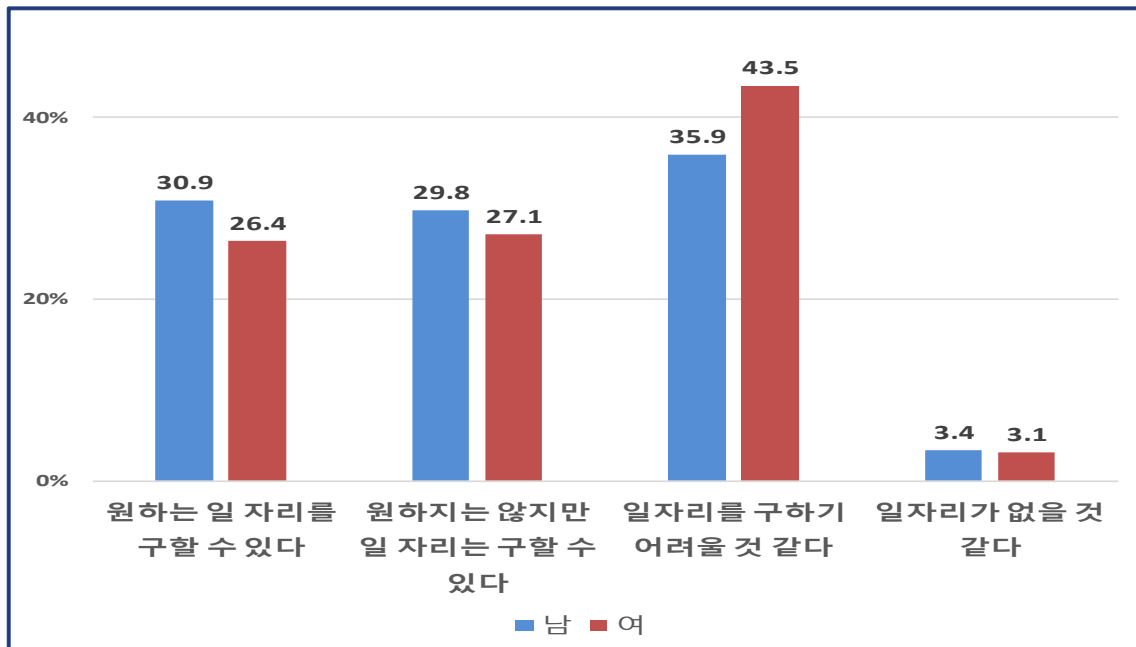
(단위: 명, %)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원하지는 않지만 일 자리는 구할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
전체(n=939)		28.6	28.5	39.5	3.3
성별	남(476)	30.9	29.8	35.9	3.4
	여(451)	26.4	27.1	43.5	3.1
고교 유형	인문계(488)	29.5	26.6	41.2	2.7
	특성화(451)	27.7	30.6	37.7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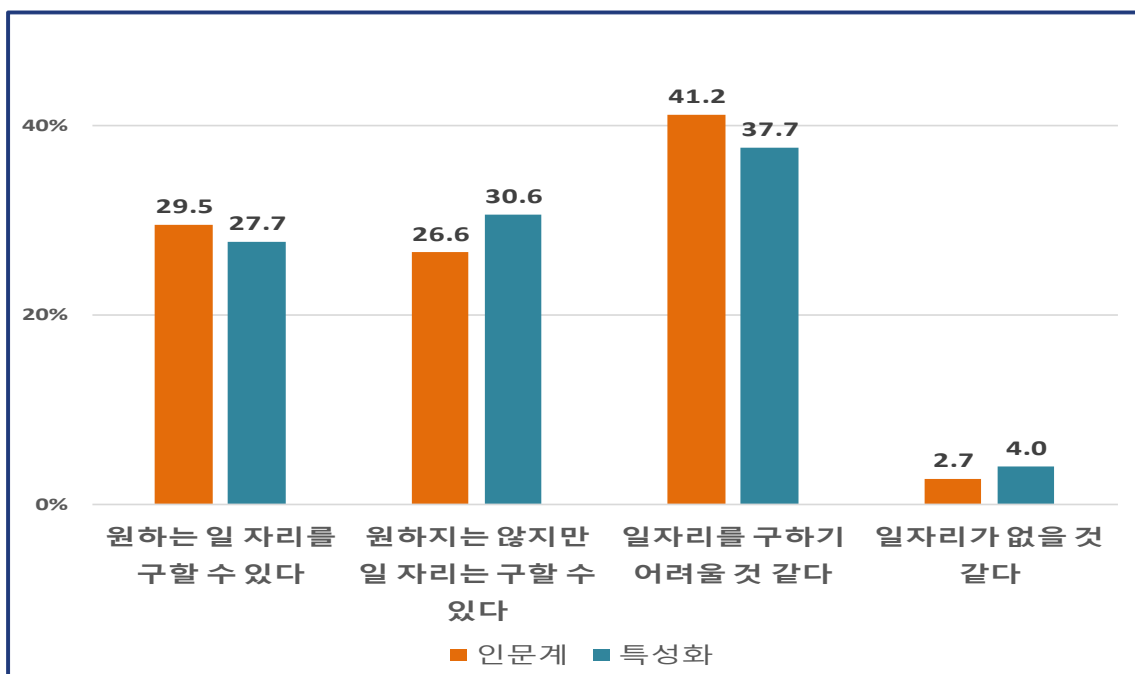
<그림 Ⅱ-84> 구직 전망(전체)

-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본인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일 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원하는 일 자리를 구할 수 있다’ 28.6%, ‘원하지는 않지만 일 자리는 구할 수 있다’ 28.5%,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 39.5%,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 3.3%로 나타남

- 고등학교를 졸업 후 구직 전망 가운데, ‘원하는 일 자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는 남학생(30.9%)이 여학생(26.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계고 학생(29.5%)이 특성화고 학생(27.7%)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Ⅱ-85> 구직 전망(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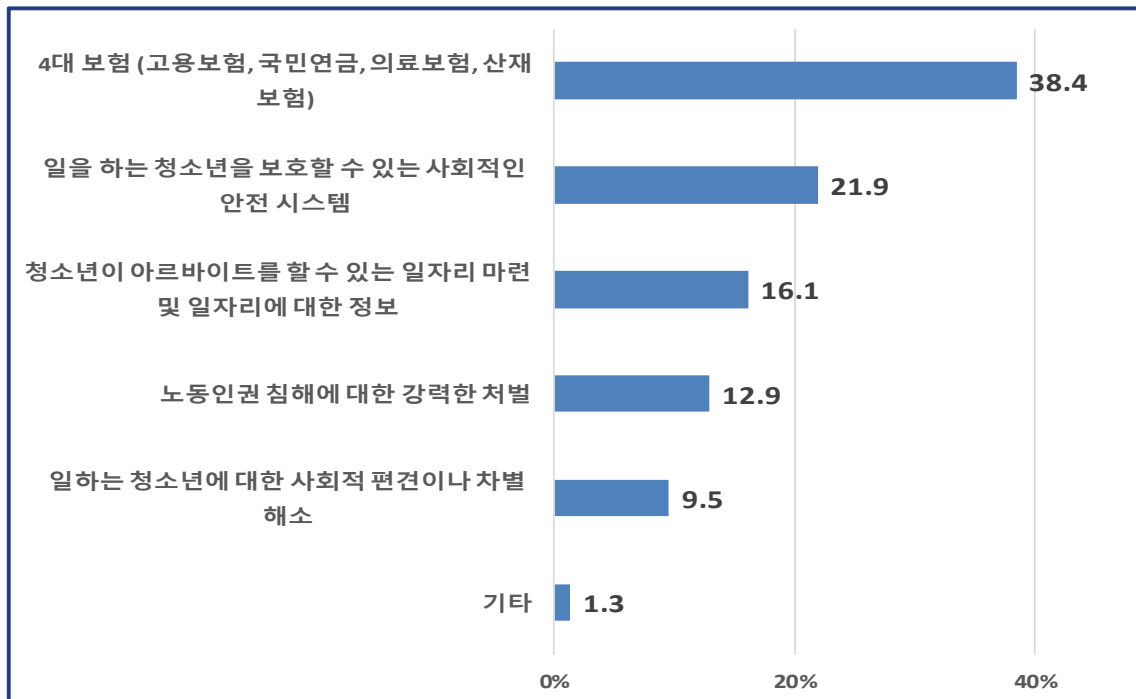


<그림 Ⅱ-86> 구직 전망(고교유형별)

❖ 일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우리 사회의 지원

【표 Ⅱ-41】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항

(단위: 명, %)		4대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 보험)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적인 안전 시스템	노동인권 침해에 대 한 강력한 처벌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 적 편견이나 차별 해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를 할 수 있는 일자 리 마련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	기타
전체(n=940)		38.4	21.9	12.9	9.5	16.1	1.3
성별	남(477)	42.1	20.8	11.9	9.6	14.0	1.5
	여(451)	33.9	23.3	14.0	9.5	18.2	1.1
고교 유형	인문계(488)	35.5	26.6	13.7	10.7	12.9	0.6
	특성화(452)	41.6	16.8	11.9	8.2	19.5	2.0



<그림 Ⅱ-87>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항(전체)

-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지원해야 될 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 10명 가운데 4명(38.4%)은 ‘4대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 보험)’ 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 ‘일을 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 시스템’ (21.9%),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 (16.1%),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12.9%),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해소’ (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항 관련 남학생은 ‘4대 보험’ (42.1%), ‘일을 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 시스템’ (20.8%),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 (14.0%),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11.9%),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해소’ (9.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학생은 ‘4대 보험’ (33.9%), ‘일을 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 시스템’ (23.3%),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 (18.2%),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14.0%),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해소’ (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문계고 학생은 ‘4대 보험’ (35.5%), ‘일을 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 시스템’ (26.6%),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13.7%),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 (12.9%),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해소’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화고 학생은 ‘4대 보험’ (41.6%),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 (19.5%), ‘일을 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 시스템’ (16.8%),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11.9%),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해소’ (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본인이 생각하는 적당한 일자리 조건

【표 Ⅱ-42】 적당한 일자리 조건(서술형)

내 용	사례 수(건)	비율(%)
부당대우와 인권침해(성희롱, 갑질 등)가 없는 일자리	66	21.0
법을 잘 지키는 일자리(근로계약, 최저임금 수당 등)	48	15.3
최저임금(시급) 이상 보수 지급	35	11.1
높은 급여(돈 많이 주는 곳)	29	9.2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	28	8.9
4대 보험 적용 일자리	21	6.7
임금 제때 주는 곳(임금체불 없는 곳)	18	5.7
안정적 일자리	17	5.4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와 대우	14	4.5
편안한 분위기와 쾌적한 근무 환경	13	4.1
복지혜택이 좋은 곳	12	3.8
정해진 휴게시간(휴식) 보장	9	2.9
정시 퇴근(칼퇴)	7	2.2
주 5일제	6	1.9
일의 강도 낮고 편한 일자리	5	1.6
합계	317	100.0

주: 5건 이상의 의견만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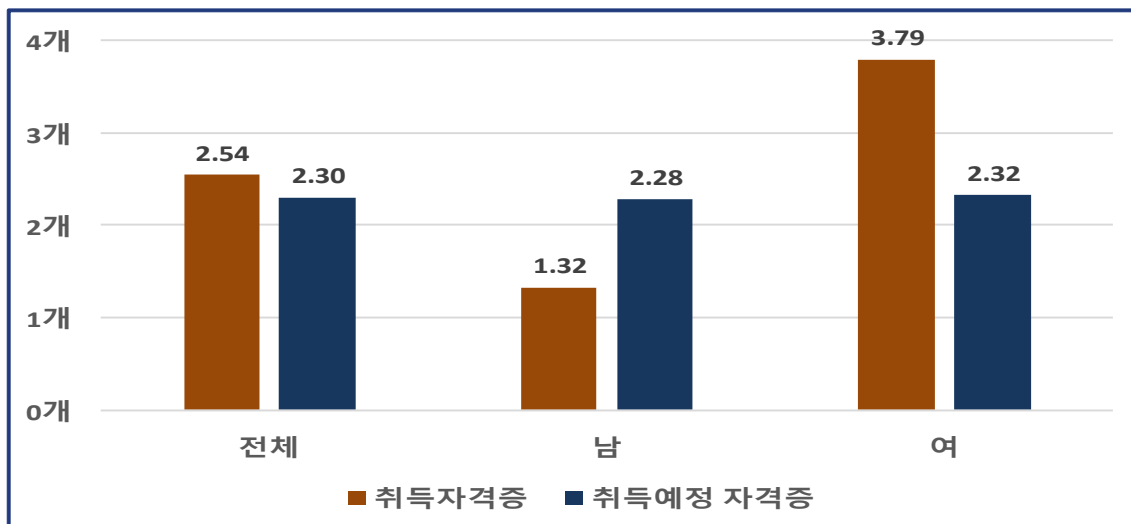
- 적당한 일자의 조건에 대해서는 ‘부당대우나 인권침해가 없는 일자리’ (66건), ‘법을 잘 지키는 일자리’ (48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 (35건), ‘높은 급여’ (29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 (28건), ‘4대 보험 적용 일자리’ (21건), ‘임금 제때 주는 곳’ 등의 의견이 제시됨

5 현장실습과 진로

❖ 현재까지 취득한 자격증 및 취득 예정 자격증

【표 Ⅱ-43】취득자격증 및 취득예정 자격증 수(특성화고)

구 분	취득자격증			취득예정 자격증		
	중위값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00	2.54	2.667	2.00	2.30	1.625
남	1.00	1.32	1.500	2.00	2.28	1.383
여	3.00	3.79	3.006	2.00	2.32	1.865



<그림 Ⅱ-88> 평균 자격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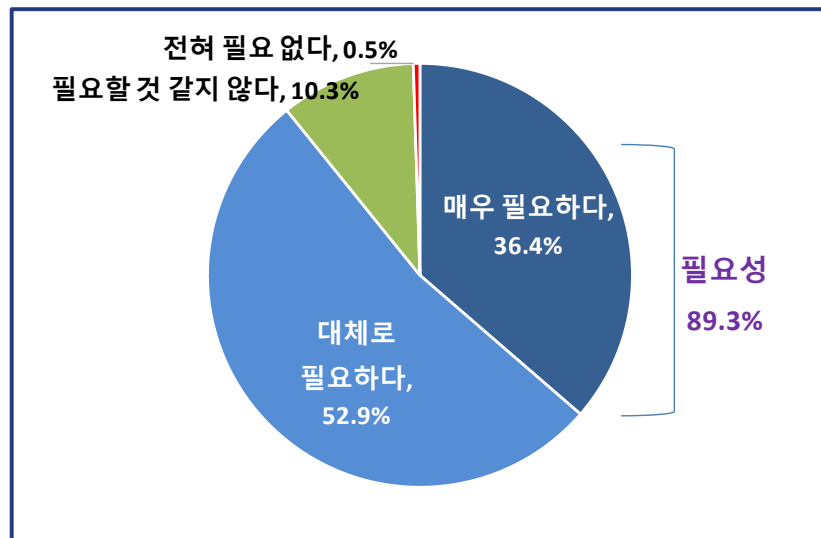
- 특성화고 학생의 취득자격증은 평균 2.54개(중위값 2개)이며, 앞으로 취득 예정인 자격증은 평균 2.30개(중위값 2개)임
- 남학생의 취득자격증은 평균 1.32개(중위값 1개)이며, 취득 예정자격증은 평균 2.28개(중위값 2개)임.
- 여학생의 취득자격증은 평균 3.79개(중위값 3개)이며, 취득 예정자격증은 평균 2.32개(중위값 2개)임

❖ 기업으로 나가는 현장실습 교육의 필요성

【표 Ⅱ-44】 현장실습 필요성(특성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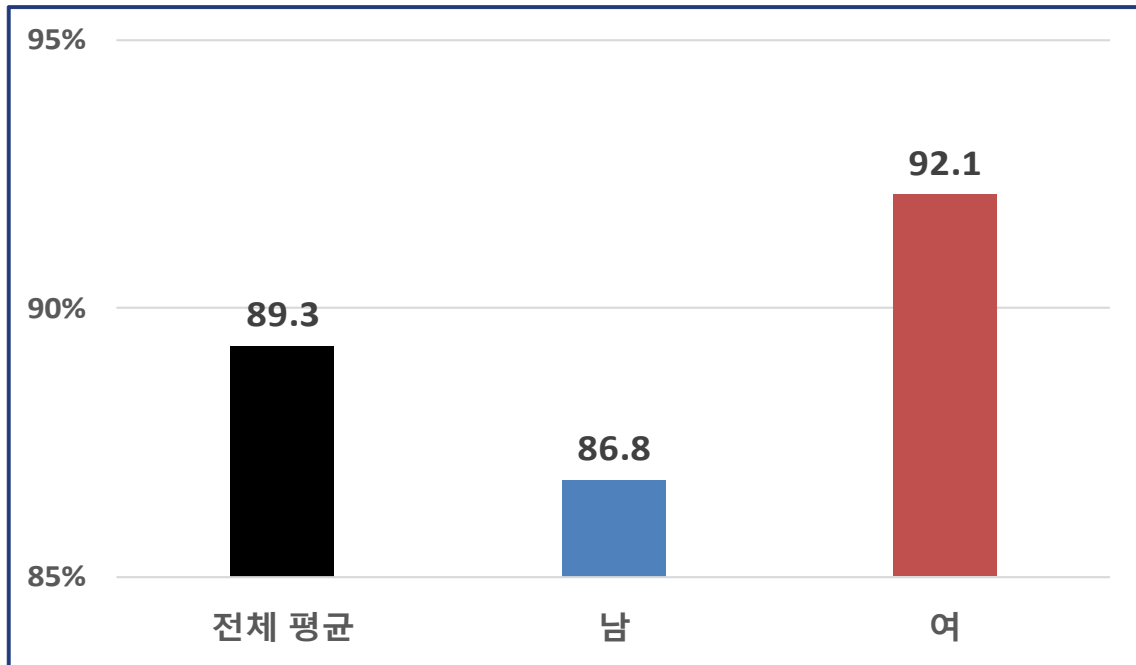
(단위: 명, %)		전혀 필요 없다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성
전체(n=429)		0.5	10.3	52.9	36.4	89.3
성별	남(213)	0.5	12.7	51.6	35.2	86.8
	여(213)	0.5	7.5	54.5	37.6	92.1

주: 필요성 비율은 '매우 필요하다' + '대체로 필요하다'의 값임



<그림 Ⅱ-89> 현장실습 필요성(전체)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기업으로 나가는 현장실습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36.4%, ‘대체로 필요하다’ 52.9%, ‘필요할 것 같지 않다’ 10.3%, ‘전혀 필요없다’ 0.5% 등으로 나타나,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매우 필요하다’ + ‘대체로 필요하다’)이 89.3%로 나타나,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필요할 것 같지 않다’ + ‘전혀 필요 없다’) 10.8%보다 78.5%포인트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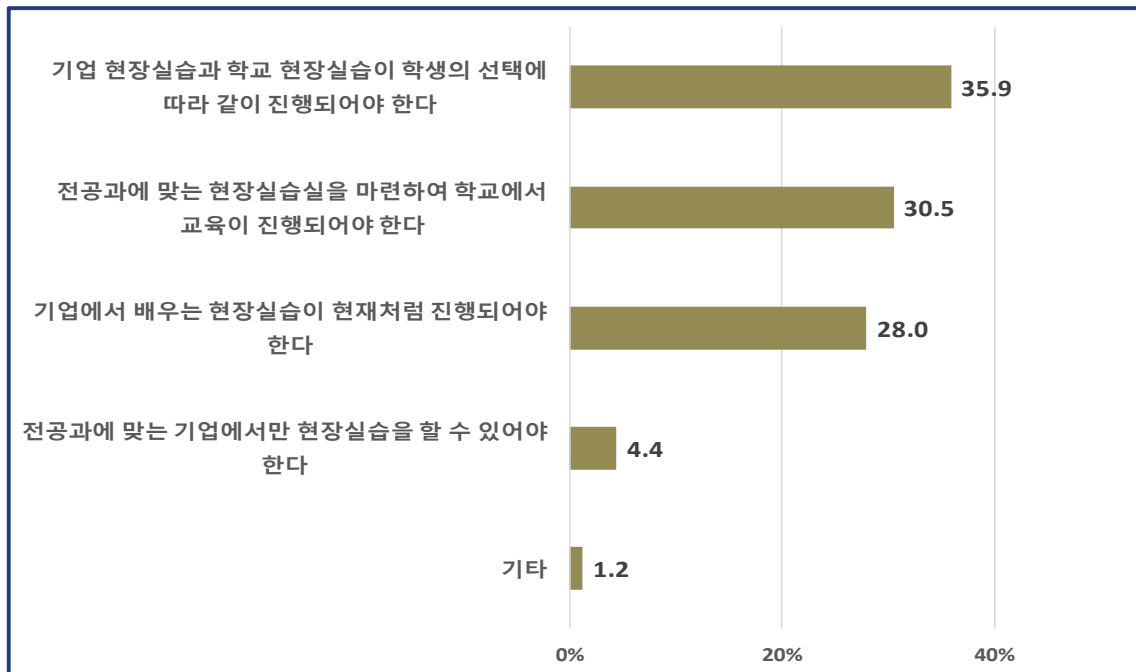
<그림 Ⅱ-90> 현장실습 필요성(성별)

- 기업으로 나가는 현장실습의 필요성(‘매우 필요하다’ + ‘대체로 필요하다’)전체 평균 (89.3%)은 여학생(92.1%)이 남학생(86.8%)보다 5.3%포인트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현장실습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함

❖ 원하는 현장실습 교육의 형태

【표 Ⅱ-45】 원하는 현장실습 교육형태(특성화고)

(단위: 명, %)		전공과에 맞는 현장실습실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기업에서 배우는 현장실습이 현재처럼 진행되어야 한다	기업 현장실습과 학교 현장실습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전공과에 맞는 기업에서만 현장실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
전체(n=429)		30.5	28.0	35.9	4.4	1.2
성별	남(213)	34.3	32.9	26.3	5.2	1.4
	여(213)	27.2	23.5	44.6	3.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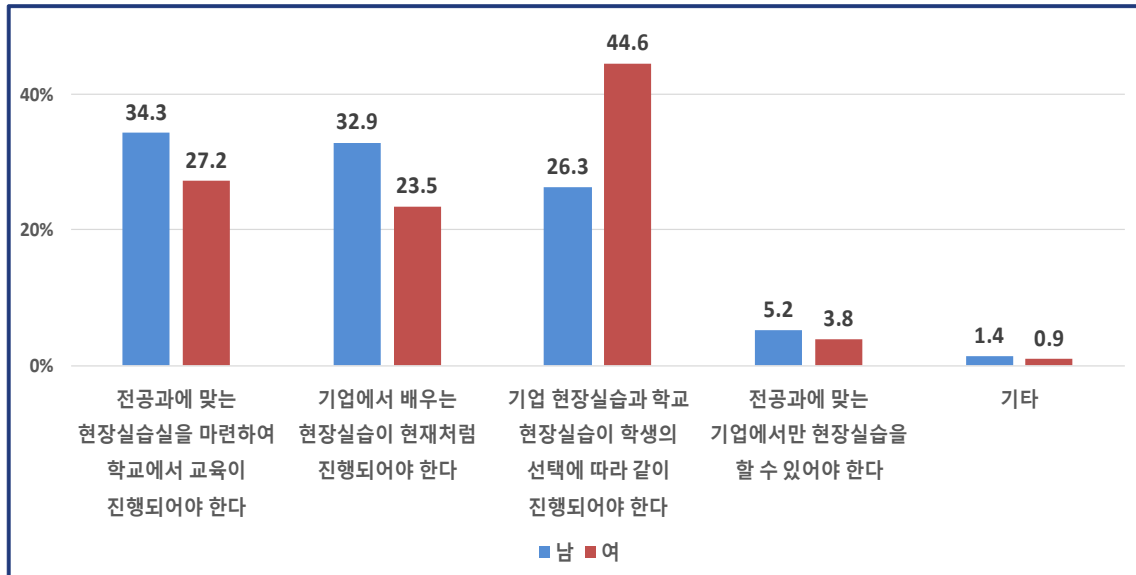


<그림 Ⅱ-91> 원하는 현장실습 교육형태

○ 현장실습 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기업 현장실습과 학교 현장실습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전공과에 맞는 현장실습실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30.5%), ‘기업에서 배우는 현장실습이 현재처럼 진행되어야 한다’ (28.0%), ‘전공과에 맞는 기업에서만 현장실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4%) 등의 순으로 원하는 현장실습 교육의 형태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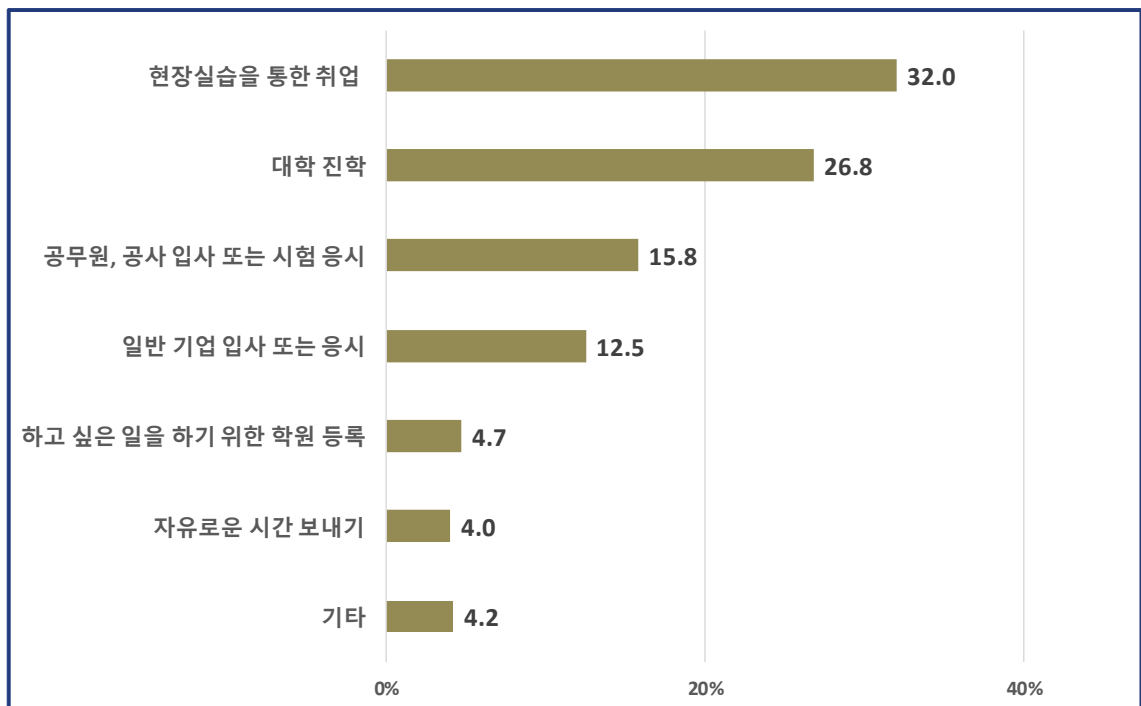
<그림 Ⅱ-92> 원하는 현장실습 교육형태(성별)

- 남학생은 ‘전공과에 맞는 현장실습실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34.3%), ‘기업에서 배우는 현장실습이 현재처럼 진행되어야 한다’ (32.9%), ‘기업 현장실습과 학교 현장실습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26.3%), ‘전공과에 맞는 기업에서만 현장실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학생은 ‘기업 현장실습과 학교 현장실습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44.6%), ‘전공과에 맞는 현장실습실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27.2%), ‘기업에서 배우는 현장실습이 현재처럼 진행되어야 한다’ (23.5%), ‘전공과에 맞는 기업에서만 현장실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8%) 등의 순임

❖ 진로와 관련한 내년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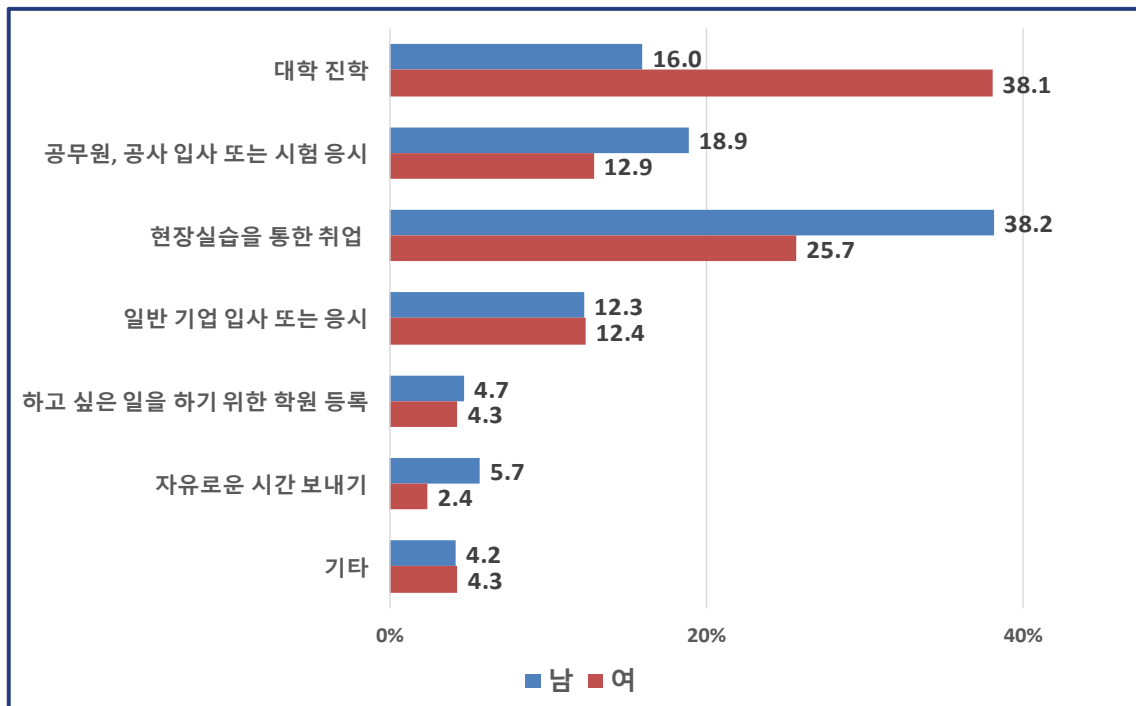
【표 Ⅱ-46】 진로관련 계획(특성화고)

(단위: 명, %)		대학 진학	공무원 공사 입사 또는 시험 응시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일반 기업 입사 또는 응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학원 등록	자유로운 시간 보내기	기타
전체(n=425)		26.8	15.8	32.0	12.5	4.7	4.0	4.2
성별	남(212)	16.0	18.9	38.2	12.3	4.7	5.7	4.2
	여(210)	38.1	12.9	25.7	12.4	4.3	2.4	4.3



<그림 Ⅱ-93> 진로관련 계획(전체)

- 진로와 관련하여 내년도에 가지고 있는 계획은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대학 진학’ (26.8%), ‘공무원, 공사 입사 또는 시험 응시’ (15.8%), ‘일반 기업 입사 또는 응시’ (12.5%),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학원 등록’ (4.7%), ‘자유로운 시간 보내기’ (4.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Ⅱ-94> 진로관련 계획(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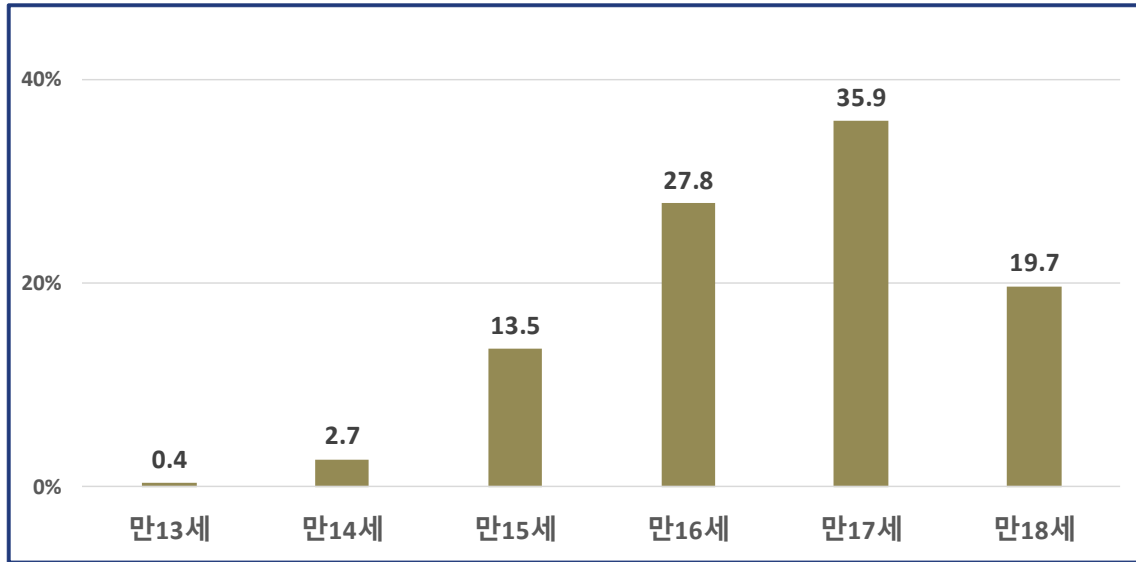
- 특성화고 남학생은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38.2%), ‘공무원, 공사 입사 또는 시험 응시’ (18.9%) ‘대학 진학’ (16.0%), ‘일반 기업 입사 또는 응시’ (12.3%), ‘자유로운 시간 보내기’ (5.7%),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학원 등록’ (4.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학생은 ‘대학 진학’ (38.1%),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25.7%), ‘공무원, 공사 입사 또는 시험 응시’ (12.9%), ‘일반 기업 입사 또는 응시’ (12.4%),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학원 등록’ (4.3%), ‘자유로운 시간 보내기’ (2.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6 아르바이트 실태

❖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

【표 Ⅱ-47】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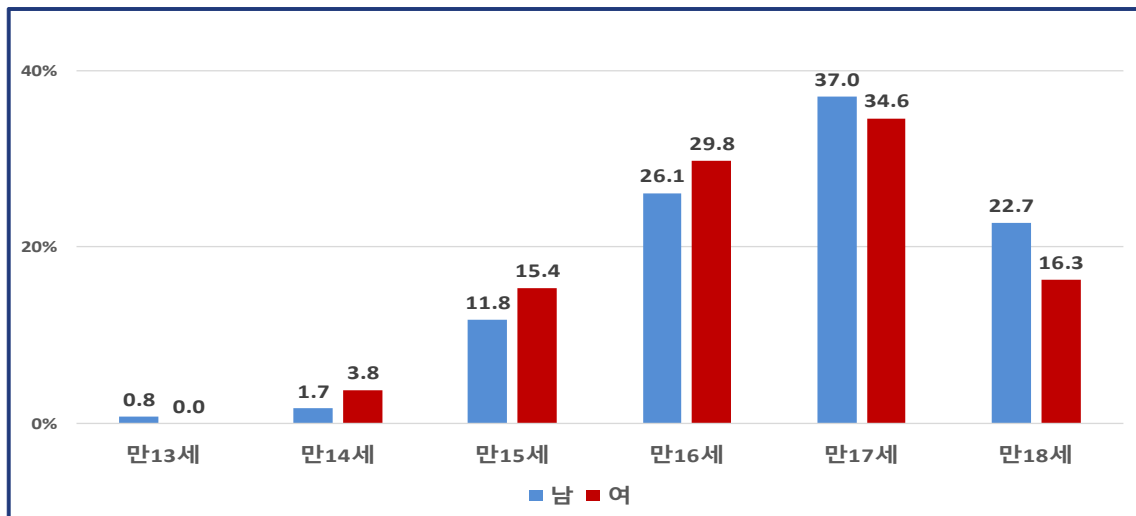
(단위: 명, %)		만13세	만14세	만15세	소계 (13~15세)	만16세	만17세	만18세	소계 (16~18세)
전체(n=223)		0.4	2.7	13.5	16.6	27.8	35.9	19.7	83.4
성별	남(119)	0.8	1.7	11.8	14.3	26.1	37.0	22.7	85.8
	여(104)	0.0	3.8	15.4	19.2	29.8	34.6	16.3	80.7
고교 유형	인문계(45)	0.0	0.0	13.3	13.3	33.3	35.6	17.8	86.7
	특성화(178)	0.6	3.4	13.5	17.5	26.4	36.0	20.2	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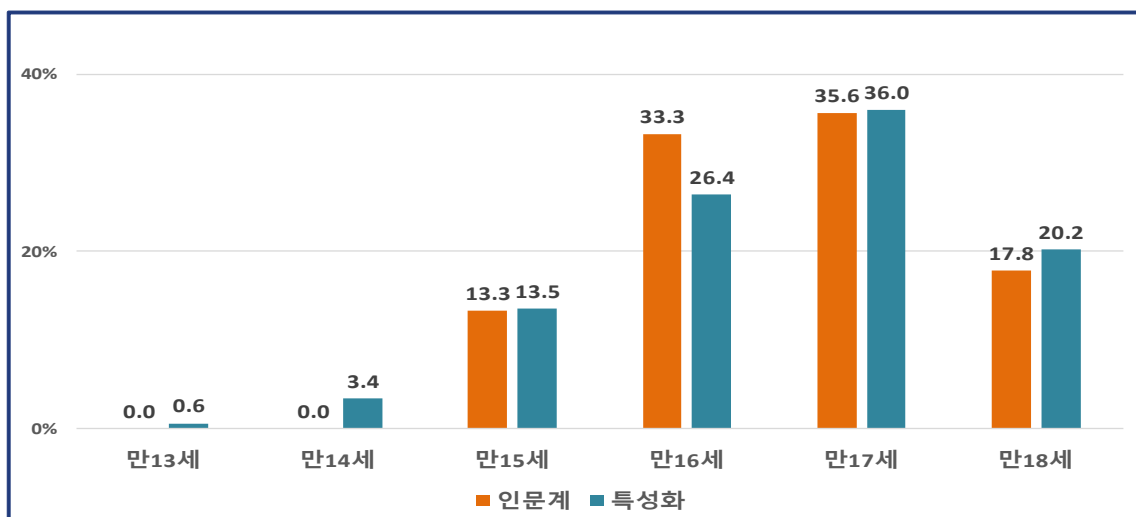
<그림 Ⅱ-95>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전체)

- 특성화고 설문 대상자 463명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8명으로 38%을 비율을 보였으며, 인문계고 설문 대상자 500명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5명으로 9%의 비율을 보임

-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를 물어본 결과, ‘만13세~만15세’ (16.6%) ‘만16세~만18세’ (83.4%)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는 만17세(35.9%)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됨
- 남학생은 ‘13세~15세’ (14.3%), ‘16세~18세’ (85.8%) 로 나타남
- 여학생은 ‘13세~15세’ (19.3%), ‘16세~18세’ (80.7%)로 나타남
- 특성화고는 ‘13세~15세’ (17.5%), ‘16세~18세’ (82.6%)이며 인문계고는 ‘13세~15세’ (13.3%), ‘16세~18세’ (86.7%) 임



<그림 Ⅱ-96>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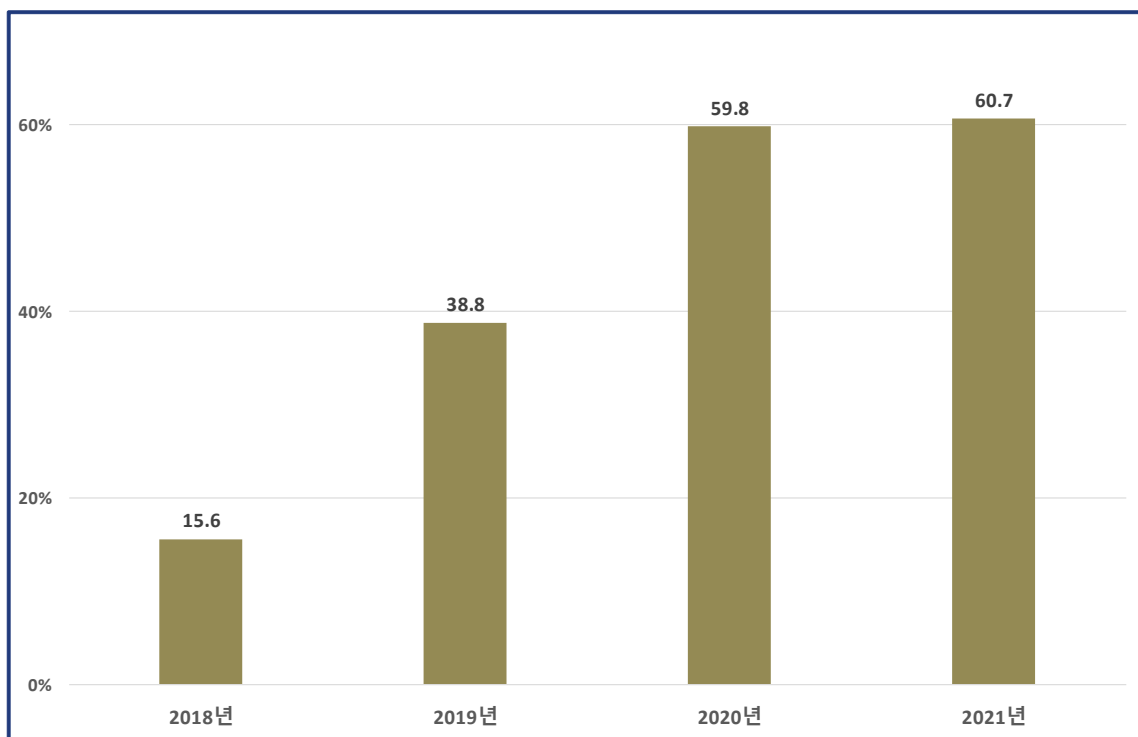
<그림 Ⅱ-97>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고교유형별)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기간

【표 Ⅱ-48】 아르바이트 경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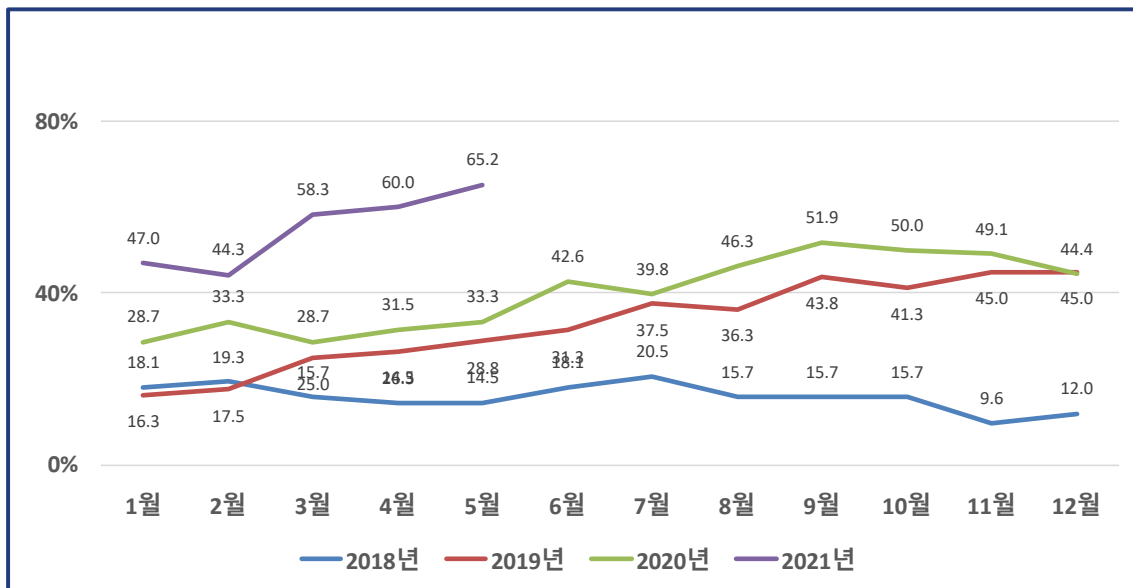
(단위: %)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15.6	18.1	19.3	15.7	14.5	14.5	18.1	20.5	15.7	15.7	15.7	9.6	12.0
2019년	38.8	16.3	17.5	25.0	26.3	28.8	31.3	37.5	36.3	43.8	41.3	45.0	45.0
2020년	59.8	28.7	33.3	28.7	31.5	33.3	42.6	39.8	46.3	51.9	50.0	49.1	44.4
2021년	60.7	47.0	44.3	58.3	60.0	65.2	-	-	-	-	-	-	-

주: 복수응답 항목으로 구성비가 100을 초과함. 각 비율(%)은 항목별 응답 수를 응답자 합계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 것임



<그림 Ⅱ-98> 아르바이트 경험 기간(연도별)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기간(연도)을 살펴보면, 2018년 15.6%, 2019년 38.8%, 2020년 59.8%, 2021년(5월까지) 60.7%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기간(연도)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만16세~만18세’에서 83.4%를 보인 것에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II-99> 아르바이트 경험 기간(월별)

- 아르바이트 경험 기간을 월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11월(9.6%)이 가장 낮았고 7월(20.5%)이 가장 높았음
- 2019년에는 1월(16.3%)이 가장 낮았고 11월과 12월(각 45.0%)이 가장 높았음
- 2020년에는 1월과 3월(각 28.7%)이 가장 낮았고 9월(51.9%)이 가장 높았음
- 2021년에는 2월(44.3%)이 가장 낮고, 5월(65.2%) 현재 일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르바이트 경험 기간 및 시급 수령

【표 Ⅱ-49】 아르바이트 시급 수령(2018년)

		사례 수(명)	비율(%)
2018년	7,530원 이상 (최저시급)	23	69.7
	7,000원 이상 ~ 7,530원 미만	1	3.0
	6,500원 이상 ~ 7,000원 미만	4	12.1
	6,000원 이상 ~ 6,500원 미만	2	6.1
	5,000원 이상 ~ 5,500원 미만	2	6.1
	5,000원 미만	1	3.0

- 2018년 아르바이트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3명으로, 이중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은 사람은 23명(69.7%),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은 사람은 10명(30.3%)으로 나타남

【표 Ⅱ-50】 아르바이트 시급 수령(2019년)

		사례 수(명)	비율(%)
2019년	8,350원 이상(최저시급)	70	80.5
	7,800원 이상 ~ 8,350원 미만	5	5.7
	7,300원 이상 ~ 7,800원 미만	6	6.9
	6,800원 이상 ~ 7,300원 미만	1	1.1
	5,800원 이상 ~ 6,300원 미만	1	1.1
	5,000원 이상 ~ 5,800원 미만	2	2.3
	5,000원 미만	2	2.3

- 2019년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87명으로,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은 사람은 70명(80.5%),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은 사람은 17명(19.5%)으로 나타남

【표 II-51】 아르바이트 시급 수령(2020년)

		사례 수(명)	비율(%)
2020년	8,590원 이상(최저시급)	109	82.0
	8,000원 이상 ~ 8,590원 미만	7	5.3
	7,500원 이상 ~ 8,000원 미만	3	2.3
	7,000원 이상 ~ 7,500원 미만	3	2.3
	6,500원 이상 ~ 7,000원 미만	1	0.8
	6,000원 이상 ~ 6,500원 미만	4	3.0
	5,500원 이상 ~ 6,000원 미만	2	1.5
	5,000원 이상 ~ 5,500원 미만	2	1.5
	5,000원 미만	2	1.5

○ 2020년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133명으로,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은 사람은 109명(82.0%),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은 사람은 24명(18.0%)으로 나타남

【표 II-52】 아르바이트 시급 수령(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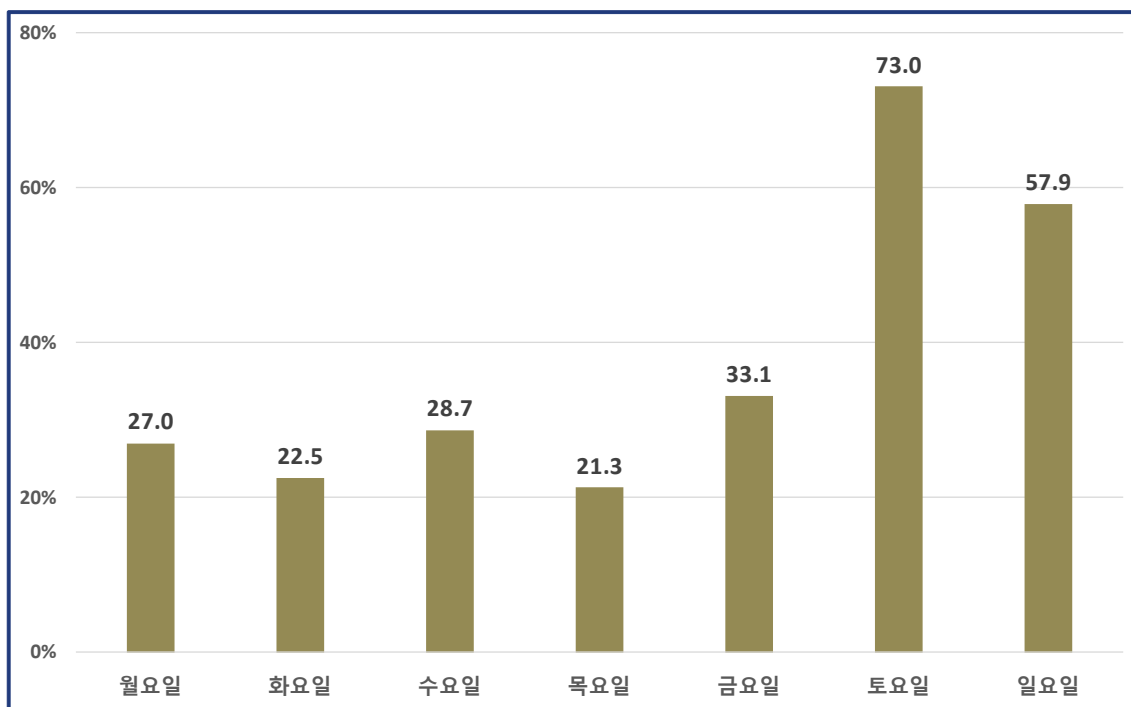
		사례 수(명)	비율(%)
2021년	8,720원 이상(최저시급)	110	80.9
	8,200원 이상 ~ 8,720원 미만	9	6.6
	7,700원 이상 ~ 8,200원 미만	5	3.7
	6,700원 이상 ~ 7,200원 미만	2	1.5
	6,200원 이상 ~ 6,700원 미만	1	0.7
	6,200원 이상 ~ 6,700원 미만	3	2.2
	5,700원 이상 ~ 6,200원 미만	5	3.7
	5,000원 이상 ~ 5,700원 미만	1	0.7

○ 2021년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136명으로,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은 사람은 110명(80.9%),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은 사람은 26명(19.1%)으로 나타남

❖ 최근 한 아르바이트 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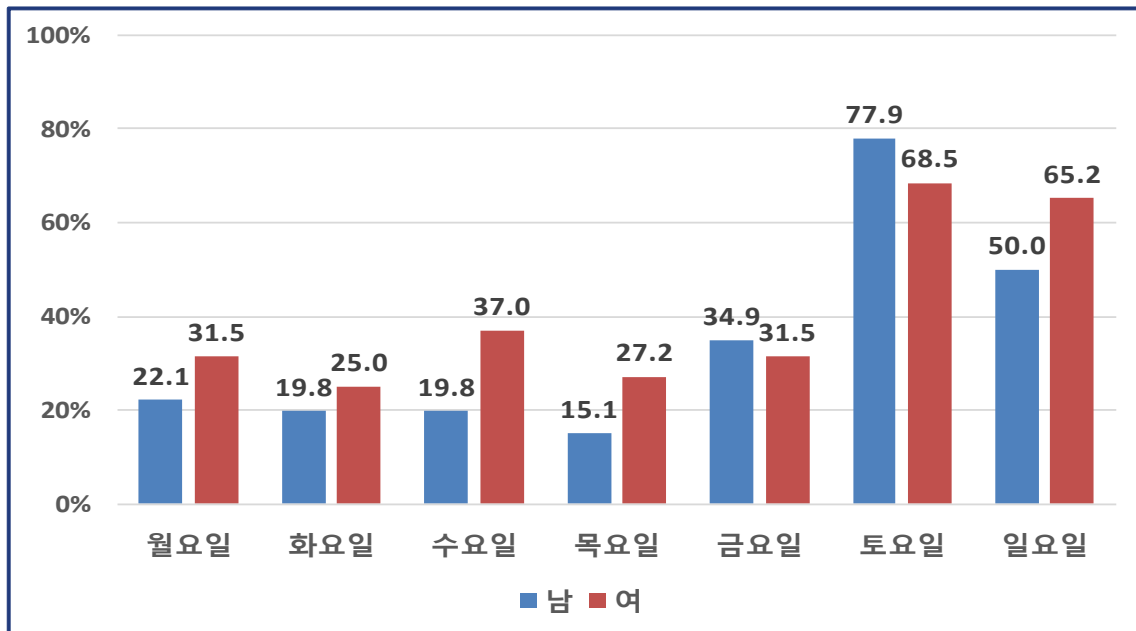
【표 Ⅱ-53】 아르바이트 요일 분포

구 분	전체	남	여	인문계	특성화
월요일	27.0	22.1	31.5	35.9	24.5
화요일	22.5	19.8	25.0	28.2	20.9
수요일	28.7	19.8	37.0	35.9	26.6
목요일	21.3	15.1	27.2	30.8	18.7
금요일	33.1	34.9	31.5	38.5	31.7
토요일	73.0	77.9	68.5	76.9	71.9
일요일	57.9	50.0	65.2	51.3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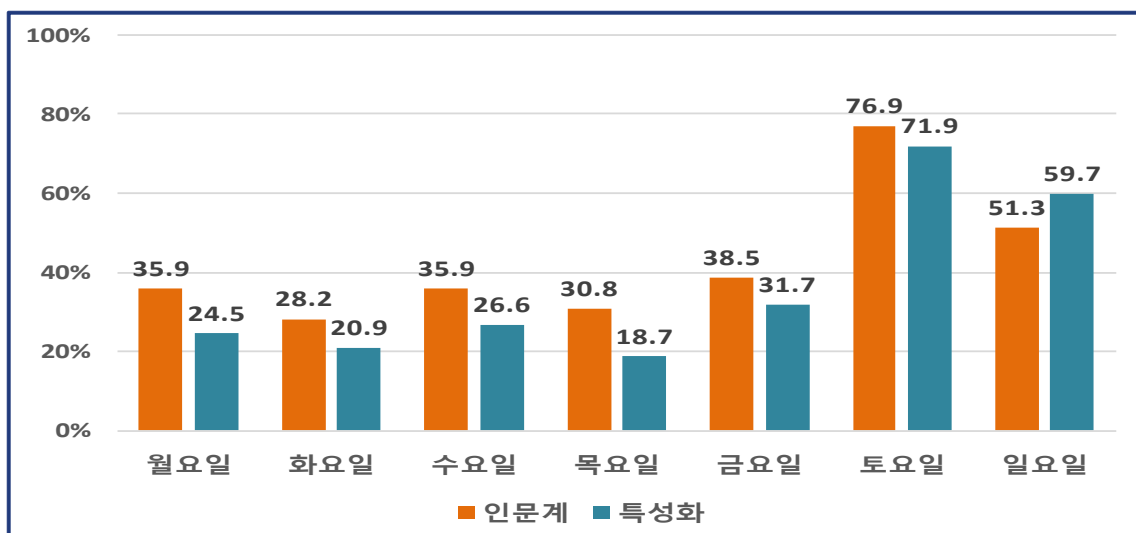


<그림 Ⅱ-100> 아르바이트 요일 분포

- 가장 최근 아르바이트에서 근무 요일은 토요일(73.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요일(57.9%), 금요일(33.1%), ‘수요일’ (28.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됨
- 남학생은 토 77.9%, 일 50.0%, 여학생은 토 68.5%, 일 65.2%, 특성화고는 토 71.9%, 일 59.7%, 인문계고는 토 76.9%, 일 51.3% 임



<그림 II-101> 아르바이트 요일 분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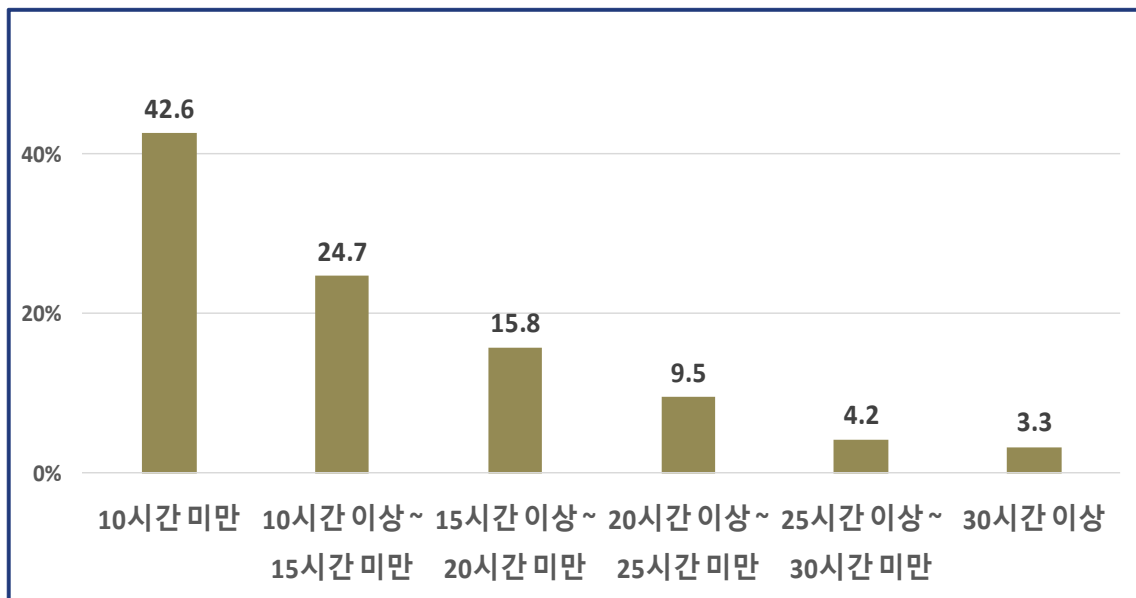


<그림 II-102> 아르바이트 요일 분포(고교유형별)

❖ 최근 한 아르바이트에서 일주일 동안 일 한 시간

【표 Ⅱ-54】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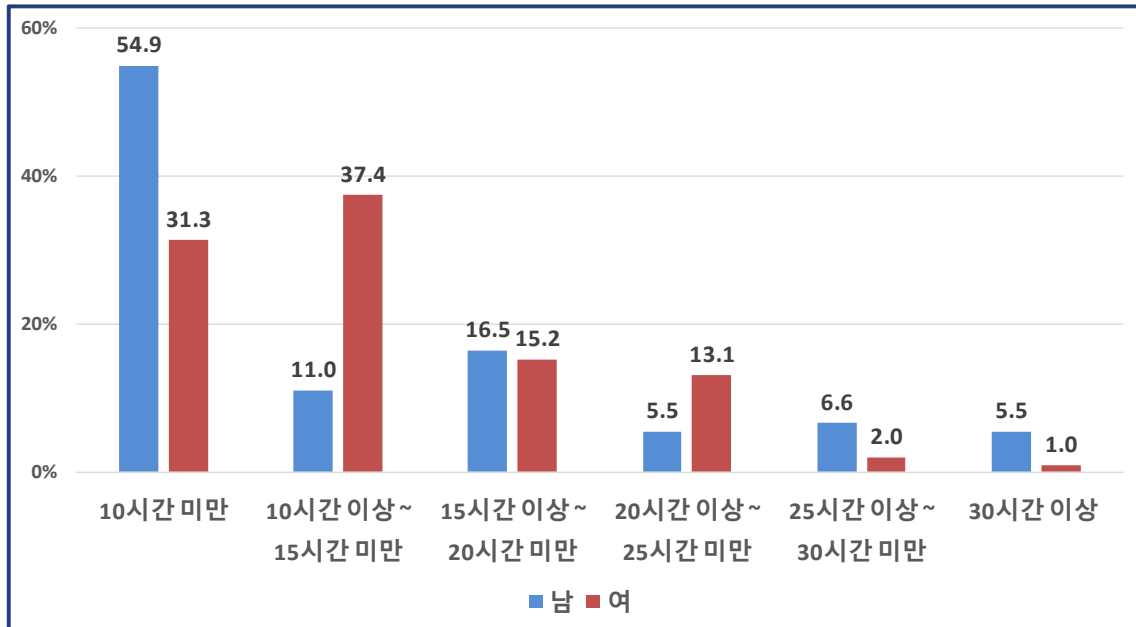
(단위: 명,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 25시간 미만	2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전체(n=190)		42.6	24.7	15.8	9.5	4.2	1.1	0.0	1.1	1.1
성별	남(97)	54.9	11.0	16.5	5.5	6.6	1.1	0.0	2.2	2.2
	여(99)	31.3	37.4	15.2	13.1	2.0	1.0	0.0	0.0	0.0
고교 유형	인문계(41)	29.3	26.8	19.5	19.5	2.4	0.0	0.0	0.0	2.4
	특성화(149)	46.3	24.2	14.8	6.7	4.7	1.3	0.0	1.3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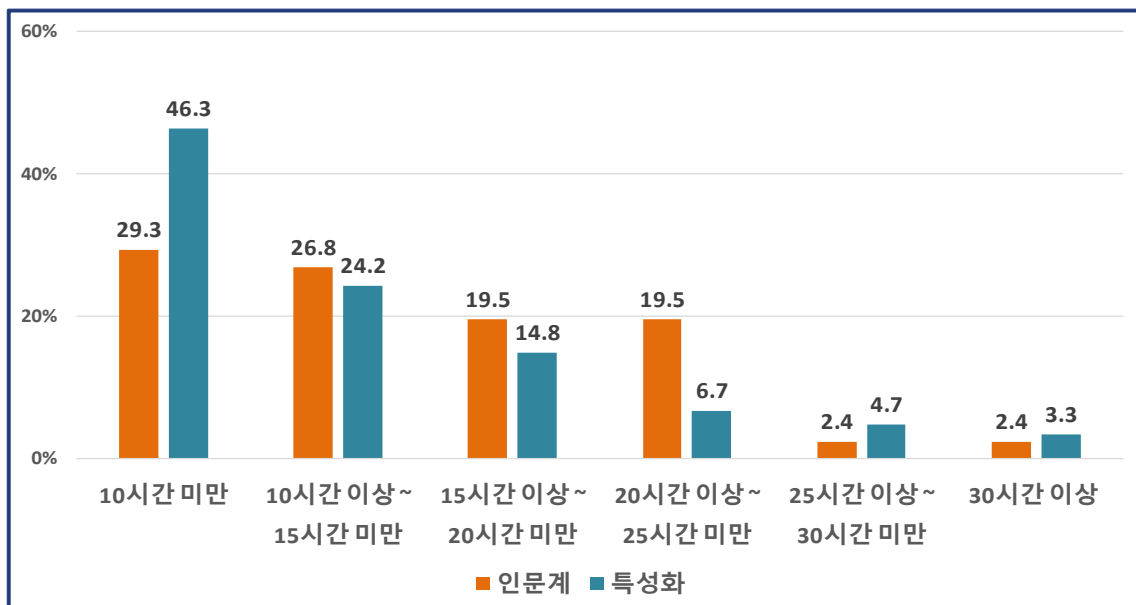
<그림 Ⅱ-103>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전체)

-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서 일주일 동안 일 한 시간은 ‘10시간 미만’이 4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24.7%),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15.8%), ‘20시간 이상 25시간 미만’ (9.5%) 등의 순으로 분포함. ‘30시간 이상’도 3.3%를 기록함

- 남학생(54.9%)의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은 ‘10시간 미만’ 이 가장 많았고, 여학생(37.4%)은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이 가장 많았음
- 인문계는 ‘10시간 미만’ (29.3%),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26.8%), 특성화는 ‘10시간 미만’ (29.3%),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26.8%) 등의 순임



<그림 Ⅱ-104>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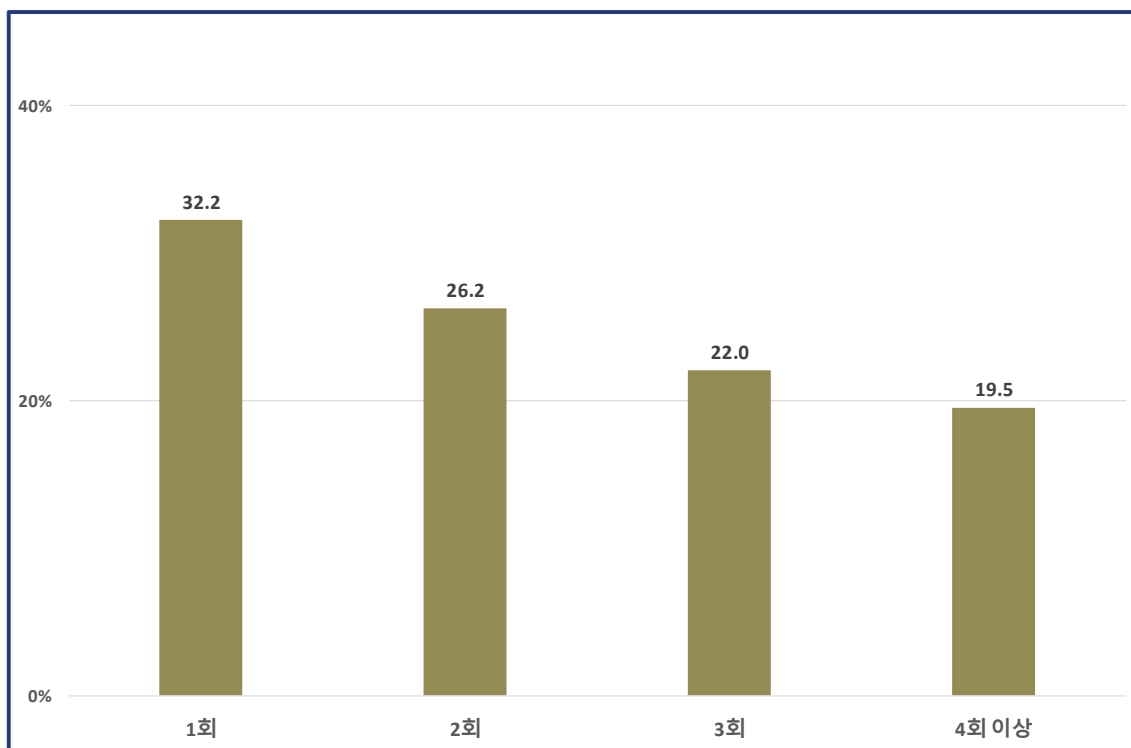


<그림 Ⅱ-105>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고교유형별)

◆ 현재까지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표 Ⅱ-55】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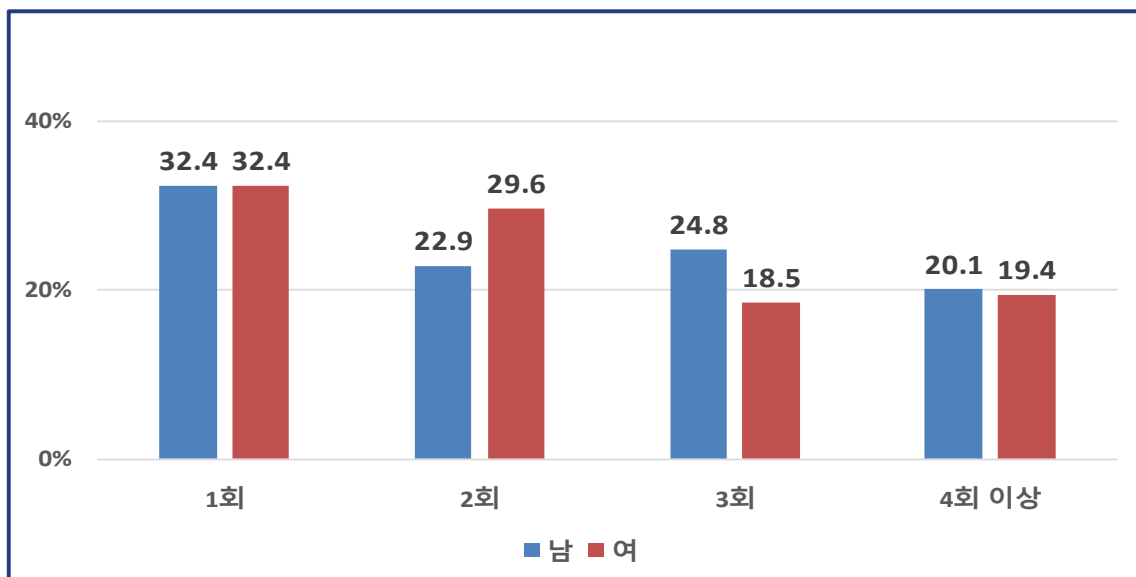
(단위: 명,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이상
전체(n=214)		32.2	26.2	22.0	6.5	3.7	1.4	7.9
성별	남(105)	32.4	22.9	24.8	4.8	2.9	1.9	10.5
	여(108)	32.4	29.6	18.5	8.3	4.6	0.9	5.6
고교 유형	인문계(45)	42.2	28.9	15.6	6.7	0.0	0.0	6.7
	특성화(169)	29.6	25.4	23.7	6.5	4.7	1.8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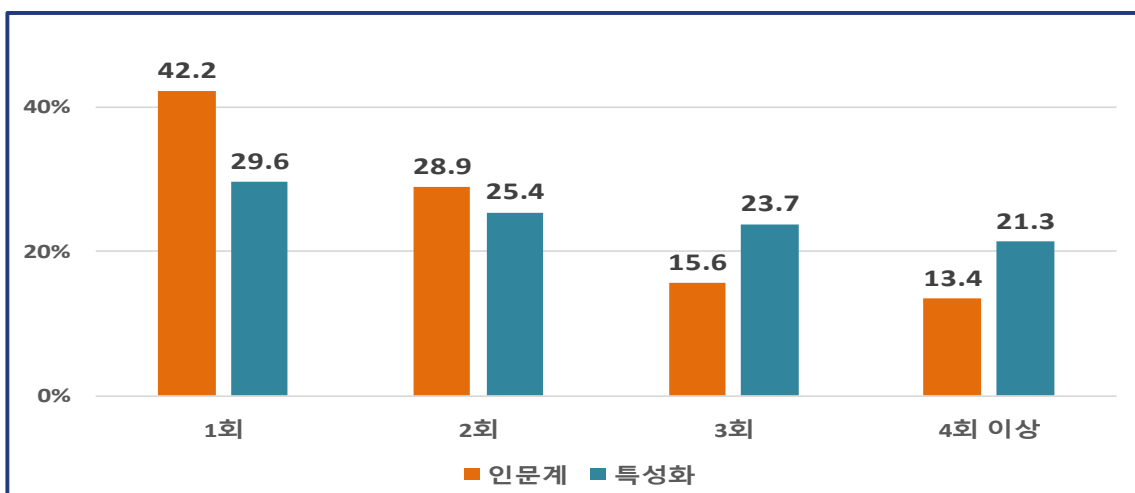
<그림 Ⅱ-106>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전체)

-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는 1회가 32.2%로 가장 많았으며, 2회 26.2%, 3회 22.0%, 4회 이상 19.5%로 나타남

- 남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는 1회(32.4%), 3회(24.8%), 2회(2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학생은 1회(32.4%), 2회(29.6%), 3회(2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화고 학생은 1회 29.6%, 2회 25.4%, 3회 23.7%, 4회 이상 21.3%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의 지속성이 있다고 보임
- 인문계고 학생은 1회 42.2%, 2회 28.9%, 3회 15.6%, 4회 이상 13.4%로 나타남



<그림 Ⅱ-107>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성별)



<그림 Ⅱ-108>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고교유형별)

◆ 아르바이트 구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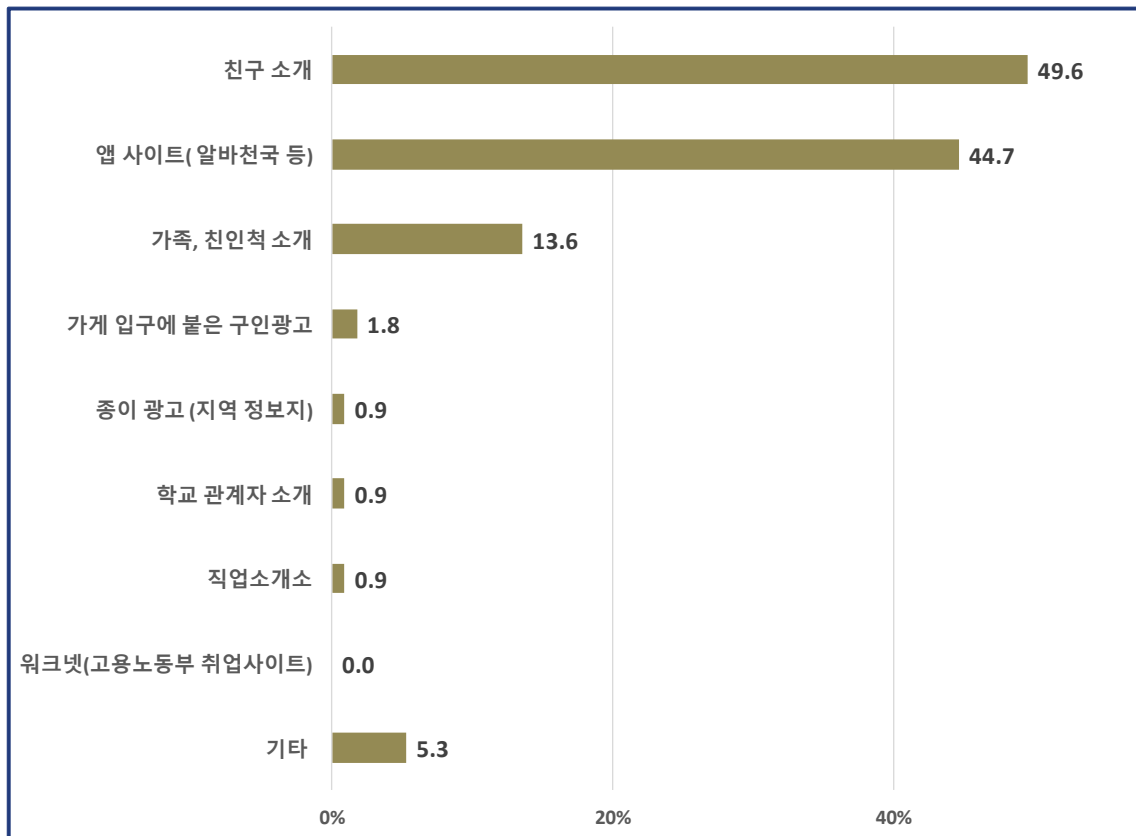
【표 Ⅱ-56】 아르바이트 구직 방법(복수응답)

구 분	전체	남	여	인문계	특성화
앱 사이트(알바천국 등)	44.7	25.0	67.0	31.3	48.3
종이 광고 (지역 정보지)	0.9	0.8	0.9	2.1	0.6
친구 소개	49.6	61.7	35.8	50.0	49.4
가족, 친인척 소개	13.6	17.5	9.4	27.1	10.0
학교 관계자 소개	0.9	1.7	0.0	2.1	0.6
가게 입구에 붙은 구인광고	1.8	0.0	2.8	2.1	1.7
워크넷(고용노동부 취업사이트)	0.0	0.0	0.0	0.0	0.0
직업소개소	0.9	0.8	0.9	0.0	1.1
기타	5.3	7.5	2.8	4.2	5.6

주: 복수응답 항목으로 구성비가 100을 초과함. 각 비율(%)은 항목별 응답 수를 응답자 합계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 것임

-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복수응답), ‘친구 소개’가 49.6%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앱 사이트(알바천국 등)’ (44.7%), ‘가족, 친인척 소개’ (13.6%), ‘가게 입구에 붙은 구인광고’ (1.8%), ‘종이 광고 (지역 정보지)’와 ‘학교 관계자 소개’ 및 ‘직업소개소’ (각 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구직 방법과 관련 남학생은 ‘친구 소개’ (61.7%), ‘앱 사이트’ (25.0%), ‘가족, 친인척 소개’ (17.5%) 등의 순으로, 여학생은 ‘앱 사이트’ (67.0%), ‘친구 소개’ (35.8%), ‘가족, 친인척 소개’ (9.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성화고 학생은 ‘친구 소개’ (49.4%), ‘앱 사이트’ (48.3%), ‘가족, 친인척 소개’ (10.0%), ‘가게 입구에 붙은 광고’ (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계고 학생의 아르바이트 구직 방법은 ‘친구 소개’ (50.0%), ‘앱 사이트’ (31.3%), ‘가족, 친인척 소개’ (27.1%) 등의 순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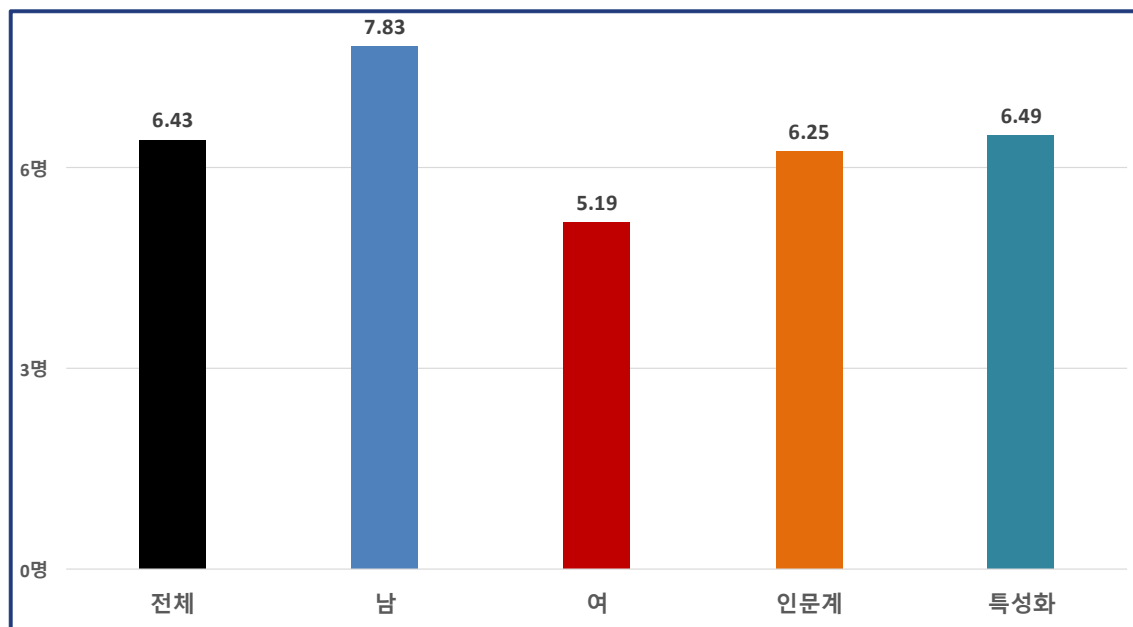


<그림 Ⅱ-109> 아르바이트 구직 방법

◆ 근무한 사업장의 직원(사장 제외) 수

【표 Ⅱ-57】 사업장 규모

구 분		사업장 규모(명)		
		중위값	평균	표준 편차
전체(N=190)		4.00	6.43	7.080
성별	남(91)	5.00	7.83	8.927
	여(98)	4.00	5.19	4.478
고교 유형	인문계(42)	3.50	6.25	8.939
	특성화(148)	5.00	6.49	6.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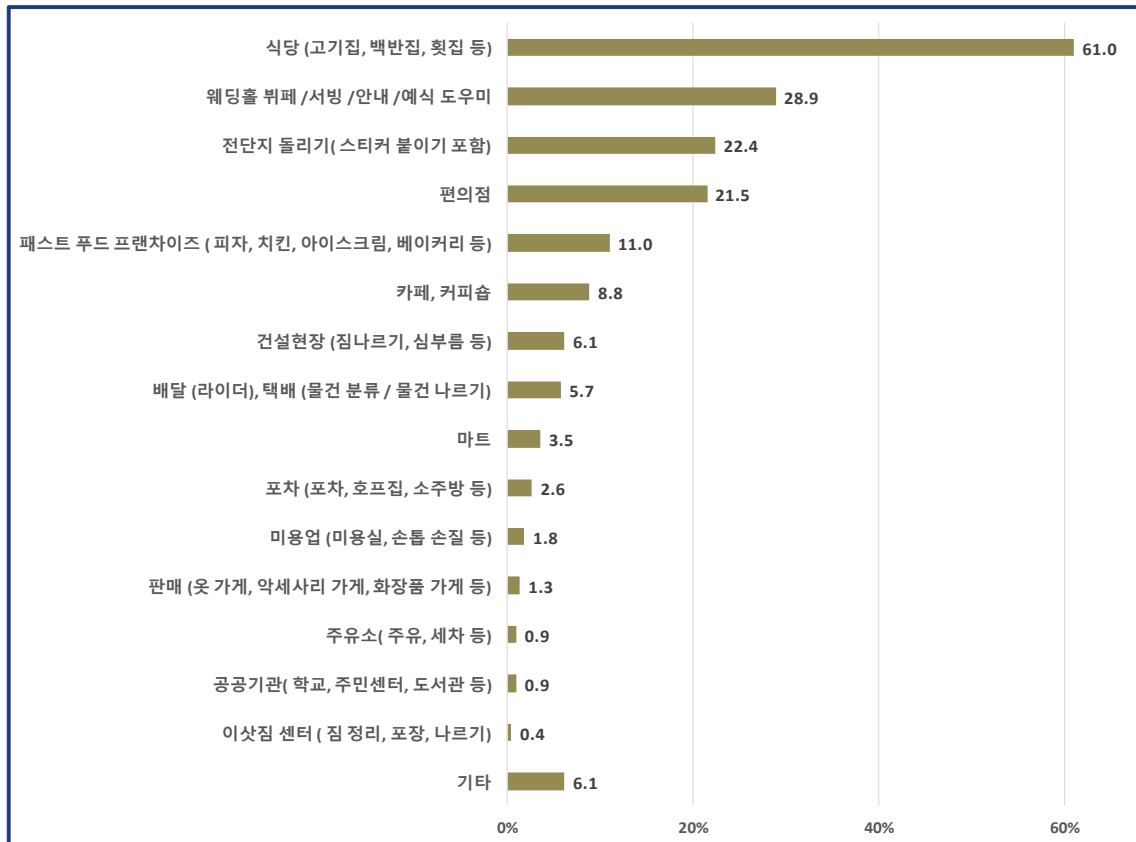
<그림 Ⅱ-110>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평균)

- 가장 최근 근무한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규모(사장 제외)는 평균 6.43명 (중위값 4명)으로 나타남
- 남학생은 평균 7.83명, 여학생은 5.19명임. 특성화고 학생은 6.49명, 인문계고 학생이 근무한 사업장은 평균 6.25명임

◆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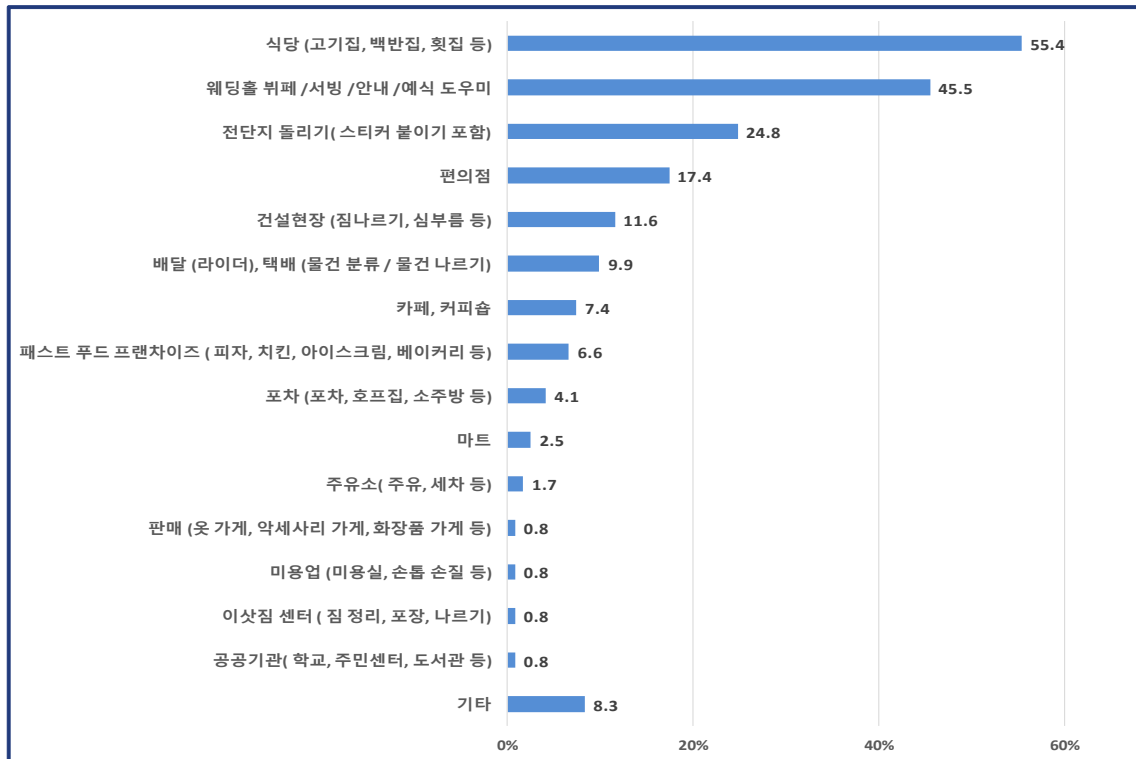
【표 Ⅱ-58】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직종) 복수응답

구 분	전체	남	여	인문계	특성화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붙이기 포함)	22.4	24.8	19.8	18.8	23.3
편의점	21.5	17.4	26.4	14.6	23.3
식당 (고기집, 백반집, 횃집 등)	61.0	55.4	67.9	54.2	62.8
주유소(주유, 세차 등)	0.9	1.7	0.0	4.2	0.0
웨딩홀 뷔페 /서빙 /안내 /예식 도우미	28.9	45.5	10.4	14.6	32.8
카페, 커피숍	8.8	7.4	10.4	18.8	6.1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 (피자, 치킨,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등)	11.0	6.6	15.1	14.6	10.0
판매 (옷 가게, 악세사리 가게, 화장품 가게 등)	1.3	0.8	1.9	4.2	0.6
미용업 (미용실, 손톱 손질 등)	1.8	0.8	2.8	0.0	2.2
배달 (라이더), 택배 (물건 분류 / 물건 나르기)	5.7	9.9	0.9	6.3	5.6
건설현장 (짐나르기, 심부름 등)	6.1	11.6	0.0	4.2	6.7
이삿짐 센터 (짐 정리, 포장, 나르기)	0.4	0.8	0.0	2.1	0.0
포차 (포차, 호프집, 소주방 등)	2.6	4.1	0.9	6.3	1.7
마트	3.5	2.5	4.7	0.0	4.4
공공기관(학교, 주민센터, 도서관 등)	0.9	0.8	0.9	0.0	1.1
기타	6.1	8.3	3.8	14.6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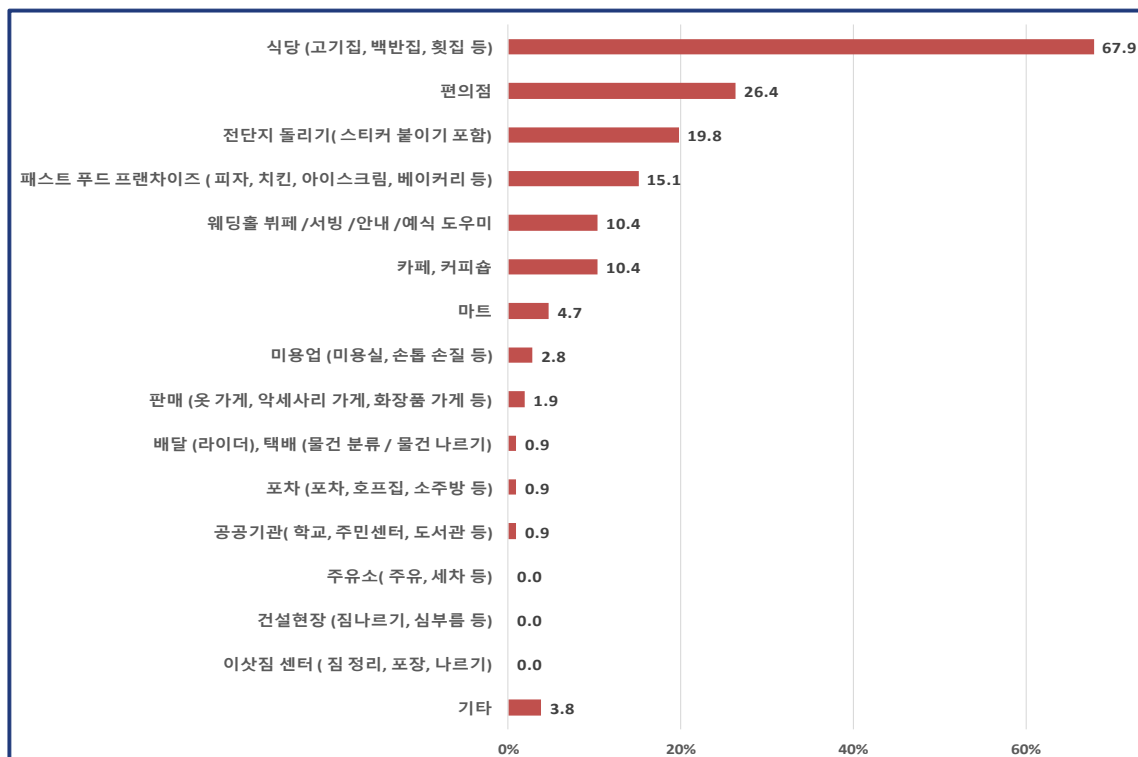


<그림 II-111>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직종)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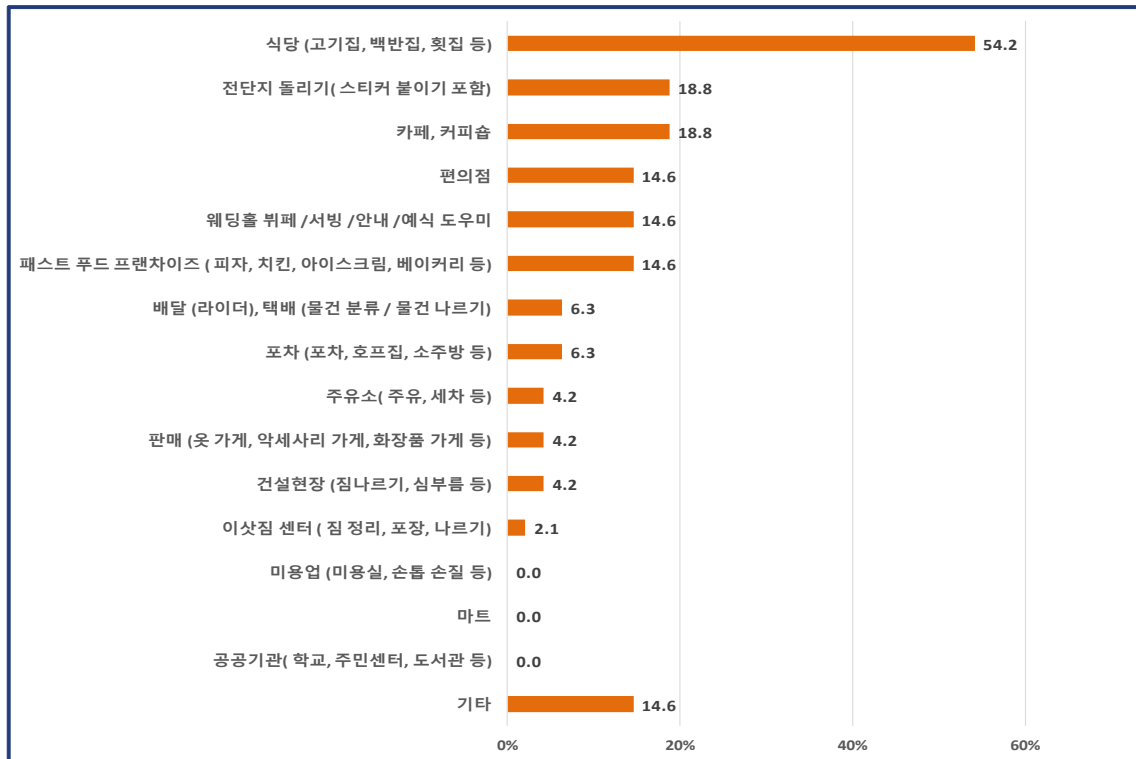
-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포함,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을 살펴본 결과(복수응답) ‘식당 (고기집, 백반집, 횃집 등)’ 이 61.0%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웨딩홀 뷔페 /서빙 /안내 /예식 도우미’ (28.9%),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붙이기 포함)’ (22.4%), ‘편의점’ (21.5%),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피자, 치킨,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샌드위치 등)’ (11.0%), ‘카페, 커피숍’ (8.8%), ‘건설현장 (짐나르기, 심부름 등)’ (6.1%), ‘배달(라이더), 택배(물건 분류/물건 나르기)’ (5.7%), ‘마트’ (3.5%), ‘포차 (포차, 호프집, 소주방 등)’ (2.6%), ‘미용업 (미용실, 손톱 손질 등)’ (1.8%), ‘판매 (옷 가게, 악세사리 가게, 화장품 가게 등)’ (1.3%), ‘주유소(주유, 세차 등)’ (0.9%), ‘공공기관(학교, 주민센터, 도서관 등)’ (0.9%), ‘이삿짐 센터 (짐 정리, 포장, 나르기)’ (0.4%)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함. ‘기타’ 는 6.1%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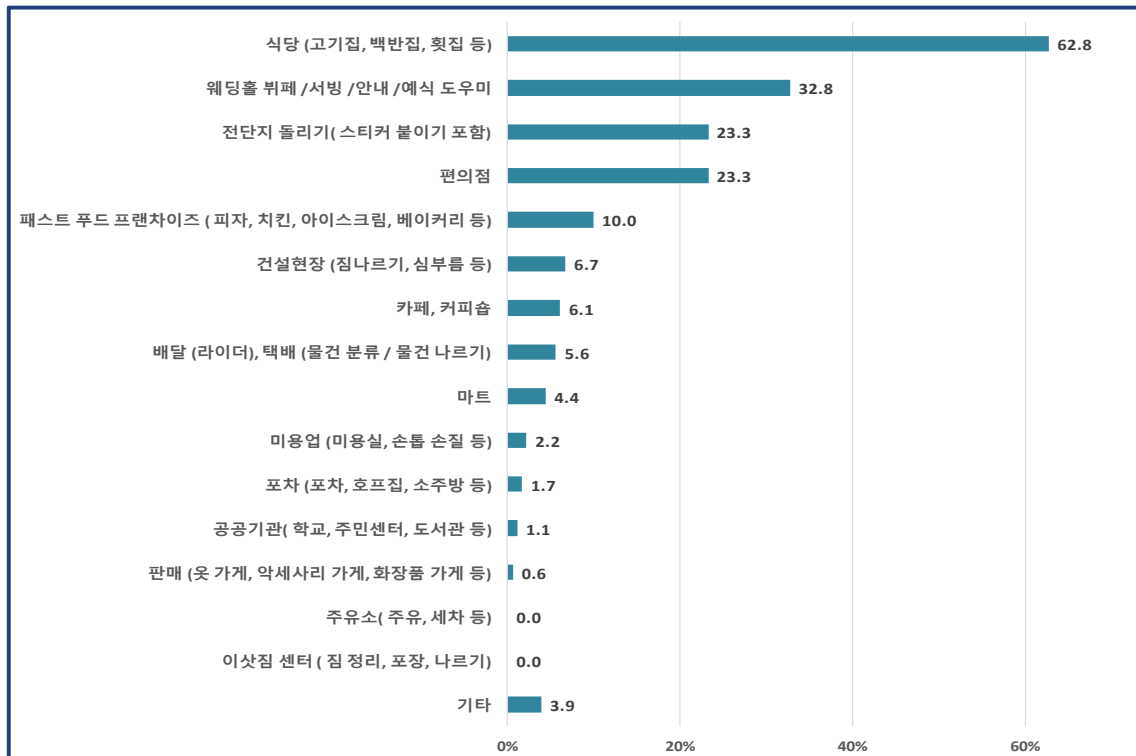
<그림 II-112>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직종) (남)



<그림 II-113>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직종) (여)



<그림 II-114>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직종) (인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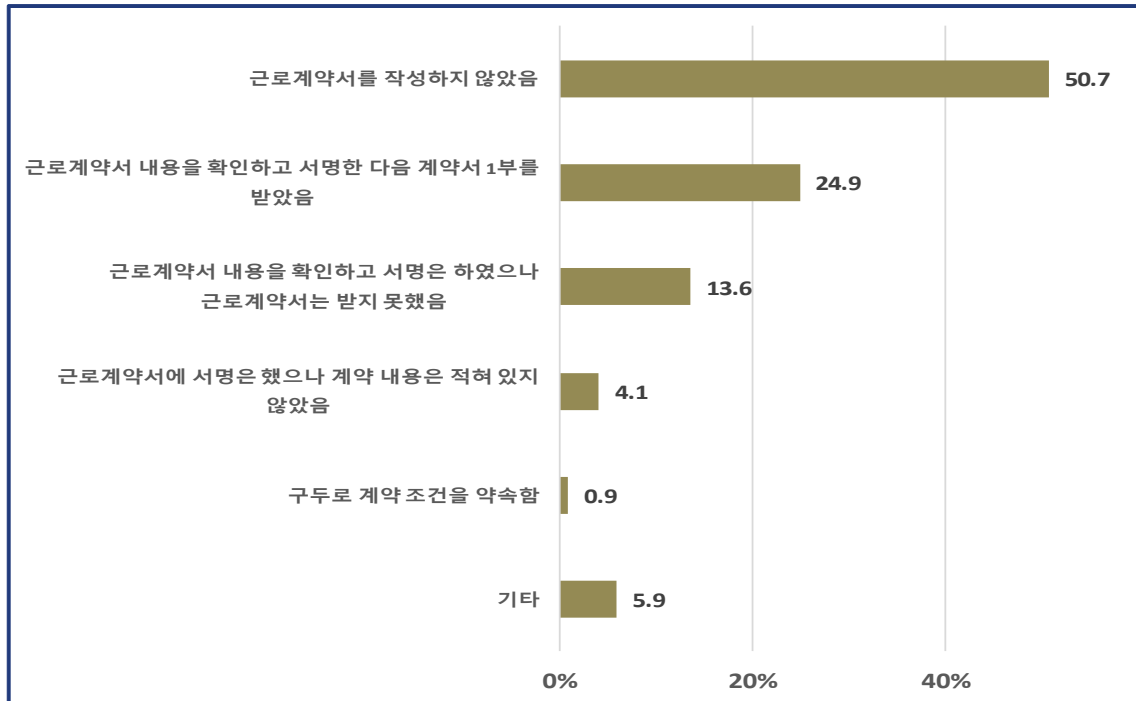
<그림 II-115>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직종) (특성화)

- 남학생이 주로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은 ‘식당(고기집, 백반집, 횃집 등)’ (55.4%), ‘웨딩홀 뷔페/서빙/안내/예식 도우미’ (45.5%),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붙이기 포함)’ (24.8%), ‘편의점’ (17.4%), ‘건설현장(짐나르기, 심부름 등)’ (11.6%), ‘배달(라이더), 택배(물건분류, 물건 나르기)’ (9.9%), ‘카페, 커피숍’ (7.4%),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피자, 치킨,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등)’ (6.6%), ‘포차(포차, 호프집, 소주방 등)’ (4.1%), ‘마트’ (2.5%), ‘주유소(주유, 세차 등)’ (1.7%), ‘판매(옷 가게, 악세사리 가게, 화장품 가게 등)’, ‘미용업(미용실, 손톱 손질 등)’, ‘공공기관(학교, 주민센터, 도서관 등)’, ‘이사짐센터(짐 정리, 포장, 나르기)’ (각 0.8%)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함
- 여학생이 주로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은 ‘식당’ (67.9%), ‘편의점’ (26.4%), ‘전단지 돌리기’ (19.8%),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 (15.1%), ‘웨딩홀 뷔페/서빙/안내/예식 도우미’ (10.4%), ‘카페, 커피숍’ (7.4%), ‘마트’ (4.7%), ‘미용업’ (2.8%), ‘판매’ (1.9%), ‘배달, 택배’, ‘포차’, ‘공공기관’ (각 0.9%) 등의 순임
- 특성화고 학생이 주로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은 ‘식당’ (62.8%), ‘웨딩홀 뷔페/서빙/안내/예식 도우미’ (32.8%), ‘전단지 돌리기’와 ‘편의점’ (각 23.3%),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 (10.0%), ‘건설현장’ (6.7%), ‘카페, 커피숍’ (6.1%), ‘배달, 택배’ (5.6%), ‘마트’ (4.4%), ‘미용업’ (2.2%), ‘포차’ (1.7%), ‘공공기관’ (1.1%), 판매 (0.6%) 등의 순임
- 인문계고 학생이 주로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은 ‘식당’ (54.2%), ‘전단지 돌리기’와 ‘카페, 커피숍’ (각 18.8%), ‘편의점’과 ‘웨딩홀 뷔페/서빙/안내/예식 도우미’ 및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 (각 14.6%), ‘배달, 택배’와 ‘포차’ (각 6.3%), ‘주유소’와 ‘판매’ 및 ‘건설현장’ (각 4.2%), ‘이사짐 센터’ (2.1%) 등의 순임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표 Ⅱ-59】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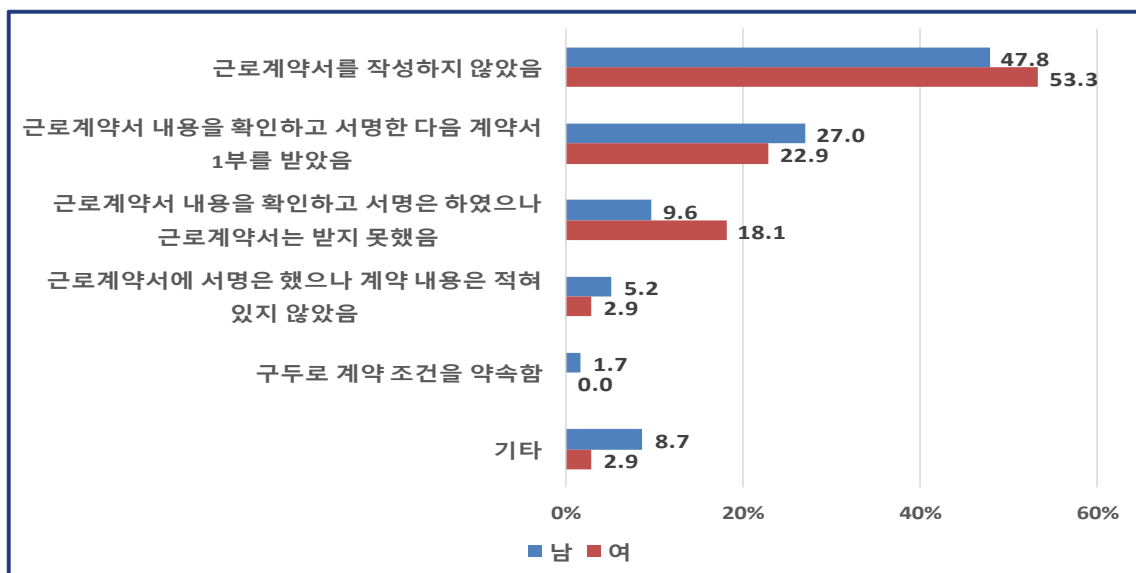
(단위: 명,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했으나 계약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음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은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받지 못했음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다음 계약서 1부를 받았음	구두로 계약 조건을 약속함	기타
전체(n=221)		50.7	4.1	13.6	24.9	0.9	5.9
성별	남(115)	47.8	5.2	9.6	27.0	1.7	8.7
	여(105)	53.3	2.9	18.1	22.9	0.0	2.9
고교 유형	인문계(45)	53.3	6.7	6.7	20.0	2.2	11.1
	특성화(176)	50.0	3.4	15.3	26.1	0.6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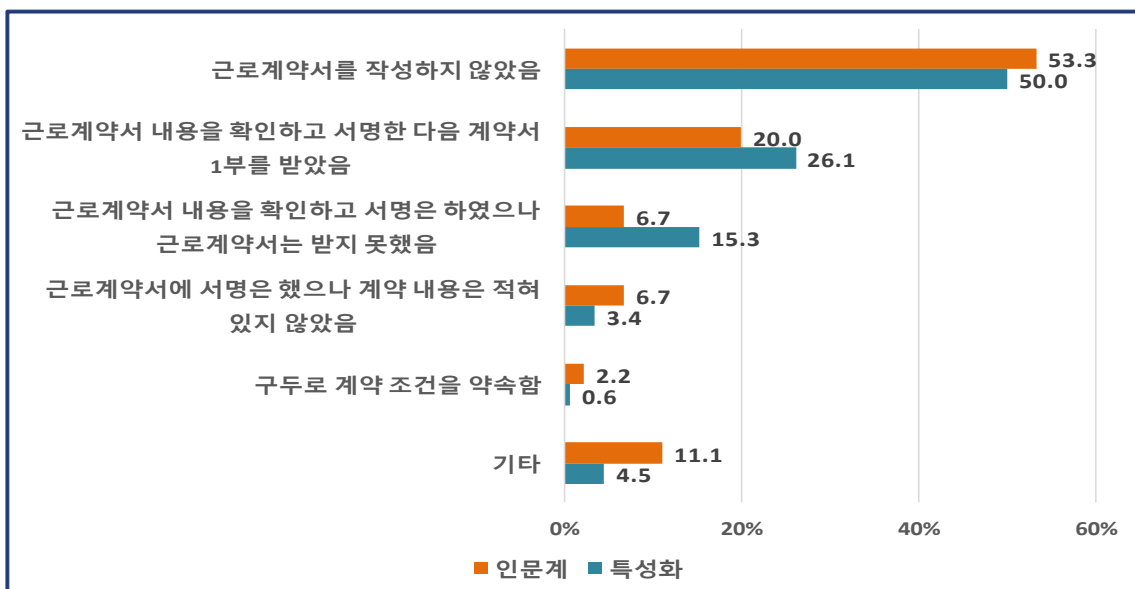
<그림 Ⅱ-116>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전체)

- 일을 시작할 때 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 관련 응답자 10명 중 5명(50.7%)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이라고 답변함

-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다음 계약서 1부를 받았음’ (24.9%),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은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받지 못했음’ (13.6%),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했으나 계약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음’ (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다음 계약서 1부를 받은 비율은 4명 중 1명(24.9%)에 불과하고, 남학생은 27.0%, 여학생은 22.9%이며, 특성화고 학생은 26.1%, 인문계고 학생은 20.0% 임



<그림 II-117>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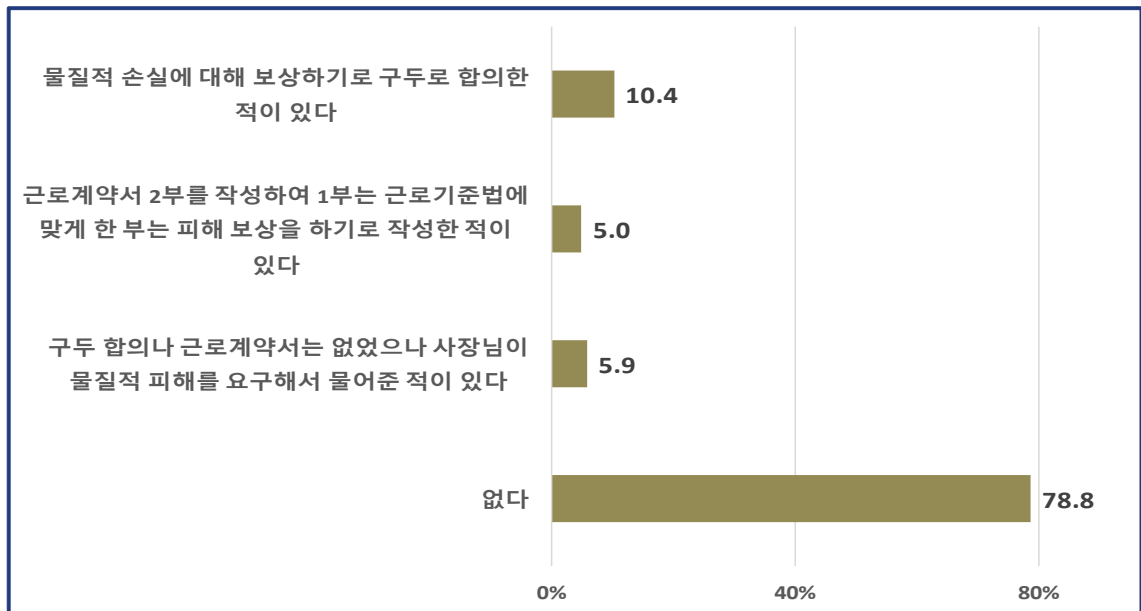


<그림 II-118>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고교유형별)

❖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매장이나 손님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 합의나 근로계약 여부

【표 Ⅱ-60】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물적피해시 보상 동의나 계약

(단위: 명, %)		물질적 손실에 대해 보상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적이 있다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한 부는 피해 보상을 하기로 작성한 적이 있다	구두 합의나 근로계약서는 없었으나 사장님이 물질적 피해를 요구해서 물어준 적이 있다	없다
전체(n=222)		10.4	5.0	5.9	78.8
성별	남(118)	11.0	5.1	6.8	77.1
	여(103)	9.7	4.9	3.9	81.6
고교 유형	인문계(46)	10.9	10.9	8.7	69.6
	특성화(176)	10.2	3.4	5.1	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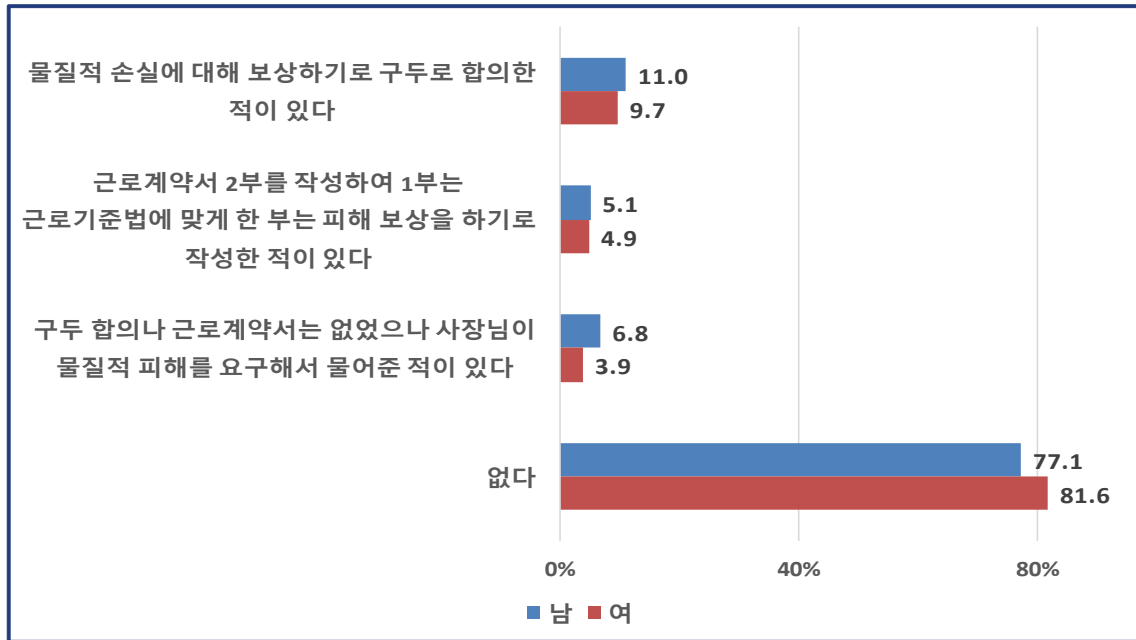


<그림 Ⅱ-119>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물적피해시 보상 동의나 계약(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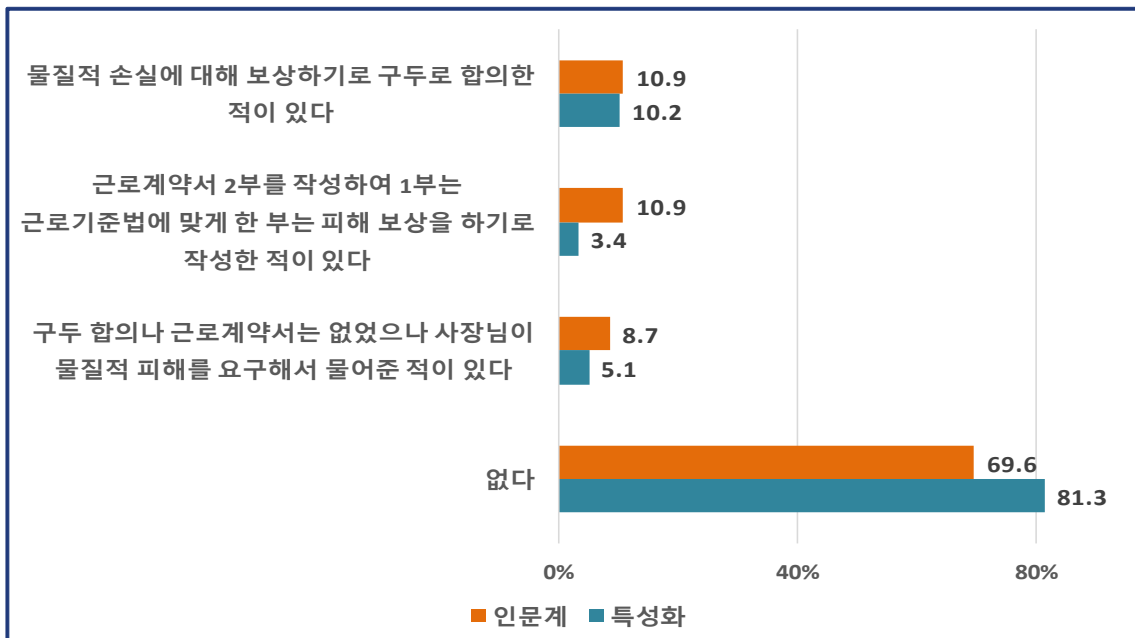
-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매장이나 손님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 합의나 근로계약 여부를 살펴보면, ‘물질적 손실에 대해 보상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적이 있다’ 10.4%, ‘구두 합의나 근로계약서는 없었으나 사장님이 물질적 피해를 요구해서 물어준 적이 있다’ 5.9%,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한 부는 피해 보상을 하기로 작성한 적이 있다’ 5.0%로 나타남

○ 불합리한 보상이나 합의 계약은 전체의 21.2%에 이름



<그림 II-120>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물적피해시 보상 동의나 계약(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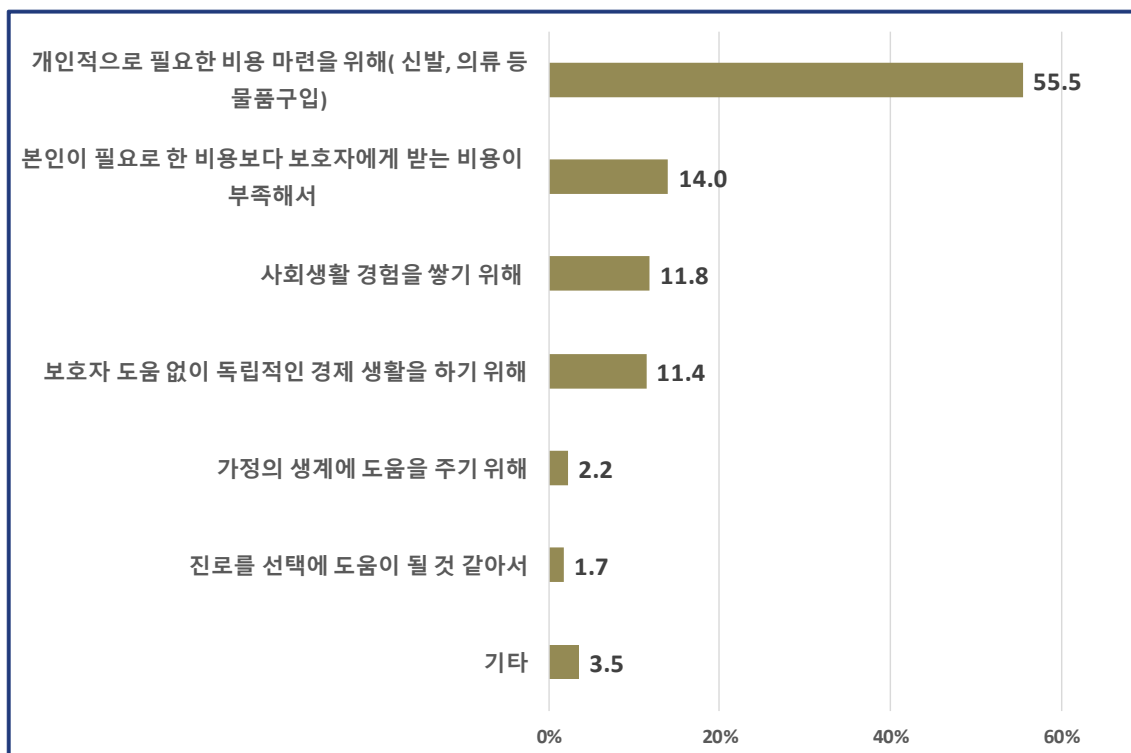


<그림 II-121>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물적피해시 보상 동의나 계약(고교유형)

❖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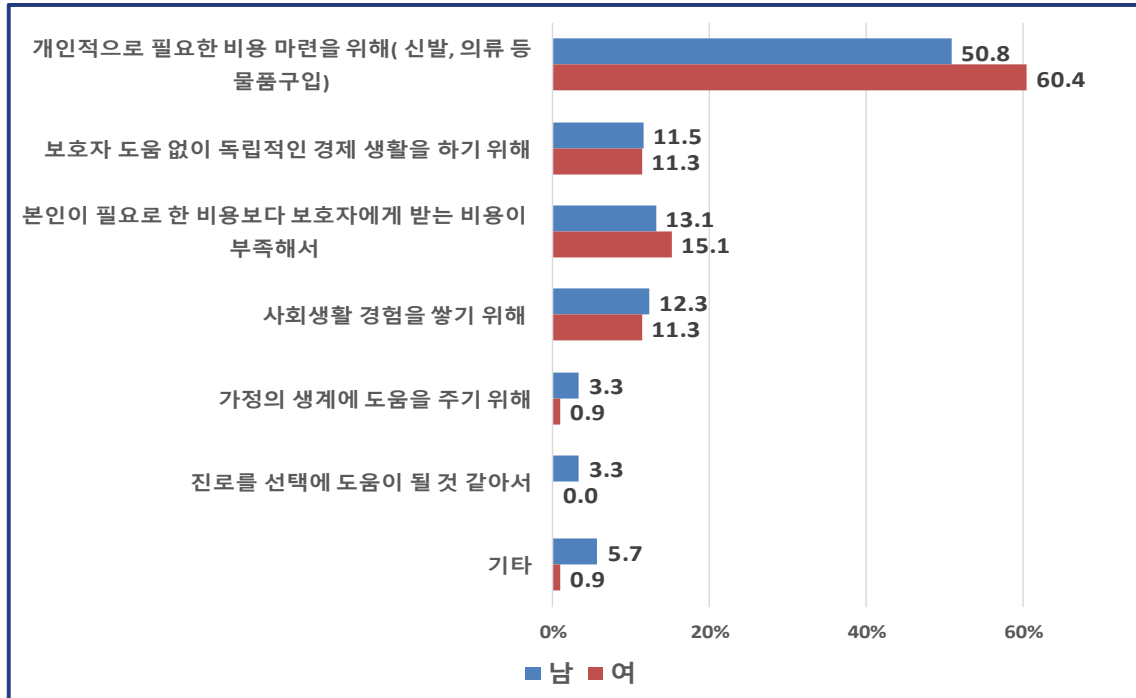
【표 Ⅱ-61】 아르바이트하는 이유

(단위: 명, %)		개인적으로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신발, 의류 등 물품 구입)	보호자 도움 없이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	본인이 필요로 한 비용보다 보호자에게 받는 비용이 부족해서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	가정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로를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타
전체(n=229)		55.5	11.4	14.0	11.8	2.2	1.7	3.5
성별	남(122)	50.8	11.5	13.1	12.3	3.3	3.3	5.7
	여(106)	60.4	11.3	15.1	11.3	0.9	0.0	0.9
고교 유형	인문계(48)	62.5	4.2	6.3	12.5	4.2	4.2	6.3
	특성화(181)	53.6	13.3	16.0	11.6	1.7	1.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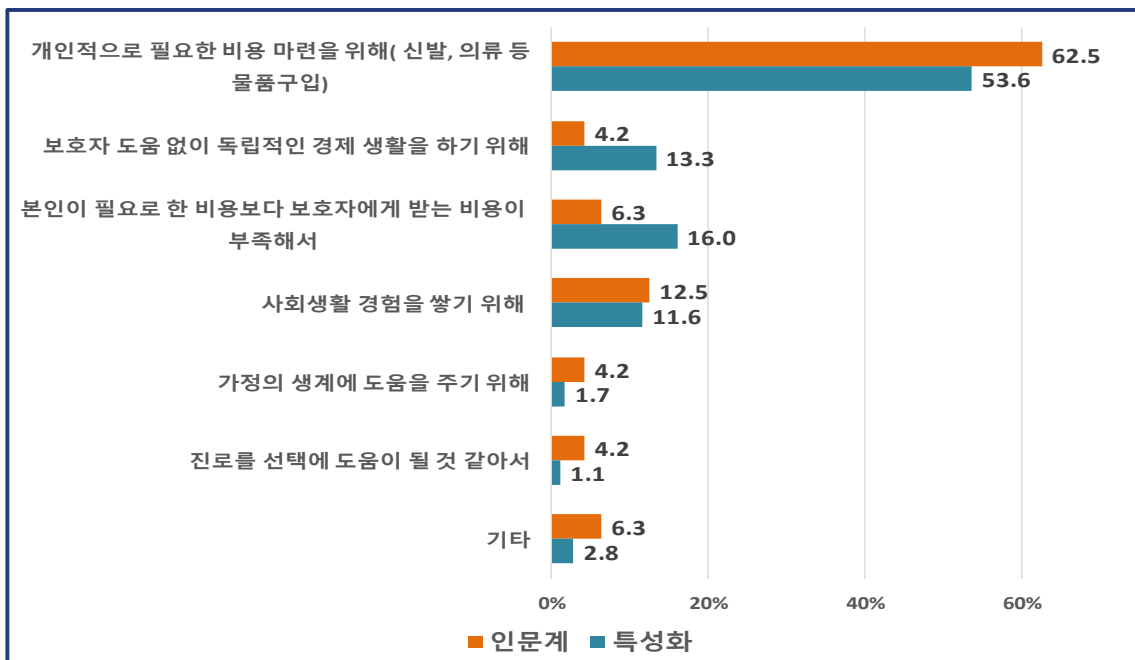


<그림 Ⅱ-122> 아르바이트하는 이유(전체)

-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55.5%), ‘본인이 필요로 한 비용보다 보호자에게 받는 비용이 부족해서’ (14.0%),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 (11.8%), ‘보호자 도움 없이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 (11.4%) 등의 순임



<그림 Ⅱ-123> 아르바이트하는 이유(성별)



<그림 Ⅱ-124> 아르바이트하는 이유(고교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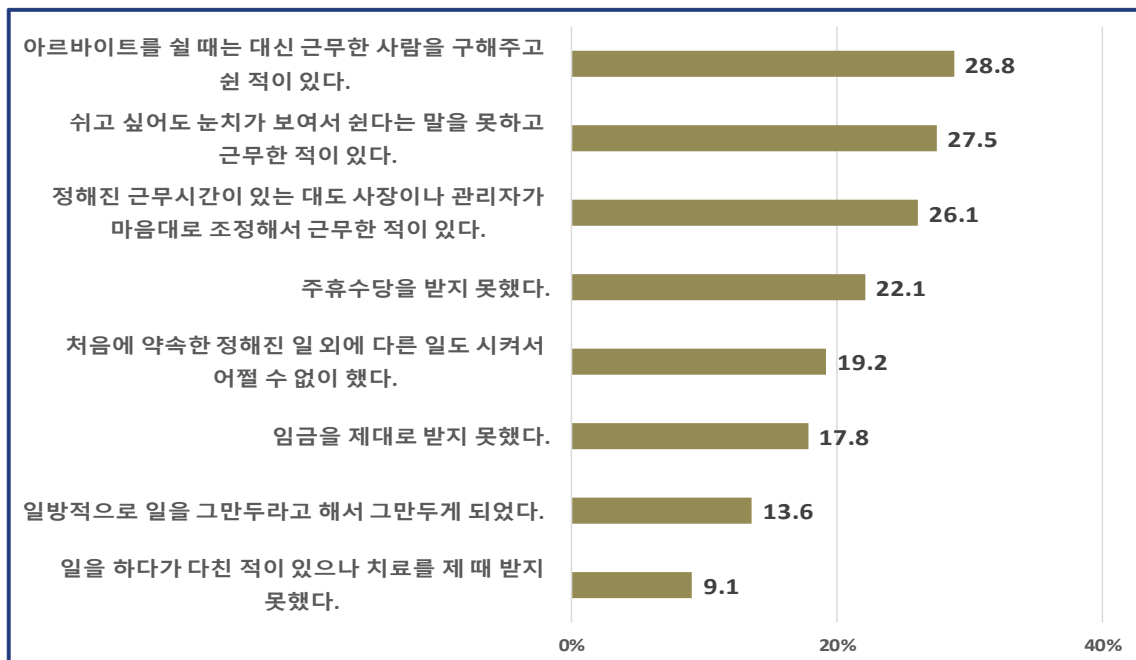
◆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경험한 부당대우

【표 II-62】 부당대우 경험 비율

항 목	경험 비율				
	전체	남	여	인문계	특성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17.8	20.2	15.2	8.7	20.1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22.1	19.0	25.7	21.3	22.3
처음에 약속한 정해진 일 외에 다른 일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19.2	14.9	24.0	13.0	20.8
일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으나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했다.	9.1	7.8	10.6	12.8	8.1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13.6	11.3	16.3	10.9	14.4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대도 사장이나 관리자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근무한 적이 있다.	26.1	17.2	36.2	19.1	28.0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쉰다는 말을 못하고 근무한 적이 있다.	27.5	20.7	35.2	25.5	28.0
아르바이트를 쉴 때는 대신 근무한 사람을 구해주고 쉰 적이 있다.	28.8	28.4	29.5	27.7	29.1

-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겪은 부당대우는 ‘아르바이트를 쉴 때는 대신 근무한 사람을 구해주고 쉰 적이 있다’ (28.8%),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쉰다는 말을 못하고 근무한 적이 있다’ (27.5%),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대도 사장이나 관리자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근무한 적이 있다’ (26.1%),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22.1%), ‘처음에 약속한 정해진 일 외에 다른 일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19.2%),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17.8%),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13.6%), ‘일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으나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했다’ (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남학생이 겪은 부당대우는 ‘아르바이트를 쉴 때는 대신 근무한 사람을 구해주고 쉰 적이 있다’ (28.4%),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쉰다는 말을 못하고 근무한 적이 있다’ (20.7%),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2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학생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대도 사장이나 관리자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근무한 적이 있다’ (36.2%),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쉰다는 말을 못하고 근무한 적이 있다’ (35.2%), ‘아르바이트를 쉴 때는 대신 근무한 사람을 구해주고 쉰 적이 있다’ (2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성화고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쉴 때는 대신 근무한 사람을 구해주고 쉰 적이 있다’ (29.1%),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대도 사장이나 관리자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근무한 적이 있다’ 와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쉰다는 말을 못하고 근무한 적이 있다’ (각 28.0%) 등의 순으로 부당대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인문계고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쉴 때는 대신 근무한 사람을 구해주고 쉰 적이 있다’ (27.7%),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쉰다는 말을 못하고 근무한 적이 있다’ (25.5%),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2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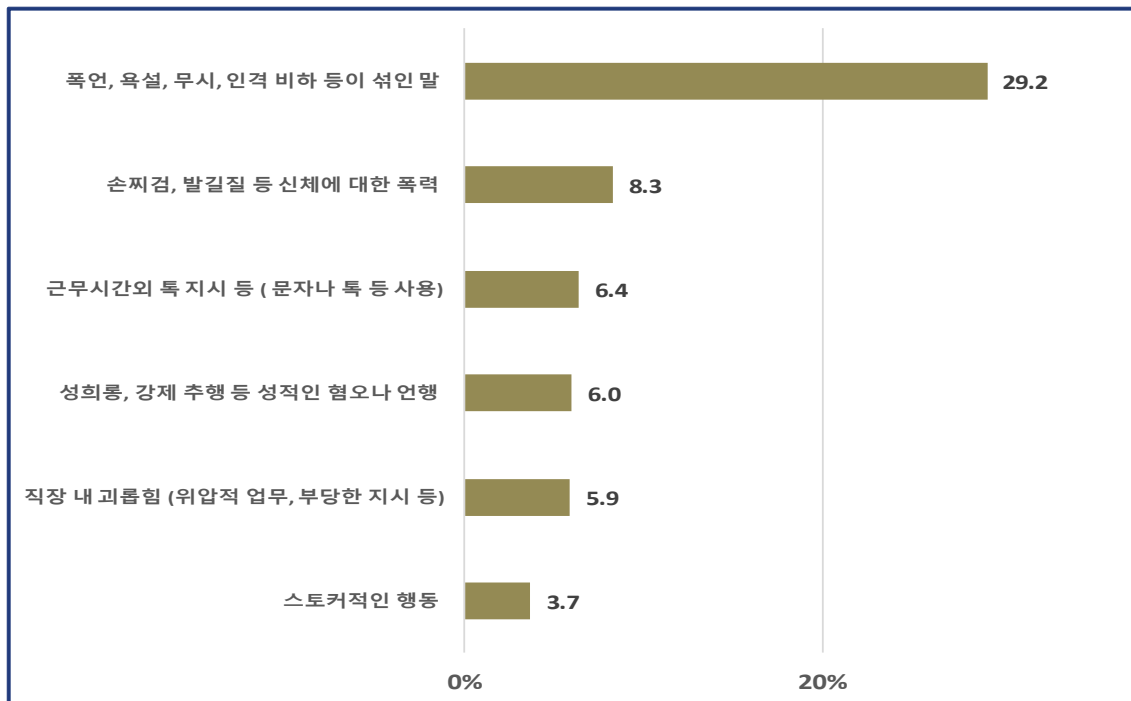
<그림 II-125> 부당대우 경험 비율(전체)

◆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표 Ⅱ-63】 인권침해 경험

항 목	가해자			없음	있음
	사장, 사장 관련 가족	상사, 선배, 동료 등	손님		
폭언, 욕설, 무시, 인격 비하 등이 섞인 말	9.6	1.8	18.3	70.8	29.2
손찌검, 발길질 등 신체에 대한 폭력	2.8	1.8	3.7	91.7	8.3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성적인 혐오나 언행	3.2	0.9	2.3	94.0	6.0
직장 내 괴롭힘 (위압적 업무, 부당한 지시 등)	2.7	3.2	0.0	94.1	5.9
근무시간외 톡 지시 등 (문자나 톡 등 사용)	3.7	2.8	0.0	93.6	6.4
스토커적인 행동	0.9	1.8	1.4	96.3	3.7

주: 가해자는 복수응답임



<그림 Ⅱ-126> 인권침해 경험비율

-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는 ‘폭언, 욕설, 무시, 인격 비하 등이 섞인 말’ 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손찌검, 발길질 등 신체에 대한 폭력’ (8.3%), ‘근무시간외 톡 지시 등(문자나 톡 등 사용)’ (6.4%),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성적 인 혐오나 언행’ (6.0%), ‘직장 내 괴롭힘 (위압적 업무, 부당한 지시 등)’ (5.9%), ‘스토커적인 행동’ (3.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18.3%는 손님으로부터 ‘폭언, 욕설, 무시, 인격 비하 등이 섞인 말’ 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응답자의 9.6%는 사장, 사장 관련 가족으로부터 ‘폭언, 욕설, 무시, 인격 비하 등이 섞인 말’ 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응답자의 3.7%는 사장, 사장관련 가족으로부터 ‘ ‘근무시간외 톡 지시 등(문자나 톡 등 사용)’ 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7%는 손님으로부터 ‘손찌검, 발길질 등 신체에 대한 폭력’ 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3.2%는 사장, 사장 관련 가족으로부터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성적인 혐오나 언행’ 의 인권침해를 경험했거나 상사, 선배, 동료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위압적 업무, 부당한 지시 등)’ 을 당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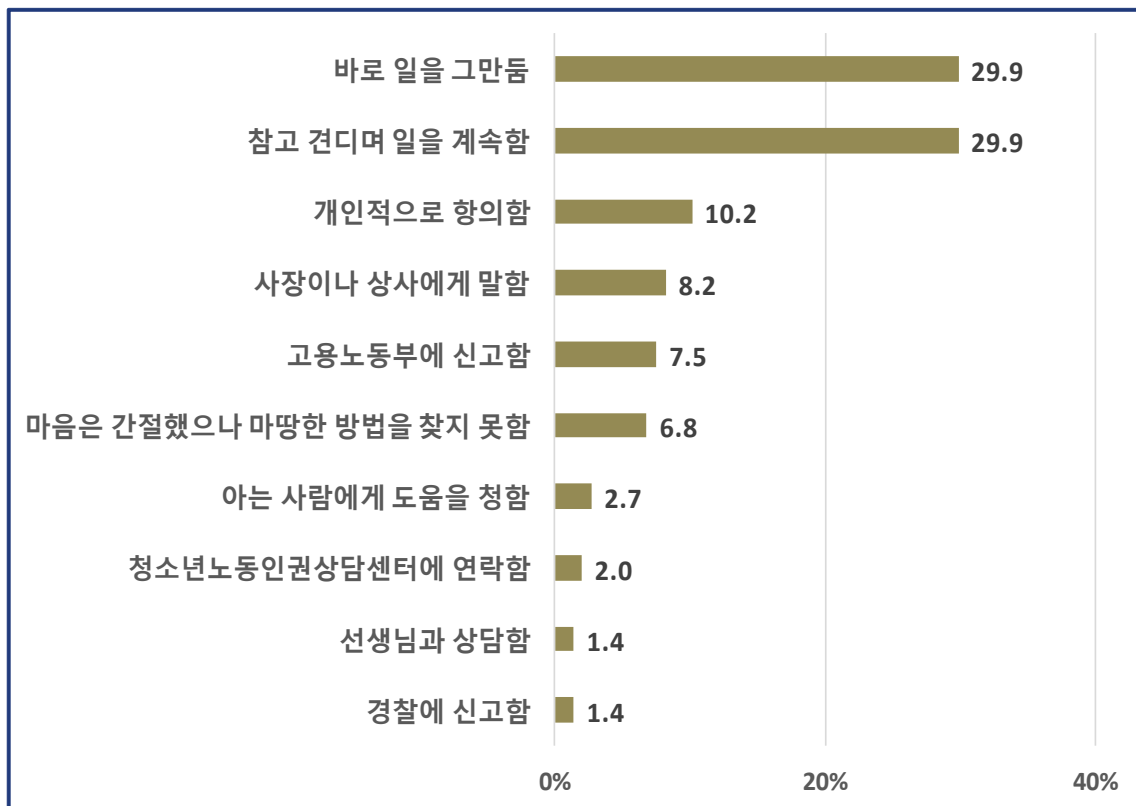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

【표 Ⅱ-64】 노동인권 침해 시 대응

(단위: 명,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n=147)		29.9	29.9	10.2	1.4	8.2	2.7	7.5	1.4	2.0	6.8
성별	남(71)	35.2	23.9	12.7	0.0	7.0	5.6	7.0	1.4	4.2	2.8
	여(75)	24.0	36.0	8.0	2.7	9.3	0.0	8.0	1.3	0.0	10.7
고교 유형	인문계(25)	24.0	20.0	20.0	4.0	12.0	0.0	8.0	4.0	0.0	8.0
	특성화(122)	31.1	32.0	8.2	0.8	7.4	3.3	7.4	0.8	2.5	6.6

주1: ① 바로 일을 그만둠, ② 참고 견디며 일을 계속함, ③ 개인적으로 항의함, ④ 선생님과 상담함, ⑤ 사장이나 상사에게 말함, ⑥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 ⑦ 고용노동부에 신고함 ⑧ 경찰에 신고함, ⑨ 청소년노동인권상담센터에 연락함, ⑩ 마음은 간절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함

주2: 기타 해당사항 없음 제외



<그림 Ⅱ-127> 인권침해 시 대응(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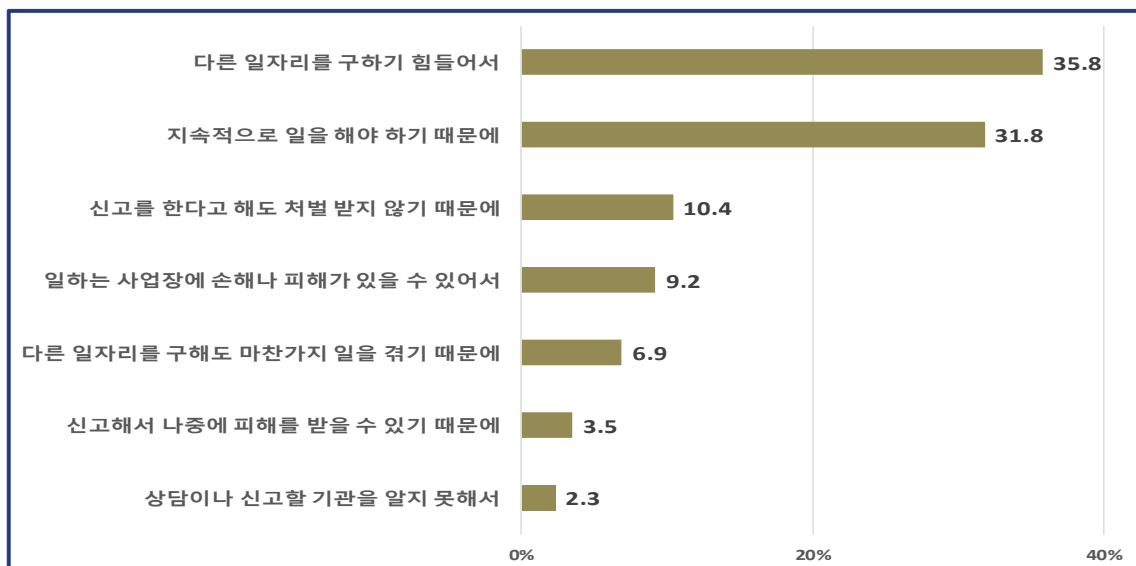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을 살펴보면, ‘바로 일을 그만둠’과 ‘참고 견디며 일을 계속함’이 각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항의함’ (10.2%), ‘사장이나 상사에게 말함’ (8.2%), ‘고용노동부에 신고함’ (7.5%), ‘마음은 간절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함’ (6.8%),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 (2.7%), ‘청소년노동인권상담센터에 연락함’ (2.0%), ‘선생님과 상담함’과 ‘경찰에 신고함’ (각 1.4%) 등의 순으로 높은 대응방법을 보임
- 남학생은 ‘바로 일을 그만둠’ (35.2%), ‘참고 견디며 일을 계속함’ (23.9%), ‘개인적으로 항의함’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학생은 ‘참고 견디며 일을 계속함’ (36.0%), ‘바로 일을 그만둠’ (24.0%), ‘사장이나 상사에게 말함’ (9.3%) 등의 순으로 노동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을 보임
- 노동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을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 학생은 ‘참고 견디며 일을 계속함’ (32.0%), ‘바로 일을 그만둠’ (31.1%), ‘개인적으로 항의함’ (8.2%), ‘사장이나 상사에게 말함’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함’ (각 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문계 학생은 ‘바로 일을 그만둠’ (24.0%), ‘참고 견디며 일을 계속함’과 ‘개인적으로 항의함’ (각 20.0%), ‘사장이나 상사에게 말함’ (12.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을 하면서 노동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표 Ⅱ-65】 인권침해나 부당대우 대처

(단위: 명, %)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도 마찬가지로 일을 겪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담이나 신고할 기관을 알지 못해서	신고해서 나중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업장에 손해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전체(n=173)		31.8	35.8	6.9	10.4	2.3	3.5	9.2
성별	남(84)	27.4	44.0	7.1	9.5	2.4	2.4	7.1
	여(88)	36.4	28.4	5.7	11.4	2.3	4.5	11.4
고교 유형	인문계(35)	34.3	22.9	2.9	14.3	8.6	0.0	17.1
	특성화(138)	31.2	39.1	8.0	9.4	0.7	4.3	7.2

주: 기타 해당사항 없음 제외



<그림 Ⅱ-128> 인권침해나 부당대우 대처

- 일하면서 당하는 노동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31.8%),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10.4%), ‘일하는 사업장에 손해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7.0%), ‘다른 일자리를 구해도 마찬가지로 일을 겪기 때문에’ (6.9%), ‘신고해서 나중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5%), ‘상담이나 신고할 기관을 알지 못해서’ (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남학생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44.0%),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27.4%),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9.5%), ‘다른 일자리를 구해도 마찬가지로 일을 겪기 때문에’, ‘일하는 사업장에 손해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각 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학생은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36.4%),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28.4%),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사업장에 손해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각 11.4%), ‘다른 일자리를 구해도 마찬가지로 일을 겪기 때문에’ (5.7%), ‘신고해서 나중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5%) 등의 순임
- 특성화고 학생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39.1%),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31.2%),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9.4%), ‘다른 일자리를 구해도 마찬가지로 일을 겪기 때문에’ (8.0%), ‘일하는 사업장에 손해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7.2%), ‘신고해서 나중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문계고 학생은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34.3%),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22.9%), ‘일하는 사업장에 손해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17.1%),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14.3%), ‘상담이나 신고할 기관을 알지 못해서’ (8.6%) 등의 순임

◆ 아르바이트 하면서 겪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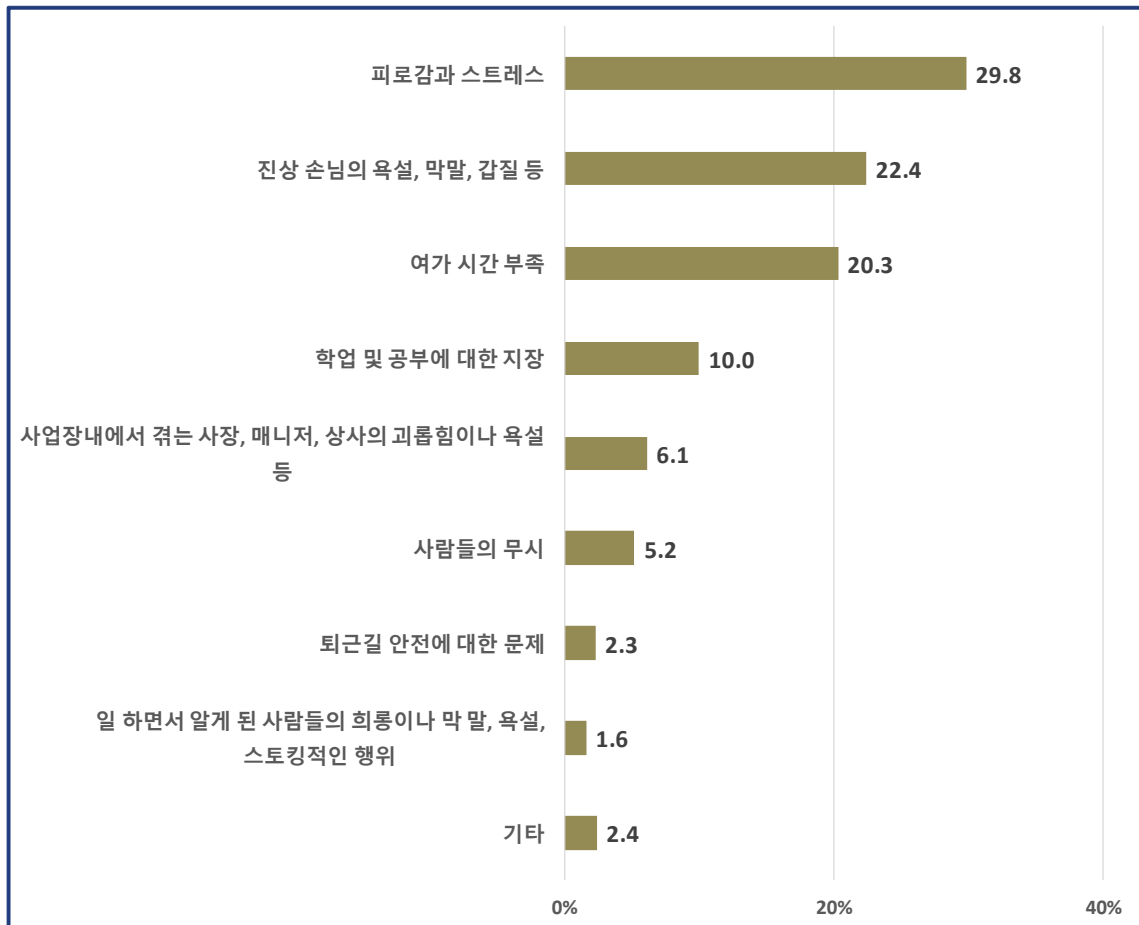
【표 II-66】 아르바이트 하면서 겪는 어려움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남	여	인문계	특성화
사업장내에서 겪는 사장, 매니저, 상사의 괴롭힘이나 욕설 등	8.7	3.3	3.6	6.1	6.1	6.1	7.5	5.7
진상 손님의 욕설, 막말, 갑질 등	36.7	8.3	7.9	22.4	24.6	20.4	22.3	22.5
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의 희롱이나 막 말, 욕설, 스토킹적인 행위	1.0	1.7	3.0	1.6	2.2	1.0	4.0	0.9
사람들의 무시	4.3	6.1	6.1	5.2	5.5	5.1	3.5	5.7
피로감과 스트레스	32.4	33.3	15.2	29.8	30.0	29.3	29.5	29.9
학업 및 공부에 대한 지장	5.3	12.2	19.4	10.0	9.2	11.0	13.1	9.1
여가 시간 부족	7.2	32.8	34.5	20.3	18.9	21.9	15.9	21.4
퇴근길 안전에 대한 문제	1.0	1.7	7.3	2.3	1.0	3.5	1.7	2.4
기타	3.4	0.6	3.0	2.4	2.5	1.7	2.5	2.4

주: 1순위 300%, 2순위 200%, 3순위 100%를 가중함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1순위+2순위+3순위)은 ‘피로감과 스트레스’ (29.8%)인 것으로 파악됨
- 다음으로 ‘진상 손님의 욕설, 막말, 갑질 등’ (22.4%), ‘여가 시간 부족’ (20.3%), ‘학업 및 공부에 대한 지장’ (10.0%), ‘사업장내에서 겪는 사장, 매니저, 상사의 괴롭힘이나 욕설 등’ (6.1%), ‘사람들의 무시’ (5.2%), ‘퇴근길 안전에 대한 문제’ (2.3%), ‘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의 희롱이나 막말, 욕설, 스토킹적인 행위’ (1.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남학생은 ‘피로감과 스트레스’ (30.0%), ‘진상 손님의 욕설, 막말, 갑질 등’ (24.6%), ‘여가 시간 부족’ (21.9%) 등의 순으로,
- 여학생은 ‘피로감과 스트레스’ (29.3%), ‘진상 손님의 욕설, 막말, 갑질 등’ (22.3%), ‘여가 시간 부족’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화고 학생은 ‘피로감과 스트레스’ (29.9%), ‘진상 손님의 욕설, 막말, 갑질 등’ (22.5%), ‘여가 시간 부족’ (2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문계고 학생은 ‘피로감과 스트레스’ (29.5%), ‘진상 손님의 욕설, 막말, 갑질 등’ (22.3%), ‘여가 시간 부족’ (15.9%) 등의 순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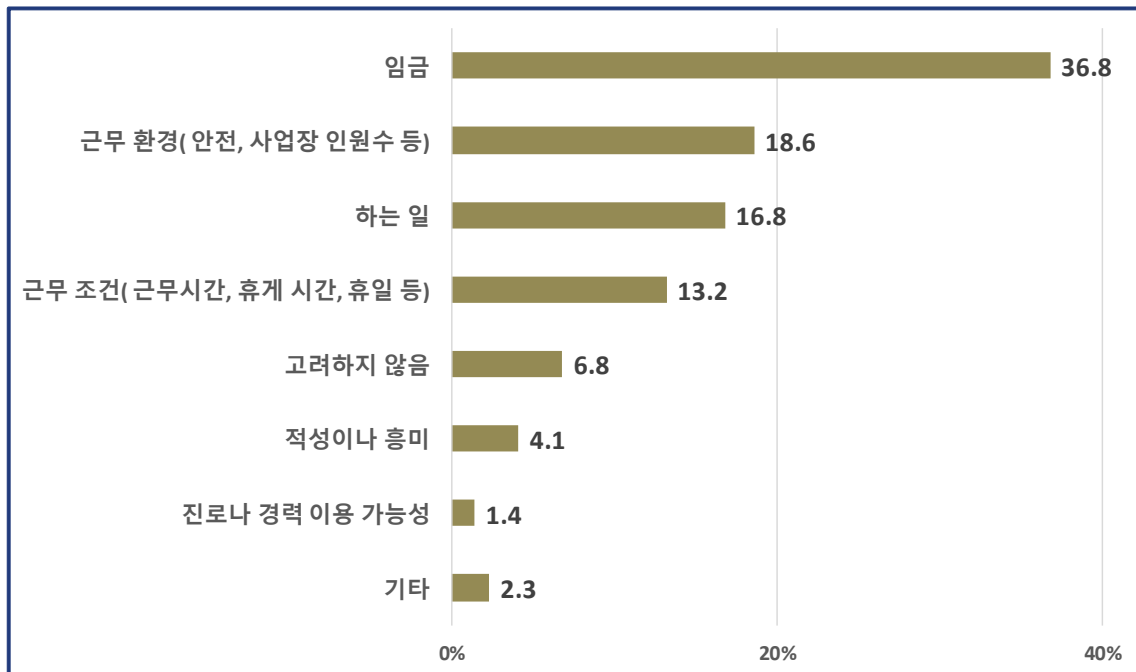


<그림 II-129> 아르바이트 하면서 겪는 어려움(1순위+2순위+3순위)

❖ 아르바이트 구직 시 가장 우선 고려하는 사항

【표 Ⅱ-67】 아르바이트 구직 시 고려사항

(단위: 명, %)		임금	근무 환경(안전, 사업장 인원수 등)	하는 일	적성이나 흥미	진로나 경력 이용 가능성	근무 조건(근무시간, 휴게 시간, 휴일 등)	고려하지 않음	기타
전체(n=220)		36.8	18.6	16.8	4.1	1.4	13.2	6.8	2.3
성별	남(113)	39.8	24.8	9.7	4.4	2.7	11.5	5.3	1.8
	여(105)	34.3	12.4	23.8	3.8	0.0	14.3	8.6	2.9
고교 유형	인문계(46)	41.3	23.9	17.4	6.5	2.2	4.3	4.3	0.0
	특성화(174)	35.6	17.2	16.7	3.4	1.1	15.5	7.5	2.9



<그림 Ⅱ-130> 아르바이트 구직 시 고려사항(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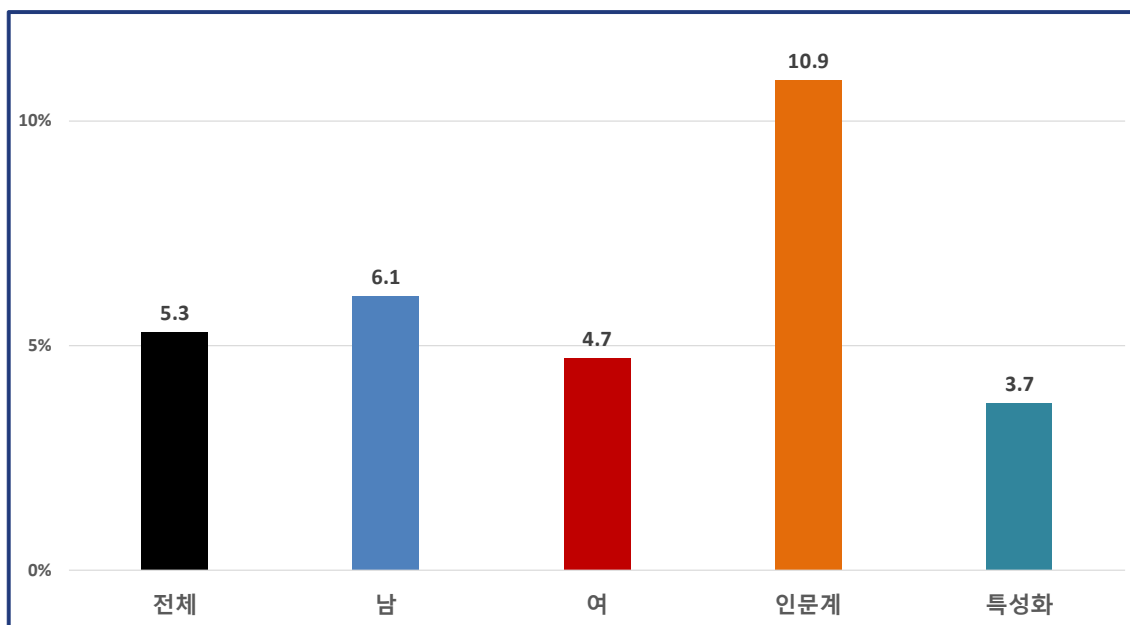
- 아르바이트 구직 시 고려사항은 첫째가 ‘임금’ (36.8%)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근무 환경(안전, 사업장 인원수 등)’ (18.6%), ‘하는 일’ (16.8%), ‘근무 조건(근무시간, 휴게 시간, 휴일 등)’ (13.2%), ‘적성이나 흥미’ (4.1%), ‘진로나 경력 이용 가능성’ (1.4%) 등인 것으로 파악됨
- 성별 차원에서 살펴보면, 남학생은 ‘임금’ (39.8%), ‘근무 환경(안전, 사업장 인원수 등)’ (24.8%), ‘근무 조건(근무시간, 휴게 시간, 휴일 등)’ (11.5%), ‘하는 일’ (9.7%), ‘적성이나 흥미’ (4.4%), ‘진로나 경력 이용 가능성’ (2.7%) 등의 순으로 아르바이트 구직 시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학생은 ‘임금’ (34.3%), ‘하는 일’ (23.8%), ‘근무 조건(근무시간, 휴게 시간, 휴일 등)’ (14.3%), ‘근무 환경(안전, 사업장 인원수 등)’ (12.4%), ‘적성이나 흥미’ (3.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유형별 차원에서 살펴보면, 특성화고 학생의 아르바이트 구직 시 고려사항은 ‘임금’ (35.6%), ‘근무 환경(안전, 사업장 인원수 등)’ (17.2%), ‘하는 일’ (16.7%), ‘근무 조건(근무시간, 휴게 시간, 휴일 등)’ (15.5%), ‘적성이나 흥미’ (3.4%), ‘진로나 경력 이용 가능성’ (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문계고 학생은 ‘임금’ (41.3%), ‘근무 환경(안전, 사업장 인원수 등)’ (23.9%), ‘하는 일’ (17.4%), ‘적성이나 흥미’ (6.5%), ‘근무 조건(근무시간, 휴게 시간, 휴일 등)’ (4.3%), ‘진로나 경력 이용 가능성’ (2.2%) 등의 순으로 아르바이트 구직 시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경험 여부

【표 Ⅱ-68】 코로나로 인한 실직

(단위: 명, %)		있다	없다
전체(n=207)		5.3	94.7
성별	남(99)	6.1	93.9
	여(106)	4.7	95.3
고교 유형	인문계(46)	10.9	89.1
	특성화(161)	3.7	96.3



<그림 Ⅱ-131> 코로나로 인한 실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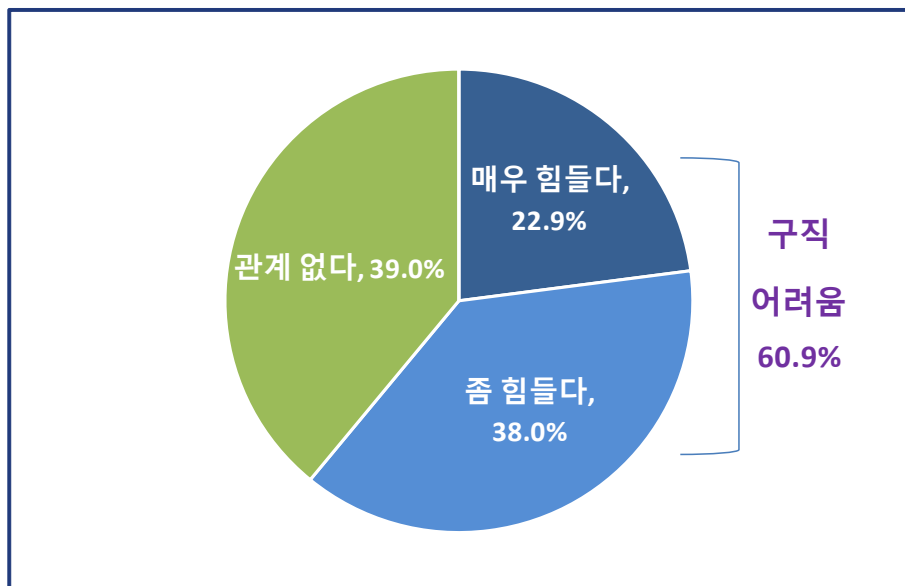
- 코로나 19가 발생한 뒤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적이 있는 경우는 5.3%를 기록함
-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비율은 남학생(6.1%)이 여학생(4.7%)보다 높았으며, 인문계고 학생(10.9%)이 특성화고 학생(3.7%)보다 높게 나타남

❖ 코로나 19 발생 이후 아르바이트 구직의 어려움

【표 Ⅱ-69】 코로나로 인한 구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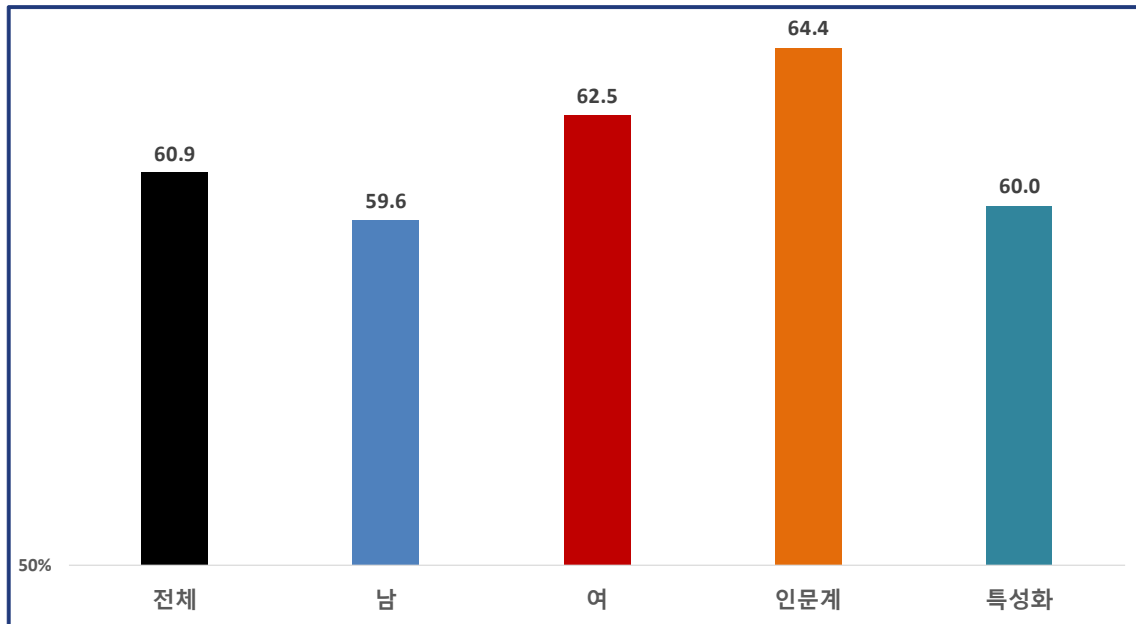
(단위: 명, %)		관계 없다	좀 힘들다	매우 힘들다	구직 어려운 비율
전체(n=205)		39.0	38.0	22.9	60.9
성별	남(99)	40.4	39.4	20.2	59.6
	여(104)	37.5	37.5	25.0	62.5
고교 유형	인문계(45)	35.6	40.0	24.4	64.4
	특성화(160)	40.0	37.5	22.5	60.0

주: 구직 어려운 비율은 좀 힘들다 + 매우 힘들다를 합한 값임



<그림 Ⅱ-132> 코로나로 인한 구직 어려움

- 코로나 19 발생 뒤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는지에 대해, ‘매우 힘들다’ 22.9%, ‘좀 힘들다’ 38.0%, ‘관계없다’ 39.0%로 나타나, 힘들다(‘매우 힘들다’ + ‘좀 힘들다’)는 비율은 60.9%를 기록함



<그림 Ⅱ-133> 코로나로 인해 구직이 어려운 비율(매우 힘들다+좀 힘들다)

- 코로나 19로 인한 구직 어려움(‘매우 힘들다’ + ‘좀 힘들다’)은 여학생(62.5%)이 남학생(59.6%)보다 높게 나타남
- 코로나 19로 인한 구직 어려움을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인문계고 학생(64.4%)이 특성화고 학생(60.0%)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하면서 느꼈던 가장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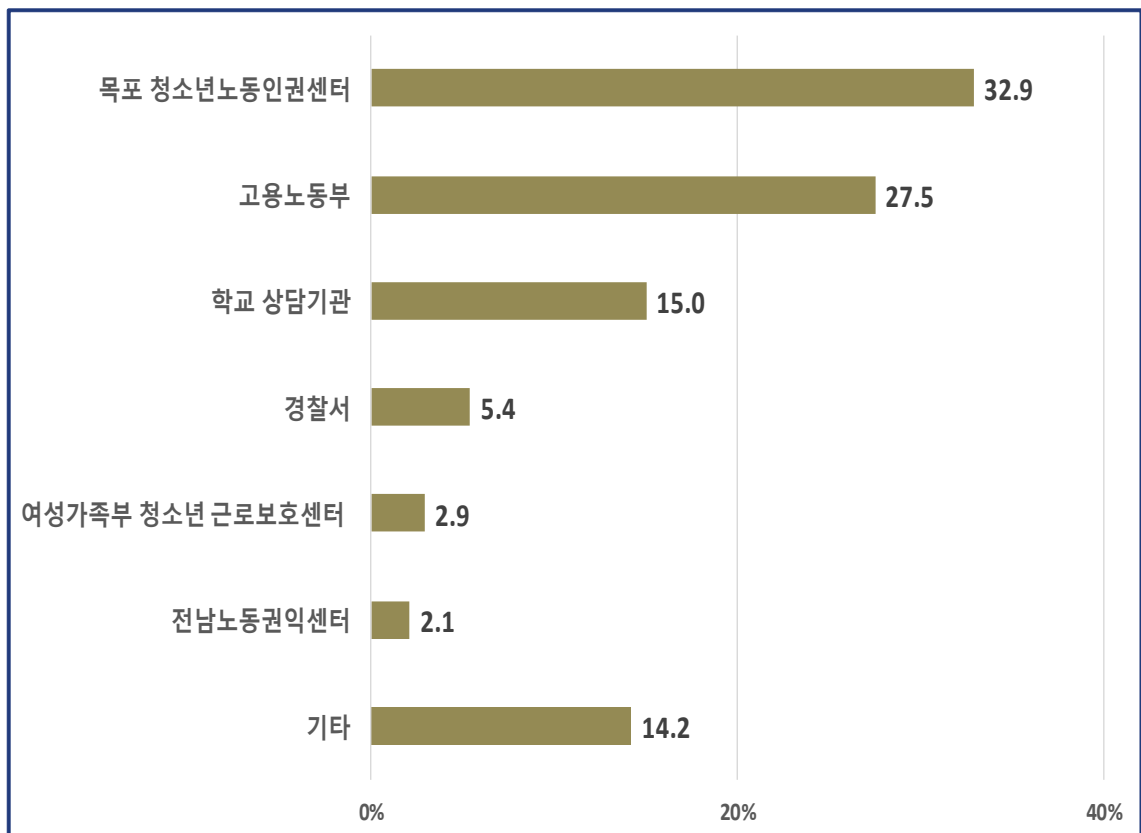
【표 II-70】 아르바이트하면서 느꼈던 필요 사항(서술형)

- 안전이 보장되고 근무시간을 칼같이 지키며 복지가 괜찮고 시급을 적당히 챙겨주는 곳
- 노동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만약 노동인권 침해되면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가 보호되는 곳
- 돈을 밀리지 않고 지급하여 일자리 환경이 쾌적하고 공기가 좋아야 함
- 법적으로 명시된 기본인권을 준수하고,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
- 불법이 없고 건전하다면 어디든 좋지 않을까 함. 술을 권하지 않았으면 함
- 사용자, 노동자가 둘 다 평등, 공평하고 민주주의적인 일자리
- 생계유지와 문화생활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급여와 복지 제공
-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수당도 정확히 지급되는 일자리
- 안정적이고 부당하지 않게 노동의 대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약속된 임금과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법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모두 지키는 곳
-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으며 본인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 인권침해가 없어야 하며 일을 하며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아야 함
-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함
-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 공휴일 쉬기, 퇴근시간 지키기, 갑질 안 됨
- 자신이 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는 일자리
- 4대보험 보장, 근무시간 이외 간섭하지 않는 것
- 적정임금을 주고 야근수당 지급해주기, 복지가 좋아야 함(육아휴직), 주5일 근무
-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임금을 받으며 직장동료가 서로 존중하는 것
- 차별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 차별하지 않고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곳
- 청소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돈 문제로 싸우지 않고 성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 곳
- 최저시급을 보장하고 법률에 기초해 노동계약을 작성하고, 잘 지키는 일자리

❖ 노동인권 상담을 할 때 가장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기관

【표 Ⅱ-71】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노동인권 상담기관

(단위: 명, %)		고용노동부	경찰서	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	목포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	학교 상담 기관	전남노동 권익센터	기타
전체(n=240)		27.5	5.4	2.9	32.9	15.0	2.1	14.2
성별	남(116)	32.8	6.0	0.9	25.9	12.9	0.9	20.7
	여(122)	23.0	4.9	4.9	39.3	16.4	3.3	8.2
고교 유형	인문계(47)	38.3	12.8	2.1	14.9	12.8	2.1	17.0
	특성화(193)	24.9	3.6	3.1	37.3	15.5	2.1	13.5



<그림 Ⅱ-134>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노동인권 상담기관

- 노동인권 상담을 할 때 가장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노동인권지원 기관은 ‘목포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27.5%), ‘학교 상담기관’ (15.0%), ‘경찰서’ (5.4%),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2.9%), ‘전남노동권익센터’ (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14.2%를 기록함
- 남학생은 ‘고용노동부’ (32.8%),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25.9%)’, ‘학교 상담기관’ (12.9%), ‘경찰서’ (6.0%),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전남노동권익센터’ (각 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학생은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39.3%)’, ‘고용노동부(23.0%)’, ‘학교 상담기관’ (16.4%), ‘경찰서’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각 4.9%), ‘전남노동권익센터’ (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화고 학생은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37.3%), ‘고용노동부’ (24.9%), ‘학교 상담기관’ (15.5%), ‘경찰서’ (3.6%),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3.1%), ‘전남노동권익센터’ (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문계고 학생은 ‘고용노동부’ (38.3%),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14.9%), ‘경찰서’와 ‘학교 상담기관’ (각 12.8%),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전남노동권익센터’ (각 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제3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조사결과 요약

제2절 제언



제3장 요약 및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1) 응답자 특성 및 일반 현황

- 「목포지역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는 963명(남 490명, 여 461명, 무응답 12명)으로, 인문계고 500명(51.9%), 특성화고 463명(48.1%)임
- 같이 사는 가구 구성원은 4인 가구가 47.0%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5인 가구(24.9%), 3인 가구(19.0%), 2인 가구(6.4%) 등의 순임. 1인 가구(혼자 생활함)나 2인 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특성화고가 높게 나타남
- 돌봄의 주체는 보호자가 99.2%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중 부모님이 97.2%, 조부모 2.1%, 친척 0.7%임. 인문계고 학생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의 보호자 가운데 조부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인원은 2명이 5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명(22.2%), 3명(19.0%), 4명(3.8%) 등의 순임. 본인 제외하고, 가족 구성원 가운데 1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은 특성화고 학생 집단이 27.6%로 인문계고(1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족의 월수입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 3.9%, ‘대충 알고 있다’ 47.2%, ‘모른다’ 48.9%로 나타남
- 코로나 관련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가 직장을 잃어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율은 2.2%,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의 수입이 감소하여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는 25.1%로 파악됨

- 월 생활비(저축, 학교 교재비, 교통비 등은 제외하고 문화생활, 친목 등의 지출)는 ‘10만원 미만’이 39.9%를 차지함
- 고교 졸업 이후 목포에서 계속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3명(32.3%)인 것으로 파악됨. 목포 거주 계획은 여학생(33.3%)이 남학생(31.8%)보다 높고, 특성화고 학생(39.4%)이 인문계고 학생(25.7%)보다 높게 나타남
- 졸업 이후 목포 거주 계획이 없는 이유는, ‘진학문제’ (43.3%), ‘독립하고 싶어서’ (26.3%), ‘일자리 문제’ (19.4%) 등임. 인문계고 학생은 ‘진학문제’ (58.8%), 특성화고 학생은 ‘일자리 문제’ (37.6%)가 졸업 후 목포 거주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어 그 차이가 두드러짐

(2) 노동(일) 인식 및 평가

- 노동하면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는 ‘돈벌이, 돈 버는 수단’, ‘막노동, 공사장, 노가다, 건설현장, 고기잡이, 원양어선, 공장, 조선소, 논밭 하우스에서 하는 일, 잡일, 용접’ 등이 많았음
-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동’을 주로 ‘육체노동, 단순노동, 힘든 노동’으로 인식함. 이는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인식이 그대로 학생들의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반증함
- 사람들이 노동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47.4%), ‘여가, 문화생활을 위해’ (13.2%),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6.8%), ‘자기 발전과 계발에 필요해서’ (6.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자신의 미래와 관련한 고민거리는 ‘진학’ (36.3%), ‘일자리’ (22.6%), ‘진로의 불투명’ (17.2%), ‘사회생활’ (8.3%), ‘생활비’ (6.4%) 등의 순이며, 인문계고 학생은 ‘진학’ (50.5%)이, 특성화고 학생은 ‘일자리’ (31.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동관련 인식(5점 척도) 중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의견은 보통(3점)보다 높은 3.30점이며, 상대적으로 남학생(3.35점), 특성화고 학생(3.36점)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

- ‘우리나라가 노동자보다 기업을 우선 보호한다’라는 의견은 3.69점이며, 상대적으로 남학생(3.73점), 인문계고 학생(3.83점)의 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정규직 노동자와 견주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은 4.03점이며, 상대적으로 여학생(4.10점), 인문계고 학생(4.15점)이 더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는 남성 노동자에 견주어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은 3.36점이며, 상대적으로 여학생(3.77점), 특성화고 학생(3.39점)의 동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성인 노동자에 견주어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은 3.86점이며, 상대적으로 여학생(3.98점), 특성화고 학생(3.81점)의 동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자국민 노동자에 견주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은 3.76점이며, 상대적으로 여학생(3.89점), 인문계고 학생(3.91점)의 동의가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비장애인에 견주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은 3.88점이며, 상대적으로 여학생(4.06점), 인문계고 학생(4.05점)이 더 동의함
- ‘우리사회는 학벌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은 4.18점이며, 상대적으로 여학생(4.26점), 인문계고 학생(4.36점)의 동의 정도가 더 높음
-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은 3.87점이며, 상대적으로 여학생(3.90점), 인문계고 학생(3.96점)이 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 ‘플랫폼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4.33점이며, 상대적으로 여학생(4.46점), 인

문계고 학생(4.36점)이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기사, 학교 조리사, 마트 노동자 등이 파업을 하는 경우 불편을 참을 수 있다’ 라는 의견은 3.22점이며, 상대적으로 남학생(3.29점), 인문계고 학생(3.33점)이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됨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연장, 유급 휴가 등에 가산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은 3.99점이며, 대적으로 여학생(4.09점), 인문계고 학생(4.04점)의 동의 점수가 높음
- ‘근로자라는 말과 노동자라는 말은 서로 의미와 뜻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은 54.8%인데 여학생(50.5%)보다 남학생(59.5%)이 특성화고(51.7%)보다 인문계고(57.7%)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일 하는 사람에게 근로자와 노동자 중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바르다’ 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0명 가운데 9명(89.4%)은 ‘근로자’가 옳바르다는 의견을 보임. ‘노동자’라는 단어 사용이 옳바르다는 의견은 10.6%에 불과해, 노동자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이 드러남
- ‘근로자’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바르다라는 응답은 남학생(86.4%)보다 여학생(92.6%)이, 인문계고(89.5%)보다 특성화고(89.3%)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노동인권 교육

- 노동인권 교육 수강자는 33.2%이며, 수강 비율은 여학생(43.0%)이 남학생(24.3%)보다, 특성화고 학생(56.2%)이 인문계고 학생(11.8%)보다 높게 나타남
- 노동인권 교육 수강 기관(복수응답)은 고등학교(80.7%), 중학교(32.4%), 초등학교(4.9%), 외부기관에서(4.0%) 순임. 인문계(72.3%)는 중학교에서 수강 비율이, 특성화고(91.6%)는 고등학교에서의 수강 비율이 높음
- 노동인권 관련 항목(복수응답)은 ‘일을 하다가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74.9%),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72.5%), ‘일하다가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50.8%), 노동(일)이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48.4%),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을 알아본다’ (4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학교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반드시 필요하다’ + ‘필요하다’는 의견은 74.3%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유는 ‘자신의 노동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38.3%), ‘누구나 알아야 되는 기본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28.9%),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27.2%),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실현을 위해’ (2.4%), ‘민주주의 시민 자질 향상을 위해’ (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선호하는 노동인권 교육 시작 시기는, ‘중학교 교육과정부터’ (39.1%),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35.8%),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9.9%)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노동인권 인지도(‘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48.0%를 기록해 50%를 넘지 못함.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인지도는 특성화고 학생(56.0%)이 인문계고 학생(40.6%)보다 높게 나타남
- 노동인권 교육의 도움 정도(5점 척도)는 3.89점이며, 여학생(4.00점)이 남학생(3.80점)보다, 특성화고 학생(3.91점)이 인문계고 학생(3.88점)보다 높게 나타남

(4) 아르바이트 인식

-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기는 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45.5%),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29.3%),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없다’ (16.3%),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자리를 구해 보기는 했지만 해보지는 않았다’ (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학생이기 때문에’ (58.8%), ‘보호자

가 반대하기 때문에’ (11.7%), ‘학교에서 시간을 빼주지 않기 때문에’ (10.0%),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교를 졸업 이후 일 년 동안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이 필요하는지에 대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90.6%로 매우 높게 나타남. 여학생(92.5%)이 남학생(89.1%)보다, 특성화고 학생(92.7%)이 인문계고 학생(88.6%)보다 높게 나타남
- 고교 졸업 이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원하는 일 자리를 구할 수 있다’ 28.6%, ‘원하지는 않지만 일 자리는 구할 수 있다’ 28.5%,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 39.5%,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 3.3%로 나타남
-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지원해야 될 사항은 ‘4대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 보험)’ (38.4%), ‘일을 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 시스템’ (21.9%),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 (16.1%),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12.9%),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해소’ (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적당한 일자리의 조건(서술형)은 ‘부당대우나 인권침해가 없는 일자리’ (66건), ‘법을 잘 지키는 일자리’ (48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 (35건), ‘높은 급여’ (29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 (28건), ‘4대 보험 적용 일자리’ (21건), ‘임금 제때 주는 곳’ 등의 의견이 제시됨

(5) 현장실습과 진로

- 특성화고 학생의 취득자격증은 평균 2.54개이며, 앞으로 취득 예정인 자격증은 평균 2.30개임
- 현장실습의 필요성(‘매우 필요하다’ + ‘대체로 필요하다’)이 89.3%이며, 여학생(92.1%)이 남학생(86.8%)보다 높게 나타남

- 원하는 현장실습 교육의 형태는, ‘기업 현장실습과 학교 현장실습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35.9%), ‘전공과에 맞는 현장실습실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30.5%), ‘기업에서 배우는 현장실습이 현재처럼 진행되어야 한다’ (28.0%), ‘전공과에 맞는 기업에서만 현장실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 관련 내년도 계획은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32.0%), ‘대학 진학’ (26.8%), ‘공무원, 공사 입사 또는 시험 응시’, ‘일반 기업 입사 또는 응시’ (12.5%),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학원 등록’ (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6) 아르바이트 실태

-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는 만17세(35.9%)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최근 아르바이트에서 근무 요일은 토요일(73.0%), 일요일(57.9%), 금요일(33.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주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은 ‘10시간 미만’ (42.6%),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24.7%),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15.8%) 등의 순으로 분포함
-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는 1회 32.2%, 2회 26.2%, 3회 22.0%, 4회 이상 19.5%임
- 구직 방법(복수응답)은, ‘친구 소개’ (49.6%), ‘앱 사이트(알바천국 등)’ (44.7%), ‘가족, 친인척 소개’ (13.6%), ‘가게 입구에 붙은 구인 광고’ (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규모(사장 제외)는 평균 6.43명임
-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직종)은 ‘식당’ (61.0%), ‘웨딩홀 뷔페 /서빙 /안내/예식 도우미’ (28.9%), ‘전단지 돌리기’ (22.4%), ‘편의점’ (21.5%),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 (11.0%)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함

-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다음 계약서 1부를 받은 비율은 4명 중 1명(24.9%)에 불과하고, 남학생은 27.0%, 여학생은 22.9%이며, 인문계고 학생은 20.0%, 특성화고 학생은 26.1%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매장이나 손님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 합의나 근로계약 여부를 살펴보면, 불합리한 보상이나 합의 계약이 있었다는 응답은 21.2%에 이름
-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55.5%), ‘본인이 필요로 한 비용보다 보호자에게 받는 비용이 부족해서’ (14.0%),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 (11.8%), ‘보호자 도움 없이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겪은 부당대우는 ‘아르바이트를 쉴 때는 대신 근무한 사람을 구해주고 된 적이 있다’ (28.8%),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쉰다는 말을 못하고 근무한 적이 있다’ (27.5%),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대도 사장이나 관리자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근무한 적이 있다’ (26.1%),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22.1%), ‘처음에 약속한 정해진 일 외에 다른 일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19.2%),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17.8%),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13.6%), ‘일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으나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했다’ (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는 ‘폭언, 욕설, 무시, 인격 비하 등이 섞인 말’ (29.2%), ‘손찌검, 발길질 등 신체에 대한 폭력’ (8.3%), ‘근무시간외 톡 지시 등(문자나 톡 등 사용)’ (6.4%),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성적인 혐오나 언행’ (6.0%), ‘직장 내 괴롭힘 (위압적 업무, 부당한 지시 등)’ (5.9%), ‘스토커적인 행동’ (3.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노동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은, ‘바로 일을 그만둬’ 과 ‘참고 견디며 일을 계속함’ (각 29.9%), ‘개인적으로 항의

함’ (10.2%), ‘사장이나 상사에게 말함’ (8.2%), ‘고용노동부에 신고함’ (7.5%), ‘마음은 간절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함’ (6.8%),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 (2.7%), ‘청소년노동인권상담센터에 연락함’ (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동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일 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35.8%),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31.8%),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10.4%), ‘일하는 사업장에 손해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7.0%), ‘다른 일 자리를 구해도 마찬가지로 일을 겪기 때문에’ (6.9%), ‘신고해서 나중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5%), ‘상담이나 신고할 기관을 알지 못해서’ (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피로감과 스트레스’ (29.8%), ‘진상 손님의 욕설, 막말, 갑질 등’ (22.4%), ‘여가 시간 부족’ (20.3%), ‘학업 및 공부에 대한 지장’ (10.0%), ‘사업장내에서 겪는 사장, 매니저, 상사의 괴롭힘이나 욕설 등’ (6.1%), ‘사람들의 무시’ (5.2%), ‘퇴근길 안전에 대한 문제’ (2.3%), ‘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의 희롱이나 막 말, 욕설, 스토킹적인 행위’ (1.6%) 등임
- 아르바이트 구직 시 우선 고려사항은 ‘임금’ (36.8%), ‘근무 환경(안전, 사업장 인원수 등)’ (18.6%), ‘하는 일’ (16.8%), ‘근무 조건(근무 시간, 휴게 시간, 휴일 등)’ (13.2%), ‘적성이나 흥미’ (4.1%), ‘진로나 경력 이용 가능성’ (1.4%) 등인 것으로 파악됨
-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적이 있는 경우는 5.3%임. 코로나 발생 뒤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매우 힘들다’ + ‘좀 힘들다’)는 비율은 60.9%를 기록함
- 노동인권 상담을 할 때 가장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노동인권지원 기관은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32.9%), ‘고용노동부’ (27.5%), ‘학교 상담기관’ (15.0%), ‘경찰서’ (5.4%),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2.9%), ‘전남노동권익센터’ (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제언

(1) 청소년이 목포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는 기반 필요

응답자 및 일반 현황에 대한 통계 수치를 보면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변한 비율이 27.3%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코로나 19가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음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와 일반계고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 인원을 보면 특성화고 가족구성원 중 1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이 27.6%로 인문계고 17.1%에 비해 높게 나타나 현실적인 타격은 특성화고 가구에 더 크게 미쳤을 것이라 짐작 할 수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의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교 졸업 후 목포에서 지속적으로 살 계획이 있는 청소년은 10명 중 3명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특성화고 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진학과 취업에서 목포에 더 거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년을 위한 취업과 일자리, 거주 환경 조성이 정책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 비율에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과 청년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머물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지자체가 청소년과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자리를 어떻게 발굴하고, 만들어내며 이를 청소년과 청년에게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자리 문제로 목포에 거주 계획이 없다고 한 비율도 37.6%에 해당해 자신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다면 지속적인 거주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는 특성화고 졸업 이후 취업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학교와 학생들과 소통하여 그 길을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에서 노동(일)에 대한 다양한 인식 교육 필요

노동(일) 인식 및 평가에서 나타난 통계 수치를 보면 노동하는 이유는 생계유지, 여가문화 생활, 사회의 인정, 자기 발전 및 계발 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노동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육체노동, 단순노동, 힘든 노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미지로는 막노동, 공사장, 노가다, 건설현장 등으로 일반적으로 몸을 사용하는 노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하는 이유는 다양하나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런 인식은 ‘노동자’라는 인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노동자’에 대한 물음에도 막노동, 공사장, 노가다, 외국인 노동자 등을 떠올리는 편향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노동과 노동자에 편향된 시각은 학벌과 학력 중심, 성적 중심 사고와 맞물려 자격 고시를 통과하여 자격증을 획득하여 하는 노동, 이를테면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의 노동은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여 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공고히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청소년들에게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노동’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조례’에 의해 전남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현재 47개 특성화고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각각 연간 2교시에 해당하는 100분의 교육을 하고 있고, 인문계고등학교는 학교의 재량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목포청소년실태조사에서 노동인권교육 수강에 대한 비율을 보니 교육 수강자는 33.2%이고 여학생은 43.0%, 남학생은 24.3%이며 특성화고 학생은 56.2%, 인문계고는 11.8%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과 인천 등의 2018년, 2019년 실태조사 결과와도 비슷한 통계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서울학생노동인권 실태조사 내용 중 노동인권교육 관련한 질문에서 지난 1년간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32.8%이고, 받지 않았다는 응답률을 34.7%로 나타냈으며, 2019년 인천지역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노동인권교육 관련한 질문에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39.8%였으며 특성화고가 69%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지자체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번 목포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74.3%를 나타냈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75%에 달했으며 향후 사회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81%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노동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람의 존엄과 관련되어 노동인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의 높은 인식에 맞게 노동환경 변화 필요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답변을 보면 ‘우리나라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38.8%만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기업을 우선 보호한다는 의견에는 61.9%를 나타냈다.

이는 노동자보다는 기업을 중시하는 정부의 오랜 정책이 학생들의 생각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당연하게 생각한다’에 62.6%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은 비율도 37.4%로 낮지 않은 비율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84.4%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배달 노동이 특수고용노동으로 노동법에서 비껴나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차별과 관련한 노동인권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청소년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고용형태별, 성별, 장애 유무, 국적, 학벌, 나이에 대한 노동 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은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테두리 안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보장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결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법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 노동법 적용,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 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5인미만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상대 우위적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없으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청소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장은 식당, 웨딩홀 뷔페, 전단지 돌리기, 편의점 순으로 근무하는 요일은 금, 토, 일요일로 주말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다. 주5일 근무체계에서 주말에 노동할 수 있는 인력은 아르바이트 청소년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목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현황이다. 즉 주말에 일을 하는 청소년 학생들이 있어서 식당이나 웨딩홀 뷔페, 편의점 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는 야간 노동이나 주말 노동을 하는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들도 일하는 청소년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사용자는 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중 50%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본인이 교부 받은 비율은 4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나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불필요한 형식처럼 치부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거의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러한 행태는 사라지는데 이에 대한 처벌이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서 경험한 부당대우는 ‘아르바이트 쉴 때는 대신 근무한 사람을 구해주고 쉰 적이 있다.’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쉰다는 말을 못하고 근무한 적이 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데도 사장이나 관리자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근무한 적이 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부당대우는 모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경험한 인권침해에는 폭언, 욕설, 무시, 인격비하 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은 손님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손님에게 당하는 일상적인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듯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직접 대면하는 손님에 의해 당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는 시민들의 자성과 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로의 변화를 통해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쉬는 날이나 휴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명한다.
-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가능한 시급에 합산하여 계산하여 주는 것이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이다.
-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한다.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하며, 사업주는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는 그 자체가 무효이다.
- 폭언, 욕설, 무시, 인격 비하, 진상 손님, 욕설 막말, 갑질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가장 크게 느끼는 인권침해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과 행동 근절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에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 노동부와 지자체는 일상적으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 활동을 모색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사회의 중요한 경제활동 담당자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 활동 모색

일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우리 사회의 지원에 대한 질문에서 4대 보험을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38.4%였고,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안전 시스템 지원이 21.9%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12.9%였다.

일하는 청소년에게 4대 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학생이 4대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용자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며, 아르바이트 청소년도 4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4대 보험은 자기 부담과 사용자 부담이 1:1 정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4대 보험이 국가 지원이 된다면 아르바이트 청소년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하는 청소년의 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 활동으로는 사업장 내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 홍보물 게첩이나 손님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로 인한 노동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는 청소년 안심 일자리 인증 사업장을 선정한다거나,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하며 노동인권이 보호되는 사업장을 발굴하여 점차 더 많은 사업장으로 확대해가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일하는 청소년은 자신들의 권리 확보 및 더 나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스스로 활동성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코로나 19속에서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특성화고 학생의 35%, 인문계고 학생의 10%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는데 이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노동자 인식을 가져야 하며, 자신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조직하는 방법 등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6)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가 학생 ·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다.

직업계고 고민의 1순위는 일자리, 2순위는 진학, 3순위는 진로의 불투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인문계고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직업계고는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고에서 현장실습이라는 과목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고, 현장실습이 중요한 요소로 각인 되어 왔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직업계고 학생들도 기업체 현장실습에 대해 89.3%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현장실습 교육의 형태에 대한 답변에서는 1) 기업 현장실습과 학교 실습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2) 전공과에 맞는 현장실습실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3) 기업에서 배우는 현장실습이 현재처럼 진행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나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현장실습이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9.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기업에서 배우는 현장실습이 지금처럼 진행해야 한다는 동의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이는 학생들이 현장실습교육과 기업체에 파견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직업계고 학생으로서 기업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하는 현장실습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처럼 노동을 제공하는 학습근로자로서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동의 비율이 매우 낮다.

지난 50여 년 동안 유지된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문제는 명백하지만 현장실습의 이름으로 저임금 노동, 위험한 노동, 밑바닥 노동이 학생들을 옥아맨 것은 명백하다. 명분은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과의 연결이었고, 현장실습을 취업 연결 고리로 삼아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교육제도의 하나로 인식되온 현장실습에 학생인권, 노동인권은 설자리가 없었다. 그렇게 유지해온 현장실습 제도로 인해 학생들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업계고 3학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3학년 교육과정에서 11월까지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11월 중순 이후 취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체험학습, 기업 오리엔테이션 등이 전국 직업계고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졸업 시기에 맞춰 진학과 취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취업지원관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년, 2021년 목포 특성화고 실태조사 결과 비교

□ 실태조사 결과 비교 내용

- 2018년에는 목포지역 직업계고 학생 496명이 참여하는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21년에는 인문계고 500명, 특성화고 463명이 참여한 실태조사를 하였음. 다만 2018년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와 비교하기 위해 2021년 특성화고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한 463명의 답변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실태조사 설문 중 유사한 질문을 뽑아 결과를 비교해 보기로 함
- 2018년 설문은 세 가지 주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평가 및 요구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내용으로 총 16개의 질문이었으나 2021년 설문은 세 가지 주제 현장실습, 노동인권,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내용으로 총 36개 질문과 관련된 소질문으로 구성되어 2021년 설문이 더 넓고 정교하게 구성되었음
-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필요성에 대해 2018년에는 ‘매우 필요하다’ (62.3%), ‘필요하다’ (35.1%), ‘필요없다’ (2.6%) 로 나타남
- 2021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33.6%), ‘필요하다’ (41.6%), ‘그저 그렇다’ (24.6%), ‘필요하지 않다’ (0.2%)로 나타남
-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의 사회생활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2018년에는 ‘매우 그렇다’ (58.7%), ‘그렇다’ (38.9%), ‘그렇지않다’ (2.4%), 로 나타남
- 2021년에는 노동인권 교육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답변한 비율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66.0%)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 (15.%), ‘그저 그렇다’ (14.8%), ‘도움이 되지 않는다’ (4.0%)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경험(과거 또는 현재진행도 포함)과 관련해서 2018년에는 496명 중 266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여 53.8%로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었으나 2021년에는 38.4%로 463명 중 178명 이 경험

이 있다고 답변하여 세 명 중 한 명 이상의 비율을 보임

-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59.2%, 2021년에는 50.0%로 나타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50% 정도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
-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체 순으로 보면 (중복답변 가능) 2018년에는 음식점, 편의점, 웨딩홀 뷔페, 전단지돌리기 순이었고 2021년에는 음식점, 웨딩홀 뷔페, 전단지 돌리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순으로 나타나 학생의 아르바이트 사업체가 크게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음
- 최저시급 이상 수령 비율은 2018년에는 72.4%였는데 2021년에는 80.9%로 나타나 최저시급 이상 수령자가 증가한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최저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도 20%에 이르고 있음

제 4 장

부 록

설문지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설문지

2021년 목포지역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주관 :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 061-279-1350

HP: 010-4001-4772

안녕하십니까?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입니다.

이 실태조사는 목포 청소년들의 일, 노동에 대한 평상시의 인식과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인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목포시의 청소년노동인권 정책을 수립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답 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분 류 (번호)

--	--	--	--

■ 성 별 : ☐ 남 ☐ 여 나 이 : 만 세

■ 살고 있는 지역 : 시(군) 동(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현황에 대한 질문

1. 같이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① 1인 가구 (나 혼자 생활함) ② 2인 가구 ③ 3인 가구 ④ 4인 가구
 ⑤ 5인 가구 ⑥ 복지시설 거주 ⑦ 반려동물 (같이 사는 경우 중복 체크함)
2. 가구(나를 포함하여)를 돌보는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① 보호자 [☐ 조부모 ☐ 부모님 ☐ 친척(삼촌, 이모, 고모 등)]
 ② 복지시설 ③ 내가 가족을 돌보고 있다 (명)
3. 가족 구성원 중 (나는 제외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의 수는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없다.
4. 가구 구성원 중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월 수입(모든 수입을 합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제대로 알고 있다. ② 대충 알고 있다. ③ 모른다.
5. 코로나 19가 귀하 가정의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가 직장을 잃어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②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의 수입이 감소하여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③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의 수입이 증가해서 가정형편이 더 나아졌다.
 ④ 경제 활동에 영향이 없어 가정형편에 변화가 없다.
6. 귀하가 사용하는 월 생활비는 얼마 정도인가요?
 (저축, 학교 교재비, 교통비 등은 제외하고 문화생활, 친목 등의 생활비)
 ① 100,000원 이하 ② 100,000원~150,000원 ③ 150,000원~200,000원
 ④ 200,000원~250,000원 ⑤ 250,000원~300,000원 ⑥ 300,000원 이상
7.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목포에서 계속 살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7-1번으로 이동)
- 7-1. 귀하가 목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생활 지역을 옮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진학 문제 ② 일자리 문제 ③ 독립하고 싶어서 ④ 기타

A4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보다 기업을 우선 보호하는 나라이다.					
3) 우리나라는 정규직 노동자와 견주어 비정규 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4) 우리나라는 남성 노동자에 견주어 여성노동 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5) 우리나라는 성인 노동자에 견주어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6) 우리나라는 자국민 노동자에 견주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7) 우리나라는 비장애인에 견주어 장애인노동자 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8) 우리사회는 학벌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 한다.					
9)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당연 하다고 생각한다.					
10) 플랫폼노동(대리운전, 킥서비스, 택배 노동 등)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 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1) 대중교통 기사, 학교 조리사, 마트 노동자 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불편을 참을 수 있다.					
1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연장, 유급 휴가 등에 가산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한다.					
13) 근로자라는 말과 노동자라는 말은 서로 의미와 뜻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르다		같다.		
14) 일 하는 사람에게 근로자와 노동자 중 어 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하 신가요?	근로자		노동자		

C4 귀하를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가장 먼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4대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 보험)
- ② 일을 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 시스템
- ③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 ④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해소
- 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
- ⑥ 기타

C5. 귀하가 생각하는 마땅한 일자리는 어떤 조건의 일자리입니까?

◆ 현장실습과 진로에 대한 질문 (해당되는 분만 답해주십시오)

D1. 귀하는 학교 졸업 전까지 몇 종의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까?

현재까지 취득한 자격증 () 종, 앞으로 취득 예정 자격증 () 종

D2. 귀하는 기업으로 나가는 현장실습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지 않다.

D3 귀하는 현장실습 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공과에 맞는 현장실습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 ② 기업에서 배우는 현장실습이 현재처럼 진행되어야 한다.
- ③ 기업 현장실습과 학교 현장실습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 ④ 전공과에 맞는 기업에서만 현장실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기타 ()

D4 귀하의 진로와 관련하여 내년도에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 ① 대학 진학 ② 공무원, 공사 입사 또는 시험 응시 ③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 ④ 일반 기업 입사 또는 응시 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학원 등록 ⑥ 자유로운 시간 보내기
- ⑦ 기타 ()

◆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해 본적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분만 답변해주세요)

E1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만 나이로 계산해서)는 언제인가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와주는 형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은 시기)

- ① 만13세~만15세 (☐13세 ☐14세 ☐15세) ☐ 3~5월 ☐ 6~8월 ☐ 9~11월 ☐ 12월 ~ 다음해 2월
 ② 만16세~만18세 (☐16세 ☐17세 ☐18세) ☐ 3~5월 ☐ 6~8월 ☐ 9~11월 ☐ 12월 ~ 다음해 2월

E2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기간 (월별로 모두 표시)과 시급 수령 금액에 표시해 주십시오

가. 2018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① 7,530원 이상 (최저시급) ② 7,000원 이상 ~ 7,530원미만 ③ 6,500원 이상 ~ 7,000 미만
 ④ 6,000원 이상 ~ 6,500원 미만 ⑤ 5,500원 이상 ~ 6,000원 미만 ⑥ 5,000원 이상 ~ 5,500원미만
 ⑦ 5,000원 미만

나. 2019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① 8,350원 이상(최저시급) ② 7,800원 이상 ~ 8,350원 미만 ③ 7,300원 이상 ~ 7,800원 미만
 ④ 6,800원 이상 ~ 7,300원 미만 ⑤ 6,300원 이상 ~ 6,800원 미만 ⑥ 5,800원 이상 ~ 6,300원 미만
 ⑦ 5,000원 이상 ~ 5,800원 미만 ⑧ 5,000원 미만

다. 2020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① 8,590원 이상(최저시급) ② 8,000원 이상 ~ 8,590원 미만 ③ 7,500원 이상 ~ 8,000원 미만
 ④ 7,000원 이상 ~ 7,500원 미만 ⑤ 6,500원 이상 ~ 7,000원 미만 ⑥ 6,000원 이상 ~ 6,500원 미만
 ⑦ 5,500원 이상 ~ 6,000원 미만 ⑧ 5,000원 이상 ~ 5,500원 미만 ⑨ 5,000원 미만

라.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현재)

- ① 8,720원 이상 ② 8,200원 이상 ~ 8,720원 미만 ③ 7,700원 이상 ~ 8,200원 미만
 ④ 7,200원 이상 ~ 7,700원 미만 ⑤ 6,700원 이상 ~ 7,200원 미만 ⑥ 6,200원 이상 ~ 6,700원 미만
 ⑦ 6,200원 이상 ~ 6,700원 미만 ⑧ 5,700원 이상 ~ 6,200원 미만
 ⑨ 5,000원 이상 ~ 5,700원 미만 ⑩ 5,000원 미만

E3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요일과 일 한 시간을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월요일 (시부터 ~시까지) ② 화요일 (시부터 ~시까지)
 ③ 수요일 (시부터 ~시까지) ④ 목요일 (시부터 ~시까지)
 ⑤ 금요일 (시부터 ~시까지) ⑥ 토요일 (시부터 ~시까지)
 ⑦ 일요일 (시부터 ~시까지)

E4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서 일주일 동안(월 ~ 일요일) 일 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시간 미만 ② 1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③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④ 20시간 이상 ~ 25시간 미만 ⑤ 2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⑥ 30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⑦ 3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⑧ 4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⑨ 50시간 이상

E5 현재까지 몇 번 정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서 일을 했습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6회 ⑦ 7회 이상

E6 귀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 ① 앱 사이트(알바천국 등) ② 종이 광고 (지역 정보지) ③ 친구 소개 ④ 가족, 친인척 소개
⑤ 학교 관계자 소개 ⑥ 가게 입구에 붙은 구인광고 ⑦ 워크넷(고용노동부 취업사이트)
⑧ 직업소개소 ⑨ 기타 ()

E7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의 직원(사장님은 제외)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 명)

E8 귀하가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목과,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종목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붙이기 포함) | ② 편의점 |
| ③ 식당 (고기집, 백반집, 횡집 등) | ④ 주유소(주유, 세차 등) |
| ⑤ 웨딩홀 뷔페 /서빙 /안내 /예식 도우미 | ⑥ 카페, 커피숍 |
| ⑦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 (피자, 치킨,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샌드위치 등) | |
| ⑧ 판매 (옷 가게, 악세사리 가게, 화장품 가게 등) | ⑨ 미용업 (미용실, 손톱 손질 등) |
| ⑩ 배달 (라이더) ⑪ 택배 (물건 분류 / 물건 나르기) | ⑪ 건설현장 (짐나르기, 심부름 등) |
| ⑫ 이삿짐 센터 (짐 정리, 포장, 나르기) | ⑬ 이벤트 행사 도우미 |
| ⑭ 포차 (포차, 호프집, 소주방 등) | ⑮ 마트 |
| ⑯ 공공기관(학교, 주민센터, 도서관 등) | ⑰ 기타 |

E9 일을 시작할 때 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문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②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했으나 계약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음
③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은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받지 못했음
④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다음 계약서 1부를 받았음.
⑤ 구두로 계약 조건을 약속함. ⑥ 기타

E10 귀하는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매장이나 손님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때, 혹은 물건 개수나 계산 결과가 안 맞으면 보상해야한다는 등의 구두합의나 근로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물질적 손실에 대해 보상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적이 있다.
②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한 부는 피해 보상을 하기로 작성한 적이 있다.
③ 구두 합의나 근로계약서는 없었으나 사장님이 물질적 피해를 요구해서 물어준 적이 있다.
④ 없다.

E11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적으로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신발, 의류 등 물품구입)
② 보호자 도움 없이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
③ 본인이 필요로 한 비용보다 보호자에게 받는 비용이 부족해서
④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
⑤ 가정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⑥ 진로를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⑦ 기타

E12 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부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예	아니오
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②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③ 처음에 약속한 정해진 일 외에 다른 일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④ 일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으나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했다.		
⑤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⑥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대도 사장이나 관리자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근무한 적이 있다.		
⑦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쉰다는 말을 못하고 근무한 적이 있다.		
⑧ 아르바이트를 쉴 때는 대신 근무한 사람을 구해주고 쉰 적이 있다.		

E12 -1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귀하는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누군가에게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사장, 사장 관련 가족	상사, 선배, 동료 등	손님	없음
① 폭언, 욕설, 무시, 인격 비하 등이 섞인 말				
② 손찌검, 발길질 등 신체에 대한 폭력				
③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성적인 혐오나 언행				
④ 직장 내 괴롭힘 (위압적 업무, 부당한 지시 등)				
⑤ 근무시간외 톡 지시 등 (문자나 톡 등 사용)				
⑥ 스토크적인 행동				

E13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 했습니까?

- ① 바로 일을 그만둠 ② 참고 견디며 일을 계속함 ③ 개인적으로 항의함
 ④ 선생님과 상담함. ⑤ 사장이나 상사에게 말함. ⑥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
 ⑦ 고용노동부에 신고함 ⑧ 경찰에 신고함 ⑨ 청소년노동인권상담센터에 연락함
 ⑩ 마음은 간절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함 ⑪ 해당사항 없음, 기타()

E14 일하면서 당하는 노동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②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③ 다른 일자리를 구해도 마찬가지로 일을 겪기 때문에 ④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⑤ 상담이나 신고할 기관을 알지 못해서 ⑥ 신고해서 나중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⑦ 일하는 사업장에 손해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⑧ 해당사항 없음, 기타 ()

조례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 2016. 8. 22.]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043호, 2016. 8. 22., 제정]

전라남도 목포시(지역경제과), 270-8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③ 시장은 목포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 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5.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6.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7.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 ① 시장은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제6조의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청소년이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한다.
-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회 구성은 목포시 청소년노동 업무담당, 목포시의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목포시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 목포지역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발 행 인 양현주

발 행 처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주 소 전라남도 목포시 부흥로 103 관송빌딩 5층(58685)

전 화 061-279-1350 휴대폰 010-4001-4772

홈 페이지 <http://www.my2791350.kr>

통 계 분 석 오창민(협동조합 정향)

발 행 일 2021년 12월



목포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지원 상담전화
tel. (061) 279-1350 H·P 010-4001-4772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